

金 浦 의 人 物

조 선 시 대

강 선 (姜 銑) 인조 23년 (1645) ~ 숙종 36년 (1710)

조선조 문신, 자는 자화(子和), 본관은 진주(晋州),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백년(柏年)의 아들.

숙종 1년(1675)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부수찬(副修撰), 정언(正言)을 지내고 숙종 6년(1680) 지평(持平),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삭직, 숙종 14년(1688) 김포군수(金浦郡守)에 임명되고 이듬해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판결사(判決事)·동부승지(同副承旨)를 역임, 숙종 25년(1699) 형조판서,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국에 사행, 도승지를 거쳐 숙종 31년(1705) 강원도 관찰사·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역임했고 숙종 34년(1708)에 다시 도승지가 되었다.

▶ 문헌 : <肅宗實錄>, <韓國人名大事典>

강 위 빙 (姜 渭聘) 선조 2년 (1569) ~ 인조 15년 (163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진주, 자 백상(伯尙), 시호 충렬(忠烈).

선조 36년(1603)에 성균관에 입학한 후 재행(才行)으로써 천거되어 희릉참봉(禧陵參奉)이 되고, 종묘서봉사(宗廟署奉事)와 순안현령(順安縣令)을 지내고, 광해군(光海君) 때 여러 번 내외직에 있었으나, 국정이 문란함을 한탄하여 사퇴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익찬(翼贊)·사어(司禦)·청풍군수(淸風郡守) 등을 역임하였으며,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들어가 봉림대군(鳳

林大君) 밑에서 군사를 모아 수성(守城)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적병이 강을 건너오자 처조카인 이돈오(李惇五)와 윤전(尹焮)·송시영(宋時榮)·이시직(李時稷) 등과 같이 사생(死生)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자 강위빙은 적병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적병이 칼날을 들이대며 항복시키려 하였으나 위빙은 분연히 꾸짖기를 “내 머리는 끊을지언정 무릎은 굽힐 수 없다.”하니 적병이 그의 혀를 끊어서 죽였다. 또한 이돈오 등도 모두 함께 죽었으니, 다섯 사람이 마침내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은 셈이 되었다. 후에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으며, 순조 때 다시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강화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묘소와 정려는 김포시 풍무동에 있었으나 정려는 현존치 않는다.

저서인 <혜국지(惠局志)>는 규장각 도서로 전해지는 필사본으로, 조선 초기부터 혜민서를 두고 의약을 맡게 하여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했으나 여러 차례의 병란(兵亂)을 거치게 되어 이를 고증할 만한 문헌이 남지 않아서 숙종 45년(1719) 제학(提學) 조태구(趙泰耆)가 낭관(郎官) 강위빙(姜渭聘)에게 권하여 저술한 책이다. 그 후 영조 23년(1747)에 변태항(卞泰恒)의 아버지가 다듬은 다음, 정조 2년(1778)에 변태항 등이 다시 손을 대어 고쳤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혜국지>는 1874년 강위빙의 6대손 강해수(姜海秀)가 등사(謄寫)하여 자신의 집에 간직했던 책이다. 책 서두에는 이 같은 사정을 알려주는 3인의 서(序)·지(識)가 있고, 목록이 있다. 혜민서의 연혁과 식렬(式列)·지공(支供)·고과(考課) 등 운용에 관한 참고자료이다.

▶ 저서 : 惠局志

공 규 (公 珪) 연산군 7년 (150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김포. 자 덕장(德璋), 자유(子由)의 아들이다.

중종 16년(152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그 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종9품의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에 등용되었다. 이어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역임하고 정6품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이르렀다. 거의 청환직으로 관료생활을 하였으며, 시문(詩文)에도 이름을 떨쳤다.

▶ 문헌 : <國朝榜目>, <韓國人名大事典>

권 공 (權 恭)

정헌공계 부윤 숙(肅)의 손자, 화산부원군 복(復)의 셋째 아들로 자는 경천(敬天)이다.

태종의 12녀 숙근옹주(淑謹翁主)의 부마가 되어 광덕화천위(光德化川尉)로서 좌익공신(翼功臣)의 호를 받고, 사후(死後)에 양효(襄孝)의 시호를 받았다.

생졸년을 알수 없으나 묘소는 서울 구로구 궁동(宮洞)의 고재동(高才洞)에 있으며, 옹주의 묘가 위에 있는 상하 연분이다. 후사에 안천군(安川君) 팽(彭)이 있다.

권 근 중 (權勤中) 선조 19년 (1586)~ 효종 1년 (1650)

정헌공계 화산부원군파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5남 예조판서 협(挾)의 다섯째 아들이다. 자는 여정(旅情)이다.

인조 14년(1636)년 병자에 처음 벼슬길에 나가 회인현감(懷仁縣監)을 역임하고 세자의위사사어(世子翊衛司司駟)에 이르렀다.

공은 성품이 효우하고 돈후하였는데 부모의 상사(喪事) 때 공히 어묘살이를 하였다. 사후에 선무원종공신으로서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그리고 뒤에 아들 영의정 대운(大運)이 귀히 됨에 따라 영의정으로 가증되었다.

권 기 언 (權基彦) 숙종 20년 (1694)~ 영조 30년 (1754)

자는 사회(士恢)이고 호는 죽오(竹塢)이며 정헌공계 화산부원군파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후손이다. 충정공 휘 협(挾)의 6대손이며 위 대식(大式)의 현손이요 증승지(贈承旨) 세창(世昌)의 아들이다.

영조 3년(1727)에 34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필선(弼善)에 이르렀다. 공은 현릉원(顯隆園 : 사후의 사도세자를 이름, 그 무덤이 현릉원임)이 세자일 때에 매양 강연(講筵)을 받들었다. 영조 30년(1754)에 졸하였는데 생전의 효행으로써 부제학에 추증되었다.

배위인 증숙부인(贈淑夫人) 창녕성씨(昌寧成氏)는 진사 필(秘)의 딸이며 묘소는 서울 구로구(九老區) 궁동(宮洞) 선영의 오른쪽 산마루에 임좌(壬坐)로 합장되어 있다.

권 대 경 (權大慶) 선조 (1603)~현종 10년 (1669)

자는 자선(子善), 호는 고산공(孤山公),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맏아들 휘수의 손자다. 세마(洗馬) 불사(不仕)하였다. 묘는 고조비(高祖妣) 고령신씨 묘전(墓前)에 있다.

권 대 운 (權大運) 광해군 4년 (1612)~숙종 25년 (1699)

조선 문신, 자는 시회(詩會), 호는 석담(石潭), 본관은 안동(安東), 판서 협(愷)의 손, 사어(司禦) 근중(謹中)의 아들.

인조 20년(1642) 진사가 되고 인조 27년(1649)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언이 되었다. 이후 지평(持平)·헌납(獻納)·이조정랑·응교·사간 등의 청요직을 거쳐 승지(承旨)가 되었다. 이후 형조·병조·예조의 참의(參議)와 좌승지(左承旨)·통진현감(通津縣監) 등을 지내고, 현종 7년(1666)에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이어 대사관·함경도관찰사를 거쳐 현종 11년(1670) 호조판서로 발탁되었으며, 그 뒤 형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이 되고 찬의금부사를 겸임하게 되었다.

현종 15년(1674) 예조판서가 되고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낸 뒤, 숙종 6년(1680)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되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영일(迎日)에 부처(付處)된 뒤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다가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南人)이 재집권하자 다시 등용되어 영의정에 올랐다.

이 때 그는 유배 중인 서인(西人)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을 사사(賜死)케 하는 한편 서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계속했다. 궤장(几杖)을 하사 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그러나 숙종 20년(1694)에 남인이 숙종의 폐비인 민씨(閔氏)의 복위 운동을 일으킨 소론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폐비사건을 후회하고 있던 숙종의 미움을 받아 화를 당하게 되는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삭출(削黜)당한 뒤 절도(絶島)에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전리(田里)에 방귀(放歸)되었다.

과격파 남인으로 당쟁에 휘말렸으나 생활이 검소하고 청렴하여 명망이 높았는데, 죽고 난 뒤 왕의 특명으로 직첩이 환급되었다.

묘소는 큰 상석(床石)뿐 묘비와 신도비가 없다. 일체의 현각(顯刻)한 것이 없는 것은 당쟁과 사화(士禍)로 인한 후환을 염려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하고 심지어 봉분이 전후분으로 된 것이 그 중 하나는 허봉(虛封)이라는 설까지 있다. 또 일설에는 묘갈과 신도비를 배로 싣고 오다가 사세(事勢)가 불리해서 바다에 수장(水葬)했다고도 하는데 이같은 속설들은 당시의 당쟁·사화를 짐작케 한다.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樊巖集>, <韓國人名大事典>, <通津縣先生案>, <國朝文科榜目>

권 대 윤 (權大胤) 광해군 (1615)~숙종 19년 (1693)

자는 자술(子述)로 정헌공계 화산부원군 복의 후손이며,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증손이요, 감찰 휘 정중(正中)의 계자로, 생부는 증 영의정 근중(謹中)이다.

현종 3년(1662)에 음보로 감역(監役)·위술(衛率)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용인

(龍仁)·포천(泡川)·재령(載寧)·안성(安城)의 수령을 지내고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차되어 도정(都正)에 이르렀다. 사후(死後)에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배위는 정부인 단양우씨이며 묘는 부천 계남면에 있다.

권 대 임 (權大任) 선조 28년 (1595)~인조 23년 (1645)

자는 홍보(弘輔)로 정헌공의 증손 화산부원군 복(復)의 후손으로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증손이며 예조 판서 석당(石塘) 협의 손자이고, 사어(司馭) 근중(謹中)의 아들이다.

공은 선조의 7녀 정선옹주(貞善翁主)와 결혼하여 길성위(吉成慰)로 봉해졌고, 인조 2년(1624)년 갑자에 이괄(李适)이 반정공신(反正功臣)에 대한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을 때, 왕을 호가(扈駕)하여 공주(公州)로 갔는데 그 공으로 길성군(吉成君)에 책봉되었다.

그 후 인조 23년에 공이 졸하니, 부마의 부음을 들은 왕은 철조(撤朝)하여 조부하고, 수록대부(綏錄大夫)에 추증하였다. 특히 공은 당대의 서예가로 이름이 높았다.

권 대 재 (權大載) 광해군 12년 (1620)~?

자는 중거(仲車), 호는 소천(蘇川)·돈간재(敦艮齋)·용문산인(龍門山人)이고 정헌공의 증손 화산부원군 복(復)의 후손이요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증손

이며 진사 위중(偉中)의 아들이다.

효종 4년(1653) 계사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에 등용되었다가 당후가관(堂後假官)을 지냈다. 효종 9년(1658)에 문과중시(文科重試)에서 병과로 급제, 전적(典籍)·병조좌랑(兵曹佐郎)·창평현감(昌平縣監)·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공주현감(公州縣監)·대구판관 등을 역임하고, 숙종 즉위 초에 형조참의(刑曹參議)·승지(承旨)를 거쳐 경상도 순무사(巡撫使)·전라도 관찰사·대사간·대사헌 등을 거쳤다.

숙종 5년(1679)에 송시열(宋時烈)을 엄중 처벌하려다가 준격(峻激)한 논의로 혼란을 조성한다 하여 광주(光州)로 유배되고, 이듬해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영변(寧邊)으로 다시 이배되었다가, 숙종 9년(1683)에 몽유(蒙宥)되어 돌아왔다.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다시 등용되어 제학을 거쳐 호조판서에 이른 뒤, 그 해 4월에 향년 70세로 졸하였다.

공은 생전에 종형인 영의정 대운(大運)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여 남인·서인의 정권 다툼 결과에 따라 부침과 영욕을 겪었으며, 임종 때에 종형 대운에게 소청하여 임금의 폐비사건을 간하게 하는 등 평생토록 강직한 기절을 지선(至善)으로 여기어 실천하였는데 역행(力行)하였다. 그림에 능하고,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 저서 : 讀易手筭, 中庸辨疑, 史林評要, 南爲錄, 光山錄, 龍門錄, 草山錄

권 덕 규 (權惠奎) 고종 27년 (1890)~1950

국어학자, 사학자, 호는 애류(崖溜), 김포 출신이다.

1. 생 애

1913년 휘문의숙(徽文義塾)을 졸업, 한글학자 주시경(周時經)의 지도를 받아 한글 보급 운동에 헌신했다. 휘문, 중앙, 중동, 이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국어 및 국사를 가르쳤고, 1921년에는 조선어연구회(朝鮮語研究會 : 한글학회 전신) 창립을 발기,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을 통하여 국어운동을 전개했다. 1927년에는 이병기(李秉岐) 등과 동인지(同人誌) <한글>을 발간했다.

1931년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로 재편되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업에 참여, 1933년 마침내 그 완성을 보게 되었다. 1934년에는 진단학회(震檀學會) 창립에 관여했고, 1936년부터는 <큰사전> 편찬위원으로 일하면서 맞춤법, 표준어 연구 등 국어연구에 공헌했다. 1942년 일제(日帝)가 조작한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체포되었으나 신병으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2. 활동 및 업적

(1) 조선어연구회

선구적 한글학자인 주시경(周時經)의 영향을 받은 임경재(任璟宰), 최두선(崔斗善), 이규방(李奎昉), 권덕규(權惠奎), 장지영(張志映),申明균(申明均), 이상춘(李常春), 김윤경(金允經), 이승규(李昇圭) 등 15, 16명이 1921년 12월 3일 휘문의숙에서 국어의 정확한 법리(法理)를 연구할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간사장은 임정재, 간사는 장지영·최두선이었다. 역사상 최초의 국어연구학회로 학문연구뿐 아니라 주시경의 학문과 정신을 이어 말과 글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단체는 1908년 8월 31일 주시경·김정진 등을 중심으로 우리말과 글의 연구·통일·발전을 목표로 조직된 국어연구학회를 모체로 하여 탄생하였다.

국어연구학회는 1911년 9월 3일 ‘배달말·글모음’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3년 3월 23일 ‘한글모’로 개칭하였다가 1921년 조선어연구회로 변경·조직되었다. 1931년 1월 10일에는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고쳤다가 1949년 9월 25일 이후 한글학회로 정해져 오늘에 이른다.

1926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였는데 지금의 한글날에 해당한다. 1927년 2월부터는 기관지 <한글>을 간행하여 한글의 보급과 선전에 힘썼으나 재정난과 일제의 탄압으로 1928년 10월 제9호를 내고 휴간하였다가 1932년 속간되어 오늘에 이른다. 1931년부터 한글강습을 시작해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1933년 10월 29일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발표하였다.

1936년 표준말의 정리와 체계를 세워 사정(査定)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였고, 1940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발표하여 혼란된 표기 현상을 통일하였다. 1942년 10월 일제는 이른바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켜 회원 33명을 반일(反日)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하여 8·15광복 때까지 학회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8·15광복 후 조선어학회는 ‘한글학회’로 이름을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한글>誌

조선어연구회는 우리말의 정확한 법리를 연구하여 우리 민족문화발전에 공헌

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창립된 것인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매월 월례발표회(月例發表會)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에 연구된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구 증진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 토론도 전개하면서 우리의 어문연구에 이바지하였다.

그들은 회칙에서 밝힌 사업을 추진하고자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를 개최하고 회칙에 따라 회보(會報)를 발행하였다. 이때 발행된 <한글>지(誌)는 1927년 2월 10일 국어국문 연구사상 처음으로 발간되어 그 의의는 참으로 컸다.

<한글>지의 창간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첨 내는 말,

<한글>이 나왔다. <한글>이 나왔다. 훈민정음의 아들로 나왔으며 삼천 삼백 만 민중의 동무로 나왔다. 조선말이란 광야의 황무지를 개척하며 조선글(한글)이란 보기(寶器)의 묵은 녹을 벗기며 조선문학의 정로(正路)가 되며 조선문화의 원동력이 되어 조선이란 큰 집의 터전을 닦으며 주초(柱礎)를 놓기 위하여 병인(丙寅) 이듬해 정묘년(丁卯年) 벽두에 나왔다 … 갓난아이인 <한글>의 힘은 적으나 그 할 일인즉 크도다. 아득한 속에서 묵은 옛말을 찾으며 어지러운 가운데서 바른 학리(學理) 법칙을 찾으며, 밖으로 세계어문(世界語文)을 참작하며 안으로 우리말과 글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어의 사정(査定)을 꾀하며 완전한 문법의 성립을 베풀며 훌륭한 자전(字典)의 실현을 뜻하니 그 할 일이 어찌 끔찍하지 아니한가”

이와 같이 미개척분야로 남아 연구되지 않은 우리말을 연구하여 우리 문화의 원동력을 밝힐 것이며 세계어문을 참작하여 세계적 수준에서 우리의 말을 연구

하여 표준어를 제정하고 문법과 사전을 만들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창간사에서는 “조선문화수(朝鮮文化樹)의 지엽(枝葉)은 과학·종교·예술·정치·경제·도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을 의탁할 토대는 말과 글이다. 잘 갈고 닦아서 조선문화수(朝鮮文化樹)의 영원한 발달의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니 그 이상이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라면서 학술지를 발간하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한글>은 “불행하게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물질적 힘이 풍부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앞날이 그리 평탄하지 못할 것을 미리 짐작하면서도 <한글> 잡지를 내는 동인(同人)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희생적인 정신으로 맹약하고 조선문화수를 재배하기에 노력한 것이니 우리 민족 남녀노소 모두가 우리 <한글>의 애호자가 되면 <한글>의 발육은 순탄할 것이고 온 겨레의 헌신적인 후원을 바라면서 그렇게 해야 잡지가 바로 자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3) 한글맞춤법 통일안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공표한 국어정서법 통일안으로, 1948년 공식적으로 채택한 뒤 한국 정서법의 법전이 되었다.

1) 제정 경위

한글맞춤법은 주시경(周時經)에 의하여 개척되었고 주로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발전된 국어 연구의 결실로서, 1930년 12월 13일 조선어학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권덕규(權應奎)·김윤경(金允經)·박현식(朴賢植)·신명균(申明均)·이병기(李秉岐)·이희승(李熙昇)·이윤재(李允宰)·장지영(張志暎)·정인승(鄭寅承)·최현배(崔鉉培) 등 위원 12명이 2

년 동안 심의를 거듭한 결과 32년 12월 원안을 완성하였다.

다시 김선기(金善琪) · 이갑(李鉉) · 이세정(李世楨) · 이탁(李鐸) 등 위원 6인을 더 뽑아 같은 해 12월 개성(開城)에서 원안을 축조(逐條) 심의하여 제1독회를 마치고, 수정위원으로 권덕규 · 김선기 · 김윤경 · 신명균 · 이희승 · 이운재 · 장지영 · 정인승 · 최현배 등 10인을 선출하였다.

그 후 6개월만에 화계사(華溪寺)에서 그 수정안을 재검토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하여 정리위원 9명(권덕규 · 김선기 · 신명균 · 이희승 · 이운재 · 정인승 · 최현배 등)에게 마지막 정리를 하게 한 뒤 1933년 10월 19일 조선어학회 임시총회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 내 용

구성 : 총론 3항, 각론 7장 63항, 부록 1 · 2로 이루어져 있다. 총론에서는 표준어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현재 서울의 중류사회에서 쓰는 말로써 한다는 규정과, 맞춤법의 원칙으로 표음주의(表音主義)를 취하되 어법(語法)에 맞도록 쓴다는 규정, 단어는 띄어쓴다는 규정을 들었다. 각론에서는 각 장에 자모(字母) · 성음(聲音) · 문법 · 한자어 · 준말 · 외래어 표기 · 띄어쓰기의 제규정을 각 항의 조문(條文)과 함께 예를 열거하였다. 또 ‘부록 2’에서는 부호 사용법을 설명하였다.

- 문자체계 :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의 실질적 개혁으로는 그 당시까지 써 오던 ‘.’를 폐기한 것으로 이는 이미 지식영(池錫永)의 <신정국문(新訂國文)>에 나타나 있다. 또 된소리 표기에서도 18~19세기에 이르러 ‘慣 · 營 · 館 · 适’과 ‘畝’으로 일반화되었던 것을 각자병서(各自竝書) ‘ㄱ · ㄷ · ㅂ · ㅅ · ㅈ’으로 표기하게 하였다. 이는

주시경의 주장에서 연유한 것으로 15세기 표기법으로의 진정한 복고(復古)라고 믿고 있었다.

이런 점을 제외하면 통일안의 문자체계는 대체로 종래의 관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곧, ‘ㅇ’이 그 위치에 따라 음가(音價)를 달리하는 점, 또는 ‘ㄴ · ㄷ · ㄴ’ 등이 18~19세기 교체기 이전까지 글자구조 그대로의 이중모음(二重母音)이었으나 그 이후 단모음화(單母音化)하여 [æ · e · ø]로 되었는데도 자형(字形)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 특 징 :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핵심은 제3장 ‘문법에 관한 것’에 대한 제규정들로서 이는 당시의 문법가들의 형태론(形態論) 연구의 결집이었다. 제3장은 7절로 이루어졌으며 제1·2·4절은 굴절(屈折)에 관한 것, 제3·6·8절은 파생(派生)에 관한 것, 제7절은 합성(合成)에 관한 것으로 이 제3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일관된 원리는 가능한 한 굴절과 파생 또는 합성을 통하여 어간이나 접사(接辭) 등 각 형태소(形態素)는 구별 표기해야 하며, 동일한 형태소는 동일한 표기형식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론에서 규정한 ‘어법에 맞도록’이란 구절의 의미이며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말의 뜻이다. 이와 같이 형태소의 기본형태를 가려 그것을 항상 고정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은 말의 뜻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게’ 되어 있다.

첫째 본 형태를 표시해서는 발음에 지장이 있을 경우이거나 기본

형태와 변이형(變異形)이 너무 동떨어진 경우(제26·56항, 한자음으로는 제42·43·44항), 둘째 파생에 있어서 한 형태소나 국한된 형태소와만 결합되는 접미사와의 표기(제13·15항), 셋째 통시적(通時的)으로 보면 분석이 되는 것일지라도 공시의식(共時意識)으로 보아서 용이하게 분석되지 않을 때(부터, 개구리, 고치다, 결코 등 : 제20·22·58항 등), 또 공시의식으로 전혀 분석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분석을 일반화하기 어려울 경우(나쁘다, 바쁘다 등 : 제17장, 파랗다, 무겁다 등 : 제27장), 띄어쓰기는 단어를 그 단위로 하되 조사(助詞)는 그 뒷말에 붙여쓰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사실상 어절(語節)을 단위로 쓰게 되어 있다. 어절은 실지 글 쓰는 사람이나 글 읽는 사람의 호흡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본 취지는 훌륭한 것이나, 국어 단어의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 하에서는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3) 큰사전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어 사전. 전6책(3864면)으로 1957년 간행되었다.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창립되어 편찬작업을 시작하였으나, 1936년 조선어학회가 이를 인수하여 1939년 출판허가를 받았다. 1941년 대동인쇄소에 원고를 넘겨 일부 조판하였으나,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사전편찬 관계자들이 투옥되어 중단되었다가 8·15 광복 후 다시 착수, 1957년 완간되었다.

수록어휘는 16만 4125개이고, 그 범위는 현재의 표준어로 쓰이고 있는 순한국어·한자어·외래어·속어·각종 전문어·이두·옛제도어·사투리·별말·지명·인명·서지·관용구 등이 포괄되어 있다. 해설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의 1946년 개정안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외래어 표기는 1940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외래어표기통일안’에 준하였다. 한글사전의 바탕을 이룬 값진 문화유산이다.

4) 조선어학회 사건

일제가 국학연구의 탄압책으로 조선어학회의 관계자를 죄로 몰아 투옥한 사건.

1942년 8월 함흥 영생(永生)고등학교 학생이 검거되고 그 증인으로서 과거 이들 학생의 은사였던 조선어학회 회원 정태진(丁泰鎭)이 잡히면서 10월에는 조선어학회를 관련시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4월 1일 함흥경찰서는 이운재(李允宰)·이극로(李克魯)·최현배(崔鉉培)·김윤경(金允經)·이희승(李熙昇)·장지영(張志映)·한징(韓澄)·이중화(李重華)·정인승(鄭寅承)·권승욱(權承昱)·이석린(李錫麟)을, 21일에는 이강래(李康來)·이병기(李秉岐)·김선기(金善琪)·이만규(李萬珪)·정열모(鄭烈模)·김법린(金法麟)·이우식(李佑植)을, 23일에는 윤병호(尹炳浩)·서승효(徐承孝)·김양수(金良洙)·장현식(張鉉植)·이인(李仁)·이은상(李殷相)·정인섭(鄭寅燮)·안재홍(安在鴻) 등을 검거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김도연(金度演)·서민호(徐珉濠)를 검거하였으며, 권덕기(權惠基)·안호상(安浩相)은 병중이어서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홍원(洪原)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1년 동안 갖은 야만적인 고문의 시달림을 받은 끝에 ‘학술단체를 가장하여 국체(國體) 변혁을 도모한 독립운동단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함흥 검사국으로 넘어갔다. 그밖에도 어학회를 물심으로 도와준 50여 명이 중인 심문으로 시달림을 받았으며, 곽상훈(郭尙勳)·김과백(金科白) 등은 피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치장에 구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함흥 검사국에서는 경찰에서 송치한 가운데 이윤재·한징·최현배·이희승·정태진·이극로·이중화·김양수·김도연·김법린·이인·장현식 등 13명만 공판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는데, 판결 전에 이윤재·한징이 심한 고문과 기한(飢寒)으로 옥사하였으며, 나머지 11명은 각각 6년에서 2년까지의 징역판결을 받았으며, 장현식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나머지 인사들은 항소(抗訴) 중에 광복을 맞아 석방되었다.

▶ 저서 : 朝鮮語文經緯, 朝鮮留記, 乙支文德

▶ 문헌 : <韓國語學史>, <韓國人名大事典>

권 덕 기 (權德基) 인조 7년 (1629)~ 현종 4년 (1663)

자는 사중(士重),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현손(玄孫)이며 권대경(權大慶)의 아들이다. 참봉(參奉) 불사(不仕)하였으며 35세로 졸(卒)하였다. 묘는 선고(先考) 묘전(墓前)에 갑좌(甲坐)로 있다.

권 덕 창 (權德昌) 인조 7년 (1629)~ 숙종 16년 (1690)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차자(次子) 황(愷)의 현손(玄孫)이다. 서사관(筮仕官)에 이르렀으며 제천현감(堤川縣監)을 역임했다. 묘는 안산 마유면에 있다.

권 동 수 (權東壽) 현종 8년 (1842)~?

자는 치영(致永)이고 호는 석운(石雲)이다.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복(復)의 후손이며 남강공(南崗公) 상(常)의 후손이다.

구한말(舊韓末)의 문신(文臣)으로서 관직은 영사(領事: 외교관)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공은 당대의 명필로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행서(行書)와 전서(篆書)에 특히 능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덕수궁(德壽宮) 장문의 대한문(大漢門) 현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은 또 고종 31년(1894)에 일본에 망명하고 있던 중 고종(高宗)의 밀지(密旨)를 받고 이일직(李逸植)과 함께 당시 망명중인金玉均(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을 제거하려다 일본 관헌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듬해 1895년, 을미에는 러시아 황제에게 전하는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김용원(金鏞元)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총포 등의 무기를 구입해 오기도 했다. 그 밖의 여러 사적(事蹟)은 미상이다.

권 병 훈 (勸丙勳) 고종 4년 (1867)~1943

학자. 본관은 안동. 자는 남리(南里), 호는 성대(惺臺). 경기도 김포 출생. 한말에 함흥 지방재판소 판사로 있다가 재판권이 일본에 넘어가자 관직을 버리고 설문학연구(說文學研究)에 몰두하여 <육서심원(六書尋源)>을 편찬하였다.

<육서심원>은 유인본(油印本). 수편(首編) 2책, 본문 27책, 보편(補編) 2책, 총 31책으로 되어 있는데, 권병훈이 함흥지방 재판소 판사로 있을 때 국권피탈이

되자 관계에서 은퇴하여 필생의 사업으로 설문학(說文學) 연구에 전념, 당시 중
동학교장(中東學校長) 최규동(崔奎東)의 후원으로 20여 년 간에 걸친 연구와
저술 끝에 1936년 완성, 1938년에 출판하였다. 한자의 구성원리와 법칙을 연
구·분석한 총 31책에 8,766면으로 수록된 자수(字數)만도 약 6만 자에 달하는
대저술이다. 특히 채획론(贅劃論)·은의설(隱義說) 같은 것은 전인미답의 독창
적 견해라 할 수 있으며 그 학설과 내용의 방대함은 중국의 유서(類書)를 능가
한다는 평도 있다.

▶ 저서 : 六書尋源

▶ 문헌 : <韓國人名大事典>

권 상 (權 常) 중종 3년 (1508)~선조 22년 (1589)

조선조 문신, 자는 길재(吉哉), 호는 남강(南岡), 본관은 안동(安東), 전생서
참봉(典牲暑參奉) 진(振)의 아들이다.

7세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 송종지절(送終之節)이 어른과 같았으며 효성이
지극했다는 사신의 평이 있다. 장성해서는 어버이를 섬기매 정성을 다하고 그 안
색을 살펴 봉양하고 뜻에 승순(承順)하며 힘써 환심(歡心)을 사고자 했다. 따듯
한가 시원한가를 보살피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집을 나설 때에는 항상 고하고
돌아오면 면알(面謁)하며, 집이 가난하여 거둬들 곳간이 비어도 반드시 술과 고기
는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공사(公事)가 아니면 일찍이 모친 곁을 떠나는 일이
없었으며, 수저를 집어 드리고 밤에는 금침(衾枕)을 받들었다. 모친의 병환에는

띠를 풀어 옷을 벗고 눕지 않고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으며 중야(中夜)에 목욕하고 관대(冠帶)하고서 향을 피워 하늘에 빌되 호읍(號泣)하며 자기 몸으로 대신하기를 청했다.

모친이 물하기에 이르러서는 애훼(哀毀)함에 예제(禮制)를 넘었으며 치상(治喪)은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의거해 거행했다. 미음죽과 나물만을 먹되 열장으로 담근 채소나 과일을 입에 넣지 않은 것이 3년 동안이었다. 여묘(廬墓)를 함에 있어서는 하루에 두 차례씩 묘소에 올라가 곡을 함에 반드시 애달픔을 다하면서 비록 비나 눈이 와도 이를 폐하지 않았다. 복제(服制)를 벗은 뒤에도 오히려 조석으로 전(奠)을 올리는 것을 시행하여 30년이 되도록 게을리 아니하였으며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가묘(家廟)를 참배하였는데 출입할 때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 기일(忌日)이 오면 그 한 달을 모두 행소(行素)로 보냈으며 매양 자신의 생일을 맞으면 비애(悲哀)에 빠져 즐거워하지 못했다. 과부가 된 누이동생과 40년을 동거하였는데 의식을 함께 하였으며 그 아이들을 자기 소생과 같이 무육(撫育)하였다.

선조 6년(1573) 용강현령(龍岡縣令)을 역임했다. 선조 16년(1583) 선공감정(繕工監正)에 이르고, 이 해 효행으로 천거되어 통정대부(通政大夫) 위계에 올랐다. 80세 때 노인직(老人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청주 백록서원(白鹿書院)에 제향되고, 묘소는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에 있다.

▶ 문헌 : <宣祖實錄>, <國祖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권 상 하 (權尙夏) 인조 19년(1641)~경종 1년(1721)

조선조 학자,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한수재(寒水齋), 본관은 안동, 집의(執義) 격(格)의 아들, 호는 문순(文純)이다.

1. 생 애

(1) 당쟁과 처신

현종 1년(1660) 진사(進士)가 되고,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하던 중, 1668년에 스승 송시열이 좌의정 허적(許積)과의 불화로 우의정을 사직하자 유임시킬 것을 상소하였다. 숙종 1년(1674)에는 1659년에 있었던 자의대비(慈懿大妃：仁祖繼妃趙氏)의 복제문제(服制問題)로 송시열이 숙종 1년(1675) 추죄(追罪)를 받아 덕원부(德源府)에 유배되고 남인들이 득세하게 되자 관계 진출을 단념하고 청풍(淸風)의 산중에 은거하여 학문 연구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송시열이 다시 제주도에 위리안치되고 사사(賜死)되자 유배지에 달려가 이별을 고하고 의복과 서적 등 유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숙종 18년(1692) 김포군수(金浦郡守)에 부임, 이듬해 사직했다.

숙종 30년(1704) 숙종의 뜻을 받들어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명나라 신종(神宗)을 제향하고 1717년 스승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청주(淸州)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를 세웠다. 숙종(肅宗)의 총애를 받아 우의정, 좌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했다. 이이(李珥)를 조종(祖宗)으로 하여 송시열에게 계승된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지도자였다.

(2) 기호학자(記號學者)의 계승

송시열의 제자 가운데 김창협(金昌協)·윤증(尹拯) 등 출중한 자가 많았으나 스승의 학문과 학통을 계승하여 뒤에 ‘사문지적전(師門之嫡傳)’으로 불릴 정도로 송시열의 수제자가 되었으며, 그와 같은 학문적인 위치로 인하여 정치의 소용돌이에 관련되기도 하였다.

1715년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윤선거(尹宣舉)와 유계(兪槩)의 후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그 서문에서 유계의 저술임을 밝혀 소론의 영수 윤증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 송시열이 화를 당한 것은 “윤증이 윤휴(尹鑄)의 무리와 함께 조작한 것”이라고 송시열의 비문에 기록하여 유생 유규(柳奎) 등 8백여 명과 대사간 이관명(李觀命), 수찬 어유구(魚有龜) 등 소론측으로부터 비문을 수정하라는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붕당기에 살면서도 정치현실보다는 서경덕(徐敬德)·이황(李滉)·기대승(奇大升)·이이(李珥)·성혼(成渾) 등 선유(先儒)들로부터 제기된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성리학 자체의 학적 체계나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를 새로이 검토하여 보다 철저히 규명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에 정립된 이황·이이의 이론 중 이이·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과(畿湖學派)의 학통을 계승하고, 그의 문인들에 의해 전개되는 호락논변(湖洛論辯)을 학파적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 예학적 학문이론 활성화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논쟁(同異論爭)인 호락논변(湖洛論辯)이 제자 이간(李柬)과 한원진(韓元震) 사이에 제기되자 ‘인성이 물성과 다른 것은 기

(氣)의 국(局)이며, 인리(人理)가 곧 물리(物理)인 것은 이(理)의 통(通)이다.’라고 한 이이의 이통기국이론(理通氣局理論)을 들어 전통적 기호학파의 학설로 한원진의 상이론(相異論)에 동조하였다.

인성·물성의 상이론을 주장한 그 발상은 본성을 후천적인 것, 즉 기질의 다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여 동물성으로부터 분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성의 문제를 물성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태도는 인성론이 자연물 에까지 확대된 형이상학적 전개로서, 이황·이이 이래 조선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예학(禮學)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회규범으로서 경직되어 가는 학문풍토에서, 인성·물성 상이론의 제기는 예학적 학문이론을 활성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이단하(李端夏)·박세채(朴世采)·김창협(金昌協) 등과 교유하였으며, 문하에서 배출된 특출한 제자로는 한원진(韓元震)·이간(李柬)·윤봉구(尹鳳九)·채지홍(蔡之洪)·이이근(李頤根)·현상벽(玄尙璧)·최징후(崔徵厚)·성만징(成晩徵) 등 이른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가 있다.

글씨에 능하여 작품으로 <기백이태연표(箕伯李泰淵表)>·<형참권극화표(刑參權克和表)>·<부사과이숙표(副司果李塾表)> 등이 전한다. 청풍의 황강서원(黃岡書院) 등 10여 곳에 제향되었다.

2. 저서 및 활동

《한수재집(寒水齋集)》

권상하(權尙夏)의 시문집. 목판본. 35권 15책. 문인 윤봉구(尹鳳九)의 서문이 있다. 저자가 죽은 후 손자 정성(定性)이 모은 유고를 제자인 한원진(韓元震)·

윤봉구 등이 편집하고, 영조 37년(1761)에 외증손 황인검(黃仁儉)이 증손 진응(震應)과 함께 간행했다. 1978년에 조룡승(曹龍承)이 영인본으로 간행하였다.

내용은 시(詩)·소(疎)·서(書)·잡저(雜著)·통문(通文)·정문(呈文)·어록(語錄)·서(序)·기(記)·제발(題跋)·찬(讚)·제문(祭文)·고문(告文)·축문(祝文)·애사(哀詞)·신도비(神道碑)·정비(庭碑)·묘갈(墓碣)·묘지(墓誌)·묘표(墓表)·행장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書)가 가장 많은 분량(권4에서 권20까지)을 차지하고 있고, 묘갈·제문류가 그 다음으로 많다. 서는 주로 답서(答書)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통(道統) 유림의 시의(時議), 이기 심성론, 유교경전에 관한 것 등 주로 성리학의 이론에 관한 논의가 핵심을 이루고 있고, 또 복식이나 예제를 다룬 글도 있다.

그의 스승인 송시열(宋時烈)에게 올린 글에서부터 한원진·이간(李柬)·윤봉구(尹鳳九)·채지홍(蔡之洪)·이이근(李根)·현상벽(玄尙璧)·최징후(崔徵後)·성만징(成晩徵) 등 소위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들과의 서신은 율곡과 우암을 잇는 기호학과 지도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권 21 잡저 중 「태극도설시사제계문 겸 시현석(太極圖說示舍弟季文兼示玄石)」은 ‘통체일태극(統體一太極)’과 ‘각구일태극(各具一太極)’의 의미를 밝힌 글이다. 「논성설(論性說)」은 성에 관한 논의를 일원(一原)·분수(分殊)·분수지분수(分殊之分殊)의 세 가지 층차로 구분하고, 당시의 학자들이 분수의 층차에서 논의한 성을 알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사칠호발변(四七互發辨)」에서 그는 “율곡 선생은 ‘말하는 것은 기(氣)요, 말하는 소이는 이(理)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깊이 음미하면 퇴계의 호발설을 변정(辨正)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기사칠론에서 율곡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송헌서원통론중외문(崇賢書院通論中外文)」은 송시열을 봉향할 때 올린 통문이며, 「화양어록(華陽語錄)」은 송시열의 어록이요, 「기사행중어록(己巳行中語錄)」은 기사환국 때에 남인에 의해 우암이 제주도로 귀양갔다가 장차 죽게 되었을 때에 한 말을 기록한 것이요, 「초산어록(楚山語錄)」은 우암이 사사되었을 때 그에게 도통을 이어 주고 후사를 부탁한 말들을 기록한 것으로서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것이나,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것, 그리고 공자와 맹자 이후로 서로 전하는 것이 하나의 ‘직(直)’임”을 밝히고 있다. 또, 시·서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묘갈이나 제문류는 노론계 인사에 관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학계와 정계에서의 그의 위상을 가늠하게 해준다.

이 문집은 조선 후기 유학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문헌이다. 특히, 조선 성리학사의 주요 논쟁인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과 관련한 호락논쟁이 그의 문인인 한원진과 이간 사이에서 발단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는 인물성상이론(人物性相異論)을 주장하는 한원진을 지지함으로써 인물성구동론(人物性俱同論)을 주장하는 이간과 맞서게 되었다.

《만동묘》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명나라 신종(神宗)을 제사지내기 위해, 숙종 30년(1704) 충북 괴산군 청천면(靑川面) 화양동(華陽洞)에 지은 사당. 도산서원 등과 더불어 4대 서원으로 유명하였으나, 지금은 만동묘정비(지방기념물 25호)만 남아 있다.

인조 때 송시열(宋時烈)이 명나라 의종(毅宗)의 친필인 ‘비례물동(非禮勿動)’이라는 글 한 폭을 받고서 이 글을 화양동 석벽(石壁)에 새겨 놓고 석벽 위에

공부하는 사당을 지었는데, 송시열이 죽을 때 그의 제자 권상하(權尙夏)에게 이곳에 묘우(廟宇)를 지어 신종과 의종을 제사지내도록 하여 권상하가 유림을 동원하여 지은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 묘에 딸린 전토(田土)와 노비를 주었고, 영조 때에는 묘를 중수하였으며 면세전(免稅田) 20결(結)을 주었다. 순조 9년(1809)에는 묘우를 개축하고 현종 10년(1844)에는 정식으로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관찰사가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이 묘는 노론(老論)의 소굴이 되어 상소와 비판을 일삼았고,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 양민을 토색하는 등 민폐가 심하여,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 헐어버리고 신주와 편액(扁額) 등은 서울 대보단(大報壇)의 경봉각(敬奉閣)으로 옮겼다. 대원군이 실각한 후 고종 11년(1874) 다시 세웠으나 일제 강점기에도 유생들이 모여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므로 총독부가 강제로 철거하였다.

《기호학파(畿湖學派)》

원래 기호지방은 경기도와 호서지방·해서지방을 포괄하는 지역을 의미하지만, 역사적 개념에서 기호학파는 경기도·충청도 지역의 이이·성혼의 문인과 학자들의 집단을 지칭한다.

조선 전기에 영남지방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왕조교체에 불만을 품고 은거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단의 학자군이 형성되고, 조선 중기에 이황(李滉)이 배출되면서 영남학파가 성립되었지만 기호학파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결속력이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조 후기에 동서봉당이 형성되고 영남학파의 다수가 동인이 되면서 이에 대항하는 서인세력이 기호지역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다.

당색(黨色)으로 볼 때 기호학파는 서인의 주축을 형성했지만, 서경덕(徐敬德)

처럼 기호지방(개성)을 근거지로 하면서도 북인(北人)으로 나간 인물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기호학파가 정치적으로 곧 서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호학파를 성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는 이이·성혼·송익필(宋翼弼)을 들 수 있으며,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서인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기호학파의 세력은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이이의 문인인 김장생(金長生)을 거쳐 송시열(宋時烈)에 이르러서는 연산(連山)·회덕(懷德) 등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기호학파는 정계·학계의 주도권을 차지하였다. 기호학파가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데는 무엇보다도 서울에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이점이 많이 작용하였다.

숙종 대에 이르면 기호학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회덕을 중심으로 한 송시열 계열은 노론이 되고, 이산(泥山)을 중심으로 한 윤증(尹拯) 계열은 소론으로 분립되었다. 기호학파는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등의 성리설과 예학 등에서 많은 학문적 성과를 남겼는데, 특히 송익필·김장생·송시열 등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예학은 현종 대에 남인과 맞서 극렬한 예송논쟁(禮訟論爭)을 일으키게 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3. 작 품

여기서는 시 두 편을 소개한다.

「제민루(濟民樓)」

영남 땅의 좋은 경치 제민루라 이름한 곳
천고의 시인 묵객 몇몇이나 노닐었나
십리 흰한 호수 옥 거울이 열리었고

두세 가락 긴 젖대 맑은 가을 보내오네
 천애(天涯)의 나그네는 황화 백주 즐기고
 성 밖의 모래톱은 홍수 청산 고와라
 나팔 울린 관가 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고
 둥근달이 옮겨와 학봉 머리에 두둥실

「꿈을 깨고서[記夢]」

고요한 텅빈 집에 하는 일 없어
 낮잠 들어 그대로 꿈을 꾸었네
 조각배를 타고서 푸른 바다를 건너
 신청동에 뱃줄을 매놓은 뒤에
 풍채 좋은 백발의 노인 나타나
 이름은 한중이라 말을 하고서
 나에게 한 잔 술을 따라 권하고
 나에게 두 마리의 봉황 태웠네
 옥황상제 명이라고 또렷하게 말하고서
 벽도화를 내려주며 아스라이 전송했네
 꿈을 깨니 창 앞에는 기운 햇살뿐인데
 시름 생각 호호망망 혜계옹 속일레라

▶ 저서 : 寒水齋集, 三書輯疑

▶ 문헌 :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권 성 언 (權 星 彦) 숙종 31년 (1705)~정조 2년 (1778)

초휘(初諱)는 최언(最彦)이고 자는 낙보(樂甫)이다.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후손으로 충정공(忠貞公) 협(俠)의 6대손이며 안성공(安城公) 대운(大胤)의 현손이고 대사성 환(環)의 손자요 통덕랑 세현(世鉉)의 장남이다.

사마시(司馬試)로 생원이 되어 학행을 닦았는데 만년에 기로과(耆老科 : 영조 때부터 생긴 제도로 60세 이상인 노인들만이 보던 문과)에 급제하니 이 때가 영조 52년(1776)으로 공의 나이 72세였다. 이후 출사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전적(典籍)을 지냈다. 정조 2년(1778) 1월 18일에 졸하니 향년 74세였다. 묘소는 경기 김포시 계양면 계양산(桂陽山)에 건좌로 있다. 배위는 숙인 고령신씨(高靈申氏) 승제(升濟)의 딸이며, 기일은 1월 18일이고 묘소는 공과 합장되어 있다. 재배는 숙인 파평윤씨(坡平尹氏)로 우화(禹華)의 딸이며, 기일은 7월 18일이고 묘소는 공과 쌍분이다. 삼배는 숙인 전의이씨(全義李氏) 인적(仁迪)의 딸이며, 기일은 2월 8일이고 묘소는 춘천(春川)에 있다.

권 수 (權 燾) 중종 30년 (1535)~선조 25년 (1592)

조선 문신, 자는 사원(思遠), 본관은 안동(安東),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상(常)의 아들.

연산군 10년(150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명종 2년(1567)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했다. 광주(光州), 광주(廣州) 수재(守宰)를 지내며 선정을 베풀

어 송덕비가 세워졌다. 내직으로 좌부승지(左副承旨)를 지내고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부윤(全州府尹)에 임명되어 현지에 부임, 민심을 수습하고 방어에 진력하다 병이 들어 58세로 졸(卒)하였다. 뒤에 이조 참판을 증직했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에 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權公墓碣銘>

권 신 중 (權信中) 선조 8년 (1575)~인조 11년 (1633)

자는 군집(君執)으로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손자이며 예조판서 석당(石塘) 충정공(忠貞公) 협(挾)의 장자이다.

선조 38년(1605)에 진사에 오르고 처음 벼슬로 장원서(掌苑署)의 별제(別提)를 지냈다. 그리고 금부도사·태복주부·형조좌랑·형조정랑·장례원(掌隸院)의 사평(司評)·한성판관(漢城判官)·강서(江西)·창평현령(昌平縣令)·김제(金堤)·여산(礪山)·단양(丹陽)·풍덕군수(豐德郡守) 겸 장단진관(長湍鎭官)·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를 지냈으며, 통정대부로 승진하였다. 사후(死後)에 아들 대임(大任)이 귀하여 좌찬성으로 추증되고 길흥군(吉興君)에 봉해졌으며, 후에 선무원종공신·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으로 가증되었다.

공은 위엄이 있고 의기롭고 엄중하고 천성이 효우(孝友)하였으며 벼슬에 올라서는 삼가고 힘썼으므로 혜정비(惠政碑)가 세워졌다. 묘소는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으며 미수 허목(許穆)이 비명을 찬했다.

권 심 언 (權心彦) 영조 10년 (1734)~?

자는 성오(星五)이고 호는 수로(隨廬)이며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부정공(副正公) 옥(旭)·남강공(南崗公) 상(常)의 후손이다. 지중추 황(愷)의 6대손이며 감찰공 이중(履中)의 5대손이요 휘 대영(大榮)의 현손으로 관수당(觀水堂) 집경(執經)의 손자, 휘 세성(世聖)의 넷째 아들이다.

영조 50년(1774)에 41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오래 출신자가 없던 가문을 빛냈다. 그 후 내직으로 사간원 정언(正言)을 지내고 외직으로 나가 현감을 역임했으나 그 이상 영달하지 못하였다. 졸년을 알 수 없고 기일(忌日)은 4월 20일이다.

배위는 숙인 청주한씨(淸州韓氏) 직(潑)의 딸이며 묘소는 장단군(長湍郡) 임진강 상류 북변의 현암(玄岩) 화산부원군 묘소 아래에 신좌로 있다.

권 심 중 (權審中) 선조 21년 (1588)~인조 19년 (1641)

자는 군석(君釋)으로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손자이며 길창부원군 충정공(忠貞公) 협(挾)의 여섯째 아들이다.

인조 2년(1624)에 37세로 사마시(司馬試)를 하여 진사가 되었다. 그 뒤로 출사(出仕)해서는 좌랑(佐郎)에 이르렀다. 사후에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로 추증되었다. 공은 그 자손이 뒤에 낙남(落南)하여 전북 와주군 용진면 구억리에 세거(世居)하여 크게 번성하니 이곳 문중의 파조(派祖)가 되었다. 그리하여 구억리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의 선고 길창부원군 충정공(忠貞公) 석당(石塘)의 영정(影幀)을 모신 영당(影堂)이 있다.

배위는 초배가 증 숙부인(淑夫人) 해평윤씨(海平尹氏)로 서윤(庶尹) 신의 딸인데, 무육(無育)이고 재배는 증 숙부인 영월엄씨(寧越嚴氏)로 참봉 가성(可誠)의 딸이다. 묘소는 선고 충정공의 묘소가 있는 서울 구로구 궁동(宮洞)에 있었는데 전북 임실군 삼계면 인리에 오좌(午坐)로 이장하였다. 비분은 양재(陽齋) 권순명(權純命)이 지었다.

권 여 중 (權汝中) 명종 19년 (1564)~?

정헌공계 복성공(復姓公)公安부윤(公安府尹) 숙(肅)의 2남 절제사 화산부원군 복(復)의 후손으로 좌랑공 온(溫)의 계열 남강(南崗) 상(常)의 손자요, 부윤수(燧)의 장자이다. 임진왜란에 백의로 참전하였다가 전몰하여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고 종후에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추증되었다.

배위는 파평윤씨(坡平尹氏) 참의 응규(應奎)의 딸이며, 묘소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명월산 미륵현에 갑좌로 있다. 아들은 당질 대경(大慶)의 계자로 입후하였다.

권 영 (權瑛) 영조 17년 (1741)~정조 4년 (1780)

자는 맹이(孟而)이며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후손이다. 충정공(忠貞公) 협(挾)의 7대손이며 휘 대식(大式)의 5대손이고 휘 익경(益經)의 증손으로 휘 후연(厚彦)의 장남이다.

영조 44년(1768)에 28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佐郎)·도사(都事)를 역임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부평(富平)의 계남면(桂南面) 갈마동(葛馬洞) 서쪽에 오좌로 있다. 배위는 파평윤씨(坡平尹氏) 희일(喜一)의 딸이다. 아들은 계자로 의헌(義憲)을 입후하였는데 생부는 아우 선(僊)이다.

권 용 규 (權龍奎) 순조 11년 (1811)~고종 19년 (1882)

자는 운오(雲五), 초휘(初諱)는 한규(翰奎)였다.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증손 대경(大慶) 8대손(代孫) 종(宗)으로 계통정관(階通政官) 돈녕도정(敦寧都正) 정4품을 역임(歷任)하였다. 묘는 남강공휘(南岡公諱) 안산(案山)에 임좌(壬坐)로 있다.

권 옥 (權旭) 세종 22년 (1440)~중종 6년 (1511)

자는 경역이다. 서령공(署令公) 창(昶)의 아우로 증 통례(通禮) 휘 온(溫)의 둘째 아들이다.

세조 14년(1468)에 진사를 하여 감찰(監察)·서령(署令)·사의(司議)·첨정(僉正)·상례(相禮)·사도시부정(司導侍副正)을 거쳐 안산(安山)·평산(平山)·강화(江華) 3읍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유애비(遺愛碑)가 세워졌다. 영상(領相)인 유순과 더불어 기영회에 가입하여 노년을 보내다 졸하니 향수 72세이며, 뒤에 좌승지(左承旨) 겸 참찬관(參贊官)으로 추증되었다.

권 원 (權 瑗) 인조 12년 (1634)~현종 3년 (1662)

자는 중진(仲珍)이다. 정헌공계 화산부원군파 휘 복(復)의 장자 온(溫)의 7대손이다. 그 차자 옥(旭)의 6대손, 그 차자 진(振)의 5대손이고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현손이다. 그 5자 충정공(忠貞公) 협(愜)의 4자 정중(正中)의 손자요 도정(都正) 대운(大胤)의 맏아들이다.

현종 1년(1660)에 27세로 사마시(司馬試)를 하여 생원(生員)이 되었다. 그러나 2년 뒤인 현종 3년(1662)에 29세의 젊은 나이로 요서(夭逝)하였다. 공은 이때에 이미 <사서변의(四書辨疑)>를 저술하였을 만큼 학행이 원숙한 경지에 이르고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아깝게 꺾이고 말았다. 뒤에 증손자 지언(之彦)이 귀히 됨에 따라 통정대부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추증되었다.

권 위 중 (權 偉中) 선조 31년 (1598)~인조 7년 (1629)

자는 군언(君彦)으로, 정헌공계 화산부원군파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손자이며 길창부원군 충정공(忠貞公) 협(愜)의 일곱째 아들이다.

광해군 9년(1617) 진사에 오르고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 사후(死後)에 아들 대재(大載)가 귀히 됨으로 인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배위는 증 정부인 고령(高靈) 신씨(申氏) 부위(副尉) 종사(宗泗)의 딸이며 묘소는 서울시 구로구(九老區) 궁동(宮洞)의 충정공 묘소 후록에 임좌로 합장되어 있는데 아들 호조판서 대재(大載)가 비문을 지었다.

권 윤 중 (權允中) 선조 7년 (1574)~인조 15년 (1637)

자는 시숙(時淑)이며 부사공(府使公) 임중(任中)의 사촌으로 남강공(南崗公) 상(常)의 손자요 그 넷째 아들 인(寅)의 장자이다.

공은 천성이 효우공검(孝友恭儉)하였는데 선조 25년(1592) 임진에 왜변(倭變)이 일어나자 19세로서 부친의 명으로 중부(仲父) 남악공(南嶽公) 희(禧)를 따라 백의(白衣)로서 종묘(宗廟)의 역대 제왕 신주(神主)를 호종(扈從)하여 의주(義州)로 갔다. 이때 남악공은 종묘서령(宗廟誓令)이었다. 이 공으로 공은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3등에 책훈되고 종사랑(從仕郎)의 벼슬을 특사(特賜) 받았다. 그러나 난후(亂後)에는 부친을 모시고 전북 임실(任實)에 병거(屏居)하면서 출사(出仕)할 뜻을 갖지 않았다. 졸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추증되었다.

권 의 (權 倚)

자는 숙팔(肅八)이고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崗公) 상(常)의 후손으로 지사공(知事公) 황(愷)의 7대손이며 휘 대준(大準)의 5대손이요, 취경(就經)의 증손이고 전언(全彦)의 아들이다.

정조 16년(1792) 식년문과(式年文科)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그밖에 일체의 사적이 미상이다. 배위는 전주이씨(全州李氏) 광현(光鉉)의 딸이며 아들이 없어 계자(系子) 재헌(在憲)이 들어와 후사를 이었다.

권 이 경 (權以經) 인조 16년 (1638) ~ 숙종 12년 (1686)

자는 사정(士正)이고 정헌공계 화산부원군파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후손으로 충정공(忠貞公) 협(愜)의 현손이다. 길성군(吉城君) 대임(大任)의 손자요 봉사 진의 장자이다.

숙종 1년(1675)에 진사에 급제했으며, 관직이 함열현감(咸悅縣監)에 이르렀다. 사후(死後)에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길평군(吉平君)으로 봉군되었다. 배위는 증정부인 초계정씨로 참판 약의 딸이며, 묘소는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다.

권 이 락 (權彝洛) 고종 2년 (1865) ~ 1931

자는 치소(致沼), 초휘(初諱)는 이호(彝虎),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13대손으로 성균관(成均館) 문학박사(文學博士)를 하였다.

권 이 옥 (權爾玉) 고종 31년 (1894) ~ 1980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12대 손(孫)으로 김포시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서사효전(筮仕孝殿) 참봉(參奉)을 지냈으며, 경기도 평의원, 김포시 하성면장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다.

권 이 중 (權履中) 선조 14년 (1581)~현종 1년 (1660)

초휘는 유중(有中), 자는 자정(子正), 호는 남애(南涯)로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좌랑공 계열 남강(南崗) 상(常)의 손자이며, 치암(恥庵) 황(愷)의 둘째 아들이다.

광해군 10년(1618)에 명경과(明經科)에 응시, 책문(策文)으로 거괴(居魁 : 장원)가 되었으나, 신방(新榜)에 오르는 자에게는 예전(禮錢)을 바치라는 명이 있다 하자 공은 광해 혼조의 어지러운 정사에 임하는 것이 싫어 방에 응하지 않고 과거 급제를 버렸다. 그 후 호남(湖南)의 금구(金溝) 남면(南面) 공수촌(公須村)에 우거하고 있다가 인조가 개옥(改玉 : 반정)하자 다시 문과 시험을 치러 방에 올랐으나 또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에서 조관(調官)하여 출사(出仕)하였으며 벼슬이 사헌부 감찰(監察)에 이르렀다.

묘소는 경기도 김포 월곶면(月串面) 조강리(祖江里) 유규동(柳規洞) 건좌인데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이 비명을 찬했다.

권 익 중 (權益中) 선조 4년 (1571)~효종 10년 (1659)

자는 경의(景宜)로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좌랑공 계열 남강(南崗) 상(常)의 손자이며, 이조 판서 남악(南嶽) 희(禧)의 맏아들이다.

선조 38년(1605)에 처음 벼슬에 나가 경산(慶山)·재령(載寧)·마전(麻田) 세 고을 수령을 역임하였다. 인조 27년(1649)에 나라로부터 큰 연회를 받았으며, 효종 1년(1650)에 수(壽)로 통정대부에 승서되었고, 효종 5년(1654)에 가

선대부에 오르고 벼슬이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사후(死後)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권 인 (權 愼) 명종 5년 (1550) ~ 광해군 11년 (1619)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넷째 아들로 초휘(初諱)는 선(瑄), 자는 사율(思栗), 호는 칠봉(七峯)이다.

선조 21년(1588)에 사마시(司馬試)로 진사를 하였다. 종실 순천군(順天君) 이관(李瑄)에게서 수업하였으며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나 명나라 군사가 들어오자 호남방량관(湖南放糧官)으로 서임되어 군량을 수방(收放)하였는데 공이 몸소 되와 말까지 계산하여 조금도 허실이 없게 하여 아무리 영악(擎惡)한 중국군을 만날지라도 감히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전후에 걸쳐서 군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신명을 다하니 국사가 복구되지 못하였을 때에 남아 여축한 수량이 수천 여 석에 이르렀다. 이에 호조참의 이민각(李民覺)과 독항사(督餉使) 이광정(李光庭)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이것이 임금께 계문되어 내섬사주부(內贍寺主簿)로 승차되었다. 또 감사 황신(黃愼)이 임금께 포계(褒啓)하기를 한고조(漢高祖)의 소하(蕭河)와 그 공을 비교하니 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으로 초수(超授)되었다. 난이 평정된 뒤에는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고 청양(靑陽)·덕산(德山)·거창(居昌) 세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수령으로 있을 때는 청렴하고 근신하는 것으로써 정사를 다스려 추호도 범탈하는 것이 없으니 백성들이 모두 애대(愛戴)하였다. 사후에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추증되었다.

권 임 (權 任) 경종 4년 (1724)~정조 19년 (1795)

자는 자중(自重), 호는 포제(浦濟),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종손(宗孫)으로 9대손(代孫)이다.

정조 18년(1794)에 이전궁(以殿宮) 오순육순은(五旬六旬恩) 경추은(慶推恩)에서 가자첨중추(加資僉中樞) 되었다.

권 직 (權 勳) 성종 1년 (1470)~중종 26년 (1531)

자는 무공(懋功)이다. 양촌계 지재공(止齋公) 휘 제의 증손으로 그 4자 연천공 마의 손자요 양근군수(楊根郡守) 교의 아들이다.

연산군 7년(1501)에 32세로 사마시(司馬試)를 하여 진사(進士)가 되고 음보(蔭補)로 벼슬에 나가 금부도사(禁府都事)를 거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형조좌랑(刑曹佐郎)·부정(副正)과 한성서윤(漢城庶尹)을 지냈다. 외직으로 나가서는 양재역찰방(良才驛察訪)·안동부판관(安東府判官)을 지내고 김포(金浦)와 안산(安山)의 군수를 거쳐 강화부사(江華府使) 겸 진관병마동첨절제사(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이르렀다. 뒤에 아들 영의정 철(轍)이 귀히 됨에 따라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관상감사(領經筵觀象監事)로 추증되었다.

권 정 중 (權正中) 선조 17년 (1584)~인조 18년 (1640)

자는 군평(君平)이다.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손자로 예조판서 협의 넷째 아들이다.

음보로 감찰(監察)을 지내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 두 왕자를 따라 강화에 들어갔다. 그 후 청단찰방(靑丹察訪)을 거쳐 석성(石城 : 현 논산군 석성면)·영산(靈山 : 현 창녕군 영산면)의 현감에 임명되었으며, 고비상(考妣喪)을 당한 후에는 3년 동안 여묘(廬墓)하느라고 과거를 폐하기도 했다. 57세로 졸하였는데, 원종훈(原從勳)을 받고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공은 광해군 8년(1616)에는 부친 예조판서 충정공(忠貞公)이 사명(使命)을 받아 명나라로 갈 때 별좌(別坐)로서 종행하였으며 광해군(光海君)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모한 뒤로는 선과(選科)에 나가지 않다가 인조 3년(1625)에 다시 출사하여 별제(別提)가 되었다.

배위는 증 숙부인 풍천노씨(豐川盧氏) 증 승지 선(宣)의 딸이고 묘소는 부천(富川) 계남면(桂南面) 갈안리(葛安里)에 있었는데 1978년 파주군 금촌읍 낙원묘지로 이장했다. 아들은 아우 근중(勤中)의 2남 대윤(大胤)을 계자로 입후하였다.

권 주 헌 (權周憲) 정조 24년 (1800)~헌종 2년 (1836)

자는 성방(聖邦)이고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부정공 욱(旭)의 후손이다.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계열로 지중추 황(愷)의 8대손이며 대영(大榮)의 6대손이고 통덕랑 집경(執經)의 현손 화언(華彦)의 손자요 익의 아들이다.

순조 23년(1823)에 24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사간원 헌납(獻納)에 이르렀다. 그러나 37세의 한창 나이로 졸하였다. 배위는 청송 심씨 숙(淑)의 딸이며 묘소는 경기도 장단(長湍)의 선영 승지공 묘소 아래에 계좌로 있다.

권 지 언 (權之彦) 숙종 46년 (1720)~정조 22년 (1798)

자는 방혜(邦兮)요 호는 농와(壘窩)이다.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후손으로 충정공(忠貞公) 협(挾)의 6대손이며, 안성공(安城公) 대윤(大胤)의 현손이고 증 승지 달경(達經)의 손자요 증 참판 세철(世徹)의 둘째 아들이다.

사마시에 적중하여 생원(生員)이 되고 영조 51년, 1775년 을미에 56세로 정시 문과(庭試文科)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그 후로의 관력(官歷)과 사적(事蹟)이 미상이나 종2품관으로서 참판(參判)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은 관직보다 문학(文學)이 심오하여 유고(遺稿)로 <농와집(壘窩集)>을 남겼다.

배위는 초배가 정부인(貞夫人) 사천목씨(泗川睦氏) 상행(尙行)의 딸이고 재배는 정부인 전주최씨(全州崔氏) 태항(泰恒)의 딸이며 묘소는 경기도 부천 계남면(桂南面) 괴안리(槐安里) 승련촌(承連村) 선영에 간좌로 있다.

▶ 저서 : 壘窩集

권 진 (權 振) 성종 3년 (1472)~중종 9년 (1514)

자는 진지(振之)이고, 정헌공(正獻公)의 후손 화산부원군 복(復)의 증손이고 증 좌승지 옥(旭)의 둘째아들이다.

중종 3년(1508)에 음보(蔭補)로 사옹원참봉이 되었고, 전생서(典牲署)와 영송전(永崇殿)을 거쳐 삼사(三司)에 공직하였는데 유근(惟謹)한 행의로 모두가 칭찬하였다. 그러나 선고상(先考喪)을 당하여 애훼(哀毀)한 나머지 병을 얻어 동 9년에 졸하니 향수가 43세였다. 뒤에 아들 상(常)의 효행으로 3대가 추은(推恩)되어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권 필 수 (權 泌壽) 고종 1년 (1864)~1940

초휘는 병훈(丙勳)이고 자는 성대(惺臺)이며 호는 기야일민(箕野逸民)이다.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후손이다. 충정공(忠貞公) 협(峽)의 9대손이고 도정공(都正公) 대운(大胤)의 7대손이며 대사성 제남공(濟南公) 환의 6대 종손이다. 규석(奎錫)의 계자로 생부는 종숙(從叔)인 방헌(邦憲)이다.

관작은 통훈대부로서 구한말에 원산(元山)과 해주(海州) 지방에서 판사(判事)를 지내고 검사와 변호사로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10년 경술에 국恥(國恥)를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충남 공주(公州)로 내려가 은둔해 살면서 이로부터 30년 동안 오로지 문자학(文字學) 연구에 파묻혀서 이 나라 초유의 대저술인 <육서심원록(六書尋源錄)> 30권을 완성하였

다. 이는 한자의 구성원리와 법칙을 연구·분석한 총 31책에 8,766면으로 수록된 자수(字數)만도 약 6만 자에 달하는 대저술이다. 이 대저술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의 찬양과 중동학교장(中東學校長) 최규동(崔奎東)의 적극적인 출연(出演)과 후원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가 거기에 서문을 써서 일찍이 없던 일로 평가하였다. 이 일로 한문자학계(漢文字學界)에 신기원이 이룩되어 국내는 물론 중국에까지 놀라운 사실로 알려져 대만대학(臺灣大學) 총장 동작빈(董作賓)이 자기 학교의 <대륙잡지(大陸雜紙)>에 크게 소개한 바 있다. 이같이 방대한 저술을 해내어 어학과 문자학에 공헌하기까지 공이 숨어서 이겨낸 가난과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결정(結晶)이 오늘날 서학(西學)의 물결에 밀려 빛을 보기는커녕 그런 책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묻혀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묘는 경기도 김포시 계양면에 있다.

▶ 저서 : 六書尋源錄

권 필 중 (權必中) 선조 12년 (1579)~인조 22년 (1644)

자는 군정(君正)으로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崗公) 상(常)의 손자이며 예조판서 충정공(忠貞公) 협(峽)의 아들이다.

광해군 5년(1613)에 35세로 사마시(司馬試)를 하여 진사가 되었다. 그 2년 뒤인 광해군 7년(1615)에 재행(才行)으로 추천을 받아 처음 벼슬에 나가서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해군의 난정(亂政)이 극심해짐에 따라 더 이상 사환(仕宦)할 뜻을 버리고 아우 현감(縣監) 경중(景中)과 더불어 청주(淸州)의 환희리(歡喜里)로 내려가 병거(屏居)하면서 생을 마치니 이곳에의

입향조(入鄕祖)가 되었다. 그리하여 뒤에 그 조부 남강공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이 이곳에 서게 된 것도 공으로 인한 연고가 되었다. 사후(死後)에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左承旨)로 추증되었다. 배위는 증 숙부인 전주이씨 현령 대수의 딸이고 묘소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있다. 종중손(從曾孫) 중경(重經)이 비문을 지었다.

권 행 언 (權行彦) 영조 21년 (1745)~순조 21년 (1821)

자는 겸이(謙爾)이고 호는 송죽당(松竹堂)이며 정헌공계 화산부원군파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후손이다. 충정공(忠貞公) 협(愜)의 6대손이며 감찰공 정중(正中)의 5대손이요, 안성공(安城公) 대운(大胤)의 현손으로 통덕랑 우경(遇經)의 손자이며 세육(世育)의 계자로 생부는 세열(世說)이다.

정조 19년(1795) 3월에 51세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순조 13년, 1813년 계유 8월에 서천군수(舒川郡守)로 출재(出宰)한 바 있고 순조 14년(1814) 10월에 보은군수(報恩郡守)로 배임된 다음 통정대부(通政大夫)로서 형조참의를 역임했다.

배위는 숙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 관문(觀文)의 딸이고, 묘소는 경기 부천 계남면(桂南面) 괴안리(槐安里) 승련촌(承連村)의 친산(親山) 국내에 임좌(壬坐)로 있다.

권 협(權 俠) 명종 8년(1553)~광해군 10년(1618)

조선조 문신, 자는 사성(思省), 호는 석당(石塘), 본관은 안동,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상(常)의 아들로,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에서 성장했다.

종실 순천군(順天君) 이관(李瑄)에게 수학하고 1577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承文院), 춘추관(春秋館), 통진현감(通津縣監) 등의 벼슬을 거쳤다. 선조 22년(1589) 각 도에 괴질(怪疾)이 발생하자 함경도에 파견되어 백성들을 돌보고 제사를 올렸다. 임진왜란 때에는 장령으로서 서울을 굳게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선조 29년(1596) 교리(敎理), 시강관(侍講官), 이듬해 응교(應敎)로 정유재란(丁酉再亂)을 맞아 고급사(告急使)로 명나라에 사행(使行), 구원병 요청에 성공했다. 이때, 명나라 병부시랑 이정(李楨)이 우리나라의 지세를 알고자 하므로, 산천의 형세와 원근을 도면에 그려가며 설명하는 데 막힘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보병과 수군을 얻고 군량을 조달하게 했다.

돌아와 예조, 호조참판(參判), 황해감사, 선조 37년(1604)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길창군(吉昌君)으로 봉해지고, 선조 40년(1607) 예조판서에 이르고 광해군 때는 관직으로 버리고 두문불출했다.

손자 권대운(權大運)이 지은 가장(家狀)이 있다. 배위는 증 정경부인(貞敬夫人) 전주최씨(全州崔氏) 정랑(正郎) 수(洙)의 딸이고 묘소는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계남면(桂南面) 궁리(宮里)에 계좌(癸坐)로 합편되어 있는데 계하(階下)에 자손들이 계장(繼葬)되어 있고 묘도(墓道) 입구에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이곳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금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구로구(九老區)의 궁동(宮洞)이 되어 있다. 문형(文衡)이 용주(龍洲) 조경(趙綱)이 공의 신도비문

을 짓고 좌의정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묘지(墓誌)를 지었다. 손자인 영의정 대운(大運)은 공의 행장(行狀)을 지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문헌 : <宣祖實錄>, <國朝榜目>, <韓國人名大事典>

권 협 (權 莢) 정조 6년 (1782)~순조 33년 (1833)

자는 자우(子友)이고 호는 오량재(五良齋)이며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후손이요, 오와공 우의 아우로 휘 제언(齊彦)의 넷째 아들이다.

순조 16년(1816)에 35세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중씨 오와공이 졸한 이듬해인 순조 25년(1825)에 44세로 오와공 우에 이어 형제가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正言)을 배수하였다. 그 뒤로 관직은 영해부사(寧海府使)에 이르렀다. 공도 장수를 못하고 52세로 졸하였다. 사후 추증 등의 일체 애은(哀恩)이 없는 것을 보면 공도 또한 남인계로서 여러 운세가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배위는 초배가 숙인 경주이씨(慶州李氏) 역(櫟)의 딸이고 재배는 청주한씨(淸州韓氏) 사증(師增)의 딸이며 3배는 정주이씨 재준(在浚)의 딸이다. 묘소는 서울 구로구(九老區) 궁동(宮洞) 선영 갈마동(葛馬洞)에 건좌로 있다. 소생은 3배에서 1남 1녀를 얻었을 뿐인데 그 1남을 아들이 없이 돌아간 중시 오와공에게 출계 입후시키고 자신은 또 후사가 없어 3종 탁(倬)의 아들 명헌(命憲)을 입후하였다.

권 흥 영조 38년 (1762)~순조 8년 (1808)

자는 경현(景賢)이고 호는 육연당(六然堂)이며 정헌공계 화산부원군과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후손이다. 충정공 협(挾)의 7대손이며 도정공(都正公) 대운(大胤)의 5대손으로 세옹(世膺)의 손자요 지언(趾彦)의 계자로 생부는 같은 세대 길흥군파(吉興君派) 문언(文彦)이다.

정조 9년(1785)에 24세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내직으로 한학교수(漢學敎授)·이조좌랑(吏曹佐郎)을 거쳐 정랑(正郎)에 이르렀으며, 외직으로 맹산(孟山) 현감으로 역임하였다. 공은 현릉원(顯隆園 : 사도세자)의 전례(典禮)에 관한 일로 논변이 일어났을 때 상소로써 홍계훈(洪季薰)을 탄핵하고 또 상소를 올려 변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의 무고를 변호하며 군은 의리를 지키다가 집권파의 미움을 받아 더 이상 중용되지 못했다.

배위는 숙인 진주강씨(晉州姜氏) 우흠(禹欽)의 딸이고 묘소는 경기도 부천(富川) 계남면(桂南面) 괴안리(槐安里) 승지공 묘소 동쪽 산마루 신좌였는데 낙원(樂園) 공원묘지로 이장하였다. 아들은 장헌(章憲)·조헌(組憲)이 있는데 장남 장헌은 재종숙에게 출계했다.

권 환 (權 環) 인조 14년 (1636)~숙종 42년 (1716)

자는 중장(中章), 호는 제남(濟南)이다. 정헌공계 화산부원군 복(復)의 후손으로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현손이요 충정공(忠貞公) 협(挾)의 증손이며, 도정공(都正公) 대운(大胤)의 둘째 아들이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에게서 배웠으며 효종 8년(1657)에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고, 현종 9년(1668)에 문과에 양도장원(兩度壯元)한 후 교리·전랑(銓郎 : 이조정랑)·응교를 거쳐 관서(關西) 및 영남 지방 어사, 북평사(北評事 : 북평 역에 딸린 정6품직 문관)가 되었다. 이어 황해도관찰사·개성유수(開城留守)를 지내고 공조와 병조의 참판을 거쳐 도승지를 역임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대사성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 오위도총부 부총관(副總管)을 역임 하였다.

숙종 15년(1689)에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 왕후 민씨(閔氏)가 폐위되었는데, 이때 왕후 폐위가 불가하다고 상소하여 왕의 분노를 산 오두인(吳斗寅) 등을 공이 대사간직에 있으면서 소계(疎啓)하여 구해 주기도 하였다. 81세로 졸하기까지 직절(直節)과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유집(遺集) 9권이 있다.

묘소는 경기 부천 동면(東面) 계양산(桂陽山) 동쪽의 임학동(林鶴洞)에 해좌로 있으며 배위는 중 정부인 광주 이씨(廣州李氏) 도사(都事) 상건(象乾)의 딸인데 인조 14년(1636)에 태어나 1남 1녀를 생육하고 현종 4년(1663) 정월 9일에 졸하였다. 계배는 중 정부인 순천 김씨(順天金氏) 현감 두명(斗明)의 딸인데 3남 3녀를 생육하였으며 기일은 11월 29일이다. 아들은 참봉 응경(應經)·헌경(憲經)·덕경(德經)·문과 전적 무경(懋經)이 있다.

▶ 저서 : 濟南集

▶ 문헌 :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文科榜目>, <韓國人名大事典>, <金陵郡誌>

권 황(權 愷) 중종 38년(1543)~인조 19년(1641)

자는 사영(思瑩), 호는 치암(恥菴)이며 상(常)의 둘째 아들이다.

순천군 이관(李琯)의 문하에서 배워 선조 9년(1576)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보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寺)가 된 후 형조·호조의 좌랑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모부인을 강화도로 모시어 피난하였고, 인조 2년(1624)에는 친상을 당하여 예에 따라 집상(執喪)을 하였다.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으로 책봉되었으며,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 등의 내직과 4군(君)의 수령으로 재임할 때에는 청백리(淸白吏)로 모든 사람의 존모를 크게 받았다. 그러나 광해주의 난정으로 사직하고 일시 은둔하여 두 아우인 참판 희(禧)·판서 협(俠)을 상대로 답락(湛樂)한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1623년 계해에 인조개옥(仁祖改玉)이 이루어지자, 공은 80노령에 용양위(龍驤衛) 부호군(副護君)이 되고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에 이르렀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비어대(緋魚袋)를 하사받고,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는 등, 조정의 원로로서 노구를 쉬지 않았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에는 전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도성이 함락되어 신변이 위태로웠는데, 성만 바라보며 규호하던 상황에서 다행히 천운이 있어 흑자의 의선(艤船 : 대기선)에 구조되어 화를 면하였다. 당시의 일이 <대동기문>에 기록되어 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공이 일찍이 마전 현감(縣監)으로 재직 중 사형수가 십수 명이 있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모두 석방한 일이 있었다. 그 후 병자년에 호란이 일어나 가족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도성이 함락되매 피난민들이 진두(津頭)에 운집

하게 되었다. 공은 도성만 바라보며 규호(叩號)할 뿐 다른 계책이 없었다. 그 환란 중에 어느 사람이 찾아와 공을 이끌어 나가기에 가족들이 전부 따라가 보니, 한 곳에 의선이 있었다. 공이 물으니 그 사람이 답하기를, “저는 전에 마전옥의 사형수였습니다. 수령님의 은덕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으므로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재생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곳까지 와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공은 내우외환에 피화됨이 없이 99세로 천수를 누리고 졸하니, 당시 밤에도 광기가 있어 며칠 동안이나 뜰을 밟혔다고 한다. 부고를 받은 인조는 사람을 보내어 후히 치제(致祭)하였으며, 증직으로 좌찬성(左贊成)을 내렸다.

권 흥 옥 (權興玉) 철종 11년 (1860) ~ 1942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12대 손(孫)으로, 대경(大慶)의 10대손이다. 기헌계(奇憲係) 김포시 계양면 동양리에서 출생하였다. 경기도 평의원(評議員)을 역임(歷任)하였다. 묘는 경기도 고양군에 있다.

권 희 (權 愷) 명종 2년 (1547) ~ 인종 2년 (1624)

조선 문신, 자는 사열(思悅), 호는 남악(南岳), 본관은 안동,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상(常)의 아들이고 협(挾)의 아우로,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에서 성장했다.

선조 1년(1568) 진사가 되고, 선조 17년(158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고 주서(注書), 전적(典籍)을 거쳐 각 조(曹)의 낭관(郎官), 양사(兩司)의 벼슬을 역임했다. 선조 25년(1592) 종묘서령(宗廟署令)이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평안도로 피난할 때 역대 왕의 신주(神主)와 어보(御寶)를 안전하게 모시고 행재소에 도착, 난후에 종묘의 전례(典禮)를 모두 복구할 수 있게 했다.

선조 29년(1596) 종부사정(宗簿寺正) 겸 집의(執義)로 진위사(陳慰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사행하고 귀국 후, 호조, 예조, 형조의 참판(參判)을 역임했다. 선조 36년(1603)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와서 황해도, 충청도관찰사, 강화유수, 금산군수, 광주목사를 지냈다. 1597년 정유에 안동 태사묘(太師廟)를 성배하고 「남악기(南岳記)」를 지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의 묘소는 안동부(安東府) 서후면(西後面) 검제(黔堤)의 천등산(天燈山)에 있으니 부(府)로부터 20여 리 상거(相距)한 곳이다. 정유년 겨울에 희(禧)가 명나라 장수 이방춘(李芳春) 부총병(副總兵)의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이곳 부사(府司)에 이르러 곧 주과(酒果)를 갖추고 제문(祭文)을 지어가지고 공의 묘소를 성배하였더니 묘 아래 수리허(藪里許)에 거주하는 권씨성의 지방민 십여 인이 와서 참사하였다. 묘 옆에는 큰 사찰이 있는데, 이것이 곧 봉정사(鳳停寺)라 하는 절이다.”

황해도감사를 역임하면서 도내의 백성들이 흉년으로 기근이 든 것을 염려하여 풍년이 든 호남지방의 곡식을 수송하여 도민에게 나누어주고 종자도 나누어주어

기일 안에 뿌릴 수 있도록 조정에 건의하였다.

임진왜란 때 왕실의 신주를 모신 공으로 인조 2년(1624)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고 호성(扈聖)·선무(宣武)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사후(死後)에 우의정을 추증(追贈)했다. 숙종 6년(1680)에 의정부에서 계청함에 공에게 특별히 추훈(追勳)으로 봉군(封君)을 하고 시호를 내릴 것을 의논하도록 하교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 문헌 :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金浦郡誌>, <韓國人名大事典>

김 경 의 (金敬義) 세조 7년 (1461)~ 중종 27년 (1532)

자는 의지(宜之). 어려서 부지런히 배우고 총명(聰明) 강건(強健)하고 지대(志大) 염직(廉直)하여 충효로써 염(念)을 삼았다. 부친 상복을 마치자 친당(親堂)이 강건한 재목이니 활쏘기를 익히면 공(功)을 이름이 빠르리라 권하니 스스로 책을 끼고 무(武)를 익혀도 된다 하고 <논어(論語)>·<맹자(孟子)>·<춘추(春秋)>·<십구사략(十九史略)>·<장감(將鑑)> 읽기를 좋아하여 널리 살피고 초학(初學)으로 초시에 무재(武才)로 응하였으나 모든 시험마다 부중(不中)되어 사람들이 무재가 탁월하나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굴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평안도 절도사가 부임할 때 별군관(別軍官)으로 계청(啓請) 대행(帶行)하니 마침내 피인(彼人)을 사로잡아 군공(軍功) 일등에 뽑혀 빼어난 지질을 다하였다.

연산군 3년(1498)에 평안도 방산진(方山鎭)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가 되었고, 정덕(正德) 원년에 은율현감(殷栗縣監)에 제수 되었고, 그 해에 병충분의(秉忠奮義) 결책익은정국공신(決策翊運靖國功臣)에 참여되어 가선(嘉善)에 오르고 지산군(支山君)에 봉하여졌다.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官)을 겸할 때 대간(臺諫)이 여러 번 계(啓)를 올려 김모(金某)는 부총관의 임부가 불합(不合)하다 하나 모두 윤휴하지 않으셨다. 뒤에 아래에서 그 계를 논의할 때 유순(柳洵)이 말하기를 김모(金某)의 사람됨은 청간(請簡)하여 은율에서 일임(一任)할 때 유애(遺愛)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리고 살펴 헤아림을 만났다 하고 성희안(成希顔)이 말하기를 김모(金某)는 사람됨이 청간하여 은율에서 자못 정성(政聲)이 있었으며 또한 공신이 되어 이품(二品)에 올랐으니 그 전(典)으로 하면 금병(禁兵)에 무슨 불가함이 있으랴 하였다. 유내가 말하기를 김모(金某)를 모두 청간하다 말하고 또한 과실이 없으니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고 유순정(柳順汀), 홍경주(洪景舟)가 같은 말로 계(啓)를 올리니 윤휴에 의하여 의주목사(義州牧使)에 제수되니 간원(諫院)에서 또 자리 바꾸기를 청하였다. 전교(傳敎)에 의하면 김모(金某)는 일찍이 수령이 되어 그 직무를 잘하였고 인품을 갖추어 어질며 친히 공신이 되어 위(位)가 이품(二品)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미 부총관을 바꾸었는데 또 목사를 바꾸랴 하면 곧 이는 끝내 수령을 폐하는 것이라 하고 윤휴하지 않았다.

뒤에 경상우도(慶尙友道) 조방장(助防將)에 제수되어 부임에 나가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함안군수(咸安郡守)를 제수 받고 임기가 차 바뀐 지 한 달을 넘여 경원부사(慶源府使)를 제수 받았으나 질병으로써 사직을 하였고 경주목사(慶州牧使)에도 제수 되었으나 역시 질병으로 사직하였다.

상(上)의 요청이 있고 대간(臺諫)에서 계를 올려 질병으로써 의탁하여 사양하

다가 결국 부임하여 임기가 차기도 전에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모든 외임(外任) 주군(州郡)에 다 염간(廉簡)하다 칭하였다. 증(贈) 자헌대부(自獻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묘는 김포시 고촌면에 있으며 지산군과 후손들이 시향을 모시고 있다.

김 경 인 (金敬仁) 세조 3년 (1457)~?

강릉군 문취(文就)의 장자로 성품이 총명 강선하고 효우(孝友) 돈독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경서와 병서를 통독하여 훈원원 시취(試取)에 취재(取才)되어 봉사에 출사한 이래 참군(參軍)과 주부(主簿)를 역임하고 외관직으로는 초지량만호(草芝梁萬戶)를 지냈으며 만호공(萬戶公)의 파조이다. 묘는 고촌면 태리에 있다.

김 광 찬 (金光燦) 선조 30년 (1597)~현종 9년 (1668)

조선 문신. 본관은 안동, 자는 사회(思晦), 호는 운수거사(雲水居士). 작은아버지인 좌의정 상헌(尙憲)의 양자.

1627년 생원시에 합격, 음서(蔭敍)로 세마(洗馬)가 되었다. 병자호란 때 아버지를 따라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통진(通津)·교하(交河)의 현감 등 지방관을 지냈다. 아들 수흥(壽興)·수항(壽恒)이 출세하자, 현종 2년(1661) 공조참의가 특별히 제수되었다. 뒤에 청풍군수·파주목사를 거쳐 중추부 동지사(同知事)를 지냈다. 서예에 뛰어났고 부친의 영향으로 동기창체(董其昌體)에도

조예가 깊었다.

▶ 문헌 : <韓國人名大事典>

김 남 산 (金南山) 고종 26년 (1889)~1966

1919년 3월 24일 김포시 고촌면(高村面) 신곡리(新谷里)에서 김정국(金正國), 윤재영(尹在英)·윤주섭(尹周燮) 등과 같이 마을 뒷산에 주민 50여 명을 규합, 사전에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소요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判決文(1919. 5. 22. 京城地方法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김 덕 원 (金德遠) 인조 12년 (1634)~숙종 30년 (1704)

조선조 문신, 자는 자장(子長), 호는 휴곡(休谷), 본관은 원주(原州), 판관(判官), 인문(仁文)의 아들.

효종 5년(1654) 진사(進士), 현종 3년(1662) 정시문과(庭試文科) 병과급제,

승문원부정자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현종 연간에는 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을 역임하면서 언관(言官)으로 활약하였다.

1666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급제. 전적(典籍), 지평(持平),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뒤에 형조, 호조판서, 숙종 15년(1689) 우의정을 역임했다. <현종실록> 개수의 주장에 앞장섰고, 복제논쟁은 허목의 설을 따랐다. 뛰어난 재주와 원만한 성품이 숙종에게 인정되어, 서인정권이 들어서고 모든 남인이 제거될 때에도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숙종 20년(1694) 갑술옥사(甲戌獄事)에 제주에 유배, 숙종 22년(1699) 풀려 나와 양천에서 죽었다.

묘에서 출토된 의복은 보물 제672호로 지정되어 있다. 출토된 옷들은 모두 비단·명주로 짠으며 옷의 종류는 창의(襜衣)·직령(直領)·철릭·답호·저고리·바지·치마·이불·넓은띠·토수(吐手)·복건(巾)·옷감 등이다. 지정된 옷은 50종류이다.

▶ 문헌 :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星湖文集>, <韓國人名大事典>

김 도 연 (金度演) 고종 31년 (1894)~1967

정치가, 독립운동가, 호는 상산(常山)이고 김포(현 양천구 염리동) 출신이다. 1913년 일본 금성 중학교(錦城中學校)를 졸업, 1919년 게이오대학 이재학부(慶應大學理財學部)를 수료했다.

1. 생애

1915년 말, 겉으로는 학술 연구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비밀항일 결사인 조선학회(朝鮮學會)에 가입하고, 1918년 1월 간부 개선 때 서기(書記)로 피선, 1919년 1월 6일 동경에 있는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학우회 주체로 웅변대회를 가장, 독립운동 방법을 숙의하고 그 대표위원의 한 사람으로 피선, 2월 8일 재일본 동경조선청년독립단(在日本東京朝鮮靑年獨立團)의 일원으로 독립선언식에 참여하고 경찰에 체포돼 9개월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27년 미국 콜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31년 아메리칸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후 연희전문학교 강사로 취임했고,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함흥형무소에서 2년 간 옥고를 치르고, 1945년 봄 출감했다.

광복 후 우파(右派) 진영의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총무로 정계에 투신, 1946년 2월 미군정 하에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의원에 위촉되고, 1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당선되었다(민선).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재정분과위원장(財經分科委員長)에 피선되고, 8월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재무장관에 취임, 한·미 경제협정 교섭 시 한국 측 대표로 활약했다. 1954년 민주국민당 최고위원으로 3대 국회에 진출, 1955년 민주당 고문에 추대, 4·5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국회 부의장에 피선됐다.

4·19혁명 후 8월 국무총리 지명에 실패, 11월 민주당(民主黨) 구파(舊派) 동지들을 규합, 신민당(新民黨) 위원장이 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의원직 상실, 1963년 11월 6대 총선에서 민중당 전국구위원으로 당선되었으나, 1965년 8월 한·일 협정의 국회비준에 반대, 의원직을 사퇴했다. 저서로는 자서전인 <나의 인생백서>, <한국농촌경제> 등이 있다. 1964년 독립운동 당시의 공을 기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 활동 조직

(1) 한국민주당

1945년 8·15광복 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족주의 보수세력이 집결하여 창당한 정당.

초기에는 중국의 임시정부를 지지하여 그 법통을 옹호하였으나, 점차 이승만의 ‘단정(單政) 주장’과 임시정부측의 ‘단정 반대’로 정치적 의견과 노선이 갈라지자 이승만(李承晩)의 단정론을 지지, 임시정부를 지지했던 태도를 바꾸었다. 그 후 단정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나 이승만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스스로 야당화하였다.

1945년 9월 6일 여운형(呂運亨)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고려민주당, 조선민주당, 한국국민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환영 국민대회 등 민족주의 민주세력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들은 민족진영의 모든 세력을 하나로 통합할 것에 합의하고, 9월 16일 천도교회관에서 100여 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민주당(한민당)’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영수로서 이승만(李承晩)·김구(金九)·이시영(李始榮) 등을 추대하고 당수(黨首)격인 수석총무에 송진우(宋鎭禹)를 선정하였다. 그 외 각 부서에 당시 대다수의 민족지도자들이 배치됨으로써 어떤 정치단체보다도 우수한 민족주의 민주세력들이 총집결되었다. 이 때부터 이들은 우익 민족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미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미군정의 여당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 후 이승만의 단정 추진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크게 활약하였으며, 5·10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승만이 이끌던 ‘대한독립촉성국

민회'의 55명에 이어 두 번째인 29명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정치활동 면에서는 오히려 한민당이 주도권을 잡아, 한민당이 미리 법학자 유진오(兪鎭午)로 하여금 기초하게 한 내각책임제 헌법안을 토대로 헌법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 헌법으로 변경되면서 이승만과의 심각한 대립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정부수립을 위한 초대 조각인선에 한민당이 소외되면서 이승만에 대한 본격적인 반감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한편 한민당은 5·10총선거를 거치면서 당세가 위축되자 소장파 의원들과의 대립으로 인기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의 기본 정치목표의 하나인 내각책임제에 의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동조 정치세력을 규합, 헌법개정을 통하여 그를 성취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하여 한국독립당 당원이던 '대한국민회'의 신익희(申翼熙) 세력과 '대동청년단'의 지청천(池青天) 세력을 규합하여 1949년 2월 10일 한민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민주국민당(민국당)'을 창당하였다. 그 후 한민당 세력은 여러 차례의 이합집산과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민주국민당, 민주당,新民당, 민중당, 민정당, 신한당 등으로 변천하면서 한국정당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민당은 한국의 지주계층, 자산가 및 지성인들이 주축이 된 정당으로서 자연히 그 이념과 성격은 보수적이며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삼는 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돌아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 그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의 수립을 통한 조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수립과 건국을 당면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창당대회에서의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독립운동의 결정체이고, 현재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소위 정권을 참칭(僭稱)하는 일체의 단체 및 그 행동은 그 여하한 종류를 불문하고 이것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선언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단정 수립 문제를 놓고 임정계통과 정치적 견해가 달라짐에 따라 한민당은 임정 지지의 노선을 버리고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지지,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민당의 정강(政綱)은 자주독립국가의 기약, 민주주의 정체의 수립, 근로대중의 복리 증진, 민족문화의 양양과 세계문화에의 공헌, 국제헌장의 준수와 세계평화의 확립 기약 등 한국 헌법의 기본방향을 정강으로 채택하였다.

(2)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南朝鮮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

1946년 한국에 설립된 미군정청의 자문기관.

1946년 2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최로 소집된 비상국민회의는 최고정부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구성을 이승만(李承晩)·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 3인에게 일임하여 28명의 최고정부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청의 요청으로 본래의 성격과 명칭을 바꾸어 ‘민주의원’이라 하였다.

주한 미군사령관인 중장 J.R.하지의 자문기관으로, 과도정부 수립을 촉진하는 사명과 한국의 완전독립을 조속히 실현하는데 공헌하기 위해 2월 14일 개원하였다. 조직은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김규식이었으나, 2월 23일 민주의원 규범 32개조에 따라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규식, 총리 김구, 비서국장 윤치영(尹致暎), 서무국장 고희동(高羲東), 공보국장 함상훈(咸尙勳), 통계국장 조종구(趙鍾九), 기획국장 최익(崔益)이 되었다.

회의는 매주 3회(화·목·토) 창덕궁에서 개최하여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해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모든 우익 세력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자 그 동안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전개

하던 우익 진영은 분열되었다. 그 후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되자, 이승만 중심세력에 의한 남한단독정부수립추진운동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간파 세력들에 의한 좌우합작운동으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촉진하고 통일정부수립을 추진하는 두 갈래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세변화와 더불어 1946년 12월 12일 미군정청에 의해서 설립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이 개원되면서 비상국민회의와 그 후신인 민주위원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 민주위원의 성격은 결의기관이 아닌 미군정장관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아 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며, 좌익 세력의 결집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대립하였다. 또한 미군정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았는데, 미군정의 의도와는 달리 의원들은 정권인수를 위한 국민대표기관으로 인식하였다.

(3)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로 들어가자 미군정은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 등 온건한 좌우 양파의 지도자들에게 좌우합작운동을 시도하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한편, 군정장관 A.L.리치는 한국인이 요구하는 법령을 한국인 스스로가 제정하는 입법기관 창설을 주한 미군사령관인 중장 J.R.하지에게 건의하여 동의를 얻어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 제1·2조에서 “입법의원은 모스크바삼상회의 협정(모스크바협정)에 의거한 통일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 초안을 작성한다”고 목적을 천명하였으나,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되고 국내 정세가 매우 혼란한 상태였으므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설, 중추원 재판설, 통일정부 지연설, 군정 연장설 또는 합리화설, 국민의회의 법통무시설 등

창설에 대한 비난이 매우 심하였다.

법령에 따라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45명은 간접적인 민선으로, 45명은 하지가 임명한 관선으로 총 90여 명의 입법위원이 선출되었고, 1946년 12월 12일 개원하였다. 원래 11월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좌우합작위원회가 부정선거와 친일파 등장을 문제삼아 서울과 강원도 선거가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여 1개월 지연되었다.

의장에 김규식, 부의장에 최동오(崔東杔)·윤기섭(尹琦燮)이 선출되었고, 8개의 상임위원회(법무사법위원회·내무경찰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산업노동위원회·외무국방위원회·문교후생위원회·운수체신위원회·청원징계위원회)와 6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 관계법안을 제정·통과시켰다. 1948년 5월 19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2호로 해산되기까지 공포한 법률은 11건, 심의한 법률이 50여 건이었으나, 입법위원을 거치지 않고 군정법령으로 공포된 것이 80건에 달한 점 등을 볼 때 당시의 입법위원은 입법부로서의 준비단계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였다.

또한 입법위원에서 제정한 법령은 군정장관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회의 기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입법위원에서 통과한 중요 법령은 하곡수집법,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사찰령 폐지에 관한 법령, 미국수집령 등이다.

(4) 민주당

1955년 자유당의 사사오입개헌을 계기로 반(反)이승만 보수세력이 모여서 만든 정당으로서, 민주국민당(약칭 민국당)을 모체로 하고 홍사단계열, 자유당 탈당의원, 제2대 국회 말기의 무소속 구락부 등의 범야세력을 규합하여 그 해 9월

18일 창당하였다.

초대 대표최고위원은 신익희(申翼熙), 최고위원은 장면(張勉)·조병옥(趙炳玉)·곽상훈(郭尙勳)·백남훈(白南薰) 등이었다. 창당 초기부터 강력한 야당으로서 호헌투쟁을 전개하고 지방조직에 힘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지명하였다. 5월 5일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급서(急逝)하여 큰 타격을 받았으나 장면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고 계속 자유당과 투쟁하였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당인 자유당이 126석을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이 76석을 차지하여 호헌선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도시에서 승리하였다.

1960년 정·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 조병옥의 급서와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패배하였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무너진 후 7월 선거에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이 선출되고 국무총리에 장면이 인준됨으로써 민주당 전성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 고질적인 신구파(新舊派)간의 파쟁 끝에 10월 18일 구파가 신민당으로 떨어져 나갔다. 민주당은 표면상 원내 안정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시 노장파·소장파·합작파·중도파의 분쟁이 심화되어 행정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 정부는 집권 후 약 9개월 동안 4번이나 개각을 단행하였으나 뜻대로 정국안정을 실현하지 못한 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 1월 정치규제가 풀리자 7월 18일 박순천(朴順天)을 당총재로 하여 민주당이 재건되었다. 그러나 11월 26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13석을 얻어 원내 제2야당이 되었다. 1964년 10월 국민의 당을 흡수하고, 1965년 6월 14일 원내 제1야당인 민정당과 합당하여 민중당을 창당함으로써 해소되었다.

- ▶ 저서 : 나의 인생 백서, 한국농촌경제
- ▶ 문헌 : <獨立運動史>, <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김 매 순 (金邁淳) 영조 52년 (1776) ~ 현종 6년 (1840)

조선의 학자, 자는 덕수(德叟), 호는 대산(臺山), 본관은 안동, 창흠(昌翕)의 4대손, 군수(郡守) 범행(範行)의 손자.

1. 생 애

정조 19년(1795)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검열(檢閱), 사인(舍人)을 거쳐 초계문신(抄啓文臣)이 되고, 예조참판, 강화부 유수(留守) 등을 역임했다. 문장은 홍석주(洪奭周)와 함께 당대 으뜸으로 여한십대가(麗韓十大家)의 한 사람으로 뽑혔다. 특히 그가 지은 「삼한의열녀전서(三韓義烈女傳序)」는 천고의 절조(絶調)라고 칭송되었다. 학문은 한원진(韓元震)의 학설을 지지, 호론(湖論)에 속했으며, 덕행으로 저명했다. 고종(高宗) 때 판서에 추증,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2. 주요 저서

《대산집(臺山集)》

활자본. 20권 10책. 문인인 김상현(金尙鉉)이 유신환(兪莘煥)과 함께 교정한 것을, 고종 16년(1879) 아들 김선근(金善根)이 간행하였다.

권1~3은 부(賦)·시(詩), 권4는 소차(疏筭)·계사(啓辭), 권5~6은 서(書), 권7은 서(序)·기(記), 권8은 제발(題跋), 권9는 잡저(雜著), 권10~12는 묘지(墓誌)·묘갈(墓碣)·묘표(墓表)·비(碑)·행장(行狀)·제문(祭文), 권13~14는 가사(家史), 권15~20은 꺾여산필(闕餘散筆) 등이다. 가사는 직계·외계·방계의 3전(三傳)으로 나누어 저자의 내외조선(內外祖先)에 대한 전기를 기록한 것이고, 꺾여산필은 저자가 여러 책을 읽고 선배에게 견문한 내용 및 의심나는 대목을 논변(論辨)한 것이다. 김병학(金炳學)의 서문(序文)과 김상현의 발(跋)이 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열양(洌陽), 곧 한양(漢陽)의 연중 행사를 기록한 책.

활자본. 1책. 필사본으로 전해온 것을 1911년 광문회(光文會)에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경도잡지(京都雜志)>와 합본하여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1~12월까지 1년 동안의 행사와 풍속을 21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주로 서울의 풍속을 다루었는데 <동국세시기>와 같이 연원(淵源)을 중국의 풍속에서 찾는다. 책 끝에 저자의 발문(跋文)이 있고 윤직(尹稷)이 교열하였다.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抄)》

조선 말기 김택영(金澤榮)이 편찬한 고문선집(古文選集). 11권 1책. 신활자본. 1921년 중국의 한묵림서국(翰墨林書局)에서 간행되었다.

고려와 조선의 대표적인 고문가 9인과 편자인 김택영까지 모두 10인의 대표적인 문장을 문체별로 한 두 편씩 선별하여 엮은 책이다. 원래 편자는 고려의 김부식(金富軾)과 이제현(李齊賢), 조선의 장유(張維), 이식(李植), 김창협(金昌協),

박지원(朴趾源), 홍석주(洪奭周), 김매순(金邁淳), 이건창(李建昌)의 9인을 선정하였는데 원고 보관을 위촉받은 왕성순(王性淳)이 여기에 김택영을 자의로 추가하여 <여한십가문초>로 간행하였다.

편찬 목적은 중국인들에게 한국 한문학의 진면목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편자 자신이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문장가였던 관계로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지금까지도 고문선집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편자는 사륙변려문(四六駢麗文)을 배격하여 최치원(崔致遠)을 탈락시키고 한국 최초의 고문가로 김부식을 들었으며,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는 성리학(性理學)의 영향으로 유행한 주소어록체를 배격하여 이제현만 선발하고 이색(李穡)을 제외하였다. 또한 조선 중엽에 진한고문파(秦漢古文派)가 성행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조선 중엽의 대표적 문장가인 차천로(車天路)와 최립을 제외하였다.

결국 편자는 당송고문파의 관점에서 고문가를 선발한 셈인데 그러다 보니 조선 말엽의 인물이 여섯 사람이 되었다. 이 같은 선발 기준에 대하여 많은 이의와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고려 말의 대가인 이색이 빠진 것에 대하여 특히 논의가 분분하였다. 또한 성리학자인 조공섭(曹兢燮)같은 사람은 최립이 빠진 문제를 놓고 편자인 김택영과 편지를 통해 논란을 벌리기도 하였다. 1977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본이 간행되었다.

3. 작 품

여기에서는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抄)>에 실린 「삼한의열녀전 서(三韓義烈女傳序)」를 소개하기로 한다.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抄)> 권(卷) 9에 실려 있다.

《삼한의열녀전 서(三韓義烈女傳序)》

글을 짓는 체가 셋이 있으니, 첫째는 간단한 것이요, 둘째는 진실한 것이요, 셋째는 바른 것이다. 하늘을 말할 때 하늘이라고만 하고, 땅을 말할 때 땅이라고만 하는 것을 간단이라 하고, 나는 것은 물에 잠길 수 없고 검은 것은 희게 될 수 없는 이것을 진실이라 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바른 것이라 한다. 그러나 마음의 미묘한 점은 글로써 드러내는 것이니, 글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드러내어 남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하여 부족하면 말을 번거롭게 하여 창달하고, 진실되게 말하여 부족하면 사물을 빌어 비유하며, 바르게 말을 하여 부족하면 뜻을 되돌려서 깨닫게 하니, 번거롭게 하여 창달하는 것은 그 속됨을 싫어하지 않으며, 빌어다 비유하는 것은 기이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되돌려 깨닫게 하는 것은 격한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쓰임이 창달되지 않아 본체는 독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요(堯)가 말하기를,

“넘실거리는 홍수는 방금 큰 해가 되어 산을 안고 언덕에 올라 넓고 넓어서 하늘에 닿을 듯 하다”

하였으니, ‘아 저 홍수’라는 한 말이면 충분할 것을 이미 ‘넘실거린다’라 하고 또 크다니 넓다니 하였으니, 말로서는 넘쳤는데도 다시 손과 눈으로 돕고 있으니 또한 속되지 않은가? <시경(詩經)>에,

雖則七襄 직녀는 종일 일곱 필을 찢다지만,
不成報章 포백의 문채를 이루지는 못하누나.
腕彼牽牛 저 견우를 보면,
不以服箱 수레를 멍에 메워 끌지는 못하누나.

하였으니, 별이 베를 짜거나 수레를 몰지 못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것이니, 이 어찌 기이한 말이 아닌가.

재여(宰予)가 상기(喪期)를 단축하려 하자 공자가,

“네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여라.”

하였다. 재여에게 이 말을 옳다고 그대로 믿게 하여 그 상(喪)을 단축하였다면 어찌 되겠는가? 이것 역시 격동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삼대(三代 : 夏 · 殷 · 周) 이전은 순박함을 잃지 않았으며, 성인은 중화(中和)의 극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하면 문장이 이루어진다. 속된 것은 창달하는 데 적당하여 비설(鄙褻)한 데 흐르지 않으며, 신기한 것은 비유에 넉넉하여 탄궤(誕詭)에 빠지지 않으며, 격동시키는 것은 깨닫게 되기를 기약하고 집요하게 하나 어그러지는 데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소리에 비유하면 크게는 뇌성벽력으로부터 작게는 모기나 파리 소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여 셈하여 헤아리면 어찌 천 가지 만 가지에 그치겠는가? 선대(先代) 왕들이 음악을 만들 때 음은 다섯에 지나지 않고 율(律)은 열둘에 지나지 않는 것은, 절도를 취하여 가운데에 맞게 한 것이다.

신성한 임금들이 모두 가버리고 도는 어둡고 정치는 피폐하여 천하의 변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말에 능한 선비로서 장주(莊周) · 굴원(屈原) · 태사공(太史公)의 무리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초야에 빠져서 종신(終身)토록 곤액(困厄)을 당하여 비통한 근심, 감개(感慨)한 울분이 가슴에 엉겨 발표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글을 읽으면 왕왕 긴 노래와 같이 통곡하는 듯하고 비웃으며 욕하는 것 같아서, 진실로 그 뜻을 울릴 수 있으면 비설(鄙褻)하고 어긋나는 말들이 입에 꼭 차서 절제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그 높은 점은 혹 경전에 버금가기도 하나 총담 · 패설 · 배우의 잡희(雜戲)같이 낮은 것들도 또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슬프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인가? 삼물(三物 : 六德 · 六行 · 六藝)이 위로 행해지지 않고 사과(四科 : 德行 · 言語 · 政事 · 文學)의 교화가 아래에 들리지 않아, 방탕 방자를 금제(禁制)할 수 없으니, 마치 강하(江河)가 끊어져 사방으로 넘쳐흐르는 것은 신성한 우(禹)가 다시 나오더라도 단지 그 정세에 순응하여 내려가도록 할 뿐이지, 끝내 만회하여 이것을 막아 동쪽으로 물길을 이끌고 북쪽으로 나누어 옛길을 따라 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융통성이 없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선비들이 재잘거리면서 법도로써 그 결과를 의론하려 하니 정말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종친 죽계자(竹溪子)는 천하의 기이한 선비요, 그가 지은 삼한의열녀전(三韓義烈女傳)은 천하에 기이한 글이다. 죽계자는 약관(弱冠)에 문장이 이루어졌으나 늙어서 머리사 세도록 때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가 이 글을 쓴 것은 곧 장주 · 굴원 · 태사공의 무리들과 더불어 말을 달려서 앞을 다투려는 것이고, 한유(韓愈) 이하는 거론하지도 않았으니, 그 뜻이 비장하다. 애석하다!

나의 학문은 죽계자의 덕을 돕기에 부족하고 나의 힘은 죽계자의 재주를 천거하기에는 부족하니, 내가 죽계자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오직 세상에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고금 문장의 본체와 작용의 변화는 살피지 않고, 비설하고 궤탄하고 어그러졌다고 시비한다면, 내가 비록 글은 못하나 내가 능히 죽계자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서 : 臺山集, 篆餘日錄, 臺山公移占錄, 洌陽歲時記

▶ 문헌 : <憲宗實錄>, <朝鮮圖書解題>, <韓國人名大事典>, <(國譯)麗韓十家文抄>

김 문 취 (金文就) 세종 10년 (1427)~성종 6년 (1474)

김알지(金闕智)의 22세손으로 예조참판 김상전의 장자. 세조조에 군자감부정(軍資監副正)을 지냈다. 둘째 아들 경의(敬義)가 중종반정의 공훈으로 일등공신(一等功臣)이 되어 부모의 작훈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예에 따라 증(贈)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순충(純忠) 보조공신과 강릉군에 추증되었다.

김 상 (金 尙) 선조 19년 (1586)~?

조선 문신, 자는 우고(友古), 호는 사은(士隱), 본관은 상산(商山), 덕겸(德謙)의 아들.

진사로서 광해군 2년(1610)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광해군 7년(1615) 형조좌랑(刑曹佐郎), 1623년 은계찰방(銀溪察訪), 이듬해 장령(掌令), 병조참지(兵曹參知), 인조 3년(1625) 강원도 관찰사, 익년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어 우승지(右承旨)를 역임하고 인조 10년(1632)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지냈다. 인조 14년(1636) 내직으로 옮겨 좌승지(左承旨), 이듬해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겸대하고 인조 21년(1643) 충청도 관찰사, 인조23년(1645) 좌·우승지(左·右承旨)를 지냈다. 승지직에 있으면서 무리 없는 처신으로 인조의 신임을 받으면서 25년 간 후설직(喉舌職)에 머물렀다.

▶ 문헌 :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榜目>, <通津邑誌>

김 상 구 (金尙耆) 숙종 30년 (1704)~?

조선 문신, 자는 사담(士聃), 본관은 강릉(江陵), 시정(始正)의 아들.

영조 10년(1734) 유학(幼學)으로 춘당대(春塘臺)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 지평(持平)을 거쳐 이듬해 정언(正言)이 되고, 영조 13년(1737) 사서(司書), 이듬해 지평, 정언을 역임하고, 영조 21년(1745) 장령(掌令)이 되고, 영조 24년(1748) 사간(司諫), 헌납(獻納)이 되었다. 영조 26년(1750) 집의(執義) 교리(敎理)를 거쳐 부수찬(副修撰)을 지내고 이듬해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이 되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고 승지(承旨)가 되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무를 처단하였다는 명목으로 윤광의를 탄핵하다가 도리어 영조의 노여움을 사 양천현감(陽川縣監)으로 좌천되었다. 뒤에 다시 복귀하여 영조 30년(1754) 대사간(大司諫)으로 옮기고 이듬해 승지가 됐다.

▶ 문헌 : <英祖實錄>, <國朝文科榜目>

김 수 동 (金壽童) 세조 3년(1457)~중종 7년(1512)

조선조 문신, 자는 미수(眉叟), 호는 만보당(晩保堂), 본관은 안동,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적(積)의 아들.

1. 생애

성종 5년(1474) 진사, 1477년 식년문과 병과급제, 연산군 초에 전라·경상·경기관찰사, 연산군 5년(1499) 예조참판, 명나라 사행(使行), 연산군 9년(1503)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겸(兼)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연산군 10년(1505) 우찬성(右贊成), 이듬해 우의정이 되었다. 1506년 어머니 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물러났으나, 왕명으로 단상(短喪)으로 마치고 3개월만에 우의정에 부임한 것이다.

중종 1년(1506) 중종반정에 참여 정국공신(靖國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봉해졌다. 연산군에게 충실하였다고 사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1510년 영의정에 올라, 그 때 일어난 왜변의 진압을 총지휘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많은 문신들의 화를 면하게 하였다.

품성이 단정하였으며, 청탁을 모두 거절하고 검약한 생활을 즐겼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2. 작 품

여기서는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월야 유서호 용원운 십오 자 각부(月夜遊西湖用元韻十三字各賦)」

어허, 높기도 한지고, 범바위가 몇 천 길을 깎아지르고,
못 봉우리가 울퉁불퉁 용이 날 듯, 봉이 춤출 듯 다투어 솟았는데,
밑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장강(長江)이,
주야로 낸 성낸 조수(潮水)로 바다와 통하는구나
강 머리엔 뭉게뭉게 시커먼 구름,
강 다락엔 짹짹 소나기 내려,
강물이 얼마나 불어올랐는지,
물결이 출렁출렁 하늘과 땅이 맞닿았네.
이윽고 바람이 불고 비가 그치니,
수면(水面)이 거울처럼 고요한데,

실오리 같은 안개, 떨어지는 놀이 아물아물 보일 뿐,
 좋은 철에 즐거운 일을 저버릴 수 없어서,
 뱃사공을 불러 중류(中流)에 떠서,
 선루(船樓)에 혼자 앉아 황혼을 근심하노라니.
 맑은 하늘에 어기야 달이 떠올라서,
 해맑은 빛에 강촌(江村)이 환해지는구나.
 휘영청 희디흰 빛이 물에 퍼지고 숲에 흠어들어지니,
 잠졌던 이무기가 들쭉거리고 까마귀도 깃에서 날아오르네.
 서리 같은 칼로 생선을 저미니 은실이 날리는 듯,
 “이어라, 이어라” 노 젓는 소리에 술병을 열었네.
 좌중에 있는 미인(美人), 파란 눈에 푸른 머리,
 나를 청령궁(淸冷宮)으로 모셔다가,
 나에게 자하주(紫霞酒)를 권하여,
 나의 정신을 가물가물 아찔하게 하니,
 내가 신령한 거북을 부르고 푸른 용을 타고,
 흥에 겨워 곧 바로 신선의 고장을 찾아가려 하네.
 천풍(天風)이 나를 껴서 두둥실 올라가니,
 밑에 보이는 사람의 세상이 몇 리 밖에서 시끄러운고.
 소상강·동정호로도 이 형승(形勝)을 비교할 수 없고,
 소선(蘇仙)의 적벽(赤壁) 놀이쯤 논해서 무엇하리.
 영주(瀛洲)·단구(丹丘)의 신선이 아니면 어찌 저런 놀이를 하리.
 나같은 무장(武將)한 몸이 그릇 성은(聖恩)에 젖었구나.
 산사(山寺)에 꿈이 깨자 술도 깨고 보니,

달이 이미 숨었고 밀물도 다 켜는데,
긴 물가에 모이느니 배 매었던 흔적 뿐.

▶ 문헌 :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海東名臣錄>, <韓國人名大事典>

김 수 홍 (金壽弘) 선조 34년 (1601)~숙종 7년 (1681)

조선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우의정 상용(尙容)의 손.

인조 12년(1634) 생원이 되고, 1636년 성균관 유생으로 후금의 사신 용골대(龍骨大)를 참살하고 그 국서(國書)를 소각할 것을 상소하였다. 음보(蔭補)로 기용되어 효종 1년(1650) 통진현감(通津縣監)을 거쳐 승지, 참판(參判) 등을 지내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使)에 이르렀다. 현종 15년(1674)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의 복제(服制)를 의논할 때 앞서 현종 1년(1660)의 자의대비(慈懿大妃 : 仁祖繼妃 趙氏)의 복상문제에 있어서 같은 서인(西人)인 송시열이 주장했던 기년설(基年說)을 비난했고, 명나라 숭정(崇禎) 연호의 사용을 주장하는 송시열에 대해 청나라 강희(康熙) 연호를 쓰자고 주장했다.

▶ 문헌 : <肅宗實錄>, <通津縣先生案>

김 숙 (金 塾) 정조 13년 (1789)~고종 3년 (1866)

김포의 효자(孝子), 자는 정후(鼎厚), 본관은 경주(慶州), 김포(金浦) 출신. 김숙은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께 태도가 공순하고 천부의 효성을 타고난 인물이었다. 어머니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아우와 더불어 병구완에 힘썼으며, 추운 겨울철에는 강가의 얼음을 깨뜨리고 물고기를 낚아 봉양하는 등 그 정성이 지극하였다. 또한 환자의 대변까지 맛보아 쓰고 단 맛을 가려 처방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호에 힘썼으나, 어머니는 3년의 숙환 끝에 마침내 별세하였다.

김숙은 거상(居喪)하는 동안 마음과 소채로 생활하면서, 비바람에 구애받지 않고 3년을 하루같이 시묘(侍墓)함과 아울러 지성으로 제사를 받들었다. 부모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탈상 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하루도 빠뜨리는 일 없이 성묘하였다고 한다. 나이 70세를 넘어 보행이 어렵게 되었을 때, 꿈속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지팡이 감이 있는 곳을 알려 줄 정도로 그의 효행은 천지신명도 모두 감응할 만하였다.

이런 사실이 인근에 알려져 유림(儒林)들이 조정에 알려 고종 28년(1891)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贈職)하고 예조에서 정려(旌閭)의 포전을 입안 효자정문(孝子旌門)을 세우게 되었다. 이 정려각은 현재 김포시 고촌면 태리 1006번지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 문헌 : <金浦郡誌>

김 영 화 (金永華) ?~태종 16년 (1418)

부친의 사직 안보의 큰 공훈(功勳)의 음덕(蔭德)으로 24세에 대부사주부(大副使主簿)로 부임하였으며 그 후 왜적이 강화에 침입하므로 왕이 개경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임전태세(臨戰態勢)를 명하니 박보노 원사의 휘하에 편입되어 참전(參戰) 공(功)을 세우니 서기 1380년에 함문의 통사사인(正七品)이 되고 요직을 두루 거쳐 1388년에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가 되었는데 그때 친원과 친명과의 양론으로 공은 정몽주와 이성계와 같이 신흥세력인 명나라와 친교를 하여야 한다는 데 합세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문하시중 최영 장군을 팔도도총사로 하여 십만대군이 평양을 출발하였으나 이성계가 휘하군사를 되돌려 우왕을 강화로 몰아내고 창왕이 즉위하니 공은 서기 1392년에 전중감(殿重監)을 거쳐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가 되었다.

그러나 시중 정몽주가 살해되는 등 국운이 다함을 한탄하고 득병(得病)을 이유로 사퇴(仕退)하여 고촌에 은거 중 이성계가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분탈하여 조선조를 개창하고 공에게 입조를 권하였으나 역시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유학 진흥과 후진 교화에 전력을 다하였다. 사후(死後)에 우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묘소는 양주군 주율리에 있다가 현재는 김포시 고촌면에 이장되어 있다.

김 응 남 (金應南) 명종 1년 (1546)~선조 31년 (1598)

조선조 문신, 자는 중숙(重叔), 호는 두암(斗巖), 본관은 원주(原州), 김말손(金末孫)의 증손이다.

선조 1년(1568) 증광문과(增廣文科) 을과 급제, 사가독서 동서분쟁의 완화에 힘썼고, 선조 16년(1583) 병조판서 이이(李珥)를 논핵한 3사의 송응개(宋應溉), 허봉(許葑) 등이 유배될 때 그들과 일당이라는 혐의로 제주목사에 좌천, 기민(飢民)을 구제했다. 뒤에, 대사헌·대사간·부제학·이조참판을 역임하고 선조 24년(1591)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사행(使行)하였다. 마침 명나라에서는 일본의 국서를 받고 조선이 일본과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자가 많아 이를 힘써 해명함으로써 의구심을 풀어주었다.

돌아와 한성판윤(漢城判尹), 임진난 때 병조판서, 부체찰사(副體察使)로 평안도로 선조를 호종하고, 선조 27년(1594)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이 되어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임진왜란 후의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켰다. 항상 나라를 복구하는 급선무는 군사를 훈련하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심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정유재란 때 안무사(按撫使)로 풍기(豐基)에서 신병을 얻어 사직, 선조 37년(1604)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원성부원군(原成府院君)에 추봉,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 문헌 : <明宗實錄>, <宣祖實錄>, <歸鹿集>, <韓國人名大事典>

김 정 국 (金正國) 고종 30년 (1893)~1920

그는 1919년 당시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高村面 新谷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3월 초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이래로

전국에서 독립만세 시위 운동을 행하고 있음을 전해듣고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해 왔다.

거사 준비를 서둘러 오던 중 1919년 3월 24일 윤재영(尹在英)·윤주섭(尹周燮)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동리 사람 50명과 동리 뒷산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되었으나 이날 시위의 영향으로 다음 날도 만세 시위는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5월 22일 경상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 받아 1년 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判決文(1919. 5. 22 京城地方法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김 준 룡 (金俊龍) ? ~ 인조 19년 (1641)

조선조 무신, 자는 수부(秀夫), 본관은 원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두남(斗南)의 아들.

선조 41년(1608) 무과(武科) 급제, 인조 14년(1636)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관할 군사를 이끌고 적에게 포위 당한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면서 곳곳에서 군사를 모아 병력을 보강하였다.

직산(稷山)을 경유, 용인의 광교산(光敎山)에 이르러 험준한 산세를 이용, 이

를 거점으로 포진하였다. 공경(孔耿)의 청나라 군대 수만이 공격해오자 필사적으로 싸워 청태조의 부마 백양고라(白羊高羅) 등 많은 적병을 사살하였으나, 우리의 병력 손실도 커서 그는 휘하의 기병 수백을 이끌고 수원에 도착, 다시 남하하여 재기를 계획하였다.

감사 이시방(李時昉)은 그의 전공을 시기하여 모함하였으나, 이성구(李聖求)·최명길(崔鳴吉)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었다. 뒤에 어영중군(御營中軍)·김해부사·경상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고, 시호는 충양(忠襄)이다.

묘소와 신도비는 본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었는데, 1972년 도시건설로 현 위치(시흥)에 이장한 것이다.

▶ 문헌 :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김 중 일 (金重鎰) 선조 35년 (1602) ~ 현종 8년 (1667)

조선 문신, 자는 백진(伯珍), 본관은 안동(安東), 광수(光燧)의 아들.

인조 2년(1624) 사마시에 합격, 참봉(參奉)이 되고, 인조 11년(163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 전적(典籍)이 되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독전어사(督戰御使)가 되었다.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청서파(淸西波)인 김상헌(金尙憲)이 공서파(功西波)의 언관(言官) 이규(李桂)에게 탄핵을 받자 이를 반대하다가 탄핵을 받고 북청판관(北靑判官)으로 쫓겨났다. 또한, 흉년이므로 백성들이 곤궁하니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고, 여러 관청의 공납을 감하며,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것을 청하였다.

인조 23년(1645) 다시 전적으로 보직되고 1646년 부교리가 되었으며, 이듬해

수찬으로 암행어사가 되었다. 이어 3사(三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벼슬을 거쳐 승지, 현종 2년(1661) 통진현감(通津縣監)을 거쳐 풍덕부사(豐德副使)를 역임하였다.

- ▶ 문헌 :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通津縣先生案>, <國朝文科榜目>

김 중 환 (金重煥) ? ~ 1932

검단면 대곡리에서 출생, 자는 한사(漢史), 본관은 풍산(豊山), 종간(宗侃)의 아들.

고종 26년(1889) 경무대문과시(景武臺文科試)에 병과로 급제, 가선대부, 사간원정언(司諫院 正言), 내부협판(內部協辦) 등을 역임했다.

-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김 호 신 (金好愼) 중종 38년 (1543) ~ 광해군 9년 (1617)

자는 근보(謹甫)이고 경주김씨(慶州金氏)로서 중종 38년(1543)에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매 기품이 늠름하고 재덕이 겸비하며 학문에 힘써 의리와 처신이 방정하였고 부모에 효심이 극진하였는 바 부모가 일시에 발병하여 위독하게 되자 구약(救藥) 시탕(侍湯)에 진력하였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다 진봉하며 산에 올라 눈을 쏘고 약재(藥材)를 구하여 시봉

하였으나 선조 25년 정월에 5일 간격으로 부모가 함께 별세하자 시암리(柿岩里) 간리(間里)에 안장(安葬)한 후 묘전(墓前)에 여막(廬幕)을 짓고 시묘(侍墓)하는데 그 해 5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피난하였으나 공은 묘전에 부복한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드디어 왜병이 들이닥쳐 묘전에서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장을 데려오게 되자 공은 왜장을 준열하게 꾸짖고 왜병들의 살인, 강간, 약탈과 고분(古墳) 발굴 등의 만행을 중단하고 회군(回軍) 귀국할 것과 나는 너희들의 만행을 막기 위하여 부모 묘소를 지킬 것이라고 하자 왜장도 감동하여 부하 장병들과 같이 경의를 표하고 표목에다 “이곳에다 범하지 말라”는 대서(大書)로 여러 개를 만들어 10리 밖에 세우고 떠남으로써 피난 갔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왜군 철수 후에 구원 차 내도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에 의하여 공의 효심과 시묘 사실이 확인되어 이여송 장군이 귀국 후에 명나라 신종황제(神宗皇帝)에게 전황(戰況)과 조선 효자 유생 김호신의 효행으로 왜군이 만행을 중지하고 철군하게 된 사실이 보고되어 신종황제가 1599년 기해 정월에 임란 평정후 사은사(謝恩使)로 간 한응인(韓應寅)에게 “귀국의 극효(極孝) 충용(忠勇)한 김호신을 만나보고 싶으니 귀국 즉시 찾아 보내라”는 칙령(勅令)에 의하여 사은사 한응인은 귀국 즉시 선조대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선조대왕은 공에게 정7품(正七品) 적순부위(迪順副尉)로 임명하여 중국 북경의 신종황제에게 보냈다.

신종황제가 공을 만나보고 공의 행적을 극찬하며 상금과 상품을 하사하였으나 공은 거절하며 조선을 구원하여 국권을 회복하여 주신 은혜도 태산과 같은데 상품·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신종황제를 거듭 감동케 하고 귀국하였다.

선조대왕이 선조 34년(1601) 공에게 효자 정려를 하면서 시암리 샘말에 내렸

고 공은 광해군 9년(1617) 75세로 별세하니, 중국, 한국의 명사(名士)들이 다투어 만사(輓詞)를 지어 보냈다. 정려는 현재 존재한다.

▶ 문헌 : <金浦郡誌>

남 간 (南 簡)

조선 세종 때 문신, 본관은 의령(宜寧), 개국공신 재(在)의 손자, 경문(景文)의 아들이다.

세종 1년(1419) 진사시에 합격, 음보(蔭補)로 형조 좌랑(佐郎)이 되고, 세종 9년(1427)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에 임명되어 사대교린에 관한 외교문서를 관장했다. 그 후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을 거쳐 세종 12년(1430) 지평(持平), 세종 14년(1432) 사간원 좌헌납(左獻納), 세종 18년(1436) 장령(掌令)을 지내고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에 이르렀다. 세종은 그의 아부할 줄 모르는 절조와 청렴하고 성실한 성품을 가상하게 여겨 오히려 대사헌에 임명하였고, 청백리(淸白吏)로 뽑혔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에 있고 묘갈(墓碣)도 있다.

▶ 문헌 : <世宗實錄>, <韓國人名大事典>

남 두 장 (南斗長) 광해군 5년 (1613)~숙종 15년 (1689)

조선 문신, 자는 천경(天卿), 본관은 의령(宜寧),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정(瀟)의 아들.

효종 1년(1650) 진사(進士), 효종 3년 전설사별검(典設司別檢)을 비롯해서 제용감직장(濟用監直長),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 장예원사평(掌隸院司評)을 지내고 의령현감(宜寧縣監)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다시 내직으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역임하고 석성현감(石城縣監), 익위사사어(翊衛司司御), 평강(平康)현감,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온양군수(溫陽郡守), 종묘서령(宗廟署令), 공조정랑(工曹正郎)을 거쳐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광흥창수(廣興倉守)를 지내고 77세로 졸(卒)하였다. 묘는 김포시 검단면 원당리에 있다.

▶ 문헌 : <南公墓碣銘>

남 정 (南瀟) 선조 18년 (1586)~인조 26년 (1648)

자는 여청(汝淸), 본관은 의령(宜寧),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정화(挺華)의 아들.

음보(蔭補)로 사산현감(四山縣監)을 시작으로 장예원사평(掌隸院司評)을 거쳐 비안(比安) 현감을 지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뒤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 홍천현감(洪川縣監), 한산군수(韓山郡守)를 역임하고 오위장(五衛將)을 지내고 64세로 죽었다. 묘는 김포시 검단면 원당리에 있다.

▶ 문헌 : <南公墓碣>

남 효 온 (南孝溫) 단종 2년 (1454)~성종 23년 (1492)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 행우(杏雨), 최락당(最樂堂), 본관은 의령(宜寧), 전(愼)의 아들이고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며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김시습(金時習), 안응세(安應世) 등과 친교가 있었다.

1. 생애

성종 9년(1478) 앞서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顯德王后 : 端宗生母)가 나타나 아들의 살해를 힐책했다고 하여 세조에 의해 이장된 소릉(昭陵 : 顯德王后陵)의 복위를 상소했으나 도승지 임사홍(任士洪),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의 저지로 상달되지 못하자 이로부터 세상사에 흥미를 잃고 유랑생활로 생애를 마쳤다.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김종직의 문인이었다는 것과 소릉 복위를 상소했다 하여 부관참시(剖棺斬屍) 되었다. 만년에 저술한 <육신전(六臣傳)>은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숙종 때 비로소 간행되었다. 중종 8년(1513) 소릉이 추복(追復)되면서 신원(伸冤)되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장흥의 예양서원(汭陽書院), 의령의 향사(鄉祠), 고양(高陽) 문봉서원(文峰書院), 함양 서산서원(西山書院) 등에 제향되고, 정조 6년(1782) 다시 이조판서에 추증 문정(文貞)이라 시호했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에 있다.

2. 주요 저서

《추강집(秋江集)》

목판본. 8권 5책. 규장각도서. 초간본은 선조 10년(1577) 외증손 유흥(兪泓)이 간행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유흥의 증손 방(枋)이 숙종 3년(1677) 5권 5책으로 재간행하였다. 그 후 1922년에 저자의 후손 상규(相圭)가 간행하였다.

내용은 부(賦)·시(詩)·논(論)·기(記)·서(書)·서(序)·제문(祭文)·잡저(雜著)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가 유명하다. 부록으로 <추강냉화(秋江冷話)>가 실려 있다. 유흥이 1577년에 쓴 구발과 조신·유방 및 남상규의 발문이 있다.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이 글은 성종 16년(1485) 4월 15일부터 윤 4월 21일까지의 금강산 여행 기록으로, 15세기의 대표적인 금강산 기행문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여러 날 가운데 실제 금강산을 유람한 기간은 4월 23일 총석정을 비롯하여 신계사, 만폭동, 표훈사, 망고대, 정양사를 거쳐 윤 4월 4일 삼일포까지이다.

금강산 명소에 관해서는 빠뜨린 곳 없이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 마치 금강산 구석구석을 지은이와 함께 유람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또한 이 글에는 발령, 절재, 유점사, 오탁수, 삼일포 등에 얽힌 전설들을 소개하고 있어 문학적 가치와 흥미로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금강이란 명칭과 유점사에 관한 전설에 대해서는 그 허황됨을 유학자의 입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추강냉화(秋江冷話)》

필사본으로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이 부록으로 되어 있다. 편말(篇末)에는 “추강서우경지재(秋江書于敬止齋：추강이 경지재에서 쓰다)” 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 자신이 수서(手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우명행록」에는 김종직(金宗直)을 비롯해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등 수 10인이 들어 있다.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조선 전기의 문신 추강(秋江)이 자기의 사우(師友) 54명을 추려, 그들의 언행을 간략하게 기술한 책. 활자본. 1권 1책. 이 책의 실본(實本)은 전해지는 것이 없고 다만 <대동야승(大東野乘)> 제3권, <광사(廣史)> 제6집, <설해(說海)> 제29책, <연려실기술(燃黎室記述)> 별집, <야사목록(野史目錄)> 등의 책들 속에 수록되어 있다.

《육신전(六臣傳)》

조선 숙종 때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추강(秋江)이 지은 사육신(死六臣)의 전기. 활자본. 1책. 세조 2년(1456) 상왕(上王)인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참형을 받고 죽은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 등 사육신의 생활과 행동 및 심문 받을 때의 행동 등을 적었다. 이 밖에 복위모의에 관련된 성승·허후 등도 언급하였다.

3. 관련 사건

(1) 갑자사화

연산군 10년(1504)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의 복위문제에 얽혀서 일어난 사화.

성종비(成宗妃) 윤씨는 질투가 심하여 왕비의 체모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성종 10년(1479) 폐출(廢黜) 되었다가 1480년 사사(賜死)되었다. 윤씨가 폐출 사사된 것은 윤씨 자신의 잘못도 있었지만, 성종의 총애를 받던 엄숙의(嚴叔儀)·정숙의(鄭叔儀), 그리고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仁粹大妃)가 합심하여 윤씨를 배척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한편 연산군의 사치와 낭비로 국고가 바닥이 나자 그는 공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려 하였는데, 이때 임사홍(任士洪)은 연산군을 사주하여 공신배척의 음모를 꾸몄다. 이런 계제에 폐비윤씨의 생모 신씨(申氏)가 폐비의 폐출·사사의 경위를 임사홍에게 일러바쳤고, 임사홍은 이를 다시 연산군에게 밀고하여 일이 크게 벌어졌다. 연산군은 이 기회에 어머니 윤씨의 원한을 푸는 동시에 공신들을 탄압할 결심을 한 것이다.

그는 먼저 정·엄 두 숙의를 죽이고 그들의 소생을 귀양보냈다가 후에 모두 죽여버렸다. 그의 조모 인수대비도 정·엄 두 숙의와 한패라 하여 병상에서 타살하였다. 연산군은 폐비윤씨를 복위시켜 성종묘(成宗廟)에 배사(配祠)하려 하였는데, 응교 권달수(權達手)·이행(李荇) 등이 반대하자 권달수는 참형하고 이행은 귀양보냈다.

또한 성종이 윤씨를 폐출하고자 할 때 이에 찬성한 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성준(成浚)·이세좌(李世佐)·권주(權柱)·김굉필(金宏弼)·이주

(李胄) 등을 사형에 처하고, 이미 고인이 된 한치형(韓致亨)·한명회(韓明澮)·정창손(鄭昌孫)·어세겸(魚世謙)·심회(沈澮)·이파(李坡)·정여창(鄭汝昌)·남효온(南孝溫) 등의 명신거유(名臣巨儒) 등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였으며, 그들의 가족과 제자들까지도 처벌하였다.

연산군이 이같이 큰 참극을 벌인 까닭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평소에 눈엣가시처럼 싫어했던 선비들의 기를 꺾기 위해서였다. 이 무서운 사화는 그 이후 국정과 문화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사형을 받았거나 부관참시의 욕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역사상 그 이름이 빛나는 명신(名臣)과 대학자·충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화로 성종 때 양성한 많은 선비가 수난을 당하여 학계는 침체되었고, 또 연산군의 처사를 비난하는 한글 방서사건(榜書事件)을 계기로 이른바 언문학대(諺文虐待)까지도 자행되어 이후 국문학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 사화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일어났는데, 이것이 조선 선비사회에 분열을 일으켜 후일 당파싸움의 원인(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2) 생육신

조선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 사육신의 대칭으로 생육신이라 하는데,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조려(趙旅)·성담수(成聘壽)·남효온(南孝溫)이다. 사육신이 절개로 생명을 바친 데 대하여 이들은 살아 있으면서 귀머거리나 소경인 체, 또는 방성통곡(放聲痛哭)하거나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단종을 추모하였다.

4. 작 품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여 우인 소격서동(與友人昭格署東)」

깊숙한 골짜기의 구름이 나는 곳에,
시내는 흘러 밤낮으로 쫓는다.
꽃이 밝으매 산길이 익숙하고,
사람이 끊겼으매 돌문이 무거워라.
푸른 연 산봉우리 새는 지나 날고,
비스듬한 소나무 용이 누웠다.
일찍부터 구경하는 버릇으로,
지팡이 짚는 수고 생각하지 않았다.

▶ 저서 : 秋江集, 秋江冷話, 師友名行錄

▶ 문헌 : <成宗實錄>, <中宗實錄>, <練藜室記述>, <韓國人名大事典>

노 협 (盧 協) 선조 20년 (1587) ~ ?

조선 문신, 자는 인백(寅伯), 호는 일소(一笑), 본관은 안강(安康), 팔원(八元)의 아들.

인조 15년(1637) 참봉으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44년 성천부사(成川府使)로서 행대사성이던 김육(金堉)이 왕자·대신(大臣) 이외의 사신들

은 유옥안거(有屋安車)를 타고 다니도록 상소하자 이에 찬성하였다. 1649년 동래부사가 되어 변방사정은 중앙과 달라서 수시로 변통에 대처하지 않으면 외교관계가 두절되기 쉬우므로, 모든 외교문서는 중앙의 회답을 받지 않고도 먼저 대처한 뒤에 다시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그런데 효종이 즉위한 뒤 안찰사 이만(李曼)과 함께 올린 장계에 따라 조정에서는 일본에 대처하기 위해 연병(鍊兵)을 할 의견이 있어, 청나라에 알리지 않고 성지(城池)를 수련(修鍊)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안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 영상이던 이경석(李景奭)의 문죄를 요청함에 따라 당시 실무자였던 관계로 창성부(昌城府)에 유배되었다.

그 뒤 효종 3년(1652) 정주목사가 되었으나 이전의 일로 대간의 소척을 받아 체직되고, 1654년 비변사회의에서 다시 거론되어 삭출되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浦邑誌>

당씨 (唐氏) 순조 11년 (1811)~고종 27년 (1890)

열녀. 본관은 밀양(密陽), 김포 출신, 박종주(朴宗柱)의 처.

부군이 갑자기 병으로 자리에 눕자 사랑의 정성을 다하였고 밤낮으로 하늘에 자신이 대신 죽기를 기원했다. 병세가 위급해지자 무명지를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기도 했다. 향교의 유생 이병봉(李炳鳳), 심양지(沈亮之), 이병조(李炳祖) 등 62명이 김포군수(金浦郡守) 조준구(趙駿九)에게 글을 올려 포상을 청했다. 김포시 검단면 대곡리에 그의 묘와 정렬비(貞烈碑)가 있다. 1924년 손자 박제준이

글을 짓고 박제정(朴齊定)이 썼다.

▶ 문헌 : <京畿人物誌>

목 만 중 (睦萬中) 영조 3년 (1727)~?

조선 문신, 자는 공겸(公兼)·유선(幼選), 호는 여와(餘窩), 본관은 사천(泗川), 경연(慶衍)의 손, 조우(祖禹)의 아들이다.

영조 35년(175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도사(都事)로서 정조 10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장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었다. 순조 1년(1801) 대사간으로 신유박해(辛酉迫害) 때 영의정 심환지(沈煥之)와 함께 남인(南人) 시파(時派) 계열의 천주교도에 의한 박해와 학살을 감행했다. 뒤에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묘는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에 있다.

▶ 저서 : 餘窩集

▶ 문헌 : <正祖實錄>, <純祖實錄>,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민씨 (閔氏) 효종 3년 (1652)~숙종 7년 (1681)

민씨는 자헌대부 호조판서 평양조씨 세발(世發)의 처이다. 여흥민씨 봉(烽)의 딸로 부덕(婦德)을 갖추어 평소 시모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았다.

부군(夫君) 판서공이 29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하자 3년 동안 의복을 갈아입지

않았으며 머리도 빗지 않고 조식으로 상식을 올릴 때나 겨우 손만 씻었으므로 벼룩이 모이고 이가 생겨 피부병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나 조금도 개의치 않고 갖은 예절에 맞추어 정성을 다 바쳤다.

대상일이 돌아오자 여러 동서들을 모아 놓고 “이미 공의 대상도 지나고 궤연까지 거두었으니 이제 내 뜻을 결단하리라”하고 열흘 동안이나 단식하며 애통해하다 자진하니 향리의 모든 사람들이 경탄하여 마지않았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숙종대왕이 이를 장하고 또 가상히 여겨 정려(旌閭)를 세우도록 명하였다.

그 후 오늘에 이르러 그 현판만이 충남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에 거주하는 공의 8대손 재덕(載惠)의 대문에 초라하게 있던 것을 후손들이 뜻을 모아 김포시 감정동에 정각을 짓고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 기 (閔箕) 연산군 10년 (1504)~선조 1년 (1568)

조선 문신, 자는 경열(景說), 호는 관물재(觀物齋)·호학재(好學齋), 본관은 여흥(驪興), 양천현령(陽川縣令) 세류(世瑠)의 아들이고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중종 26년(1531) 생원시에 합격하고 중종 34년(1539)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 이듬해 홍문관 저작(著作)이 되고,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으로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직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부교리(副校理),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등을 거쳐 이듬해 장령(掌令)으로 대신 윤인경(尹仁鏡), 이기(李芑), 정순봉(鄭順朋) 등의 전횡을 논핵하고, 명종 2년(1547) 사도시첨정(司導寺僉正)에 좌천됐다.

군기시정(軍器寺正)을 거쳐 경상도 암행어사로 나가 상주(尙州)에서의 가혹한 군포(軍布) 징수를 상주하여 시정케 했다. 홍문관 직제학 동부승지(同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공조·병조 참의(參議)를 역임하고 명종 6년(1551) 대사성(大司成)에 올랐다. 1552년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명종 10년(1555) 청홍도 관찰사(淸洪道觀察使), 명종 13년(1558) 대사간(大司諫), 용양위 대호군(龍驤衛大護軍), 명종 14년(1559) 대사헌(大司憲)·대사성(大司成)을 역임했다.

명종 18년(1563) 이양(李樑) 일당을 탄핵하여 유배케 하고 이듬해 부제학(副提學), 이조·예조 참판(參判)을 거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1566년 형조·이조판서, 다음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우참찬(右參贊), 선조 1년(1568) 우의정에 올랐다. 학자로 이름이 높았고 문장에 능했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묘는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 있다.

▶ 저서 : 石潭野史, 學圖

▶ 문헌 :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민 도 (閔 燾) 선조 40년 (1607)~숙종 10년 (1684)

조선 문신. 자는 태초(太初), 본관은 여흥(驪興), 회양부사(淮陽府使) 응경(應慶)의 아들. 인조 17년(1639) 진사(進士)가 되고 성균관에 입학, 인조 27년(1649) 처음으로 사직서(社稷署),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을 거쳐 사옹원봉사(司饗院奉事), 사섬시주부(司贍寺主簿),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호조좌정

랑(戶曹佐正郎), 평시서령(平市署令) 등을 역임했다. 효종 4년(1653) 면천군수(沔川郡守), 효종 10년(1659) 함흥판관(咸興判官)을 지내고, 현종 4년(1663) 공조정랑,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이듬해 평산부사(平山府使), 현종 7년(1666) 김제군수(金堤郡守), 현종 11년(1670) 사직서령(司直署令), 이듬해 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 이어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백천군수(白川郡守), 해주목사(海州牧使)를 역임했다. 숙종 3년(1677)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이 되고 숙종 5년(1679) 체직되어 쉬다가 숙종 10년(1684) 사망했다. 묘는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에 있다.

▶ 문헌 : <閔公墓碣>

민 성 (閔 埜) 선조 19년 (1586)~인조 15년 (1637)

조선 인조 때의 순절인(殉節人). 자는 채만(載萬), 호는 용암(龍巖),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정여립(鄭汝立)의 모반(謀叛)을 다스린 공으로 평난공신(平難功臣) 2등에 책록되고, 여양군(驪陽君)에 봉군(封君)되었다. 시호(諡號) 경정공(景靖公)이신 인백(仁伯)의 장남으로 선조 19년(1586)에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에서 출생하여 음직(陰職)으로 충좌위부사직(忠佐衛副司直)이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전 가족과 함께 강화(江華)에 들어가 아들 삼형제와 함께 의병에 속하였다가 강화성이 함락되자 삼자(三子)·삼부(三婦)·사녀(四女)·서누이(庶妹)·소실(小室) 우씨(禹氏)와 함께 정족산(鼎足山) 전등사(傳燈寺) 한 모퉁이 정결한 토실(土室)을 찾아가서 관복(冠服)을 정제하고 차례로 앉은 후 그 서누이에게 말하기를 “누님은 늙어서 반드시 적군에게 능욕(凌辱)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이 아이 즉, 장손자 강(降)을 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하여 서누이를 먼저 떠나가게 한 후에 첩 우씨에게도 말하기를 “너도 또한 죽을 것까지는 없을 것이니 누님을 따라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첩은 완강히 거절하고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첩이 어찌 부군을 버리고 홀로 살아서 무엇 하오리잇까, 부군께서는 첩이 선비 집안 출신이 아니라고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 의심하시니 어찌 치욕이 아니리오” 하고 패도(佩刀)를 빼서 목을 찢러 자살하니 따님 사형제와 며느리 삼동서와 아들 삼형제가 모두 함께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때마침 적군의 초병(哨兵)이 임박하게 되니 종에게 이르기를 “네 어찌 뼈를 선영에 장사지내기를 바랄 소냐, 내 죽은 후에 이 토실을 헐어서 물어버려 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자살하였다.

서누이가 선원면에 이르렀을 때에 모두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여종에게 부탁하고 또한 목을 매어 죽었다. 다만 둘째 아들 지옥(之鉦)은 강원도의 처가댁에 머물고 있어 살 수 있었다. 이때에 공의 연령은 52세로 인조 15년(1637) 정월 이십사일의 일이다. 인조 18년 경진에 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와 12정려 충신정성지문(忠臣旌坪之文)을 하사(下賜)하고 인조 22년에 증(贈)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에, 또한 정조 14년 경술에 가증(加贈) 자헌대부(自獻大夫) 호조판서겸지의금부사(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과 여원군(驪原君)에 봉군(封君)되고 충민공(忠愍公)의 시호와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에 추가 배향하도록 하명(下命)되었으며 수차 역대 국왕의 치제(致祭)가 하사(下賜)되었다.

▶ 저서 : 龍巖實記

▶ 문헌 : <金浦郡誌>

민 심 언 (悶審言)

조선 초기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전농소윤(典農少尹) 지생(智生)의 아들이다. 조선 개국 초에 통진(通津)에 은거하였다.

정종(定宗) 때 봉상시협률랑(奉常寺協律郎)으로 재직 중 정희계(鄭熙啓)의 시호(諡號) 문제와 관련 전라도 순천(順天)에 유배되었다. 태종 4년(1404) 사헌부지평, 호조정랑을 역임하고, 태종 8년(1408) 좌랑(佐郎)인 장안지(張安之)의 전지개량절급(田地改量折給)을 둘러싼 부정 사건에 연루돼 파직, 세종 10년(1428)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使),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거쳐 진하부사(進賀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종 11년(1429) 함흥 부사가 되고 이듬해 함경감사로 함흥 군기고 화재 사건을 다룰 때 관련자에게 지나친 남형(濫刑)으로 물의를 빚고 의금부(義禁府)에 하옥되었다. 세종 16년(1434) 동지돈녕부사, 전라도도관찰출척사(全羅道都觀察黜陟士), 1435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호조참판, 이듬해 형조참판을 거쳐 유수(留守)에 이르렀다. 세조 6년(1460)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추복되었다. 묘와 비는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 있다.

▶ 문헌 : <太祖實錄>, <太宗實錄>, <肅宗實錄>, <京畿人物誌>

민 응 형 (閔應亨) 선조 11년 (1578)~현종 3년 (1662)

조선 문신. 자는 가백(嘉伯), 본관은 여흥, 승지(承旨) 호(護)의 아들이다.

광해군 4년(1612) 식년무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으나

이듬해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이 일어나자 사직했다. 광해군 7년(1615) 승문원 박사, 광해군 13년(1621) 분병조정랑(分兵曹正郎), 인조반정 이후 지평(持平)·정언(正言)·장령(掌令)·집의(執義)·교리(校理)·사간(司諫)·동부승지(同副承旨)·좌부승지(左部承旨)·우부승지(右部承旨) 등을 두루 거치면서 때로는 시폐(時弊)를 극간(極諫)하고, 때로는 언로(言路)의 두색(杜塞)을 간하는가 하면 인조가 경연(經筵)을 전폐하자, 신진 유신들이 국왕의 얼굴도 모른다고 유신들을 만나 대화할 것을 강력히 청하는 등 바른말을 서슴지 않아 이름이 있었다.

대사간에 임명된 후, 김류(金瑬)를 공격(攻斥)하다가 순천부사로 좌천, 인조 24년(1646) 다시 대사간에 임명되어 상경 중 동작진(銅雀津)에서 강빈옥사(姜嬪獄事) 소식을 듣고 입궐, 강빈을 구출하려다 인조의 노여움을 크게 샀다.

인조 27년(1649) 안변부사(安邊府使)에 기용되고 이듬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어 대사헌(大司憲)을 지내고, 현종 1년(1660) 공조판서를 거쳐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좌의정 심기원(沈器遠)의 탄핵, 윤선도(尹善道)의 석방 등 광해군·인조·효종·현종 4임금을 섬기면서 직언으로 이름이 났다. 당시 윤선도(尹善道)가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로 서인(西人)에 의하여 삼수(三水)로 귀양 갔을 때 누구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못하였는데, 그는 윤선도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서인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였으나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때로는 당쟁의 폐를 논하고, 때로는 궁가설장(宮家設莊)의 폐(弊)를 극간하고 김육(金堉)의 경제정책에 도움을 주는 등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나, 그의 논리가 공명정대하였기 때문에 군왕을 비롯하여 이해가 엇갈린 당인(黨人)들도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하였다.

묘는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에 있다.

▶ 문헌 :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민 응 회 (閔應恢) 선조 15년 (1582) ~ 효종 4년 (1653)

조선 문신. 자는 이정(而精), 호는 환성(喚醒), 본관은 여흥(驪興), 영(諡)의 아들.

광해군 2년(1610) 선무랑(宣務郎)으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 1612년 승정원가주서(承政院假注書), 시강원설서(侍講院設書)·사서(司書)를 역임으로, 광해군 6년(1614) 홍문록(弘文錄)에 들고, 이어 김포현감(金浦縣監) 재임 중 치적이 뛰어나 광해군 13년(1621) 그의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졌다. 인조 4년(1626) 부수찬(副修撰)·장령(掌令)을 지내고, 외직으로 공주목사(公州牧使)로 고을을 잘 다스린다고 인조 6년(1628) 김류(金瑬)가 포상할 것을 상주했다. 인조 13년(1635)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벼슬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말년에 청맹(靑盲)이 되어 72세로 죽었다.

▶ 문헌 :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文科榜目>, <金浦郡先生案>

민인백(閔仁伯) 명종 7년(1552)~광해군 4년(1626)

조선 문신. 자는 백춘(伯春), 호는 태천(苔泉), 본관은 여흥, 사권(思權)의 아들이고 성혼(成渾)의 문인.

선조 6년(1573) 진사가 되고 선조 17년(1583) 별시문과에 장원, 전적(典籍)을 지내고 사헌부 감찰(監察) 때 정철(鄭澈)의 일당으로 오해를 받아 안협(安峽) 현감으로 좌천됐다. 선조 22년(1589) 진안(鎭安) 현감으로 전임, 재임 중 기축옥사 때 정여립(鄭汝立)이 현계(縣界)로 들어오자 군사를 동원하여 정여립의 아들 옥남(玉男)을 잡아들였다. 이 공으로 예조참의에 승진되고 평난공신(平難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이어 판결사(判決事), 충주목사(忠州牧使) 등을 지내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황주목사(黃州牧使)로서 왕을 호종하고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천장문안관(天將問安官), 청주목사, 천장접반관(天將接伴官) 등을 거쳐 선조 31년(1598) 여양군(驪陽君)에 피봉됐다. 선조 37년(1604)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안변부사,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역임, 광해군 13년(1621)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경정(景靖)이다. 묘는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 있다.

<태천집(苔泉集)>은 6권 2책의 목활자본으로, 민인백의 유고와 그의 아들 성(埜)의 <용암실기(龍巖實記)>를 덧붙여 후손 기용(璣容)이 고종 11년(1874)에 편집·간행하였다. 첫머리에 민태호(閔台鎬)와 임헌회(任憲晦)의 서가 있다. 부(賦) 2편은 그가 장원한 과거시험 답안이며, 시는 순서 없이 모아진 것으로 중국을 오가면서 지은 기행시 등인데 서사적인 시풍을 보인다.

▶ 저서 : 苔泉集

▶ 문헌 :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민 진 익 (閔震益)

조선 무신. 본관은 여흥(驪興).

인조 14년(1636) 선전관(宣傳官)으로 병자호란을 맞아 당시 조정과 제도 사이에 교통이 두절된 상태에서 몸을 던져 조정의 명령을 여러 군영에 전달하고 또 그 곳 장계(狀啓)받아 갖고 돌아오니 왕이 크게 가상히 여겨 옷과 칼을 하사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架子)했다. 인조 18년(1640) 충청수사(忠淸水使)를 지내고 인조 21년(1643)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가 되었다. 인조 25년(1647) 장단부사(長湍府使)로 있으면서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추고(推考)되었다.

효종 4년(1653) 황해도 병사(兵使)를 거쳐 현종 4년(1663) 경기수사(京畿水使)에 임명되니 사헌부의 집의(執義) 정계주(鄭繼冑)가 부적격자라고 논척(論斥)하여 파직되고, 현종 5년(1664) 다시 충청 병사에 기용되고, 현종 7년(1666) 포도대장(捕盜大將)을 거쳐 전라 병사가 되니 장령(掌令) 최문식(崔文湜)이 무능과 탐욕, 그리고 군포(軍布)의 남용 등을 들어 탄핵하여 파직케 했다. 현종 10년(1669)에는 말을 잘 달린다 하여 호피(虎皮)를 하사 받고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가 되었다. 묘와 비가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 있다.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金浦郡誌>, <京畿人物誌>

민 진 장 (閔鎭長) 인조 27년 (1649)~숙종 26년 (1700)

조선의 문신. 자는 치구(稚久), 본관은 여흥(驪興), 좌의정 정중(鼎重)의 아들이고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현종 10년(1669)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숙종 12년(1686)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당시 할아버지·아버지가 모두 장원하여 삼세문장(三世文壯)이라 불리었다. 여러 언관(言官)을 역임하고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숙종 21년(1695) 형조판서, 숙종 24년(1698) 호조판서, 이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숙종 26년(1700) 우의정에 이르렀다. 성품이 화후(和厚)하여 사림(士林)과의 마찰이 없었고, 효성이 지극하여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 문헌 : <肅宗實錄>, <陶谷集>, <韓國人名大事典>, <陽川邑誌>

민 함 (閔 涵) 인조 19년 (1641)~숙종 36년 (1710)

조선 무신. 본관은 여흥,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출신이다.

현종 6년(1665) 무과 급제, 1667년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정주목사(定州牧使)가 되었다가 목내선(睦來善)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논척하여 체직되었다. 숙종 6년(1680) 선천부사(宣川府使)로 있을 때 허견(許堅)이 복선군(福善君)을 추대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자 민함이 허견과 동서(同婿) 사이로 허견의 복심일 수도 있다고 주장, 파직을 청했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했다.

그 뒤 숙종 9년(1683) 경상좌수사, 1685년 태안군수(泰安郡守), 1695년 전라

좌병사, 1698년 전라수사로 옮기고, 1699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 통제사(統制使)가 되었다. 숙종 26년(1700) 헌납(獻納) 유중무(柳重茂)가 민함이 연잉군(延祔君 : 英祖)에게 부채를 보낸 것은 아첨하는 것으로 통제사 체통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탄핵했다. 묘와 비가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다.

▶ 문헌 : <顯宗實錄>, <肅宗實錄>, <金浦郡誌>, <京畿人物誌>

박 동 선 (朴東善) 명종 17년 (1562)~인조 18년 (1640)

조선 문신. 자는 자수(子粹), 호는 서포(西浦), 본관은 반남(潘南), 사재감정(司宰監正) 응천(應川)의 아들이다.

1. 생 애

선조 22년(1589) 진사가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등용되었고 병조 좌랑(佐郎)을 거쳐 선조 29년(1596) 남포현감(藍浦縣監)으로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에 고을 안 백성들을 잘 피난시켰고, 전적(典籍), 직강(直講)에 이어 예조·병조의 좌랑을 역임하고, 사복시정(司僕寺正), 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 수안군수(遂安郡守)를 거쳐 인천·부평·남양 등의 부사(府使)를 지냈다. 선조 41년(1608)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광해군 5년(1613) 폐모론이 일자 시골로 은거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대사간이 되고,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에 병조참의로 인조(仁祖)를 공주(公州)에 호종했고, 난이 평정된 뒤 대사헌이 되고 정사공신

(靖社功臣) 2등에 책훈됐다. 인조 3년(1625) 이조 참판, 이듬해 다시 대사헌이 되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는 왕을 강화에 호종, 병조판서(兵曹判書)·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지돈녕부사·지중추부사 겸 지경연사(知經筵事)·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등을 지냈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는 왕손(王孫)을 호종하여 교동(喬桐), 충청도 등지에 피란, 난이 끝난 후 좌참찬(左參贊)을 지냈다.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 영의정을 추증하고 시호는 정헌(貞憲)이다. 묘가 김포시 검단면 대곡리에 있다.

2. 관련 사건

(1) 이몽학의 난

선조 29년(1596) 충청도 홍산(鴻山)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

선조 29년(1596) 7월 종실(宗室)의 후예로서 속모관(粟募官) 한현(韓絢)의 선봉장인 이몽학은, 그가 조직한 동갑계 회원 700명을 사주(使囑)하여 임진왜란 후의 대 기근으로 굶주린 농민을 선동해서 홍산에서 반란을 일으켜 현감을 가두고 이어 임천(林川)을 함락하였다.

농민은 왜적의 재침을 막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반란 명분에 크게 호응하여 삼시간에 수천의 무리를 이루어 정산(定山)·청양(靑陽)·대흥(大興)을 휩쓸고 서울로 향하던 도중에 홍주(洪州：洪城)를 공격하였다. 홍주목사 홍가신(洪可臣)은 민병을 동원해서 이를 반격하는 한편, 이몽학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 반란군의 분열을 꾀하였다.

이몽학의 부하 김경창(金慶昌)과 임억명(林億明)은 전세가 불리함을 느끼고 이몽학의 목을 베어 항복하였으며, 먼천(沔川)에서 형세를 살피던 배후의 인물

한현도 체포되어, 1개월이 못 되어 반란은 평정되었다.

(2) 인조반정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당론(黨論)의 폐해를 통감하고 이를 초월하여 좋은 정치를 해보려고 애썼으나, 자신이 대북파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당론을 초월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이원익(李元翼)·이항복(李恒福)·이덕형(李德馨) 등 명망 높은 인사를 조정의 요직에 앉혀 어진 정치를 행하려 하였으나, 이이첨(李爾瞻)·정인홍(鄭仁弘) 등 대북파의 무고로 친형 임해군(臨海君)과 이모제(異母弟)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였으며, 또 계모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폐하는 패륜을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광해군의 실정(失政)이 계속되어 기강이 문란해지자 서인 이귀(李貴)·김자점(金自點)·김류·이괄(李适) 등은 반정(反正)을 모의, 1623년 3월 2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모든 계획을 추진하였다.

도중에 이이반(李而旼)의 누설로 탄로될 위기에 놓였으나 예정대로 거사를 단행하였다. 이서(李曙)는 장단(長湍)에서, 이중로(李重老)는 이천(伊川)에서 군사를 일으켜 홍제원(弘濟院)에서 김류의 군대와 합류하였다. 이 군대를 능양군이 친히 거느리고 이괄을 대장으로 하여 12일 밤에 창의문(彰義門)으로 진군하여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의 내응으로 반정군은 무난히 궁궐을 점령하였다. 이어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윤허를 얻어 능양군(仁祖)이 왕위에 올랐다. 광해군은 의관(醫官) 안국신(安國臣)의 집에 피신하였다가 잡혀 서인(庶人)이 되었으며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대북파 이이첨·정인홍·이위경(李偉卿) 등 수십명은 참수되었으며, 추종자 200여 명은 유배되었다. 반정에 공을 세운 이귀·김류 등 33명은 3등으로 나누어 정사공신(靖社功臣)의 호를 받고 권좌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논공행상(論功行賞)이 공평하지 못하다 해서 1년 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반정 후 남인의 이원익이 영의정에 영입됨으로써 남인도 제2의 당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 저서 : 西浦記聞

▶ 문헌 :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박 세 견 (朴世堅) 광해군 11년 (1619)~숙종 9년 (1683)

조선 문신. 자는 중고(仲固), 본관은 반남(潘南), 참판 정(烜)의 아들.

인조 17년(1639) 진사가 된 뒤 음보(蔭補)로 건원릉참봉(建元陵參奉)이 되고 사산감역(四山監役), 시직(侍直)을 거쳐 효종 5년(1654) 마전군수(麻田郡守)로 중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언관(言官)에 보직, 효종 7년(1656) 필선(弼善), 현종 1년(1660) 강원도도사(江原道都事), 현종 5년(1664) 통진현감(通津縣監)을 거쳐 헌납(獻納) 장령(掌令)을 지내고 1667년 사간(司諫), 2년 후 대사간(大司諫)에 오르고, 병조·형조의 참의(參議)를 거쳐 현종 12년(1671) 동부승지(同副承旨), 숙종 1년(1675) 좌승지(左承旨)가 되었다.

▶ 문헌 :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通津顯先生案>, <國朝文科榜目>

박 세 당 (朴世堂) 광해군 7년 (1629) ~ 숙종 29년 (1703)

조선조 학자. 자는 계궁(季肯), 호는 서계(西溪), 본관은 반남(潘南), 참판(參判) 정(烜)의 아들. 4살 때 아버지가 죽고 편모 밑에서 원주·안동·청주·천안 등지를 전전하다가 13세에 비로소 고모부인 정사무(鄭思武)에게 수학하게 되었다.

1. 생애

(1) 관직생활

현종 1년(1660)에 증광문과에 장원하여 성균관전직에 제수되었고, 그 뒤 예조좌랑·병조좌랑·정언·병조정랑·지평·홍문관교리 겸 경연시독관·함경북도 병마평사(兵馬評事) 등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166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를 다녀왔지만 당쟁에 혐오를 느낀 나머지 관료생활을 포기하고 양주 석천동으로 물러났다.

그 뒤 한때 통진현감(通津縣監)이 되어 흉년으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힘쓰기는 하였으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맴돌아 태유(泰維)와 둘째 아들 태보(泰輔)를 잃게 되자 여러 차례에 걸친 출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석천동에서 농사지으며 학문연구와 제자양성에만 힘썼다.

그 뒤 죽을 때까지 집의·사간·홍문관부제학·이조참의·호조참판·공조판서·우참찬·대사헌·한성부판윤·예조판서·이조판서 등의 관직이 주어졌지만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숙종 28년(1702)에는 이경석(李景奭)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서 송시열(宋

時烈)을 낮게 평가하였다 하여 노론(老論)에 의하여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탄되기도 하였다.

(2) 사상 형성의 바탕

그의 학문과 사상은 성장기의 고난과 청·장년기의 관리생활을 통한 개혁의식, 그리고 당쟁의 와중에서 겪은 가족의 수난과 어려운 농촌에서 지낸 그의 생애 등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현실관의 반영이라 하겠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보기 드문 민족적 시련과 정치적 불안정 및 민생의 곤궁이 매우 심하였던 시기였다. 즉 병자호란의 국치와 당쟁의 격화로 말미암아 국력은 약화되고 민생이 도탄에 허덕이고 있던 시기였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외의 현실을 직시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사회개혁을 통한 민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사상적 자주의식을 토대로 해서 그의 학문과 경륜을 펼쳤던 것이다.

그의 근본사상에 대하여는 유학의 근본정신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는 견해가 있고, 주자학은 물론 유학 자체에 회의하여 노장학(老莊學)으로 흐른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의 근본입장이 당시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주자학을 비판하고 중국 중심적 학문태도에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보는 데는 이론이 없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우리나라의 사상계는 국내외적 시련에 대한 극복을 위하여 사상적 자주의식이 제기되어 이의 수정과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입장도 주자학에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반성이 싹튼 것은 16세기에 비롯하였지만, 주자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 표면화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이 때문에 주자학의 열렬한 신봉자들인 송시열 등은 주자학 비판자들을 사문난적이라 하여 이단으로 배척하였다. 이러한 배척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그와 윤휴(尹鑰)·윤증(尹拯) 등이었다.

(3) 주자학의 비판

이들은 주자학을 비판함에 있어서 공통적이었지만 그들의 학문연구의 입장은 달라 대략 세 방향을 띠었다.

즉, 첫째는 고대의 유학, 특히 한(漢)나라 때의 유학을 빌어 통치이념을 수정하려는 윤휴와 같은 남인(南人)계통의 학파이고, 둘째는 명나라 때 왕양명(王陽明)의 유학을 도입하여 채용해보려는 최명길(崔鳴吉)·장유(張維) 등 양명학과(陽明學派)이며, 셋째는 노장사상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려는 박세당 계통이었다. 박세당은 당시의 학자들이 꺼려하였던 도가사상(道家思想)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노장서(老莊書)에 탐닉하면 스스로 되돌아올 줄 모르고 심취하게 된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그가 이러한 학문경향을 지니게 된 데에는 젊었을 때 지냈던 그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개혁적 사고 때문이었고, 또 백성의 생활안정과 국가를 보위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본질로 하는 유가사상(儒家思想)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4) 사회개혁과 자주정신

그는 해서지방(海西地方)의 암행어사와 함경북도병마평사(咸鏡北道兵馬評事)를 역임한 뒤, 홍문관수찬으로 있으면서 응구언소(應求言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양반지배세력의 당쟁과 착취로 비참한 경지에 이른 백성들의 생활안정책과 무위도식하고 있는 사대부(士大夫)에 대한 고발이었다.

그는 요역(徭役)과 병역(兵役)의 균등화를 주장하였고, 모든 정치·사회 제도가 문란하므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법률이 쇠퇴하였으므로 혁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국민 가운데 공사천민(公私賤民)이 6할, 사대부양반이 2할, 평민이 2할인데, 사대부양반은 8~9할이 놀고먹으니 이는 봉록(俸祿)만 받아먹

는 나라의 커다란 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중국대륙의 세력변동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는 실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고대 삼국 가운데 국력이 가장 미약하였던 신라가 당나라에게 망하지 않은 원인이 외교정책의 현실주의적 실리추구에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고려 말 정몽주(鄭夢周)와 자기의 선조 박상충(朴尙衷)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도 고려에 대한 충절로서보다는 원나라·명나라 교체의 국제적 변동에 대처하려는 대외정책으로 신흥 명나라를 섬기고 원을 배척할 것을 주장한 실리주의자였던 데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숭명배청(崇明排淸)이 풍미하던 당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현실적 생존과 국가의 보위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주체적 적응이란 입장에서, 존명사대(尊明事大)의 명분을 버리고 민족자존의 실리를 위한 친청정책(親淸政策)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5) 유가사상 비판

이와 같은 대내외정책에 대한 개혁의식을 가졌던 그는 관직을 버린 뒤 <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중용(中庸)> 등 사서(四書)와 <도덕경(道德經)> 및 <장자(莊子)>의 연구를 통하여 주자학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학문적 지향을 취하였다.

그는 육경(六經)의 글은 그 생각이 깊고 취지가 심원(深遠)하여 그 본뜻을 흐트러뜨릴 수 없는 것인데, 후대의 유학자들이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공맹(孔孟)의 본지(本旨)를 밝혀야 한다는 뜻에서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자유분방하여 매우 독창적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유가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인(仁)에 대하여, 공자가 말하는 ‘인(仁)’이란 인간과 동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연조화(自然調和)의 심정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적인 사랑이며, 사람과 동물에 차별을 두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맹자의 인에 대하여도, 맹자의 차마 할 수 없는 심정인 불인지심(不忍之心)으로서의 ‘인’이란 도살장과 부엌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고작일 뿐, 역시 살생을 배격하지 않는 잔인성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또한, 맹자는 ‘왕도(王道)’를 민심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하지만, 민심을 얻는 데만 뜻을 먼저 둔다면 이는 패자(覇者)의 행위이고 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는 주자가 제왕권체제(帝王權體制)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모든 만물의 근원적 원인자(原因者)로서의 태극(太極)에 대한 이해에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주자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현실적 차별이 이러한 현상에 앞선 원인자인 태극에서 연유한다고 주장하여, 인간이 제왕권(帝王權)에 복종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당연한 도리이고, 또 인간이 감각적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인욕(人欲) 또는 인심(人心)으로서 악행(惡行)이라고 피력하였으나, 그는 태극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함께 감각적 욕구를 작용시키는 감성(感性)도 인간의 불가피한 기능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도심(道心) 못지않게 인욕의 충족도 중요시하였던 것이니, 이는 백성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명분론보다도 의식주와 직결되는 실질적인 학문이 필요하다는 그의 실학사상을 나타낸 것이라 보겠다.

그는 도를 밝힌다는 것은 지식과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으며, 백

성들이 실질을 떠나서 허위의 비현실적인 가치관만을 배우게 되면 이것을 다스리려 하여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백성의 생활 가치를 신장시키는 것에 학문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이단시되던 노장학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노장학도 그 본질면에서 보면 세상을 바로잡는 길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버릴 것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도가사상이 차별사상이 아니고 민중 중심적인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인의 지배욕구의 포기를 그 근본으로 하는 것이 <도덕경>의 정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노자의 무위(無爲)란 일하지 않는 불사(不事)가 아니라, 사사로운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무욕(無欲)의 정치태도이며,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도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치자(治者)에게 과도한 지배 욕구를 버리고 백성들의 생활권을 신장시키는 데 힘쓸 것을 요청한 무욕의 뜻이라고 이해한 것이었다.

(6) 평 가

그리하여 그 자신도 스스로 무욕을 실천하는 생애를 보냈지만 정치와 사회현실에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고, 비교적 혁신적 사고를 지녔던 소론파(少論派)와 빈번하게 교류하였다. 그는 소론의 거두인 윤증을 비롯하여 같은 반남박씨로 곤궁할 때 도움을 준 박세채(朴世采), 처숙부 남이성(南二星), 처남 남구만(南九萬), 최석정(崔錫鼎) 등과 교유하였고, 우참찬 이덕수(李德壽), 함경감사 이탄(李坦), 좌의정 조태억(趙泰億) 등을 비롯한 수십 인의 제자를 키우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과 행적에 대한 변론은 계속되어 그가 죽은 지 약 20년이 지난 경종

2년(1722)에 문절(文節)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2. 주요 저서

《서계집(西溪集)》

활자본. 20권 10책이다. 제1책의 총목록은 권1에서 권16까지의 목차를 수록하였으며, 제9책과 10책에는 권17~20의 목록이 수록되었다. 박세당은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하여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죽을 만큼 당시 정계를 주도하던 노론의 학문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노장사상에 대해서 개방성을 가져 <신주도덕경(新注道德經)>과 <남화경주해산보(南華經註解刪補)> 등을 저술했으나 이 책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 책은 시(詩)·소차(疏筭)·계사(啓辭)·서(書)·변론(辯論)·서(序)·제문(祭文)·잡저(雜著)·묘갈(墓碣)·행장(行狀)·간독(簡牘)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차는 저자의 관직 생활 동안의 상소문으로 사직 상소가 많다. 권7의 변론 중에 「예송변(禮訟辨)」은 인조에 대한 효종의 종통을 강조하여 대왕대비 복이 3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잡저에는 김시습(金時習)을 찬양한 「매월당영당권연문(梅月堂影堂勸緣文)」과 「청한자진찬(淸寒子眞贊)」이 있으며, 행장 중에는 「영의정완성부원군최공행장(領議政完城府院君崔公行狀)」에서 최명길(崔鳴吉)을 존송하여, “재주가 일대 위망지화를 구하기에 족했다”고 평한 것이 주목된다.

서문 중에는 「지천집서(遲川集序)」와 「색경서(穢經序)」 등이 있는데, 「색경서(穢經序)」에서는 “이 책을 농가의 스승으로 불러서 사람들이 빈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권17~권20은 간독으로 360여 편의

서찰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아들과 친족들에게 준 것이 있으며, 남구만(南九萬)·윤증(尹拯)·나양좌(羅良佐)·조태억(趙泰億)·최석정(崔錫鼎) 등 소론 대신들과 교환한 서찰에는 소론인 저자의 정치적 입지가 드러나 있다.

《사변록(思辨錄)》

필사본, 14책이다. <통록(通錄)>이라고도 한다. 먼저 <대학(大學)>·<중용(中庸)>·<논어(論語)>·<맹자(孟子)> 등 사서(四書)를 주해하고, 이어서 <상서(尙書)>와 <시경(詩經)>에 대한 주석을 하다가 신병 때문에 <주역(周易)>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한다.

1책에 <대학>, 2책에 <중용>, 3책에 <논어>, 4·5책에 <맹자>, 6~9책에 <상서>, 10~14책에 <시경>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그가 심혈을 기울인 4서의 주해는 주자(朱子)의 학설을 비방했다 하여 조야(朝野)의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대학>·<중용>의 경우에는 원전의 장구(章句)와 편차(編次)까지 고치면서 주자의 학설에 반론을 펴는 한편, 자기류의 해석을 내린 나머지 일대 물의를 빚어 사문난적(斯文亂賊)의 낙인을 찍히기까지 하였다. 완사본(完寫本)이 저자의 후손인 박계양(朴啓陽)에게 전해지며, 그 복사본이 서울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색경(穡經)》

숙종 2년(1676)에 지은 농업(農業)에 관한 책이다. <서계집(西溪集)> 권7에도 수록돼있다. 농가에서 농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 또는 상식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인 박세당(朴世堂)의 생존시의 농업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농업발달사(農業發達史)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부분적이거나 그 당시의 세시풍속(歲時風俗)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현실적으로 농업의 사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 책은 필사본이며 서문에는 1676년에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필사연기는 알 수 없다.

《기타 고문서》

「선적(先蹟)」

박세당의 유목첩. 작품성을 고려한 정서본이 아니라 대부분 비문, 정장(呈狀), 상소문의 초본들이다. 맨 앞에 수록된 「반남선생포증기사비(潘南先生褒贈記事碑)」는 박세당의 선조 박상충(朴尙衷)의 포증 전말과 사적을 기록한 비문으로, 원래의 지은이는 박세채(朴世采)이다. 여기에 수록된 비문은 박세채가 지은 것을 박세당이 수정·보완한 교정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정장은 소지(所志)로도 불리는데 요즈음의 진정서와 같다. 진정의 대상은 순영(巡營)이며, 신병으로 인해 관직에 부임할 수 없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즉 행정계통에 따라 순영에 진정하면, 순영에서는 이를 중앙 조정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진정의 주체가 박세당이 아니고 노비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병으로 인해 순영에 직접 나아가 진정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진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비가 주인의 처지를 대변하는 형식의 진정서는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물론 이 진정서는 박세당이 직접 작성한 친필 초본들로서 침삭한 흔적이 역력하다.

「서계잡록(西溪雜錄)」

박세당 친필의 잡록. 전반부는 학술·의학·농업 등에 관한 초록집이고, 중반

부는 현종 5년(1664) 황해도 암행어사 수행시의 활동상을 적은 「해서행일기(海西行日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일기는 암행어사의 노정과 업무 수행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말미에는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는 울릉도의 연혁, 풍속, 토산, 자연환경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일부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표류했다가 1606년 경 왜선을 타고 울릉도를 탐방한 경험이 있는 어느 승려로부터 들은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해안의 환경, 초목의 서식상태, 촌락의 구조 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 17세기 중반 울릉도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잡문(雜文)」

박세당 친필의 시문 초본. 묘지명, 묘갈명, 서발문, 제문, 교서가 중심을 이룬다. 이 글의 대부분은 서계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친필 초본이라는 중요성이 있다.

「계상간독(溪上簡牘)」

박세당 친필의 편지 초본. 계상은 자신이 살던 수락산 서계를 말한다. 이탄(李坦), 심유경(沈有慶), 심여경(沈餘慶), 정하징(鄭夏徵), 김홍기(金弘基), 이유일(李惟一) 등에게 보낸 편지의 초본들인데, 서계 노필(老筆)의 정수가 엿보인다. 이 편지들은 서계집에 수록되지 않은 귀중한 자료들이다.

▶ 저서 : 思辨錄, 穡經, 山林經濟

▶ 문헌 : <顯宗實錄>, <肅宗實錄>, <朝野輯要>, <韓國人名大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 세 상 (朴世相) 광해군 7년 (1615)~숙종 5년 (1679)

조선조 문신. 자는 중오(仲五), 본관을 반남(潘南), 대사헌 황(潢)의 아들.

인조 15년(1637) 병자호란의 강화(講和)가 성립되자 볼모로 심양(瀋陽)에 갔다. 이때 청나라 장군에게 주선하여 함께 간헐던 아버지와 김상헌(金尙憲)의 화를 면하게 했다. 귀국하여 선공감감역관(繕工監監役官)에 임명되었으나 사양, 후일 내시교관(內侍敎官)을 거쳐 광흥창 수(廣興倉守), 김포군수(金浦郡守)를 역임했다.

▶ 문헌 : <南溪集>, <한국인물대사전>

박 승 각 (朴勝珪) 고종 34년 (1897)~1971

독립유공자, 김포시 양촌면 출생.

1919 3월 23일 양촌면 양곡리 장날을 이용, 박충서(朴忠緒), 박승만(朴勝萬), 안성환(安聖煥), 전태순(全泰順), 오인환(吳仁煥), 정억만(鄭億萬) 등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3월 19일 동지 안성환의 집에서 앞서 3월 1일 서울에서의 만세 운동에 참여하고 귀향한 박충서, 박승만, 전태순 등과 함께 거사를 계획, 양곡 장날인 3월 23일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태극기, 격문, 경고문 등을 작성하여 동지 오인환, 정억만으로 하여금 각 마을에 배포하고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다. 동지 박충서 등과 함께 3월 23일 양곡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 시장을 행진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던 끝에 일경에게 체포·투옥되었다.

이 해 9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 혐의로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독립유공자로 198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京畿人物誌>

박 응 인 (朴應寅) 중종 27년 (1532) ~ 선조 39년 (1606)

조선 문신. 자는 원중(元仲), 본관은 반남(潘南), 사간(司諫), 소(紹)의 아들로 집(緝)의 양자이다.

유조인(柳祖認)의 문인. 명종 13년(1558) 사마시에 합격,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주부(主簿)를 거쳐 태복시첨정(太僕寺僉正),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을 지내고 선조 25년(1592) 상의원정(尙衣院正)이 되었다. 외직으로 나가 개성부도사(開城府都事)를 지내고 홍산(鴻山)·온양(溫陽)·금산(金山)·장단(長湍)·남양(南陽) 등의 수령을 지냈다. 선조 27년(1594) 연안부사(延安府使)가 되어서는 탄핵을 당하고 이듬해 봉산군수(鳳山郡守)로 재직 중 파직, 선조 32년(1599)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로 숙마(熟馬) 1필을 상급(賞給) 받았다. 호조참판에 증직, 묘는 김포시 검단면 대곡리에 있다.

▶ 문헌 : <宣祖實錄>, <南溪集>, <金浦郡誌>, <京畿人物誌>

박 임 종 (朴林宗) 세종 16년 (1434)~연산군 6년 (1500)

조선 문신. 자는 태지(泰之), 본관은 반남(潘南). 병문(秉文)의 아들.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지내고 외직으로 나가 상주목사(尙州牧使), 벼슬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묘는 김포시 검단면 대곡리에 있다,

▶ 문헌 : <世祖實錄>, <成宗實錄>, <潘南朴氏世譜>, <京畿人物誌>

박 정 (朴 炅) 선조 29년 (1596)~인조 10년 (1632)

조선 문신. 자는 대관(大觀), 호는 하석(霞石), 좌참찬(左參贊) 동선(東善)의 아들.

광해군 11년(1619)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부정자로 보임되었다가 아버지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사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자, 사직하고 시골에 내려와 독서로 세월을 보냈다.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었고, 같은 해 홍문관정자·박사를 거쳐 다음해 사간·응교·장령·집의·검상 등을 역임하였다. 인조 3년(1625) 대사헌이 된 남이공(南以恭)을 부응교 유백증(柳伯曾), 교리 나만갑(羅萬甲) 등과 함께 광해군 때에 당파를 만들고 권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탄핵하였다가, 오히려 함평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626년 문과 중시에 급제하여, 다음해 동부승지가 되어 호패법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였고, 그 뒤 대사간·병조참지·병조참의를 지냈다. 이어 강원도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으며, 다시 대사간으로부터 봉당을 만들고 자기파를 천거하였다는 이유로 좌천되어 남원부사가 되었다.

그가 남원부사로 임명될 때에 새 수령을 영접하러 나온 아전이 그를 보고는 “젊은 사람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으며, 오똑하게 단정히 앉아 있어 그 마음속을 알 수 없다.”고 칭찬하였다. 이 당시 그는 관내의 도적을 색출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금주군(錦州君)에 봉하여지고 1631년 대사간·대사헌을 거쳐 이조참판에 특진되었다가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소서파(小西派)의 핵심 인물로 비록 말은 과감하게 한다는 칭찬이 있으나, 급하고 곧은 뜻이 지나쳐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였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며, 묘는 김포시 검단면 대곡리에 있다.

▶ 문헌 :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박 충 서 (朴忠緒) 고종 35년 (1898) ~ 1934

독립운동가.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陽谷里) 출생.

1919년 3월 당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참여하고 종로·대한문·남대문·각국 영사관 앞을 순회하며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3월 5일까지 서울에서의 시위에 참여한 후 고향인 양곡리로 귀향하여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유포된 독립선언서, 각종 유인물과 도시에서의 운동 상황을 전하고 고향에 있던 동지들을 규합, 시위운동을 준비·주도하였다.

3월 19일 안성환(安聖煥)의 집에서 박승각(朴勝珏), 박승만(朴勝萬), 전태순(全泰順), 오인환(吳仁煥), 정억만(鄭億萬) 등과 함께 만나 양곡 장날인 3월 23일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격문·경고문 등을 작성하여 오인환과 정억만에게 주어 마을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3월 23일 양곡 장터에 모인 3천여 군중과 함께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장터를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포위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자 일경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그를 비롯한 6명을 시위주동자로 체포하였다. 그들이 체포되자 일단 해산하였던 시위 군중은 재차 연행자들이 유치된 경찰관 주재소를 포위하고 이들을 탈환하기 위해 습격을 감행하였다. 일경은 이러한 습격에 발포를 하며 맞섰으나 시위대는 다음 날인 24일 오전 7시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해산하였다.

체포된 후 이해 9월 4일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 공을 기리어 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現代史資料>

박 환 (朴 煥) 선조 17년 (1584)~현종 12년 (1671)

조선의 문신. 자는 여술(汝述), 호는 수우(守愚), 본관은 반남(潘南), 참봉(參奉) 동민(東民)의 아들이고 김장생(金長生), 김현성(金玄成)의 문인.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 6품직에 올라 장례원사평(掌隷院司評), 인제현감(麟蹄縣監)을 역임했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여러 고을의 군사를 모아 크게 활약한 뒤에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 지평현감(砥平縣監)이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하자, 현내의 병사를 거느리고 제일 먼저 인조에게 달려가 신망을 받았다. 인조 16년(1638) 금구현감(金溝縣監), 뒤에 양천현감(陽川縣監), 단양군수(丹陽郡守) 등을 역임하고 현종 4년(1663)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 문헌 : <顯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변 영 태 (卞榮泰) 1892~1969

호는 일석(逸石)이다. 만주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협화대에서도 수학하였다. 고려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외무부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이후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의 교수로 봉직하였다.

백 일 환 (白日煥) 고종 20년 (1883)~1970

독립운동가.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郡下里) 출생.

1919년 3월 1일 이후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계속되고 있을 때, 성태영(成泰永), 박용희(朴容羲), 이병철(李炳喆) 등과 함께 3

월 22일 월곶면 군하리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3월 22일 군하리 장터에 나아가 성태영과 함께 시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를 테니 향교로 모이라고 연락하였다. 성태영과 함께 그곳에서 군중들에게 “독립만세의 의미는 대한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며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박용희, 이병철 등과 수수깡을 사용하여 태극기를 제작·배포하였다. 그리고 그 날 오후 군하리 시장에 모인 약 4백여 명의 시위군중을 이끌고 월곶면 사무소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성태영과 함께 면사무소에 도착하여 면서기 조원석(趙元錫)에게 독립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다. 이 곳에서 성태영이 연단에 올라가 시위 군중에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을 하려고 할 때, 군하경찰 주재소의 일본인 순사 산전중양(山田重洋)이 출동하여 성태영을 끌어내렸다. 이때 뛰어나가 일경의 따귀를 때려 땅에 넘어뜨렸으며 그의 총을 빼앗고 모자를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 시위 군중을 인솔하여 경찰주재소로 가서 조선인 순사보 이성창(李聖昌)을 끌어내어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고 폭행하였다. 또한 다시 면사무소로 가서 면서기 4명에게 태극기를 주어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가 점차 격화되자 김포경찰서장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이들의 시위를 해산시켰다.

이 때에 성태영 등 10여 명과 함께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이해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소요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第2卷>,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성 태 영 (成泰永) 고종 13년 (1876)~1946

독립운동가.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郡下里) 출신.

1919년 3월 이후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계속되고 있을 때, 박용희(朴容羲), 이병철(李炳喆), 백일환(白日煥) 등과 함께 3월 22일 월곶면 군하리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 3월 22일 군하리 장터에 나아가 백일환과 함께 시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를 테니 향교로 모이라고 연락하였다. 백일환과 함께 그곳에서 군중들에게 “독립만세의 의미는 대한민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며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이들은 박용희, 이병철 등과 수수깡을 사용하여 만든 태극기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그 날 오후 군하리 시장에 모인 약 4백여 명의 시위군중을 이끌고 월곶면 사무소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백일환과 함께 면사무소에 도착하여 면서기 조원석(趙元錫)에게 독립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다. 이 곳에서 연단에 올라가 시위 군중에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을 하려고 할 때, 군하 경찰 주재소의 일본순사 산전중양(山田重洋)이 출동하여 끌어내렸다.

이 때 백일환이 뛰어나가 일경의 따귀를 때려 땅에 넘어뜨렸으며, 그의 총을 빼앗고 모자를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 시위 군중을 인솔하여 경찰주재소를 가서 조선인 순사보 이성창(李聖昌)을 끌어내어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고 폭행하였다. 그들은 또 다시 면사무소로 가서 면서기 4명에게 태극기를 주어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가 점차 격화되자 김포 경찰서장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이들의 시위를 해산시켰다. 이 때에 백일환 등 10여 명과 함께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이해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

부에서는 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 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우리고장 獨立運動功勳史(京畿道敎育委員會)>

신씨 (愼氏) · 황씨 (黃氏)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의 열녀로 숙인 거창신씨(居昌愼氏)는 중 영의정 부원군 정랑공(正朗公)의 7대손이요, 감사공(監司公)의 셋째 아들인 곡성공(谷城公)의 배위이고 숙인 상주황씨(尙州黃氏)는 곡성공의 큰아들 증 원정공(贈院正公)의 배위가 되므로 거창신씨와는 고부간(姑婦間)이 된다.

두 열녀는 평소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두터웠으며 언행이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부녀(婦女)로 칭찬이 자자하였다.

병자호란은 청태종이 10만 대군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일어난 전란인데 청나라는 원래 우리가 호족(胡族)이라고 천대하던 만주지방에 흩어져 살던 여진(女眞) 부족을 건주위(建州衛) 추장 누루하치가 통합하여 후금(後金)을 세웠으며 인조 14년(1636)에 이르러 청나라로 개칭(改稱)하고 태종이 황제(皇帝)에 오르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군신관계를 강요했으나 우리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일어났는데 청군이 남하(南下)하자 두 왕자를 비롯한 비빈종실(妃嬪宗室)과 귀족남녀를 강화도로 피난하게 하고, 임금과 조정(朝廷)도 뒤따라 가려했으나 이미 길이 막혀 부득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는데 미구(未久)에 믿었던 강화성이 함락돼 두 왕자를 비롯한 많은 남녀가 포로로 잡혔으며 호군은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고 부녀자를 닥치는 대로 겁탈하는 등 만행이 우심하였다.

이 때 거창신씨와 상주황씨 고부도 전란이 일자 강화도 남쪽의 정족산성(鼎足山城)으로 피란 갔었는데 강화성이 함락되고 호군의 잔혹한 만행소식이 들려오며 호군이 점차 남하(南下)하는지라 부득이 통진 쪽으로 피난하기 위하여 간신히 피난선에 올랐으나 대안(對岸)인 어도진(魚渡津)도 이미 호군이 점령하여 빨리 오라고 호통을 치고 뒤에는 호군의 만행으로 이수라장이니 참으로 진퇴양난의 곤경인지라 고부는 사세가 무사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늙은 노비에게 3살 난 어린 장(樟)을 부탁하고 양반가의 부녀로서 정절(貞節)을 지키기 위해 고부가 껴안고 투강자결(投江自決)하였다.

늙은 노비는 아기를 업고 울면서 통진 적암 본가에 돌아와 곡성공께 전후 사연을 상세히 고하고 아기를 바치니 집안이 슬픔에 잠겼다.

그날 밤 곡성공 꿈속에 고부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도진에 있으니 빨리 수습하십시오.” 하는지라 놀라 깨어 급히 노비들을 깨워 나루터로 가는데 그믐밤인데도 하늘에서 광채가 빛나 어렵지 않게 고부가 껴안은 시체를 발견하여 집으로 모셨다가 후일 선영에 장례했다.

인조 16년에 이번 전란 중의 열녀들에게 예조를 통해 정문(旌門)을 내렸는데 유독 신씨, 황씨 고부는 혼자 하기도 어려운 일을 둘이 껴안고 투강 자결한 열행이 너무나도 장하고 한편 남편인 곡성공 한정(韓琰)이 호장(胡將)을 구슬려 호병들의 행패를 막은 것까지 임금에게 알려져 인조대왕이 친필칙지(親筆勅旨)로 명정(命旌)하였다. 묘는 김포시 대곶면 적암에 있다.

신 관 수 (申寬秀, 異名 : 觀秀) 고종 21년 (1884)~1922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08년 4월 이후 정용대(鄭容大) 의병장 휘하에서 통진군(通津郡) 교하면(交河面)·풍덕면(豐德面), 강화(江華)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 뒤 1909년 6월 강화도 고도(高島) 해안에서 선박을 습격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피체되었다. 같은 해 7월 15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7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 문헌 : <判決文(1909. 7. 15 京城地方裁判所)>,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別集 1>

신 면 (申 泐) ?~세조 13년 (1467)

조선 문신. 본관은 고령(高靈), 영의정 숙주(叔舟)의 아들.

도염서령(都染署令)·종부사소윤(宗簿司少尹) 등을 거쳐 세조 7년(1461) 장령(掌令)이 되고 세조 9년(1463) 우부승지지공조사(右副承旨知工部事), 이듬해 우승지(右承旨)를 역임, 세조 12년(1466) 도승지(都承旨)가 됐다. 세조 13년(1467)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가 되어 때마침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 조정에서는 그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고 어세공(魚世恭)을 함길도 관찰사로 삼아 교체하려 했으나 어세공이 도착하기도 전에 성이 포위

되어 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그의 묘가 김포읍 운양리 모담산(茅淡山)에 있다.

▶ 문헌 : <世祖實錄>, <海東雜錄>, <韓國人名大事典>, <金浦郡誌>

신 영 (申 瑛) 연산군 5년 (1499)~명종 14년 (1559)

조선 문신. 자는 윤보(潤甫), 본관은 평산(平山), 사직서령(司直署令) 세경(世卿)의 아들로 김식(金湜)의 문인이다.

중종 11년(1516) 진사시에 합격, 중종 18년(1523)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 홍문관(弘文館)에 발탁,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화를 입은 스승을 변호하다가 탄핵을 받았다. 뒤에 형조좌랑·함경도 도사(都事)를 거쳐 공조·형조·병조정랑·지평(持平)을 역임했다. 권신(權臣)에 아부하지 않아 한 때 수원부사로 좌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다.

뒤에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을 지내고 10여 년 간 이조·호조·예조·병조의 참판을 역임하였으며, 명종이 즉위한 뒤 호조참판으로 있을 때는 진휼정책에 각별히 힘써 공물의 폐단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대사헌·대사간·호조 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올랐다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체직했다.

시호는 이간(夷簡)이고 묘는 김포시 검단면 대곡리에 있다.

▶ 문헌 :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金陵郡誌>

신 용 균 (申用均) 철종 7년 (1856) ~ 1941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황해도 연백군 금산면에서 출생하였다. 배장수(配長水) 황씨(黃氏)와 혼인하여 2남 2녀를 두었으며 고종 9년(1872) 조부(祖父) 석민(錫敏) 씨를 모시고 황해도에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신흥리로 이주 흥양굴(興陽屈)이란 마을을 형성, 현재 이십여 가구(家口)의 전서공파(典書公派) 집성촌(集姓村)을 이루었으며 이십여 년간 공직(公職)에 근무한 후 향교(鄉校)일로 여생(餘生)을 보내었다.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위치한 통진향교(通津鄉校)가 고려 인종 때 건립되었으나 일부 소실된 것을 면장 재직 시 복원공사(復元工事)로 원형을 되살려 관리한 공으로 유림회(儒林會)에서 직원(職員 : 典校)를 수임(受任) 받은 바 있다. 구한말 서북학회 이동휘 옹(翁)이 개화를 위한 신학문(新學問)을 역설하매, 당시 월곶면장인 그가 지역(地域) 유지(有志) 구장들을 주축으로 하여 신학문(新學問)의 전신인 사숙학당(월곶초등학교) 건립(建立)을 추진(推進)하는 데 공(攻)이 많았다.

신 응 승 (申應崧)

조선 문신. 자는 한경(翰卿), 본관은 평산(平山). 추(樞)의 아들. 진사(進士)로 선조 15년(1582)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군수(郡守)를 지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신 항 (申 伉)

자는 자술(子述)이다.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이간영(夷簡瑛)의 고손(高孫)이며 춘천부사(春川府使) 택수(澤壽)의 부(父)이다.

효종 2년(1651)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官) 동지 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했다. 묘는 현재 김포시 통진면에 있다.

신 형 식 (申亨湜) 1913~1984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평산신씨(平山申氏) 전서공파(典書公派) 19세손으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서 출생하였다.

1932년 김포시 양촌면사무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63년 행정사무관에 임관(任官) 후, 경기도 내 10개 시군(市郡)에서 과장(課長)을 역임하였다. 1974년 평택군청에서 정년퇴직하였으며, 1976년 유네스코 경기도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1979년에서 1984년에 이르기까지 새마을금고 김포시 지부장, 김포시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1958년과 1976년 발행된 평산신씨(平山申氏) 대동보(大同譜) 편집 시에 김포지역 전서공파문중수단위원(典書公派門中修單委員)으로 참여하였으며 상훈(賞勳)으로는, 녹조근정훈장(綠條勤政勳章) 제2457호, 녹조근정포장(綠條勤政褒章) 제7256호,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 제41426호 등을 수상하였다.

신 흠(申欽) 명종 21년(1566)~인조 6년(1628)

조선조 문신·학자. 자는 경숙(敬叔), 호는 상촌(象村)·현현(玄軒)·현옹(玄翁)·방옹(放翁), 본관은 평신(平新), 개성도사(開城都事) 승서(承緒)의 아들.

1. 생애

선조 18년(1585) 진사가 되고 이듬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학유(學諭)·경원훈도(慶源訓導)·감찰(監察)·병조좌랑(兵曹佐郎)을 역임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양재도 찰방(良才道察訪)으로 삼도순변사(三道巡邊使) 신립(申稜)을 따라 조령(鳥嶺) 전투에 참가, 신립이 폐하자 강화에 들어갔다가 체찰사(體察使) 정철(鄭澈)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다. 뒤에 지평(持平)·사성(司成)·대사간(大司諫)·부제학(副提學)·도승지(都承旨)·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내고 선조 41년(1608) 대사헌(大司憲)으로 세자책봉주청사(世子冊封奏請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 선조(宣祖)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 받은 유교 7신(遺敎七臣)의 한 사람으로 광해군 5년(1613)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나자 파직, 1617년 춘천에 유배, 광해군 13년(1621) 풀려나 김포(金浦)로 돌아갔다.

인조반정(仁祖反正) 뒤 이조판서에 대제학(大提學)을 겸하고 이어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이 되었다. 이해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 세자를 모시고 전주(全州)에 피난, 돌아와 영의정에 올랐다. 정주학자(程朱學者)로 문명이 높았고 글씨를 잘 썼다. 문한직(文翰職)을 겸대하고 대명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에 참여하는 등 문운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

다. 또한 이정구, 장유, 이식 등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의 정종(正宗) 또는 상월계택(象月谿澤)으로 칭송되었다. 한편 문학과 도학의 관계에 관한 오랜 논란을 다시 벌여, 문학은 작은 재주이므로 도학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극한 도가 있어도 글이 아니면 전해질 수 없다는 논리로 문학을 옹호했다. 또한 시조에도 관심을 가져 한시로 읊지 못하는 것을 시조로 노래한다 하고 스스로 시조를 30여수를 지었다. 인조 묘정(廟庭)에 배향,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2. 관련 사건

(1) 계축옥사(癸丑獄事)

광해군 5년(1613) 사색당파(四色黨派) 중의 하나인 대북파(大北派)가 일으킨 옥사(獄事).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정인홍(鄭仁弘)·이이첨(李爾瞻) 등 대북파는 선조의 적자(嫡子)이며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왕으로 옹립하고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구실로 소북파(小北派)의 우두머리이며 당시의 영의정인 유영경(柳永慶)을 사사(賜死)하는 등 소북파를 모조리 몰아내었다.

대북파에서는 계속하여 선조의 계비(繼妃)이며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仁穆大妃)와 그의 친정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을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조령(鳥嶺)에서 은상인(銀商人)을 죽인 이른바 박응서(朴應犀)의 옥사가 일어났다. 박응서·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 등은 모두 조정 고관의 서열들로서 출세의 길이 막힌 데 불평을 품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다가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대북파는 이들을 문초할 때 김제남과 반역을 도모하였다고 허위 자백케 하여 김제남을 죽였고 영창대군을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강화도에 유배하였는데, 후에 강화부사(江華府使) 정항(鄭沆)으로 하여금 그를 소사(燒死)하게 하였다. 이 사건이 계축년에 일어났으므로 계축화옥이라고도 한다.

(2) 정묘호란(丁卯胡亂)

인조 5년(1627) 만주에 본거를 둔 후금(後金 : 淸)의 침입으로 일어난 조선과 후금 사이의 싸움.

1616년 만주에서 건국한 후금은 광해군의 적절한 외교정책으로 큰 마찰이 없이 지냈으나 광해군의 뒤를 이은 인조가 ‘항명배금(向明排金)’ 정책을 표방하고, 랴오둥[遼東]을 수복하려는 모문룡(毛文龍) 휘하의 명(明)나라 군대를 평북 철산(鐵山)의 가도(島)에 주류시켜 이를 은연히 원조하므로, 명나라를 치기 위해 중국 본토로 진입하려던 후금은 배후를 위협하는 조선을 정복하여 후환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

또한 후금은 명나라와의 싸움으로 경제교류의 길이 끊겨 심한 물자부족에 허덕여 이를 조선과의 통교(通交)로써 타개해야 할 처지에 있었고, 때마침 반란을 일으켰다가 후금으로 달아난 이괄(李适)의 잔당들이 광해군은 부당하게 폐위되었다고 호소하고, 조선의 군세가 약하니 속히 조선을 칠 것을 종용하여 후금 태종은 더욱 결전의 뜻을 굳히게 되었다.

1627년 1월 아민(阿敏)이 이끄는 3만의 후금(後金) 군(軍)은 앞서 항복한 강홍립(姜弘立) 등 조선인을 길잡이로 삼아 압록강을 건너 의주(義州)를 공략하고 이어 용천(龍川)·선천(宣川)을 거쳐 청천강(淸川江)을 넘었다. 그들은 ‘천왕 광해군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걸고 진군하여 안주(安州)·평산

(平山)·평양을 점령하고 황주(黃州)를 장악하였다.

조선에서는 장만(張晩)을 도원수(都元帥)로 삼아 싸웠으나 평산에서부터 후퇴를 거듭, 그 본진이 개성으로 후퇴하였고 인조 이하 조신(朝臣)들은 강화도로 피하고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전주(全州)로 피란하였다. 황주에 이른 후금군은 2월 9일 부장 유해(劉海)를 강화도에 보내 ① 명나라의 연호 ‘천계(天啓)’를 쓰지 말 것, ② 왕자를 인질로 할 것 등의 조건으로 화의를 교섭하게 하였다.

이에 양측은 ① 화약 후 후금군은 즉시 철병할 것, ② 후금군은 철병 후 다시 압록강을 넘지 말 것, ③ 양국은 형제국으로 정할 것, ④ 조선은 후금과 화약을 맺되 명나라와 적대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정묘조약(丁卯條約)을 맺고 3월 3일 그 의식을 행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측은 왕자 대신 종실인 원창군(原昌君)을 인질로 보내고 후금군도 철수하였다.

3. 문학적 평가

(1) 새로운 문풍의 수용과 진작을 선도한 상촌

상촌 당대로부터 약 3백여 년 동안 이루어진 제가들의 상촌의 문예와 관련한 비평을 검토하여, 역사적으로 상촌의 문예가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역대 평자들은 상촌의 문예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상촌의 문예 형성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겠으나, 제가들은 그가 명대(明代) 문풍(文風)을 수용하는 데 있어 윤근수·최립과 함께 선구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보여 주는 바,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한다.

신익성(申翊聖 : 1588~1644)은 지근(至近)한 거리에서 부친인 상촌의 문예 활동을 지켜보았던 분이다. 그의 언급에 따르면 상촌은 이른 시기부터 중국을 배우고자 하는 뜻[北學之志]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앙관인으로 대외 활동에 종사하면서 중국풍을 존모하는 마음이 더욱 점증되어 갔다고 한다. 상촌은 두 차례나 연행한 경험이 있고, 임란 시 명군의 막부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여러 차례 조사(詔使)를 응접하면서, 명의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촌은 학문 분야에서 설선(薛瑄 : 1392~1464)이나 나륜(羅倫 : 1431~1478) 등과 같은 주자학자를 유종(儒宗)으로 삼고, 아울러 진헌장(陳獻章 : 1428~1500) · 왕수인(王守仁 : 1492~1529) · 나홍선(羅洪先 : 1504~1564) 등 양명학자와도 신묘하게 계합(契合)하였다.

문장 분야에서는 명초의 유가정통과 고문가인 송염(宋濂 : 1310~1381)과 방효유(方孝孺 : 1357~1402)로부터, 전후칠자(前後七子)를 대표하는 이몽양(李夢陽 : 1473~1530) · 하경명(何景明 : 1483~1521) · 王世貞(1526~1590) 등을 대가로 여겼는데, 그 중에서도 왕세정을 매우 좋아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신익성은 상촌의 明風 수용으로 인해, 후학들이 점차로 명대의 학풍을 알게 되었고, 문장을 함에 반드시 이반룡과 왕세정을 모범으로 삼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만중(金萬重 : 1637~1692)은 조선 시단에 끼친 상촌의 영향을 언급하였다. 김만중은 상촌이 성현(成俔), 정두경(鄭斗卿) 등과 함께 고학(古學)에 뜻을 두었으며, 특히 가정(嘉靖) · 융경(隆慶) 연간의 명나라 문인들을 배워, 후대의 학명시파(學明詩派)가 출현하는 데 윤근수와 더불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였다.

16세기 명나라 문단은 복고주의적 문예사조가 풍미하고 있었다. 이른바 이몽

양과 하경명을 종장으로 하는 전칠자(前七子)와 이반룡과 왕세정을 대표로 하는 후칠자(後七子)가 ‘문필진한(文必秦漢), 시필성당(詩必盛唐)’을 제창하고 ‘당나라 이후의 글은 읽지 않는다(不讀唐以後書)’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문풍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왕세정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엽까지 중국 문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복고운동을 지도하였다. 김만중이 말한 가정·융경 연간의 명나라 문인은 16세기 중엽에 활동한 명대의 이반룡과 왕세정을 중심으로 한 後七子를 지칭하는 것이다.

남극관(南克寬 : 1689~1714)은 명나라 왕세정과 이반룡의 문풍이 동점(東漸)해 오기 시작했을 때, 상촌을 비롯하여 윤근수·김상헌·박미·신익성·신취·김석주 등이 그들의 문장을 전공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문장은 체(體)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서, 조선조 중엽 이상의 문장은 체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끝내 중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선초의 윤희·남수문·사육신·서성 등은 비록 평박심담(宏博深湛)한 운치가 결핍되었지만 오히려 관각체(館閣體)라 이를 만하였으나, 중종대에 이르러, 명성이 높던 김일손(金駟孫 : 1479~1552)의 문장은 사(辭)가 비속하고 기(氣)가 거칠어 산잡무장(散雜無章)할 정도였으니, 그 당시 다른 문인들의 문장은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윤근수나 상촌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조회탁마(藻繪琢磨)할 줄 알아서, 문장이 점차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어 갔기 때문에 뒤에 장유·이식·이민서 같은 명가(名家)들이 새로이 명을 배우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극관은 왕세정·이반룡이 중국에 끼친 화가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파황(破荒)한 공이 있다고 하여, 그들을 존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본디 명대 전후칠자의 복고운동은 태평한 현실을 분식(粉飾)하고 공덕을 가송

(歌頌)하는 단조로운 대각체(臺閣體)의 유편을 극복하고, 형식화된 과문인 배우체(排偶體) 팔고문(八股文)의 구속에서 벗어나, 응혼한 고문체와 웅건한 시풍을 진작시키려는 개혁운동이었다. 이에 대해 오늘날 중국문학사에서는 이들의 복고운동이 이론과 창작 양면에서 현실과의 결합에 실패하고, 도리어 고인을 모의(模擬)하고 표절(剽竊)하여 문인들을 현실에서 이탈시켜 복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시문 발전의 질곡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가하면서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팔고문과 대각체를 타파하여 문풍과 문체를 개량하였고, 문인들로 하여금 대각체나 팔고문 이외에 진한문(秦漢文)이나 성당시(盛唐詩)와 같이 내용이 충실한 문학 작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공로도 있다고 하여, 그 문학사적 의의를 인정하기도 한다.

앞에서 남극관은 이러한 명대 전후철자에 대한 문학사의 공과(功過)를 충분히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왕·이의 문풍이 동점함으로써 ‘문장의 체제’에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그들에게 ‘과황의 꿈’을 돌려야 한다고 한 대목은 일면 수궁이 가는 것이다. 남극관이 말한 ‘문장의 체제’는 투식이나 형식에 의존하는 과문체나 관각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기된 문체인데, 예술성과 사상성이 겸비된 산문 문체, 즉 ‘고문(古文)’을 지향하고 있다.

이의현(李宜顯 : 1669~1745)도 왕·이의 문풍이 말기적 병폐를 드러낸 데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문 공부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문사에 뛰어난 사람들도 모두 과문 학습에 몰입됨으로써 고작해야 표(表)나 책(策)을 짓는 역량을 발휘할 뿐이며, 고문(古文)에 착력하지 못한 탓으로 한유와 소식을 전범으로 삼아 과장(科場)이나 관각(館閣) 혹은 수응(酬應)하는 자료로 쓸 뿐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선조 대에 이르러 최립과 윤근수 등이 비로소 고문 숭상의

기풍을 일으킨 공으로 당대(當代)의 작품이 일신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형(文衡)을 잡았던 작가들 가운데 고문이 무엇인지 알고서 창작에 임했던 인물로, 상촌을 비롯하여 윤근수·이항복·장유·김상헌·이식·김석주·이민서·김창협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로 보면, 이의현도 형식 위주의 과문체와 관각체의 폐단을 극복하고, 한유와 소식으로 대표되는 당송풍에서 진한고문풍으로 선회하는데, 명대 문풍이 일정하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상촌도 중년 이후 과문작폐(科文作弊)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히 애쓴 듯하다. 이의현은 상촌이 과업을 전적으로 숭상하는 외가 송기수 집안에서 성장했기에, 초년부터 표책문(表策文) 작성에는 발군의 실력을 나타내어 약관에 급제함으로써, 이른 시기에 ‘장옥노유(場屋老儒)’가 되었으며, 중년 이후에 고문에 뜻을 두었지만 과문 학습의 폐단을 씻어 내지 못하여 文氣가 손상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촌은 아들 동양위 신익성에게는 재주가 문과로서 현달할 수 없다면 차라리 과문 속박을 벗어나 자유롭게 문장학에 치력하는 것이 낫다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상촌이 고문에 뜻을 두게 된 중년은, 곧 임진왜란으로 인해 명나라의 사신들과 잦은 만남이 있던 시기였다. 그는 1593년 원접사 이항복의 종사관으로 의주에서 칙사(勅使) 사헌(司憲)을 영접하였고, 1594년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청하는 주청사(奏請使) 윤근수(尹根壽)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행하였으며, 1606년 예조 판서로 소사(詔使) 주지번(朱之蕃)이 오자 영위사(迎慰使)로 의주(義州)에 나가 응접하였고, 1609년 예조 판서로 세자책봉 주청상사로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촌은 어느 누구보다도 명 나라 문인들과의 교류가 빈번하였던 만큼, 당시 중국문단을 지도해 가던 왕·이의 문풍을 수용하여 내면화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구한말에 이르러, 송백옥(宋伯玉)은 상촌의 문장에 대해, 뜻이 웅준(雄俊)하고 빛이 현란(絢爛)하다고 하면서, 제공이 이르기를 상촌의 글은 명나라 대가를 배웠다고 하였는데, 이제 읽어보니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였고, 김윤식(金允植)도 상촌의 산문이 세련되어 명말청초의 문기(文氣)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상촌의 문예는 조선 중기 문풍 변혁 초기 단계에서 형성되어 발전을 본 것이다.

(2) 문장가로서 상촌에 대한 평가

상촌의 문예에 대한 역대 비평가들이 보여 준 또 다른 관심은, 그의 문장이 지닌 장단점을 찾고, 당대 문인들과 비교하여 우열을 논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촌 문예의 특징을 엿보는 데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균(1569~1618)의 기록에 의하면, 일찍이 이춘영(李椿英 : 1563~1606)이 ‘문장을 깊이 아는 자’로 허봉(許篈 : 1551~1588)과 상촌을 꼽고, 상촌이 청량(淸亮)함은 미치지 못하나 농후(穠厚)함은 낫다고 평했다고 한다. 또한 홍만중(洪萬宗)이 정두경에게 상촌과 이수광(李睟光)의 시를 평가해달라고 하였는데, 그는 상촌은 문장은 뛰어나지만 시는 본색이 아니므로, 이수광이나 홍경신(洪慶臣)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다. 허균과 홍만중의 기록에 따르면, 제가들이 시문학이 아닌 문장학(산문)에 상촌의 본색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관점은 남용익(南龍翼 : 1628~1692)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그는 이정구와 상촌의 시를 평하여, 이정구는 평포(平鋪)하기가 물과 같고 상촌은 조직(組織)이 비단과 같다고 하면서, 혹자는 이정구는 시가 문보다 낫고, 상촌은 문이 시보다 낫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남용익은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기는 했지만, 상촌의 문예 성취가 시문 양 방면에서 탁월했음을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자들은 문장학을 상촌 문

예의 본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상촌의 문장을 평가할 때, 당대 문단에서 제명(齊名)했던 이정구와 쌍립시켜 대비하는 방식이 즐겨 동원되고 있다.

조선 후기 고문평론의 권위인 김창협(1651~1708)은 이정구와 상촌을 비교하여 평한 선배들의 견해와 자신의 입장을 차례로 소개한 바 있다. 그는 당대의 문원(文苑)에서는 상촌이 낫다는 평이 주류였던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는 장유가 쓴 두 분의 문집서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상촌보다 한 세대 후배인 송시열(1607~1689)은 처음으로 이정구가 낫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창협은 상촌은 고인에 견주어 수사(修辭)하기에 수식한 공력이 많고, 이정구는 뜻에 따라 서사(抒寫)하기에 활달한 운치가 뛰어나다고 하면서, 문사를 높이는 자는 상촌을 높이고 이치를 위주하는(主理) 자는 이정구를 취하니, 본디 각기 본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김창협은, 장유는 ‘상사자(尙辭者)’이고 송시열은 ‘주리자(主理者)’였다고 본 것인데, 문장가(文章家)와 이학가(理學家)의 시각차가 양인의 평가를 달리하게 만든 셈이다. 이를 조금 확대하여 해석하면, 상촌은 도학가 성향보다는 문예 취향이 우세한 문장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김창협은 이어서 이정구와 상촌의 문장이 각기 지닌 장단점을 개괄하였다. 상촌은 타고난 재주가 민묘(敏妙)하여 심후(深厚)함이 부족하고, 또한 제자(諸子)와 전국책(戰國策)을 배우고 또 명나라 대가들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 문장 태도가 준려(俊麗)하고 광채가 현란(絢爛)하지만 질실(質實)한 뜻과 준영(雋永)한 맛이 적다고 하였다.

그에 비해 이정구는 타고난 재주가 화섬(華贍)하여 고간(高簡)한 점이 부족하고 또 고인의 법도에 맞추려고 힘쓰지 않아 매우 쉽게 글을 쓰기 때문에 그 문장이 우여(紆餘)하고 통창(通暢)하며 전혀 어렵거나 군색한 모습이 없지만 체재

(體裁)가 전엄(典嚴)함이 부족하고 격조(格調)가 고아(古雅)하지 못한 것이 흠이라고 하였다.

김창협은 외면과 형식에서 상촌의 문장이 탁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역으로 이정구가 갖추지 못한 부분, 즉 ‘고간’, ‘고인의 법도’, ‘체제의 전엄’, ‘격조의 고아’ 등과 같은 방면에서 상촌이 일정한 성취를 보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문예의 형식적 요건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체현해 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집중적인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상촌은 이를 위해 제자와 전국책과 같은 진한 시대의 문장과 복고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왕·이와 같은 명 대가들의 문장을 학습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고문의 문체적 완성도를 높여 법도 있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으나, 김창협은 지적대로 아직 밀도 있고 긴장감 있게, 내용의 사상성을 제고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촌의 문장학은 가학(家學)을 통해 후대에 전수된 것으로 보인다. 김창협은 상촌의 아들인 신익성과 손자인 신최가 명문(明文)을 학습하는 가법(家法)을 계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춘택(金春澤)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 바 있다. “김석주(金錫冑)가 일찍이 신익성이 상촌보다 낫고, 신최가 신익성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자기가 또한 신최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신익성과 신최의 글은 보지 못했지만, 어찌 김석주가 상촌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대체로 이들은 모두 명인(明人)들의 문장 법도를 터득한 자들이지만, 신함이 보다 충담(冲澹)한 맛이 있으니, 이는 시대의 차이에서 오는 변화 때문인 것이다.”고 하였다.

이렇듯, 상촌의 진한고문풍의 문장학이 신익성—신최—김석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만일 김석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문장학이 후대로 오면서 진보를 거듭한 것이 된다. 비록 김춘택은 이를 부정했지만, 형식의 세련화란 면에서 전

혀 진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때문에 김춘택도 풍격적으로 후기(김석주)보다는 형식미가 덜했던 초기(상촌)의 문장을 ‘충담’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한다.

4. 작 품

여기서는 시 한 편을 소개한다.

「규원(閨怨)」

첩이 처음 낭군께 시집을 적엔
방년으로 막 머리를 올린 터라
고운 자태는 봄빛이 무색했고
뽀얀 얼굴은 둥근달같이 예뻐는데
곶게 단장함만 일삼을 줄 알았지
사랑이 식을 줄을 어찌 알았으랴.
함께 즐긴 때가 얼마나 되나요.
장부는 경솔하게 멀리 노닐어서
한 칼의 승낙을 중히 여기나니
사사로운 정을 어찌 간직하리오.
낭군은 언덕 머리 구름과 같아
동으로 달리고 또 서로 달리고
첩은 마치 뿌리 잘린 풀이
바람 서리 맞아 시든 것과 같나니

낭군의 마음이 첩의 마음 같다면
 길이 먼 길을 나가지 않으리다.
 첩은 낭군을 원망함이 아니라
 한갓 속에 쌓인 걸 말할 뿐이라고.

- ▶ 저서 : 象村集, 野言求正錄, 征倭雜志
- ▶ 문헌 :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文
科榜目>, <金陵郡誌>, <韓國人名大事典>

심 강 (沈 綱) 중종 9년 (1514)~명종 22년 (1567)

조선 문신, 자는 백유(佰柔), 본관은 청송(靑松), 영의정 연원(連源)의 아들이고 명종(明宗)의 장인이며 의겸(義謙)의 아버지.

중종 38년(1543) 진사시에 합격, 음보(蔭補)로 활인서별좌(活人署別坐)가 되고 명종 1년(1546)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使)가 되었다. 명종 3년(1548)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이 되고, 부친상으로 사직했다가 상을 마친 뒤 다시 영돈녕부사 겸 도총관이 되었다.

명종 18년(1563) 신진 사류(士流)로서 화를 당하려던 박순(朴淳) 등을 아들 의겸(義謙)과 함께 구하고 권신 이양(李樑)을 제거하여 청송을 받았다. 시호는 익효(翼孝)이고 묘는 통진면 웅정리에 있다.

- ▶ 문헌 : <中宗實錄>, <明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심 경 (沈 敬) 영조 44년 (1768)~헌종 12년 (1846)

자는 경백(敬伯), 본관은 풍산(豊山), 이천부사(利川府使) 희(禧)의 손자로 성(晟)의 아들이다. 부인은 밀양인 박도유(朴道儒) 딸이다.

순조 27년(1827) 9월 소영 수봉관(昭寧守奉官)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1829년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의영고 봉사(義盈庫奉事)로 일했다. 1831년 궁중의 원예와 채소에 관한 일을 하는 사포서 직장(司圃署直長), 1832년 내첨시주부(內瞻寺主簿), 1833년 도량형기와 물가의 등락을 관찰하는 평시주부(平市主簿), 창덕궁에 있는 사도세자와 헌경왕후의 사당 관리책임자인 경모궁령(景慕宮令)으로 있다가 연산현감(連山縣監)을 지냈다. 묘는 경기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다.

▶ 문헌 : <豊山沈氏大同譜>

심 광 보 (沈光輔) (생몰년대 미상)

조선 문신, 자는 익지(翼之), 본관은 풍산(豊山), 좌명공신 풍산군 구령(龜齡)의 손자인 충신(忠臣) 주(胄)의 아들이다. 외조부는 장령(掌令) 윤면(尹沔)이고, 부인은 첨정(僉正) 김정광(金庭光)의 딸이다.

세조 3년(1457) 어릴 때 용정리에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1490년(성종21)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에 급제하고 1493년 성균관(成均館)에서 도서(圖書) 수납과 출납을 관리하는 전적(典籍)으로 출사한 후 직장(直講)에 승진되었다. 이어서 형조 정랑(刑曹政郎) 다음에 연산3년(1497) 종부시 첨정(宗簿寺僉

正)이 되어 왕실의 족보편찬과 종실(宗室)의 잘못을 규탄하는 일을 하다가 상의원 정(尙衣院正)으로 가서는 연산8년(1502) 1월 염직(染織)기술을 배울 사람들을 인솔하고 중국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연산 10년(1504) 6월13일 노비문서 관리 및 소송을 감당하는 장례원(掌隸院) 판결사(判決事)에 제수되었다. 뒤이어 12월 새로 설치한 시혜청(施惠廳)의 당상(堂上)으로 일하고 연산11년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제수되었다. 묘는 실전(失傳)이다.

▶ 문헌 : < 祖榜目>, <成宗實錄>, <燕山君實錄>

심 광 필 (沈光弼) 세종 32년 (1450) ~ 중종 13년 (1518)

조선중기문신, 자는 필지(弼之), 본관은 풍산(豊山), 좌명공신 풍산군 구령(龜齡)의 손자인 충신(忠臣) 주(冑)의 아들이다. 부인은 태조(太祖:이성계)의 증손녀로 익안대군(益安大君 方毅)의자(子) 이정신(李正信)의 딸이다.

1457년 단종의 승하소식을 듣고 피신한 아버지를 따라 웅정리에서 자랐다. 공신의 적장자(嫡長子)로서 훈작을 세습하여 통훈대부(通訓大夫) 품계를 받고 성종 20년(1489) 덕산현감(德山縣監), 중종8년(1513) 양천현감(陽川縣監), 단성현감(丹城縣監)을 역임한 후 영흥부 판관(永興府判官)을 지내고 웅정리에서 생을 마쳤다. 국상(國相:領議政) 윤은보(尹殷輔)는 「공(公)에게 적합치 않은 낮은 직위에다/ 직위보다 과분한 후덕을 가졌네/ 내 몸은 낮추어 지고/ 후손에게 음덕을 끼치도다」라는 묘비명(墓碑銘)을 찬(撰) 하였다. 묘는 김포시 감정동

옹정리 방조산에 있다.

▶ 문헌 : <成宗實錄>, <中宗實錄>, <豐山沈氏大同譜>

심 구 (沈 玖) 광해군 4년 (1612)~ 현종 12년 (1671)

조선 중기 문신, 자는 구옥(久玉), 본관은 풍산(豊山), 우의정 수경(守慶)의 증손(曾孫)인 승지(承旨) 로(磨)의 아들이다. 외조부는 지중추부사 이명(李溟)이고 부인은 별좌 임경신(任景莘)의 딸이다.

인조 11년(1633) 생원, 진사 양시(兩試)에 모두 합격한 뒤 인조 22년(1644)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에 출사한 후 승정원 주서(承政院主書), 다음에 사헌부(司憲府)에 있다가 효종1년(1650)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서 효종 2년 남양현감(南陽縣監)으로 나갔다. 효종 10년(1669) 상의원 정(尙衣院正)을 제수받고 참알(參謁)때 단자(單子)만 올리고 나오지 않아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의 탄핵을 받았다. 다음해 현종 11년(1670) 영광군수(靈光郡守)직을 끝으로 관직 생활을 마쳤다. 묘는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다.

▶ 문헌 : <國祖榜目>, <仁祖實錄>, <顯宗實錄>, <豐山沈氏大同譜>

심 계 택 (沈啓澤) 철종 12년 (1861) ~ 1920

자는 성백(星伯),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심덕부(沈德符)의 18대 손이다.

임금 고종(高宗) 17년(1880)에 증광진사시(增廣進士試)에 합격하고, 1888년 (고종 25) 처음 벼슬길에 나왔다.

1892년(고종 29)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한 후, 삼사(三司: 司憲府, 司諫院, 弘文館)와 서양학문(西洋學文)을 가르치는 서학교수(西學敎授)를 역임하고 친군(親軍)과 영군(營軍)에서 선전(宣傳) 업무를 맡아 보았다.

그리고 사마(司馬: 兵曹判書의 이청)와 가선비서승(嘉善秘書承)을 지냈다. 묘는 김포시 대곶면 학동에 있다.

심 능 항 (沈能恒) 순조 20년 (1820) ~ 고종 27년 (1890)

본관은 청송(靑松), 호는 학암(鶴庵)이며, 심덕부(沈德符)의 12대손이다. 묘는 대곶면 학동에 있다.

강화의 진해루에 올라

높디높은 진해루는 수성(水城)을 버티고
병자년 오랑캐 막지 못한 것을 한탄하네.
뽕죽한 목책들은 물고기를 다 꿰일 듯
옛 사당은 황망하고 새들만 지저귀네.
두 마을의 산천은 좌우로 갈리고
창 밖의 연무(煙霧)는 그림처럼 고요하네.

지는 해에 주렴도 부동하네.
사공을 부르니 작은 노를 가로 저어 오네.

심 달 원 (沈達源) 성종 25년 (1494)~?

조선 문신. 자는 자용(子容), 본관은 청송(靑松), 영의정 순문(順門)의 아들로, 금천현감(衿川縣監) 형(炯)에게 입양.

중종 12년(1517)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임명되고 이어 부수찬(副修撰)이 되어 숙직 중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 조광조(趙光祖)의 일당이라 하여 제일 먼저 투옥된 후 유배되었다. 중종 17년(1522) 사면되어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에 임명되었으나 대간들의 탄핵으로 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으로 체직, 중국어에 능통하여 중종 23년(1528) 성절사(聖節使) 일행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1530년 호군(護軍)·판교(判校)를 거쳐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에 이르렀다. 묘는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있다.

▶ 문헌 :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심 대 (沈 岱) 명종 1년 (1546)~선조 25년 (1592)

조선조 문신. 자는 공망(公望), 호는 서둔(西墩), 본관은 청송, 경력(經歷)의 검(義儉)의 아들.

선조 5년(1572) 친시문과(親試文科)에 을과로 급제, 홍문관정자(弘文館正

字)·박사(博士)·수찬(修撰)을 지내고 선조 17년(1584)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거쳐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보덕(輔德)을 역임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보덕으로서 근왕병 모집에 힘썼다. 그 공로로 왕의 신임을 받아 우부승지·좌부승지를 지내며 승정원에서 왕을 가까이에서 호종하였다. 왜군의 기세가 심해지면서 선조를 호종하여,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수행하였다.

부승지(副承旨)를 거쳐 경기도 관찰사가 되어 서울 탈환작전에 성안에 백성들로 내용케 하려는 등 대담한 계획을 짜고 남하하다가 삭녕(朔寧)에서 왜적의 기습을 받아 전사했다. 왜군은 그의 수급(首級)을 참하여 서울 거리에 전시하였는데, 60일이 지나도 마치 산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고 한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청원군(靑原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선조 37년(1604) 호성공신(扈聖功臣) 등으로 청원군(靑原君)에 추봉되고 이조판서를 추증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 문헌 :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심 로 (沈 廬) 선조 23년 (1590)~ 현종 5년 (1664)

조선 문신, 자는 원직(元直), 호는 죽사(竹沙)·죽계(竹溪), 본관은 풍산(豊山), 우의정 수경(守慶)의 증손이며 관(關)의 아들이고 부인은 영중추부사 이명(李溟)의 딸이다.

인조 2년(1624)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인조 13년 사과(司果)로 재임

중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언관의 체모를 손상시켰다 하여 파직되었다가, 인조 22년 사은사(謝恩使) 김자점(金自點)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장령(掌令)이 되었다. 이듬해 수찬·교리를 거쳐 인조 24년(1646) 헌납(獻納)으로 있을 때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가 세자를 죽게 하였다는 모함을 받아 사사(賜死)의 명(命)을 받아 왕에게 철회를 요구하다가 인조(仁祖)의 노여움을 사서 남해(南海)에 유배되었다. 1650년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연안(延安)에 이배되었다가 곧 사면되어 집의(執義)가 되었다. 이듬해 사간(司諫)을 거쳐 효종 5년(1654년) 승지(承旨)가 된 후 효종 7년(1656) 성천부사(成川府使)로 나가 청백(淸白)으로 애민(愛民) 교화한 목민관(牧民官)으로 군민들이 동비(銅碑)를 세워 송덕(頌德)하였다.

시부(詩賦)에 능하였고,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묘는 김포시 양서면 방화리(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다.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國朝榜目>

심 반 명조 33년 (1757)~?

자는 안여(安如), 본관은 청송(靑松), 초현(楚賢)의 아들. 정조 16년(1792) 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에 병과로 급제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심 사 공 (沈思恭) 성종21년(1490)~명종10년(1555)

조선 문신, 자는 자온(子溫), 본관은 풍산(豊山), 좌의정(左議政) 정(貞)의 아들이다. 외조부는 사맹(司猛) 허당(許塘)이고 부인은 판관(判官) 조수성(趙守誠)의 딸이다.

중종 8년(1513) 사마시(司馬試)에 질(姪) 수경(守慶)과 함께 등방(等榜)하였다. 중종 16년(1521) 음보(陰補)로 전연사 별좌(典涓司別坐)가 되고 중종 18년(1523)에는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으로 만기가 되어 사재주부(司宰主簿)로 있다가 장례원(掌隸院) 사평(司評)으로 가서는 사건처리에 명민하여 호평을 받았다. 다음 장흥고 령(長興庫令)과 공조(工曹), 호조 정랑(戶曹正郎)을 지내는 동안 호조(戶曹)의 극난한 업무를 한 점 착오없이 처리하여 동렬(同列)들이 감탄했다.

중종 26년(1531) 예빈시(禮賓寺) 첨정(僉正)으로 승서되었으나 부친 좌의정(左議政) 정(貞)이 김안로(金安老)의 무고로 사사(賜死)되는 경지에 이르러 연계옥사(連繫獄事)로 기지사경(幾至死境: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름)이었으나 김안로의 형 참판(參判) 김안정(金安鼎)이 일찍부터 사공(思恭)의 선함을 앎으로 대언구출(大言救出)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중종 32년(1527) 김안로가 복주(伏誅: 형벌에 복종하여 죽음)되고 조정(朝廷)에서는 다시 사공(思恭)을 온양군수(溫陽郡守)로 발탁하였으나 얼마 안가서 가산군수(嘉山郡守)로 가서 만기가되 교체되니 군민들이 방백(方伯 관찰사의 이칭)에게 유임을 진정하여 조정에서는 민의를 받아주었고, 대구부사(大邱府使)를 역임하는 동안 치적을 올리고 장차 교체되려던 차에 민중들이 대궐에 진정하여 1년간 더 유임하게 하였으니 조선조에서는 드문 일이다.

명종 8년 내자시 정(內資寺正)을 배수했는데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으로서 일시에 시정(寺正)의 직책을 받으니 이는 일사(一司)의 장(長)이라 음관(蔭官)으로서는 명망이 특출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명종10년(1555) 3월 왕(王)에게 김안로에게 모해(謀害)를 받아 억울하게 사사(賜死)된 선친(先親) 정(貞)의 직첩(職牒)을 돌려줄 것을 상언(上言)하여 허락을 받았다. 명종10년 원주(原州) 고을의 황폐화로 인해 목사(牧使)에 발탁되었는데 다음해 질(姪) 수경(守慶)이 강원도(江原道) 감사(監司)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경우 법으로 피하게 되어 있어 사공(思恭)은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로 전임되고 같은 해 연말 병으로 타계 하였다. 사공(思恭)은 시사(時事)에 통달하고 더욱 경제(經濟)에 뛰어났으나 오로지 청렴(清廉)으로 치민치정(治民治政)에만 정성을 바친 생애로 가장집물하나 물려준 것이 없다. 묘는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다.

▶ 문헌 : <王祖實錄>, <豊山沈氏大同譜>

심 사 손 (沈思遜) 성종 24년 (1493) ~ 중종 23년 (1528)

조선 문무 겸신, 자는 양경(讓卿), 본관은 풍산(豊山), 적개공신(敵愾功臣) 응(膺)의 손자로 좌의정 정(貞)의 아들이며 우의정 수경(守慶)의 부(父)이다.

중종 12년(1517)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문관의 사관(史官)으로 사실대로 기록하여 신임을 받아 주서(主書 : 사초의 기록이나 실록 편찬 임무)로 일했다. 사간원정언, 홍문관수찬, 지평, 교리, 부응교, 사헌부장령을 역임했다.

중종 18년(1523) 비변사낭관(備邊司郎官)으로 서북면(西北面)의 야인정벌의 공을 세우고 병조좌랑으로 승진 군사(軍事)를 연구하여 시의에 맞게 대처함으로써 군무(軍務)에 숙달됨을 인정받아 군무의 중책을 맡게 되었고,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올랐다.

중종 20년(1525) 서북면 만포(滿浦)에 야인들이 준동하자 왕은 문무를 겸비한 자질이 아니면 서쪽의 관문인 만포진을 방비할 수 없다 하여 문신중에서 무재(武才)를 겸비한 사순(思遜)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켜 만포진병마첨절제사(滿浦鎭兵馬僉節制使)로 임명하였다. 진(鎭)에 부임한 후 위엄과 은혜를 함께 베풀며 백성과 병사에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여 주어 군사나 변경의 주민 모두가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다.

중종 23년(1528) 진중(鎭中)에 땀나무가 부족하여 압록강을 건너가 땀감 채취를 감독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야인의 피습(被襲)을 받아 애석한 운명(殞命)을 맞게 되었다. 이때 나이가 36세였다. 왕은 명신(名臣)을 잃은 것이 매우 슬퍼 여러 날 제때에 수라를 들지 못했다고 한다. 후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묘와 신도비가 김포시 양서면 방화리(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다.

▶ 문헌 :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金石文大觀>

심 사 순 (沈思順) 연산군 2년 (1496)~ 중종 26년 (1531)

조선 문신, 호당(湖堂), 자는 의중(宜中), 호는 묵재(默齋), 본관은 풍산(豊山), 적개공신 웅(膺)의 손자로 좌의정 정(貞)의 아들이다.

중종 8년(1513) 나이 17세에 초시(初試)에 장원, 중종 11년 진사과(進士科)

에 3위로 합격, 이듬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형 사손(思遜)과 함께 동과급제(同科及第)하여 화제가 되었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중종 13년(1518) 승문원을 거쳐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로서 차자(筭子)를 올려 시소육조목(時疏六條目)을 진술하였고, 중종 16년 수찬(修撰)이 되어 사기(四幾)와 오사(五事)를 진술하였다.

다음 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중종 18년 정시(庭試)에 당상관으로 으뜸을 차지한 김안로와 함께 당하관(堂下官)으로 장원(壯元)하여 당상관(堂上官)의 예조참의(禮曹參議)가 되었다.

지제교(知製敎) 겸 춘추관서기관(春秋館書記官),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병조정랑, 사헌부지평, 이조정랑, 의정부 검상(檢詳)·사인(舍人),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 장악원정(掌樂院正)의 벼슬에 있을 때 정시(庭試)에 으뜸을 차지해 한 자급(資級) 올려 받았다. 대간(臺諫)으로 소격서(昭格署)의 비리와 시폐(時弊)를 거론하였고, 원정(院正)으로서 적사오편(摘史五篇)을 제진하였다.

중종 24년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 다음해 경인년에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이 되었다. 부군(父君 : 沈貞)이 좌의정(左議政)으로 있을 때 김안로(金安老)가 출찬(黜竄)되었다가 복권을 꾀하나 옥당(玉堂)이 모두 불가하다 하니 심부자(沈父子)의 주창(主唱)함이라 하여 원한을 품고 있다가 중종 26년 복권하자 김안로의 당파인 채무택(蔡無擇)이 가신(家臣)을 시켜 시정(時政)을 배척하는 익명서를 만들어 종루(鐘樓)에 붙이고 이것을 사순(思順)의 소행이라 모함하여 추국(推鞠), 심한 고문으로 1531년 36세의 나이에 옥사(獄死)되 정파간의 갈등으로 인재(人材)가 희생되었다.

중종 32년(1527) 사헌부(司憲府)가 익명서 사건의 연루자를 밝혀 치죄(治罪)

하고 사순(思順)의 직책을 복권하여 설원(雪冤)하였다. 묘는 김포시 양서면 방화리(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다.

▶ 문헌 : <中宗實錄>, <國朝榜目>, <豊山沈氏大同譜>

심 사 침 (沈思沉) 인조 8년 (1630) ~ 숙종 18년 (1692)

자는 중묵(仲默),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개국공신(開國功臣) 좌상(左相) 심덕부(沈德符)의 10대손이다.

생원·진사(生員·進士) 두 시험에 합격하고, 음보(蔭補)로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제수받아, 우세마(右洗馬)로 있다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형조정랑(刑曹正郞)에 올랐다. 묘는 김포시 대곶면 학동에 있다.

단양(丹陽)의 관청에서

가을비 내리는 산자락

고즈넉한 마을에는 벌써 밥 짓는 연기

흐르는 물 따라 마음은 고향으로 가건만

지는 해만 긴 강을 비춰네.

심 상 각 (沈相恪) 고종 25년 (1888)~1954

독립운동가. 본관은 청송(靑松), 김포(金浦)출생, 파주(坡州)에서 성장, 호는 우산(又山), 현감 정택(定澤)의 아들.

1919년 3·1운동 당시 3월 10일 파주지역에서도 임명애(林明愛) 등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3월 25일에도 구세군(救世軍) 염규호(廉圭浩)가 김수덕(金守德)·김선명(金善明)·임명애·김창실(金昌實) 등과 더불어 시위를 계획하여 3월 26일 와석면 일대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만세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김웅권(金雄權) 등과 함께 군내 월릉·교하 가동·조리면 등지에서 시일을 기하여 군 전체가 봉기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3월 27일 2천명의 시위군중이 광탄면 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조리면 봉일천리(奉日川里) 장터로 행진하여 그곳에 있던 1천여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헌병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위를 주동한 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상해농업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신교육을 받으면서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약 10년 간의 임시정부 활동을 마감하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파주군 광탄면에 광탄보통학교(廣灘普通學校)를 설립하고 그 교장에 취임하여 후진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전념하였다. 정부에서는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 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韓國民族運動資料>, <우리 고장 獨立運動功勳史(京畿道教育委員會)>,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韓國人名大事典>,

심 수 (沈 銖) 영조 19년 (1743)~?

자는 사적(士積), 본관은 청송(淸松), 낙헌(樂賢)의 아들. 김포에서 살았다.
정조 7년(178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심 수 경 (沈守慶) 중종 11년 (1516)~선조 32년 (1599)

조선 명상(名相), 청백리, 호당(湖堂), 자는 희안(希安), 호는 청천당(淸天堂),
본관은 풍산(豊山), 좌의정 정(貞)의 손자로 만포첨사(滿浦僉使) 사손(思遜)의
아들이다.

1. 생 애

수경은 13세 때 부친 만포첨사 순직(殉職), 숙부는 누명으로 치사(致死), 조부는 모함으로 사사(賜死)된 비운의 환경에서 면학(勉學)하였다. 중종 38년(1543)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명종 1년(1546) 식년문과(式年文科) 명경과(明經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여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면서 출세길에 올랐다.

명종 3년(1548) 호당(湖堂)에 피선 사가독서(賜暇讀書)후 삼사(三司)를 비롯 내직을 두루 편력하고 명종 11년 강원도관찰사를 시발로 역사(歷史)상 유일 무이하게 팔도관찰사(八道觀察使)를 모두 지냈고 육조판서(六曹判書), 좌우참

찬(左右參贊), 한성판윤(漢城判尹)등 오경(五卿)을 거쳐 우찬성(右贊成)으로 있을 때 선조 18년 연로한 고위문신(高位文臣)을 예우하는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선조 23년(1590) 우의정(右議政)에 이르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使)로 관직에서 물러 날 때까지 54년간 나라일에 몸담았다.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재직 시에, 정릉(靖陵：中宗陵)을 이장할 때 대여(大興：큰상여)가 지나는 선창을 설치하지 않은 죄로 파직되기도 하였고, 명종 20년(1565) 개성유수(開城留守)로 나가서는 500년 왕도의 유습으로 성행한 미신(未信)으로 인해 굶으로 연일이 없고, 온갖 음해로 민심이 오도되고 국력을 좀먹고 있는 점장이 무당들을 모두 잡아 가두고 칠성단 등 요란하게 차려놓은 기물들을 남김없이 불살라 미신 없는 새 기풍의 질서를 조성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선조 25년(1592) 경도유수(京都留守)가 되어 병(病)으로 쉬고 있을 때 왜구가 침략(壬辰倭亂)하여 여러 지방이 함락되자 호서 지방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77세의 노구로 왜적과 싸우는 것이 왕에게 계달되어 군법(軍法)으로 통솔하도록 도체찰사(都體察使) 겸 의병도대장(義兵都大將)으로 임명되어 군최고지휘관으로서 해서(海西：황해도) 지방의 왜군(倭軍)을 토벌하고 이어서 평양(平壤)을 수복하였다.

계속되는 전투에 시달려 노병(老病)으로 수척하여 운신할 수 없어 난국이 어느 정도 소정된 선조 30년(1597) 상소를 올려 사직하고 평민의 복장으로 귀전(歸田)하니 곤궁하여 왕명으로 식료(朔料)를 받아 생활하면서 지난날의 기억을 수록한 <견한잡록(遣閑雜錄)>을 집필하고 선조 32년(1599) 84세에 별세하니 왕(宣祖)께서 이르시되, “정령은 복두칠성의 정수(精髓)를 받았고, 기개는 하악(河嶽)의 힘이 뭉침이로다. 문무(文武)가 겸전하니 금상옥질(金相玉質)이로다. 오직 효(孝)와 충(忠)으로 영명이 묵묵(穆穆)히 떨침이여. 평소에 아름다운 행

동은 명성(名聲)과 덕업(德業)이 찬란히 빛나도다. 관직에 나온지 54년 얼음같은 청렴(淸廉)과 대종(大鐘)같은 도량은 일대의 명상(名相)으로 군신(君臣)이 만났더라. 팔도(八道)를 순력하고 육조(六曹)를 맡아보되 규범을 실천하니 문장법전(文章法典)이 장중에 있더라. 국난을 당하니 몸바쳐 보국(報國)하여 주석(柱石)이 되었었네, 팔십 평생을 시종이 여일하였도다.”라는 제문(祭文)을 내렸고, 예관(禮官)을 보내 제사케 하였다.

오로지 대의(大義)를 위해 일했고 근검, 효경, 인의를 갖춘 재상(宰相)으로서 선조 34년(1601) 청백리(淸白吏)에 녹선하고 시호 문청(文淸)을 내렸다.

선조 36년(1603) 종2품 이상의 신(臣)들이 모여 작고한 재신(宰臣)중에서 엄근(廉謹)한자 7인을 뽑았는데, 판서 이우직, 우의정 심수경(沈守慶), 영의정 이준경, 영의정 최홍원, 판서 이기, 우참찬 백인걸, 북병사(北兵使) 장필무였다.

조선왕조실록의 사관들은 수경을 문장과 학식이 뛰어나고, 덕행이 있었으며 간묵하여 진정으로 대신의 그릇이었다고 평가한다. 실로 문장과 글씨에 능한 수경은 많은 시문(詩文)을 남겼고, 웅정리에 있는 명종의 장인 청송인(靑松人) 익효공(翼孝公) 심강(沈綱) 묘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찬(撰)하였다. 묘와 사당(追遠祠)이 김포시 양서면 방화리(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다.

2. 저 서

《견한잡록(遣閑雜錄)》

<청천견한록(聽天遣閑錄)>이라고도 한다. 필사본. 1책. 내용은 대체로 저자 자신이 선조연간에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많고, 그밖에 과거 및 일반 정사(政事)·시화(詩話)·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또 <대동야승(大東野乘)> 13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상

층(上層) 문화의 동향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3. 일화

그는 75세와 81세에 득남을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81세에 득남한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 그 늦둥이 두 아들 증광시(增廣試)와 정시(庭試) 문과에 등과하였고 후손들이 있다. 심수경은 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도승지를 거쳐 8도 관찰사를 모두 역임한 유일한 사람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의 관찰사를 차례로 모두 역임한 것이다.

그의 조부가 종종 때 좌의정을 지낸 심정인데, 당시 기묘사화(己卯土禍)를 일으켜 사림과 선비들을 일망타진한 역사적 과오에 대하여 한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다간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심수경은 정철(松江)의 후임으로 우의정이 되었으며 청백리에 뽑히는 영예도 안았다.

그의 성품은 효성이 지극하고 무예에 능하며 대의로 일생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실제로 77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三道) 체찰사(體察使)로 전쟁에 참가하였고, 개성에서는 미신타과 등 선정을 베풀어 송도지방 최초로 송덕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역사적 교훈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으며 조부의 허물을 지우려고 최선을 다했고, 후세 사람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개성유수 3년 瓜滿으로 유생들에게』

잡신을 받드는 미신이 극심한 이때

모든 음사 불사르니 모두들 좋아하네

이제부터 이 古鄣에 정기가 회복되리니
그대들은 정말 큰일을 했네

학생들이 구급되어 경황하던 중
홀연히 비는 개고 日月이 밝았네
감사합니다. 聖上의 밝으신 正氣
한동이 술로 諸君을 위로하더라

재임 삼년동안 대과는 없었던가
文廟 출입도 수없이 했지
미흡한 교육에도 그대들 기상 높으니
내일 돌아가는 내마음 흡족하도다

▶ 저서 : 聽天堂詩集, 聽天遣閑錄

▶ 문헌 : <中宗實錄>,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심 순 문 (沈順門) 세조 11년 (1465) ~ 연산군 10년 (1504)

조선조 문신. 자는 경지(敬之), 본관은 청송, 영의정 회(澮)의 손자, 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 원(源)의 아들, 영의정 연원(連源), 좌의정 통원(通源)의 아버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어 학업에 뜻을 두지 않고 방황하였는데, 어머니가 이를 걱정하여 엄히 훈계하고 교육하니, 마침내 깨달은 바가 있어 열심히 학문을

답게 되었다.

성종 17년(1486) 진사시에 합격, 성종 22년(1491) 성균관 유생으로 대신 윤필상(尹弼商)을 논핵한 죄로 한 때 의금부에 투옥되었다. 연산군 1년(1495)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에 발탁, 정자(正字)·저작(著作)·박사(博士)·부수찬(副修撰)에 이어 부교리(副校理)·지평(持平)을 거쳐 연산군 7년(1501) 장령(掌令)이 되고 뒤에 검상·사인을 역임했다.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앞서 장령으로 재직 중 연산군의 어의(御衣)의 크기에 대해 논한 것이 화근이 되어 개령현(開寧縣)에 유배되었다가 참형(斬刑)되었다. 중종반정(中宗反正) 후 복관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김포시 통진면 웅정리에 있다.

▶ 문헌 :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심 연 원 (沈連源) 성종 22년 (1491)~명종 13년 (1558)

조선조 문신. 자는 맹용(孟容), 호는 보암(保庵), 본관은 청송, 영의정 회(澮)의 증손, 사인(舍人) 순문(順門)의 아들로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중종 11년(1516) 생원이 되고 중종 17년(1522)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를 거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대교(待敎)·봉교(奉敎) 등을 역임했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과 공조(工曹)·예조(禮曹)·이조(吏曹) 좌랑(佐郎)을 거쳐 중종 21년(1526) 문과중시(文科重試)에 병과로

급제, 중종 26년(1531) 검상(檢詳)·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을 거쳐 진휼경차관(賑恤敬差官)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다.

중종 28년(1533) 의주부윤, 중종 32년(1537) 동부승지(同副承旨), 2년 뒤 예조참판으로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병조참의(兵曹參議)·대사간을, 1541년 대사성(大司成)·특진관(特進官)·형조참판(刑曹參判), 중종 38년(1543)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다음 해 호조참판이 되고, 인종 1년(1545) 호조판서로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임했다. 이 때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 위사공신(衛社功臣) 2등에 녹훈, 청성군(靑城君)에 피봉된 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인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명종 2년(1547) 좌참찬·예조판서·우찬성·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좌찬성(左贊成) 등을 거쳐 우의정, 좌의정을 지내고 명종 6년(1551)에 영의정이 되고, 명종 13년(1558)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진봉되었다. 문장에 능하고 일처리에 세밀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리에 밝아서 혹 남의 질문을 받으면 직접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막힘없이 응대하였다.

일찍이 그가 탐라목사로 있을 때 그곳 산천을 살펴 지도를 그려두었는데, 1555년 남해변에 많은 해구(海寇)가 침입하였을 때, 가장 요충 지역이던 탐라가 당시 그가 그려둔 지도에 의거하여 대응책을 세워 막아내자 사람들이 그의 선견지명에 감복하였다 한다. 명종(明宗)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시호는 충혜(忠惠)이다. 묘는 김포시 통진면 용정리에 있다.

- ▶ 문헌 : <中宗實錄>, <仁宗實錄>, <明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國朝文科榜目>, <京畿人物誌>

심 응(沈 膺) 세종 15년(1433)~연산군 10년(1504)

조선 무신, 본관은 풍산(豊山), 태종(太宗) 좌명공신 풍산군 정양공 구령(龜齡)의 손자로 상주목사(尙州牧師) 치(寔)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대장부로 태어나 고루하게 붓대나 잡고, 음영(吟詠)으로 세월을 보내겠느냐며, 학숙(學塾)을 박차고 나와 무예(武藝)를 익히기 시작하였으니 천품(天稟)이 남아의 기개와 무인의 기질을 타고났다.

단종 1년(1453) 음보로 충의위(忠義衛)에 배속되었는데,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단종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보필신을 암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세조 5년(1459)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용용지사(雄勇之士)의 칭호를 받고 왕실금위(王室禁衛)로 발탁되었으며, 세조 11년(1465) 내금위(內禁衛) 무예장에서 철전(鐵箭 : 쇠로 만든 화살)을 300보 지점밖에 적중하여 무예로 우림(羽林)에서 제일로 뽑혔다.

세조 13년(1467) 길주(吉州)의 호족(豪族) 이시애(李施愛)가 지방 세력을 배경으로 북도인(北道人)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켜 민심이 혼란할 때 조석문(曹錫文), 어유소(魚有沼) 허종(許琮)과 함께 반군을 토벌하여 정충출기적개공신(精忠出氣敵愾功臣)의 서훈을 받아 절충장군에 승서되었고, 성종 6년(1475) 첨지충주부사에 제수된 후 성종 9년에는 행회령도호부사(行會寧都護府使)로 명을 받아 근무 중 성종 14년 가선대부(嘉善大夫) 풍산군(豊山君)에 봉호를 받았으며, 이어서 성종 15년에는 벼슬에서 물러나도 종신토록 녹봉을 받을 수 있도록 은전을 받는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성종 22년(1491) 북쪽의 호병(胡兵)이 출몰하여 변장(邊將)을 살해하고 소요할 때 야인들을 정벌하라는 왕(王)의 교서를 받고 두 아들을 대동하고 출정하여

적의 소굴을 소탕하는 공을 세웠다.

연산군 10년(1504) 졸(卒)하여 부음이 조정에 계달되자 왕이 유사(有司)를 보내 조문하고 예장케 하였으며, 양호(襄胡)라는 시호(諡號)와 함께 왕이 쓴 철권단서(鐵券丹書 : 목판에 철권이라 쓴 공훈록)와 초상화를 내렸다. 후일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묘, 신도비, 사당(향토유적 제4호)이 김포 운양리 모담산에 있다.

▶ 문헌 : <世祖實錄>, <成宗實錄>, <豐山沈氏大同譜>

심 의 (沈 義) 성종 6년 (1475)~?

조선 문신, 호당(湖堂), 자는 의지(義之), 호는 대관재(大觀齋), 본관은 풍산(豊山). 풍산군(豊山君) 응(膺)의 아들, 정(貞)의 아우다.

1. 생애

김포시 김포읍 운양리에서 성장하였다. 중종 2년(1507) 증광문과(增廣文科) 병과에 급제하고 다음해 정업원(淨業院)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호조좌랑(戶曹佐郎)이 되어 윤대(輪對)에서 신(臣)들의 위세(威勢)를 고(告)하는 군약신강(君弱臣強)을 상계(上啓)하여 공신(功臣)들에게 미움을 사, 중종 6년 봉상시주부(奉常侍主簿)에서 좌천되어 여주교수(驪州敎授)로 있으면서 중종 8년(1513) 또 십의잠(十宜箴 : 身心宜正-몸과 마음을 바르게 할 것, 學文宜勤-학문에 부지런할 것, 天譴宜答-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할 것, 飲食宜節-음식을 절

제할 것, 綱紀宜立-기강을 세울 것, 規諫宜納-사리에 맞는 간언을 받아들일 것, 讒言宜壅-모함을 막을 것, 賢邪宜辨-어짐과 사악함을 분별할 것, 刑罰宜愼-형벌을 삼갈 것, 守令宜擇-지방 관리 人事를 바르게 할 것)을 올려 왕의 가납(嘉納)을 받아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발탁된 후에도 대간들의 배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중종 13년(1518) 천재(天災)와 시폐(時弊)를 논하는 십잠(十箴)을 올려 치국(治國)에 대한 성찰을 시의(時宜)에 맞게 적절하게 주장하였다.

훈구(勳舊)와 신진(新進) 집단의 대립이 격화되었던 시기의 관료로서 공신 심정(沈貞)의 친제(親弟)였음에도 훈신들의 타락한 정치 윤리와 귀족지향 의식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져 집권훈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았으나 편견으로 대하는 신진 사류(士類)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중종 14년(1519) 연산군과 남곤(南袞)을 탄핵하는 상소를 하여 남곤 일파의 참소(讒訴)가 끊이지 않자 자리에서 물러나 중종 24년(1529)에 하관(下官)의 자리로 나가 훈구와 신진세력의 갈등으로 빚어진 관료로서의 한계와 현실에서 좌절된 치도(治道)의 이상과 치국(治國)의 모순을 우언(寓言)으로 표출한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을 지었다.

사가독서(賜暇讀書)할 때 학식과 문장으로 추앙받던 성세창(成世昌)과 벗이 되어 학문적인 교유가 깊었다. 중종 30년(1535) 송도문무과시관계문(松都文武科試官契文)을 지었고, 중종 36년(1541) 개성교수(開城敎授)로 재직할 때 문인(文人)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과 친교를 맺어 시문학(詩文學)세계로 몰입한 문재(文才)로서, 명문(名文)의 문집(文集)과 547수(首)에 이르는 한시(漢詩)를 남겼다.

명종 6년(1551) 77세에 소격서령(昭格署令)으로 있을 때에도 벽이단(僻異

端)의 상소를 올려 의견을 개진하면서 말년까지 직분에 충실하였다.

그의 세속의 범례에 구속받지 않고 현실을 비판하는 시대인식(時代認識)을 토대로 한 독특한 문학(文學)과 사상(思想)에 대한 학계(學界)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묘는 김포시 운양리 모담산에 있다.

2. 저 서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

조선 중종 때의 대관재(大觀齋) 심의(沈義)가 지은 한문소설(漢文小說).

안정복(安鼎福) 편(編) <잡동산이(雜同散異)>에 수록되어 있는 유일한 한문 몽유록이다. 총 24면, 매면 13행, 매행 20자 정도이다. 일명 ‘대관재기몽(大觀齋記夢)’ 또는 ‘몽기(夢記)’라고도 한다.

「대관재몽유록」은 문인의 희필적(戲筆的)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만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상적인 문인왕국(文人王國)을 그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향락적·반동적·이념옹호적인 유형적 특질을 가지는 ‘이념제시형(理念提示型)’ 몽유록의 최초작품으로 분류된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몽유자인 작자 심의가 주인공이 되어 천상세계에 들어가 천자의 총애를 받아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의 관직에 제수된다. 천상세계의 문물제도를 박은(朴聞)을 통하여 알게 된다.

천자는 최치원(崔致遠), 수상은 을지문덕(乙支文德), 좌우상(左右相)은 이규보(李奎報)와 이제현(李齊賢), 관각(館閣)의 요직은 김극기(金克己)·이인로(李仁老)·권근(權近)·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유방선(柳方善)·강희맹(姜希孟)·김종직(金宗直)이며, 이색이 대제학으로서 문형

(文衡)을 맡고 있다.

주인공은 규벽부(奎壁府)를 관장하며 시(詩)의 온당함을 논하고 자신의 시론(詩論)을 인정받는다. 그는 당률(唐律)에 혹탐(酷耽 : 아주 탐닉함)하는 풍조를 반대하는 김시습(金時習)의 난을 일반의 소영비법(嘯詠秘法 : 시가 따위를 읊는 비법)으로 격퇴하여 공을 세운다.

천자가 당천자(唐天子) 두보(杜甫)·이백(李白)과 노닐고 아국(我國)의 인재가 부족함을 한탄한다. 주인공은 진골(塵骨)이라는 이유로 다시 인간세계로 돌아온다.

「대관재몽유록」에서 그 특색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시점은 꿈속에서나 꿈을 깬 뒤에도 일인칭 자기 체험고백의 화자(話者)로 일관되어 있다. 몽유자는 서술자이며 작자 심의 자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세계와 몽중세계가 주인공에 의하여 밀착되어 있다.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사건은 주인공의 행위와 관련되어 연결되고 작품에서 의미는 집약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서술 유형상 ‘주인공형’ 몽유록에 속할 수 있다.

둘째, 「대관재몽유록」의 꿈을 꾸고 또 꿈을 깨는 과정은 다른 작품에 비하여 아주 공교하게 설정되어 있다. 용의주도하게 설정된 입몽과 각몽 과정 그리고 각몽 뒤에 배가 북처럼 부어올랐다는 표현을 보면, 작자는 꿈을 명리학적(命理學的)인 현상으로 파악하였던 듯하다.

셋째, 「대관재몽유록」에 설정된 천상이라는 성적(聖的) 공간은 작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의 표상이다. 그리고 현실 체험의 변증법적인 이상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적 공간에서 문장입국(文章立國)을 실현함으로써 작자는

현실에서 좌절된 치도(治道)의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그리고 당대 치국의 모순을 우의(寓意)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넷째, 「대관재몽유록」은 다른 몽유록에 비하여 시화적(詩話的) 요소가 가장 풍부하다. 그래서 시화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행하여졌다. 고전시화에서 보이는 꿈의 수용형태는 꿈속에서 시를 짓는 ‘몽중작시(夢中作詩)’, 꿈속에서 시를 받는 ‘몽중수시(夢中受詩)’, 그리고 앞날의 길흉화복을 예언해주는 ‘시참(詩讖)’의 세 갈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꿈과 시화의 상관성은 밀접하였다. 작자 심의는 전대의 시관(詩觀)이나 시평 이론을 중심내용으로 하여 이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따라서 그 창작동기는 시로써 문명(文名)을 떨쳐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한 작자의 염원이다.

다섯째, 「대관재몽유록」의 궁극적인 주제는 인생의 허무를 문인들의 이상인 문인중심의 왕국을 통하여 표출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몽유’라는 의장(意匠)에 고려 가전(假傳)에서 전개되는 인물의 전기적 서술과 포폄의식(褒貶意識 :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대관재몽유록」은 세조 조에서 발생한 소설문학이 선조 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발달을 한다. 그 100여 년 간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승하여 주는 독창성이 매우 강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저서 : 大觀齋亂藁(大觀齋夢遊錄, 大觀賦, 小觀賦, 達觀賦)

▶ 문헌 : <中宗實錄>, <國朝文科榜目>,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심 일 취 (沈日就) 명종 2년 (1547)~광해군 8년 (1616)

조선 문신, 자는 중진(仲進), 호는 비산옹(飛山翁), 본관은 풍산(豊山), 만포첨사 사손(思遜)의 손자이며 우의정 수경(守慶)의 차자이다. 부인은 현령(縣令) 김기서(金基瑞)의 딸이다.

선조 6년(1573) 진사시에 합격하여 사법기관인 의금부(義禁府)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성현(省峴), 중림(重林), 연원(連原) 도찰방(道察訪)을 거쳐 사도시(司導寺)에 있을 때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 왕세자를 호위하는 익위사부술(翊衛司副率)로 동궁(東宮: 왕세자가 거처하는 궁, 왕세자를 일컬음)을 호종(扈從)하여 홍주(洪州)에 주둔하였는데 재상(宰相)들이 공의 근면과 대민관계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여 차무군사 사옹 진휼(差撫軍司 司饗 賑恤) 등의 직책을 겸하게 하니 난민구제에 주력하여 칭송이 높아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로 승서된 후 기근이 심한 해에 당진현감(唐津縣監)으로 내려가서는 침식을 잊고 진휼(賑恤)하여 고장을 떠났던 현민(縣民)들이 되돌아와 살았고 만기가 되어 교체 되던 날 읍민들이 술과 떡을 싸 가지고 나와 정성으로 전별하였다. 이어서 예빈시 주부(禮賓寺主簿)로 있다가 장예원(掌隸院)으로 옮겨 사의, 사어(司議, 司御)를 거쳐 호조좌랑(戶曹左郎)으로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하여 두터운 신임으로 해서 김포군수(金浦郡守)로 나가서는 정무(政務)를 간소화 하고 모든 폐단을 혁파하는등 안민(安民)을 우선한 명관(名官)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 후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 돈녕부판관(敦寧府判官),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도총부 중추부 경력(都摠府中樞府經歷)을 순력하고 동궁(東宮)을 호종하였던 공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특배되었다.

관직을 떠나서는 국사나 시국에 관한 시비는 일체 논란하지 않았고 평생 검소

한 생활로 일관하여 40여 년 관리로 있었으면서도 가장집물(家藏集物)이라고는 무엇하나 없어 사람들이 그 청백성을 탄복하였다. 광해군8년(1616) 졸(卒)한 후에 이조참판(史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 개화산에 있다.

▶ 문헌 : <豐山沈氏大同譜>

심 전 (沈 銓)

조선 문신. 자는 숙평(叔平), 본관은 청송(靑松),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 달원(達源)의 아들이다.

명종 1년(1546)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조정랑(史曹正郎)·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명종 11년(1556) 중시문과(重試文科)에 을과로 급제. 벼슬이 경기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묘는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있다.

▶ 문헌 : <明宗實錄>, <國朝文科榜目>, <京畿人物誌>

심 정 (沈 貞) 성종 2년 (1471)~중종 26년 (1531)

조선조 문신, 자는 정지(貞之), 호는 소요정(逍遙亭), 본관은 풍산, 좌명공신 풍산군 귀령(龜齡)의 증손이다.

1. 생애

연산군 8년(1502)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 다음해 수찬(修撰)이 되었고 검토폐관과 시독관으로 임금과 자주 문답하였으며 홍문관 부응교에 임명되었다.

연산군 12년(1506) 폭군 연산(燕山)을 추방하는 중종반정(中宗反正)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녹훈되고 화천군(花川君)에 책봉되었다. 또한 중종 2년(1507)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사은사(謝恩使)에 임무를 띠고 중국 명(明)나라 연경(北京)에 다녀왔다.

중종 5년(1510) 호조참판, 황해도관찰사 중종 8년(1513) 한성부좌윤, 형조참판에 이어 다음해 이조참판, 중종 11년(1516)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형조참판, 중종 13년(1518) 우참찬에 이어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었으나 곧 물러나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제수되었다.

중종 14년(1519)에 남곤, 이유청, 정광필, 김전등과 함께 조광조 일파를 탄핵하고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고 예조판서, 사헌부 대사헌에서 중종 21년(1526)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제수된 후 중종 22년(1527) 1월 우의정(右議政)에 오르고 12월 좌의정(左議政)에 제수되었다.

그후, 중종 25년(1530) 부제학 성세창(成世昌)이 권신(權臣) 김안로(金安老)를 논척(論斥)하다가 도리어 평해(平海)에 유배되었는데 심정과 공모하였으므로 죄 주어야 한다는 대사헌 김근사(金謹思), 대사간 권예(權輓)등의 탄핵으로 좌의정직에서 파직되고, 강서(江西)에 유배되었다.

김안로는 평소 심정 삼부자의 배척을 받은 보복으로 심정을 완전 제거하기 위하여 장방사시(張榜射矢) 사건도 누명을 쓰고 옥사(獄死)한 사순(思順) 부자

(父子)가 밀통 공모한 것이라고 왕(王)에게 모함하여 중종 26년(1531)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었다.

후일에 장방사시 사건이 허황, 채무택의 자복으로 김안로의 사주를 받아 꾸며진 간계임이 밝혀져 누명을 벗고 김안로 일파는 치죄(治罪)되었다. 명종 10년(1555) 직첩(職牒)을 돌려 받았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며, <조야집요(朝野輯要)>,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외 야사(野史)에 신진사류와 훈구세력 간의 다툼과 기묘사화(己卯士禍)와 관련한 기술이 있다.

묘와 사당(追遠祠)이 김포시 양서면 방화리(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고, 정자(亭子) 소요정(逍遙亭) 터가 양천현 탑산에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2. 관련 사건

(1) 기묘사화

기묘사화는 중종 14년(1519) 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 등의 훈구파(勳舊派)에 의해 조광조(趙光祖) 등의 신진 사류(新進士類)가 축출된 사건.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고 성균관을 중수하였으며, 두 차례의 사화로 희생된 사람들을 신원(伸冤)하고, 명망 있는 신진 사림파를 등용하였다.

중종의 지우(知遇)를 얻은 신진 사류는, 성리학에 의거한 이상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먼저 중종에게 철인군주주의(哲人君主主義) 이론을 가르치면서, 군자를 중용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할 것을 역설하였다. 나라의 미풍양속을 기르기 위하여 미신타파와 향약(鄉約) 실시를 강행하고, 유익한 서적을 국가에서 간

행·반포하게 하였으며,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뜻을 달리하는 문인의 사장(詞章)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오직 도학 사상만을 강조하여, 훈구파를 소인으로 지목하여 철저히 배척하며, 현실을 무시하고 급진 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나친 이상주의를 펼쳤다. 또 중종반정 공신들을 중용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76명은 뚜렷한 공로 없이 공훈을 남수(濫授)하였으니 삭제해야 한다는, 위훈삭제(僞勳削除) 사건을 야기시켰다.

신진사류와의 알력과 반목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정면 도전을 받은 훈구파는, 홍경주의 딸이 중종의 후궁인 것을 이용하여, 궁중 동산의 나뭇잎에 꼴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의 4자를 쓴 뒤, 이것을 벌레가 갉아먹어 글자 모양이 나타나자, 그 잎을 왕에게 보여 왕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였다. ‘走·肖’ 2자를 합치면 조(趙)자가 되기 때문에, 주초위왕은 곧 “조(趙)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다. 남곤·심정·홍경주 등 훈구파의 사주도 있었지만, 신진사류의 급진적·배타적인 태도에 염증을 느낀 중종은 결국 신진사류를 몰아내었다.

조광조는 능주(綾州)로 귀양가서 사사되고, 김정(金淨)·기준·한충·김식 등은 귀양갔다가 사형 또는 자결하였다. 김구 등 수십 명도 역시 유배되고, 이들을 두둔한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 등은 파직되었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을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 한다.

▶ 문헌 :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朝野輯要>, <韓國人名大事典>

심 제 (沈 濟) 선조 30년 (1597)~인조 27년 (1649)

조선 문신, 자는 자미(子美), 호는 사천(沙川), 본관은 풍산(豊山), 우의정 수경(守慶)의 증손으로 관(關)의 아들이며 대사헌 황섬(黃暹)이 외조부이고, 승지(承旨) 로(魯)의 아우이다.

인조 2년(1624) 생원, 진사 양시(兩試)에 합격하여 세마(洗馬)가 된 후, 인조 6년(1628) 의금부 도사(都事) 경력(經歷), 한성부참군, 전옥주부,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이어 인조 11년(1633) 증광별시(增廣別試)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서(司書)에 임명된 후 인조 14년(1636) 무장현령(茂長縣令)으로 봉직하였고 수찬(修撰), 삼사전랑(三司銓郎), 보덕사인(輔德舍人), 응교(應敎), 종사관(從事官), 지제교(知製敎), 유장(儒將)으로 인조24년(1646) 중시(重試)에도 연첩(連捷)하여 경세(經世)와 문장(文章)으로 이름을 떨쳐 장상(將相) 재목으로 촉망되었다.

역사상 최초로 정책(政策) 정강(政綱) 팔약조(八約條)를 성문화(成文化)한 소북파(小北派)의 팔문장(八文章) 중 한사람으로 인조 27년(1649) 전주부윤(全州府尹) 재임 중 52세에 졸(卒)하여 王이 장차 크게 쓰려던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아까운 나이에 거연히 떠나 애석하다는 제문(祭文)을 내려 조문하였다.

묘는 김포시 양서면 방화리(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다.

▶ 저서 : 沙川集草藁

▶ 문헌 : <國祖榜目>, <豊山沈氏大同譜>, <仁祖大王祭文>, <小北派北譜>

심 조 (沈 潮) 숙종 20년 (1694)~영조 32년 (1756)

자는 신부(信夫), 호는 정좌와(靜坐窩), 본관은 청송(靑松), 신천군수(信川郡守) 효겸(孝謙)의 5대손, 증(贈) 좌승지(左承旨) 수정(壽鼎)의 아들 권상하(權尙夏)의 문인.

젊어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과 <대학(大學)>·<중용(中庸)>을 탐독하였으며, <주자대전>을 연구하여 성리학에 밝았다.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는 이이(李珥)의 기발이승론(氣發理乘論)을 주장하여 김창흠(金昌翕)의 오상기질설(五常氣質說)에 반론을 가하였다.

경학(經學)에 밝고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영조 23년(1747)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후진의 교육에 전념하였다. 경전을 깊이 연구하여 의심나는 곳은 차의(筭疑)를 만들어 해설하였고, <의례(儀禮)>·<가례(家禮)>와 우리나라 선유(先儒)의 학설을 절충하여 <상례홀기(喪禮笏記)>를 만들어 치상절차(治喪節次)를 확정하였다.

뒤에 대사헌(大司憲)을 추증하고 향현사(鄉賢祠)에 제향되었으며, 문집(文集) 15권 8책이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묘는 김포읍 장기리 고창 능촌에 있다.

- ▶ 저서 : 靜坐窩集
- ▶ 문헌 : <金陵郡邑誌>

심 주 (沈 冑)

조선충신, 자는 자윤(子胤), 호는 웅정(甕亭), 본관은 풍산(豊山), 태종(太宗) 좌명공신 풍산군 정양공 구령(龜齡)의 손자로 풍덕군수 실(實)과 도총제 청송인 심인봉(沈仁鳳)의 따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장령(掌令) 윤면(尹沔)의 딸이다.

1. 생 애

단종 1년(1453)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으로 있을 때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단종(端宗)의 보필신 황보인, 김종서를 암살한 후 위압으로 왕위를 강탈하고 1455년 왕위에 올라 세조(世祖)가되어, 1457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된 단종이 영월로 추방된 후 12월 24일 죽음을 당했다는 흉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때 심주(沈冑)는 생육신(生六臣)들과 뜻을 같이하여 관인(官印)을 근무 관청 벽에 걸어 놓고 아들 삼형제와 함께 김포 웅자정(甕子井 : 웅정리)에 피신 은거하여 조그마한 정자를 짓고 웅정(甕亭)이라 이름지어 자호(自號)로 삼고 두견시(杜鵑詩)를 지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달래며 영월을 향해 통곡으로 곡기(穀氣)를 끊고 자정(自靖)하였다.

이 같은 忠節이 알려져 선조(宣祖)때 가선대부 이조참판(吏曹參判) 겸 승정대부 의정부좌참찬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추증되고, 충남 공주 동학사(東鶴寺)에 단종과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등 그 신하의 충혼(忠魂)을 모시는 숙묘전(肅慕殿) 동무(東廡)에 배향(配享)되어 나라에서 봄, 가을 제향(祭享)을 올린다.

묘는 김포시 감정동 웅정리 방조산(傍祖山)에 있다.

2. 작 품

여기서는 그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두견시(杜鵑詩)」

草綠江南愁日暮 풀 푸른 강남 땅에 해 저물을 근심하며
乘朝催發漢湄船 조수 따라 배를 저어 떠나기를 재촉하네
蜀中萬事無人間 나라안 일만 사연 물어 볼 이(사람) 없으니
獨向青山拜杜鵑 나 홀로 청산 향하여 두견과 벗하리라

※두견(杜鵑소쩍새) - 중국 촉(蜀)나라 王 望帝(이름杜宇)가 오령(鰲靈)의 꾀박을 못 견디어 오령에게 양위(讓位)하고 죽어서 두견새가 되었다는 고사(古辭)가 있다.

▶ 문헌 : <東獻備考>, <肅慕誌>, <豊山沈氏大同譜>

심 주 (沈 澍) 중종36년(1541)~선조34년(1601)

자는 택중(澤仲), 호는 한천(寒泉) 본관은 풍산(豊山), 좌명공신 풍산군 구령(龜齡)의 현손(玄孫)으로 정언(正言) 세림(世霖)의 아들이다. 부인은 목사(牧使) 안홍(安鴻)의 딸이다.

6세 때 명종(明宗) 즉위년(1545乙巳)에 왕실의 외척인 윤임(尹任)의 대윤(大尹)과와 윤원형(尹元衡)의 소윤(小尹)과 간의 반목으로 소윤이 대윤을 몰아낸 옥사(乙巳土禍)에 문신(文臣)인 부친 정언(正言) 세림(世霖)이 희생되 불운한

환경에서 중년에 이르러 선조 14년(1581) 중부참봉(中部參奉)에 발탁되고 1583년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제수된 후 1586년 준원전(潛源殿) 참봉(參奉)으로 옮겼다. 다음에 연은전 참봉(延恩殿參奉), 1589년 장흥고 봉사(長興庫奉事)로 승진되었다. 그 후 1591년(선조 24년)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에 제수되고 1592년 4월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8월 강화도에 들어가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의 의병군 군량(軍糧)을 맡았고 의병군은 강화도 연안의 왜군을 공격하고 김포, 양천 등지의 왜군을 패주시켰다. 1593년 2월 18일 진주성(晉州城) 전투에서 의병장 김천일이 전사하고 성(城)이 함락돼 충격으로 병을 얻어 쉬다가 선조28년(1595) 전함사(典艦司)의 좌 수운판관(左水運判官)이 되어 각 지방의 조세(租稅)를 서울로 실어 들이는 일을 감독하던 중 1598년 11월 18일 왜군이 총첩퇴 되어 임란(壬亂)이 끝났다. 묘는 김포군 양촌면 유현리 산에 있다.

▶ 문헌 : <豐山沈氏大同譜>

심 척 (沈 惕) ? ~ 인조 14년 (1636)

자는 척약(惜若), 호는 흠곡(歙谷), 청송심씨(靑松沈氏)로서 군수 효겸(孝謙)의 아들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수학하여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 학행으로 현감에 직배(直拜)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정랑(正郎)으로 재임하다가 사퇴하고 고향인 김포읍 장기리에 귀향하여 학문에 정진 중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자 강화도에 들어갔다.

종군 중에 강화성이 함락되자 마니산 밑에서 적병에게 사로잡혀 항거하다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아 적병에 의하여 살해당했다.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贈職)되고 충신정려(忠臣旌閭)를 내렸으며, 영조 3년(1727)에 강화 충렬사(忠烈祠)에 추가 배향되었다.

▶ 문헌 : <金浦郡誌>

심 현 (沈 玘) 인조 27년 (1649)~영조 3년 (1727)

조선 중기 문신, 자는 현옥(玄玉), 본관은 풍산(豊山), 우의정 수경(守慶)의 증손(曾孫)인 전주부윤 제(齊)의 유복자(遺腹子)이다. 외조부는 감역 권복길(權復吉)이고 부인은 참판 유성삼(柳星三)의 딸이다.

현종 10년(1669)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가 되었다.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아 어린 나이에 알성과(謁聖科)에 들었으나 벼슬이 낮아 임금 앞에 서는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다가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여 삼조(三曹 : 戶曹, 刑曹, 工曹) 정랑(正郎), 승지겸 영위사(迎衛使) 외국사신 영접 임무를 거쳐 숙종26년(1700)까지 지방관리의 불법을 규찰(糾察)하는 도사(都事)직에 있다가 정산현감(定山縣監)에 이어 숙종32년(1706)까지 김포군수(金浦郡守)로 근무하고 후에 김제군수(金堤郡守)로 전직되었다 그 후에 돈과 곡식을 관장하는 혜랑(惠郎)으로 있다가 숙종44년(1718)에 물러난 후 다시 관직에 가지 않았다. 글과 글씨에 능하였으며 뜻은 고상하고,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비록 권세가나 귀인이라도 조금도 돌아보지 않으니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모

두 두려워하였다. 묘는 경기도 영평(永平: 현, 포천) 북면 정항리 산에 있다.

▶ 문헌 : <三和榜目>, <顯宗實錄>, <肅宗實錄>, <豐山沈氏大同譜>

심 형 (沈 亨) ? ~ 중종 12년 (1517)

조선 공신, 본관은 풍산(豊山), 상주목사 치(寘)의 손자로 적개공신 응(膺)의 아들이다.

성종 21년(1490) 음보로 내금위의 장수로 선발되어 통정대부 온성부사, 절충장군 평안도우후(平安道虞侯), 통정대부 경원부사(慶源府使), 종성부사(鐘城府使)가 된 후 연산군 11년(1505) 의주목사(義州牧使), 중종 1년(1506) 중종반정(中宗反正)에 참여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책훈되고 풍창군(豊昌君) 군호를 받았고 중종 3년 전라우도수사(全羅右道水使), 중종 10년 충청수사(忠淸水使)에 제수되었다. 묘는 김포 운양리 모담산에 있다.

▶ 문헌 : <成宗實錄>, <燕山君實錄>, <中宗實錄>

심 효 겸 (沈孝謙) 명종 2년 (1547) ~ 선조 33년 (1600)

자는 공술(公述), 본관은 청송(靑松), 영돈녕청릉부원군(領敦寧靑陵府院君) 강(綱)의 아들.

선조 9년(1576) 병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신천군수(信川郡守)에 올

랐으며,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扈從)한 공으로 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으며, 묘는 김포읍 장기리 고창 능촌에 있다.

심 희 (沈 禧) 영조 4년 (1728)~정조 23년 (1799)

조선 문신, 자는 자순(子純), 본관은 풍산(豊山), 우의정 수경(守慶)의 후손으로 경천(景天)의 아들이다. 외조부는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유성홍(柳聖洪 文化人)이고 부인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유숙(柳淑：全州人)의 딸이다.

영조 39년(1763) 증광시 생원에 합격한후 영조48년 휘릉 참봉(徽陵參奉)에 제수된이래 1774년 선공감 봉사(繕工監奉事), 1775년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1776년 사옹원 봉사(司饗院奉事)로 있다가 희릉 직장(禧陵直長)에 올랐다. 1777년 돈령주부(敦寧主簿), 1781년 한성주부(漢城主簿), 다 음해에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승서된후 니성현감(尼城縣監)에 그리고 1784년 천안군수(天安郡守)에 제수돼 2년간 근무하고 1790년 백천군수(白川郡守)로 있다가 2년후인 1792년 이천부사(利川府使)에 올랐다. 1799년 광릉령활인서 별제(光陵令活人署別提)로 나가서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통괄하면서 왕의 종친과 외척을 돌보는 돈영주부(敦寧主簿)를 겸임하여 일하다가 타계하였다. 묘는 김포 웅정리 방조산에 있다.

▶ 문헌 : <豊山沈氏大同譜>

안씨 (安氏) 영조 12년 (1736)~정조 23년 (1799)

안씨는 무의공(武毅公) 평양조씨 심태(心泰)의 처이다.

죽산안씨 병사(兵使) 윤정(允禎)의 딸로 평소 언어 행동이 단정하고 성품 또한 고요하여 모든 친척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부군(大君)이 수원유수로 있을 때 정조대왕 왕비가 사택에 찾아 온 일도 있으며 왕으로부터 은상(恩賞)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자만도 자랑도 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더욱 우러러 보며 칭송이 자자하였다.

부군의 신환이 매우 위중하자, “내가 먼저 죽어 나의 남은 수명을 공의 명에 잇게 하여 달라.”라고 천지신명에게 지성껏 빌고 아무도 모르게 정조 23년 (1799) 자진하였다. 별세하자 원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옛적에 남편을 따라 죽은 사람은 있었으나 자신의 수명을 남편 수명에 이어주기 위하여 자결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하며 탄복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순조 1년(1801) 순조대왕이 정문(旌門)을 세우고 만인에게 이를 본받게 하였다. 나라에 충성한 남편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녀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니 모두 애도하고 칭송하였다. 정조는 또한 이 소문을 듣고 충과 열이 있는 재상가의 표상이라 극찬하여 여성의 귀감이 되므로 열녀 정려하였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1987년 김포시 감정동에 정문을 새로이 세우고 현판을 이전케 되었다.

안 중 식 (安中植) 철종 12년 (1861)~1919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순흥(順興), 호는 심전(心田).

벼슬은 도화서화원(圖畫署畫員)을 거쳐 양천(陽川)·통진(通津) 군수를 지냈다. 일찍이 소림(小琳) 조석진(趙錫晉)과 함께 관비생(官費生)으로 중국에 유학했으며 1918년 서화협회(書畫協會)를 조직, 회장이 되어 후진 양성에 힘썼다. 산수·인물·화조(花鳥)를 잘 그렸고,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시(詩)에도 능했다. 주요작품으로는 <천보구여도(天保九如圖)>·<낙지론도(樂志論圖)>·<산수도(山水圖)>·<성재임간도(聲在林間圖)>·<군작도(群雀圖)> 등이 있다.

▶ 문헌 : <韓國人名大事典>

양 성 지 (梁誠之) 태종 15년 (1415)~성종 13년 (1482)

조선 학자·문신. 자는 순부(純夫), 호는 늘재(訥齋)·송파(松坡), 본관은 남원(南原).

1. 생애

증우찬성(贈右贊成) 구주(九疇)의 아들. 세종 23년(1441)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 이어 식년문과에 급제, 경창부승(慶昌府丞)·성균주부(成均主簿)를 역임. 훈구파(勳舊派)의 중진으로서 이듬해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副修撰)·

교리(校理) 등을 지내고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고려사수사관(高麗史修史官)을 겸임하며 <고려사> 개찬에 참여했다. 이어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에 승진, 단종 1년(1453) 왕명으로 <조선도도(朝鮮都圖)>, <팔도각도(八道各圖)>를 작성했고 다음해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찬진했다.

세조 1년(1455)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편찬하고 이듬해 집현전이 폐지되자 좌보덕(左輔德)에 전임, 동지중추원사·동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세조 9년(1463) 왕명으로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찬진하고 홍문관(弘文館) 설치를 건의, 역대 서적을 보관케 하고 제학(提學)으로 취임했다. 이듬해 구현시(求賢試)에 급제, 이조판서에 오르고 대사헌 재직 중 <오륜록(五倫錄)>을 찬진했다. 이듬해 발영시(拔英試)에 급제하고 서적의 보전과 간행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려 학문의 발전을 꾀했고 다음해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을 찬진했다.

예종 1년(1469) 지중추부사·홍문관제학·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겸직하며 <세조실록>, 성종 1년(1470)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 공조판서를 거쳐 1471년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으로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성종 8년(1477) 대사헌을 재임, 지춘추관사가 되고 성종 12년(1481) 홍문관 대제학(大提學)으로 <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했다. 이 해 지중추부사가 되어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하고 성종 13년(1482) 서적의 간행과 수장에 대한 12조의 건의문을 올렸다. 시호는 문양(文襄)이고, 묘는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에 있다.

2. 업적과 사상

세종 조부터 성종 조에 이르기까지 6조에 걸쳐 역임하는 동안에 문교(文教)상에 끼친 공로는 제외하고라도 정치상의 의견과 언론이 어는 것이나 다 당시를 일깨우고 후세의 거울이 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세조는 그를 해동(海東)

의 제갈량이라고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항상 역사의 현실에 착안하여 나라를 위하는 긴요한 도리를 곳곳이 주장함이 특색인바, 그 당시에 있어서 사리를 가장 똑바로 이해하던 경륜가였다.

중국 고대의 요순(堯舜)만을 유일한 이상적 군주로 떠받드는 시절에 단군을 국조(國祖)로 모셔 받들기를 주장하였으며, 중국의 역사만을 일반 교과서로 사용하던 시절에 우리의 동국사(東國史)를 배울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온 세상이 중국의 풍속에 휩쓸리는 때에 나라의 고유한 풍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뿐 아니라 문신이면서도 군비에 대한 관심이 또한 컸다. 우리나라에는 문묘(文廟)는 있으나 무묘(武廟)는 없으니 마땅히 무묘를 세워 역대의 명장을 모시자고 주장하였다. 고구려 유숙을 본받아 봄에는 3월 3일, 가을에는 9월 9일에 교외에서 사격대회를 열어 사기를 드높이고 무풍을 장려하자고 하였으니, 확실히 그 당시 사회로 보아 일대 경종이 아닐 수 없었다.

군정 10책 가운데서도 특히 군호의 중요함을 역설하여 말하기를 신라의 풍속에는 전쟁에서 사망한 자는 벼슬을 한 등 올려주어 명예롭게 하고, 그 유가족들은 관록으로써 부양하여 우대하였으니 위국진충(爲國盡忠)의 용사들이 생겨남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전사자에게는 특별한 은전이 없고 마땅히 주는 부미까지도 받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러고서야 어찌 군졸들의 모험심을 고취시킬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군정의 여러 가지 결함을 명석하게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견도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무인을 멸시하는 폐풍(弊風)은 교정되지 못한 채로 500년 간을 내려왔다.

정병주의를 주장하여 양보다 질에 더욱 치중하여 군사를 뽑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실험을 치러 우수한 군사를 뽑도록 하였고, 또 병역의 토대가 되는 호적의 정

확성을 기할 것, 독자의 군복무 면제 등을 정병에 있어 3대 원칙으로 삼은 것은 그의 탁월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에서 비변 10책 같은 것이 국방에 관한 근본방침을 상술한 것이니, 이 또한 그의 대표적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의 명에 의하여 편찬한 <팔도지리지>와 <연변방수도>는 정확한 것으로 실제 측량한 지도가 없던 그 당시에서는 매우 위대한 공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또 농정에도 힘을 써서 국가에 건의하기를, 농사의 근본은 지력을 잘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개간사업을 일으켜서 해변과 강. 육지에도 방축을 세워 수전(水田)을 만들자고 주장하였으며,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밖에 여가가 있을 때는 무예를 익히게 하면 일거양득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가지 일이 너무나 이상(理想)에 치우친 듯 하더라도 전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생을 위하여 소극적으로는 민폐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여러 가지 건의를 하였지만, 그 중에도 특히 각 도·군·현에 의료기관의 설치를 주장한 것은 참으로 감탄할 만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질병은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바이니 서울에는 비록 의원들이 있어서 병을 진단하고 약을 주기도 하지만 지방에는 그렇지 못하여 촌의 백성들이 한번 질병에 걸리면 그 괴로워함은 차마 볼 수가 없으므로, 지방의 크기에 따라 의원 수를 정하여 전의감에 와서 의술을 연구한 후 각 지방에 돌아가 병을 돌보게 하고, 감사로 하여금 그 성적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상벌을 주면 이처럼 좋은 방법은 없겠다고 하였다.

사회정책에 대하여도 한층 진보적인 의견을 가졌으니 예를 들면, 백정이 양민 되는 길을 열어주자고 한 것과 노비에게만 노역을 치중하지 말고 균등하게 하자고 주장한 것 등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비의 폐지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당시 시대로 보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풍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혁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혼례에 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연찬에 있어서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과거 시험에 대하여도 과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여러 번 제의하였으며, 예술 방면에도 특히 깊은 이해를 가져 아악을 잘 보호하자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악부와 중국 악부 외에 또 변악부란 것을 따로 설치하여 일본악과 여진악을 아울러 채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또 그의 「서적 12사 상소문」을 보면 현대적 의의를 함축한 주장으로서 도서의 보존 및 간행에 실효를 꾀하자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겠지만, 문화가 담겨 있는 서적의 보존은 사회 문화의 존속을 위한 중대 사명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서적은 비록 흩어져 없어진다고 하여도 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사는 한번 유실되면 다시는 얻을 수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은 반드시 여러 권을 만들어 여러 사고(史庫)에 두자고 말하였다.

사실 조선조 500여 년을 통하여 학자와 문인이 허다하였고 정략가와 모신도 적지 아니하였으나 대개는 정주의 학설과 반마(班馬 : 반고와 사마천)의 문장을 모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구실 삼아 강경 외교를 부르짖거나 인의만으로 국방의 근본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자국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백년대계는 세우지 못할망정 일국의 정치를 마음 굳게 먹고 잘 해가자는 실제적 경륜가는 매우 드물었다. 그는 조선왕조가 한창 번성할 때에 배출한 인물 중 하나의 현실적 경륜가로서 색다른 존재라 하겠다.

3. 저서 및 편서

《눌재집(訥齋集)》

석인본. 6권 3책. 정조 15년(1791)에 왕명으로 규장각(奎章閣)에서 편각한 것인데, 권1~4는 주의(奏議), 권5는 잡저(雜著)·고금시(古今詩), 권6은 부록으로서 김수온(金守溫)·서거정(徐居正) 등의 시문 몇 편과 유사(遺事)·묵적(墨蹟) 등을 수록하였다.

그 뒤 후손인 주겸(柱謙)이 속편 4권 1책을 편찬하여 1938년에 원집과 함께 4책으로 중간하였다. 속편의 권1은 주의(奏議), 권2는 잡저, 권3은 부록, 권4는 유사이다. 후일에 후손인 재창(在昶)이 다시 원·속집을 1책으로 합편하고, 저자의 영정(影幀)과 외예보(外裔譜)를 책머리에 붙여 중간하였다.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 발견되는 결점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편찬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새로운 조사를 실시케 하였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양성지의 오랜 조사와 노력 끝에 재정리하여 성종 9년(1478) 1월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되었다.

지금 서울대학교도서관 규장각본(奎章閣本)으로 보존되어 있는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는 바로 이 지리지(地理志)의 편찬을 위하여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속찬된 것이다.

양성지는 자신의 조사에 의한 자료와 예조(禮曹)를 통하여 각도에 편찬규칙을 시달하여 별도로 속찬지리지를 편집케 하여 그 중 1부씩을 춘추관(春秋館)에서 모아,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그는 또 이

지리지에 팔도주군도(八道州郡圖), 팔도산천도(八道山川圖), 팔도각일도(八道各一道), 양계도(兩界圖) 등을 붙임으로써 더욱 완전한 지리지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 <팔도지리지>는 조선 초기 지리서(地理書)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적 저서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능가하는 학문적 가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 작 품

여기서는 그의 전(箋)을 한 편 소개한다.

「사 남찬배 동부승지 전 (謝男瓚拜同副承旨箋)」

상유(桑榆)의 늦은 나이에 천지의 육성(育成)을 입사와 금(禽)·독(犢) 같은 미미한 자식이 일월의 남은 빛을 권근하게 되었사오니, 몸이 분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사오매 마음에 감명됨이 어찌 한이 있사오리까.

엿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은 성품이 오홀하고 처자가 황당하와, 40년 동안 성조(盛朝)에 있었으되 털끝만큼도 보익됨이 없었사옵고 5·6년을 두고 탄핵을 입었으매 매양 시위(尸位) 소찬(素餐)의 기롱을 기렸사오나 장차 그대로 종신하게 되오매 다시 무슨 희망이 있사오리까만, 임금의 은혜가 망극하여 서대(犀帶)의 반열에 뛰어 올랐사옵고, 소자(少子)가 무엇을 알아서 또 용후(龍喉 : 종지를 이름)선발에 참여하였습니다. 무(武)를 숭상하고 문을 높이어 이것으로써 저것을 권장하시니 어찌 노신(老臣) 한 집안만의 경사오리까, 실로 온나라 무인이 같이 즐거울 일입니다.

신 찬(瓚)이란 자는 오직 궁마(弓馬)만을 일삼고 시서(詩書)를 배우지 못했는

데 예종(睿宗)의 막대하신 인(仁)을 입어 지위는 당상의 반열에 오르고, 성대(聖代)의 불차(不次)로써 주시는 사랑을 받아 직책은 금중(禁中)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사오니, 총영(寵榮)이 이미 깊고 분수에 또한 만족하옵니다. 하물며 이러한 친근하고 밀접한 자리란, 더욱이 미련하고 몽매한 자의 있을 데가 아니오니, 소임이 무거워 이겨내지 못할까 염려이옵고, 또한 계획이 옹졸해서 손해가 있을 듯 하옵니다.

감격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모이매, 조심스럽고 황송함이 실로 더하오니 신은 마땅히 항상 어리석고 용렬한 자식을 더불고 더욱 충성을 격려하여 살아서는 머리를 바치고 죽어서는 결초(結梢)하여 길이 소심(小心)을 다할 것이오며, 자식으로 효자 되고 신하로 충신 되어 소절(素節)을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서하겠사옵나.

- ▶ 저서 : 訥齋集, 諭善書, 時政記, 三綱事略, 東國圖經
- ▶ 문헌 :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海東名臣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양 속 (梁 淑) 성종 2년 (1471) ~ 중종 23년 (1528)

자는 자징(子澄), 본관은 남원(南原)이며 동부승지 찬(贊)의 아들이다.

연산군 8년(1502) 빙고별제(氷庫別提)에 천거로 임용되었다. 이후 사헌부 지평(持平)을 지내고 함경도도사(咸鏡道都事), 사부목사(四府牧使)·부사(府使) 등을 역임하는 동안 근면하게 공무를 처리한다는 평을 받았다. 뒤에 병조판서를 증직했다.

- ▶ 문헌 : <金陵郡誌>

양 연 (梁淵) ?~중종 37년 (1542)

조선 문신. 자는 거원(巨源), 호는 설옹(雪翁), 본관은 남원(南原), 성지(誠之)의 손.

중종 19년(1524)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장령(掌令)·집의(執義)·직제학(直提學)을 거쳐 중종 30년(1535) 공조 참판으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중종 32년(1537)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김안로(金安老)·채무택(蔡無擇)·허항(許沆) 등 3흉을 탄핵하여 이들을 처형케 했다. 뒤에 좌승지(左承旨)·병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역임, 중종 36년(1541) 우참찬(右參贊)에 오르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사무에 밝았으며 특히 병사(兵事)에 능하였다. 재상 윤임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훈구파의 중심인물로 사림파를 배척하는 활동을 많이 하였다.

▶ 문헌 : <中宗實錄>, <韓國人名大事典>, <金陵郡誌>

양 익 선 (梁益善)

자는 여경(汝慶) 남원양씨(南原梁氏)이며, 석호(石湖) 진룡(震龍)의 증손자로, 효심이 지극하여 부친이 병환으로 중세가 심히 위독하게 되자 부친의 대변을 맞보았으며, 환자가 숨이 끊어지려는 찰나에 꿩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므로 망연자실(茫然自失) 꿩을 구하기 위하여 방황하는데 개가 와서 짖으면서 사람을 보고 따라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개를 따라가 본 즉 살아있는 꿩이 있어서 붙들어서 부친께 시봉(侍奉)하였다. 이는 공의 효심에 감동된 것으로 여겼다.

드디어 상을 당하여 법도에 따라 상(喪)과 제(祭)를 예를 다하였으므로 주민의 천거로 특별히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제수(除授)되고 효자정려(孝子旌閭)가 김포시 검단면 금곡리 좌동에 내렸으나 현존치 않는다.

▶ 문헌 : <金浦郡誌>

양 지 (梁 誌) ? ~ 선조 25년 (1592)

임진왜란 때의 절신(節臣). 자는 언신(彦信)이며 남원양씨(南原梁氏)로, 문양공(文襄公) 눌재(訥齋) 성지(誠之)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참정 사제(思齊)이다.

음보(蔭補)로 적성현감(積城縣監)에 이르렀을 때인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연천 삭녕에 와 있던 경기감사(京畿監司) 심대(沈岱)의 종사관으로서 왜적의 야습(夜襲)을 만나 끝까지 항전하다가 심 감사와 함께 순사(殉死)했다.

정조 20년(1796) 손자인 성묵(性默)이 절제(節製)에서 장원한 것을 계기로 이조판서(史曹判書)에 추증(追贈)되고 삭녕의 표절사(表節祠)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민공(忠愍公)이며 김포시 검단면 금곡리 좌동에 충신정려가 내렸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 문헌 : <金浦郡誌>

양 진 룡 (梁震龍)

자는 숙현(叔見), 호는 석호(石湖). 본관은 남원(南原), 은성(恩聖)의 아들.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나자 세마(洗馬)로써 출사하지 않고 3일동안 통곡하며 시(詩) 수십 편을 지어 남들이 위태롭게 여겼다. 그 뒤 강호에 묻혀 성리학에 열중했으며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검단 좌동에 사송정(四松亭)이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고, 파주군 향현단에서 제향되었다.

▶ 문헌 : <金陵郡誌>

유 광 익 (柳光翼) 숙종 39년 (1713)~정조 4년 (1780)

조선 학자. 자는 사휘(士輝), 호는 풍암(楓巖)·항재(恒齋), 본관은 전주(全州), 동지중추부사 유춘(兪春)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과거를 포기, 학문에 전심했다. <심경주해(心經註解)>를 보완하여 사칠호발(四七互發)의 서(書)를 지음으로써 사우들의 신망을 얻게 되었으며,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자 서울 남쪽에 서재를 짓고 강의의 격식을 세웠다.

30세에 이미 학자들이 ‘항재선생(恒齋先生)’이라 칭하였다. <대학(大學)>에 침잠하여 <대학집석(大學輯釋)>을 저술하였다. 이름이 알려져 영조 36년 (1760) 창릉참봉(昌陵參奉)이 되었으며, 1764년 서부도사(西部都事)로 임명된 뒤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와 의금부도사를 역임하였으며, 1767년에는 예빈시주부를 거쳐 고산현감이 되었다. 고산현감으로 재임할 때에는 자신이 농사의 이치를 알고 있다면서 임금을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가 관찰사와 조정을 기만한다

고 하여 체차당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사복시주부·지례현감이 되었다가 1772년 벼슬에서 물러나 직산으로 퇴거하였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에 익위사에 있으면서 동궁을 모신 바 있다. 정통 성리학에 몰두하였으며, 자기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 저서 : 大學輯要, 講學提要, 東史編年, 楓巖輯話

▶ 문헌 : <耳溪集>, <朝鮮圖書解題>, <한국인물대사전>

유 근 (柳 根) 명종 4년 (1549)~인조 5년 (1627)

조선 문신. 본관은 진주, 자는 회부(晦夫), 호는 서경(西耕)·고산(孤山),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선조 5년(1572) 별시문과에 장원하고 1574년 사가독서를 한 뒤 1587년 이조정랑으로 있으면서 정시(庭試)에서 다시 장원했다. 이 해 일본에서 승려 겐소[玄蘇]가 사신으로 오자, 선조는 문장이 뛰어나다 하여 서열을 무시하고 선위사(宣慰使)로 임명하였는데, 겐소는 그의 시문을 보고 탄복하였다. 1591년 좌승지가 되었다가 정철(鄭澈)이 화를 당할 때, 그 일파로 몰려 탄핵을 받았으나, 선조의 두둔으로 화를 면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義州)까지 선조를 호종하여 이조참판에 오르고, 1593년 도승지로 경성안무사(京城安撫使)를 겸하여 전란에 시달린 백성들을 위문하였다. 이어 한성부판윤에 올라 사은부사로 명(明)나라에 가서 임진

왜란 때의 파병에 답례하고, 귀국 뒤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1597년 명나라에서 수백석의 군량미를 들여와 이를 평안도 선천(宣川) 근처에 풀어놓자, 선조는 이를 서울로 급히 운송하기 위하여 그를 운량검찰사(運糧檢察使)로 특명하였다. 선조 34년(1601) 예조판서가 되어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녹훈되어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대제학·좌찬성에 이르렀으나 광해군이 즉위하여 국정이 어지러워지자 사직하고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기용되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던 도중 통진(通津)에서 병사하였다.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듣던 그는 시문에 뛰어났는데, 특히 시에 능하였다. 문집에 <서경집>이 있으며, 괴산(槐山)의 화암서원(華巖書院)에 제향되었다.

▶ 저서 : 西垞集

▶ 문헌 : <韓國人名大事典>

유 덕 삼 (柳德三) ? ~ 숙종 27년 (1701)

조선 무신. 자는 공달(公達), 본관은 진주(晉州).

어려서는 시·서를 배우다가 29세에 무예를 익혀 음보로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숙종 15년(1689) 무과(武科)에 급제 선천부사(宣川府使)가 되어 그곳에 유배된 박태보(朴泰輔)와 교유했다. 숙종 21년(1695) 통진 부사가 되어 기근(饑饉)으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휼, 임기가 끝난 뒤까지 계속하다가 임기위반으로 안렴사(按廉使)에 의해 투옥, 도배(徒配)되었다. 이듬해 풀려나 어영청별장(御

營廳別將)·수어청중군(守禦廳中軍)·훈련원마병별장(訓練院馬兵別將)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했다.

▶ 문헌 :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通津府先生案>

유 명 규 (劉明奎) ? ~ 1907

한말의 의병장. 일명 명계(明啓). 경기도 통진 출생.

1907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의 체결로 구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8월 9일 강화 원주 진위대가 봉기한 틈을 타서 사졸·주민 등 500여 명을 이끌고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탈취, 무장봉기를 꾀하였다.

순사주재소를 부수고 군아(郡衙)로 쳐들어간 이들은 친일군수 정경수(鄭景洙)를 처단하고 강화성을 한때 장악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왜군의 세력에 쫓기다가 9월 6일 통진에서 잡혀 총살당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문헌 : <두산동아세계대백과사전>

유 정 량 (柳廷亮) 선조 24년 (1591) ~ 현종 4년 (1663)

본관 전주(全州). 자는 자룡(子龍), 호는 소한당(素閑堂)이며 시호는 효정(孝靖)이다. 영의정 영경(永慶)의 손자로 선조 37년(1604) 선조의 딸 정휘옹주(貞徽翁主)와 결혼하여 전창위(全昌尉)에 봉해졌다.

광해군(1612) 유영경 일파가 대북파(大北派)의 탄핵으로 멸족의 화를 입을 때 고부(古阜)로 유배되었다가 장차 역모가 있으리라는 소문이 퍼져 1619년 다시 기장(機張)으로 이배되었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전창군(全昌君)으로 봉해지고, 1628년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국가 위급에 처한 구국 일념의 충정으로 뜻을 같이 하는 자를 규합하고 의병장이 되었다. 민용암 충민공 성(坪)과 조정익과 그의 아우 조정휘 등이 다수 참전하였다. 처음부터 부패한 관군의 대열에 끼어 대적하였지만 모두 순절하고 강화도성이 함몰되었다. 3월 초경 살아남은 자는 남하하였고 국치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났다.

인조 24년(1655) 전후 수습책으로 중국사절로 사은사(謝恩使),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세 차례에 걸쳐 심양 등지에 가, 우리나라 포로 인질 등 비빈, 종실 대신 등을 귀향시키는 데 공로가 지대했다. 청나라에 다녀온 다음 도총관이 되었으며 글씨로 이름이 높았고, 북벌 양성책에 힘썼다. 이종질 조유(趙猷)도 당시에 관계되어 환국하였다 전한다.

▶ 문헌 : <仁祖實錄>, <江華郡誌>, <韓國人の 族譜>

유 한 준 (兪漢騫) 영조 8년 (1732)~순조 11년 (1811)

조선 문신.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만청(曼淸) 또는 여성(汝成), 호는 저암(著庵) 또는 창애(蒼厓)이다. 처음 이름은 한경(漢旻)이었다.

당대의 문인·서예가로 이름 높던 유한지(兪漢芝)의 사촌형으로 문장뿐 아니

라 서화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학자이다. 영조 44년(176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김포군수 등을 거쳐 벼슬이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남유용(南有容)의 제자로 송시열(宋時烈)을 추앙하여 <송자대전(宋子大全)>을 늘 곁에 두고 지냈다 한다.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으며 저서로 <저암집>이 있다. 그림에도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작품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벗으로 둔 화가들은 많았던 듯 당시 화가들의 그림에서 그가 쓴 제발문(題跋文)이 자주 눈에 띈다.

▶ 저서 : 著庵集

▶ 문헌 : <韓國人名大事典>

윤 계 (尹 檠) 선조 36년 (1603) ~ 인조 14년 (163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신백(信伯), 호는 신품(薪谷). 교리 섬(暹)의 손자이며, 현감 형갑(衡甲)의 아들이다.

인조 2년(1624) 사마시에 합격하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 상소하여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 이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승문원(承文院)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를 거쳐 전적(典籍)·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지냈다.

인조 7년(1629)년 이조좌랑(吏曹佐郎)이 되었고, 인조 14년(1636)에 남양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 이해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려다 청병(淸兵)에게 포위된 후 포로가 되어

청병을 꾸짖으며 항복하지 않자 청병에게 혀가 잘리고 끝내는 참살(斬殺) 당했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贈職)되고, 용원군(龍原君)에 봉군(封君)되었으며, 시호는 충간공(忠簡公)이고 남양의 용백사(龍栢祠)와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에 배향(配享)되었고 김포시 고천면에 충신 정려되었으나 현존치 않는다.

▶ 문헌 : <金浦郡誌>

윤 방 (尹 坊) 숙종 4년 (1718)~?

조선 문신. 자는 중례(仲禮), 본관은 파평(坡平). 광업(光業)의 아들로 광조(光祚)에게 입양.

영조 27년(1751)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주서가 되고 정언과 지평을 거쳐, 사간을 역임한 뒤 1762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1764년에 좌승지에 임명되고, 다시 대사간에 임용되었으나 1771년에 홍봉한(洪鳳漢)의 사건에 연루되어 삭탈관직되었다. 1773년에 다시 승지로 복직되고 얼마 뒤에 대사간이 되었으며, 정조 4년(1780)에 황해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

그 뒤 1784년에 도총부도총관이 되었으며, 1789년에 대사헌을 역임하고, 1791년에는 공조판서가 되었다. 일찍이 1779년에 사은정사(謝恩正使)인 하은군(河恩君) 광(堧)을 따라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는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잘 처리하였고, 특히 외교적인 수단이 뛰어났다.

묘는 김포읍 풍무리 부정산(浮正山)에 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윤 섭 (尹 邈) 명종 16년 (1561)~선조 25년 (1592)

조선 문신. 자는 여진(汝進), 호는 과재(果齋), 본관은 남원(南原), 지사(知事) 우신(又新)의 아들.

선조 16년(153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 검열(檢閱)·주서(注書)·정자(正字)·교리(校理)·정언(正言)·지평(持平)을 거쳐 선조 20년(1587)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가서 종계변무(宗系辨誣)를 바로잡았다. 그 공으로 선조 23년(1590)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에 책훈되고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교리(校理)로서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상주성(尙州城)에서 적을 맞아 분전하다가 성의 함락과 함께 전사했다.

시호는 문열(文烈), 묘는 고촌면 신곡리 봉황산에 있다.

- ▶ 문헌 : <宣祖修正實錄>, <亂中日記>, <國朝人物考>, <國朝文科榜目>, <韓國人名大事典>, <金陵郡誌>

윤 순 (尹 珣) ? ~ 중종 17년 (1522)

조선 문신. 자는 백옥(伯玉), 호는 임심(臨深), 본관은 파평(坡平), 계겸(繼謙)의 아들.

연산군 7년(1501) 사과(司果)로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3등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 연산군 10년(1504)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등과(登科)한 지 5

년 만에 정경(正卿)의 위에 올랐다. 중종 2년(1507)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중종반정(中宗反正) 뒤 승습주청사(承襲奏請使)로 중국에 사행(使行)하고 돌아와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다. 중종 4년 겸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 이듬해 다시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중종 8년(1513) 형조판서가 되고, 중종 16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다가 이듬해 사망했다.

▶ 문헌 :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文科榜目>

윤 재 영 (尹在英) 고종 25년 (1888)~1922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으로 1919년 3월 21일 김포시 고촌면(高村面) 신곡리(新谷里)에서 김정국(金正國)·윤주섭(尹周燮)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인근 주민 50여명을 규합하여 신곡리 뒷산에 모이게 한 후에,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경의 무력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하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피체(被逮)되었다.

같은 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判決文(1919. 5. 22 京城地方法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윤 종 근 (尹種根) 고종 25년 (1888) ~ 1956

독립운동가.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郡下里) 출생.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28일 당인표(唐寅杓)의 집에서 조강리(祖江里)의 최우석(崔禹錫)·조남윤(趙南潤) 등과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11시에 김포읍내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있으니 참여하라는 권유문 7매의 전달을 부탁받고 저녁에 각 동리를 돌며 이를 이장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정인교(鄭仁敎), 민창식(閔昌植) 등 수십 명의 동리사람과 함께 인근의 함반산(含飯山)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 다른 동리에서도 횃불을 올리며 화답하여 밤늦도록 계속하였다.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향교와 면사무소로 맹진하였다. 시위군중은 면사무소를 둘러싸고 면장과 직원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이들이 거절하자 기물을 파괴하려 했다. 이 때 일본군경이 도착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주동자와 현장의 참가자들을 체포하였다.

1919년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8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권말 부록 참조

- ▶ 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京畿人物誌>

윤 종 의 (尹宗儀) 순조 5년 (1805)~고종 7년 (1870)

조선조 문신이며 학자. 자는 사연(士淵), 호는 연재(淵齋), 본관은 파평(坡平). 식(埴)의 아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6세 때 증조모 김씨(金氏)가 천자문과 당시(唐詩)를 가르쳤는데, 즉시 암송하였다고 한다.

18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여, 철종 3년(1852) 서부도사가 되고 1855년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를 거쳐 장악원(掌樂院)으로 옮겼다가, 효릉령(孝陵令)·문의현령을 지내고 어머니 상을 당하여 귀향하였다. 1862년 삼남에 민란이 일어나자 임금에게 구폐(揀弊)의 방책을 아뢰고, 장서원별제(掌署院別提)·김포군수(金浦郡守)를 지냈다.

고종 1년(1864) 대흥군수(大興郡守), 1867년 청풍군수·강릉부사, 1870년 옥구현령 등 지방관이 되어 가는 곳마다 선치(善治)하여, 비석이 세워졌고, 1875년에 공조참의·오위장·돈녕부도정 등을 역임하였다.

1882년 돈녕부사로 파광군(坡光君)에 습봉(襲封)되고 이어 호조참판을 지냈다. 공조판서·도총관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1884년 80세가 되자 정헌대부(正憲大夫)로 가자(加資)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시질(侍疾)할 때 1년이나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병(兵)·농(農)·율력(律曆)·도상(圖象) 등도 깊이 연구하였으나, 경전에 더욱 밝았으며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었다.

철종이 즉위하자 헌종의 부묘(祔廟) 등의 문제를 고금의 예전(禮典)을 참고하여 <방례고증(邦禮考證)> 2권을 저술하였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 저서 : 禮記思問錄, 邦禮攷証

▶ 문헌 : <高宗實錄>, <儒教淵齋>, <韓國儒學史>, <韓國人名大事典>

윤 주 섭 (尹周燮) 고종 24년 (1887) ~ 1957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으로 1919년 3월 24일 김포시 고촌면(高村面) 신곡리(新谷里)에서 김정국(金正國) 윤재영(尹在英)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인근 주민 50여 명을 규합하여 신곡리 뒷산에 모이게 한 후,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判決文(1919. 5. 22 京城地方法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윤 집 (尹 集) 선조 39년 (1606) ~ 인조 15년 (163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 · 고산(高山). 현감 형갑(衡甲)의 아들이며, 남양부사 계(檠)의 아우이다.

1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형을 따라 공부하여 인조 5년(1627) 생원이 되고, 1631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설서가 되고, 1636년 이조정랑 · 부

교리를 거쳐 교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국왕과 조정대신들이 남한산성으로 난을 피하였으나 청병에게 산성이 포위되어 정세가 극히 불리하게 되었다. 최명길(崔鳴吉) 등이 화의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오달제(吳達濟) 등과 함께 화친의 사신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최명길의 목을 벨 것을 청하였으며, 최명길이 국왕의 뜻을 움직여 화친의 일을 성립시키고자 입대(入對)하여 승지와 사관을 물리치도록 청하자 이를 규탄하는 극렬한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옛날 화친을 주장하여 사필(史筆)의 베임을 피할 수 없었던 진회(秦檜)와 같은 대간도 감히 사관을 물리치지 못하였다고 극렬한 말로 규탄하였으며, 국왕이 대간(臺諫)을 꺼리지 않고 오직 사특한 의논만을 옹호하고 간소한 신하만을 의뢰하면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경고하였다. 화의가 성립되자 청나라 측에서 척화론자의 처단을 주장하여 그는 오달제와 더불어 소를 올려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섰다.

청병에 의하여 북쪽으로 끌려갈 때도 조금도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여 청병이 오히려 감복하여 존경하였다고 한다. 청나라에서 고문과 회유 등으로 그의 뜻을 돌리려 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항변하자 마침내 심양성 서문 밖에 끌려가 사형당하였다.

세상에서는 오달제·홍익한(洪翼漢)과 더불어 삼학사라고 이른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광주(廣州)의 절현사(節顯祠), 강화의 충렬사(忠烈祠), 평택의 포의사우(褒義祠宇), 홍산의 창렬서원(彰烈書院), 영주의 장암서원(壯巖書院), 고령의 운천서원(雲川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 문헌 :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文科榜目>, <韓國人名大事典>, <金陵郡誌>

윤 형 각 (尹衡覺) 선조 34년(1601)~현종 5년(1664)

조선 문신, 경선(景先), 본관은 남원(南原), 관찰사 세림(世臨)의 후손.

1623년 인조반정 거사에 가담하고 6품직에 특임. 감찰(監察)을 거쳐 인제현감(麟蹄縣監)이 되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 때 이괄의 장인 이방좌(李邦佐)가 탈옥, 민심을 선동하자 그 죄를 다스렸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 사평(司評)으로 어영대장 원두표(元斗杓)의 종사관이 되었다.

병란 후 김제군수(金堤郡守)로서 한때 영암(靈巖)에 유배되었다가 인조 23년(1645) 풀려났다. 이듬해 유탁(柳濯) 등이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 이산(尼山)에서 현감 유동수(柳東秀)와 함께 이들의 음모를 적발한 공으로 통정대부 위계에 오르고 파주목사(坡州牧使)를 거쳐 현종 2년(1661) 성주목사(星州牧使)가 되었다. 현종 5년(1664) 안렴사(按廉使)의 탄핵으로 금천(衿川)에 유배되었다.

▶ 문헌 : <仁祖實錄>, <退憂堂集>, <韓國人名大事典>

윤 형 갑 (尹衡甲) 선조 18년(1585)~광해군 10년(1618)

조선 문신. 자는 임지(任之), 본관은 남원(南原), 섬(暹)의 아들. 광해군 2년(1610)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내고 34세에 죽었다.

의 심(義諡) 선조 25년(1592)~현종 6년(1665)

승려. 통진(通津) 출생. 속성은 유씨(柳氏 : 鄭氏라는 설도 있음). 호는 풍담(楓潭).

14세에 출가하여 묘향산 성순(性淳)의 문하에서 시봉(侍奉)하다가 득도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환속하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천관산에 있는 원철(圓澈)을 찾아가서 <서장(書狀)> · <도서(都序)> · <절요(節要)> · <선요(禪要)> 등 사집(四集)을 배워 대의를 파악하였고, 다시 묘향산으로 들어가 언기(彦機)의 문하에서 선을 닦아 묘지(妙旨)를 깨치고 법맥을 이었다.

그 뒤 남방으로 내려가서 기암(奇巖) · 소요(逍遙) · 호연(浩然) · 벽암(碧巖) 등을 방문하여 선지(禪旨)를 검증받고 금강산에 머무르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인조 22년(1644) 법사인 언기가 병환을 치르자 묘향산으로 가서 병시중을 들었다. 언기는 <화엄경(華嚴經)> · <원각경(圓覺經)> 등의 제소(諸疏)가 방치되어 잔결(殘缺)된 부분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다가 병이 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들을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그는 백 수십 권에 이르는 <화엄경> · <원각경> 등의 제소를 면밀하게 살펴 6년 만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음석(音釋)을 지어 여러 총림(叢林)에 보내었다.

1665년 3월 금강산 정양사(正陽寺)에서 입적하였는데 안색은 살아 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 제자는 500명이 넘었고, 이름이 알려진 70명의 제자 중 정원(淨源) · 설제(雪齊) · 도안(道安) · 명찰(明察) · 자징(自澄) · 도정(道正) · 법징(法澄) · 장륙(莊六) 등은 종지(宗旨)를 선양하여 각각 일파를 이루었다.

- ▶ 문헌 : <朝鮮金石總覽>, <東師列傳>, <朝鮮禪教史>,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이씨 (李氏)

족친위(族親衛)로서 병자호란에 강화성에 비빈(妃嬪)을 보위하던 심정부(沈廷賦)의 처로서 강화성이 함락되고 남편인 심족친위가 적군에게 사로잡히게 되자 이씨는 패도(佩刀)로 목을 찢어서 자문(自刎)하여 인조 16년(1638)에 김포시 장기리 고창에 열녀정려(烈女旌閭)가 내렸다.

이씨 (李氏)

고종 때의 효부, 본관은 연안(延安), 김포 출신, 조습(趙燾)의 처.

연안의 명문가문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몸가짐이 단정하였고 효행으로 족친의 칭찬을 들었다. 출가하여서도 부군을 도와 효를 실천하는 데 전념하여 시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 혼정신성(昏定晨省)과 의구지장(衣具之藏) 등에 게으름이 없었다. 시부께서 일찍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주야로 시측하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시탕(侍湯)하였으며 분향하여 자신이 대신하기를 기원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애통해하고 큰소리로 울부짖는 것이 심하여 거의 죽을 뻔하였으며 부군을 도와 초막에서 3년의 정성을 다했다. 고종 22년(1885) 유림에서는 그 효행을 포상할 것을 장계하였고 예조에서도 입안하여 효자정려(孝子旌閭)의 명이 내려졌다. 현재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에 보존되어 있으며 당시 정려를 정하던 예조입안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이 기 설 (李基畲) 명종 11년 (1556)~광해군 14년 (162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연안(延安). 자 공조(公造). 호 연봉(蓮峯).

나면서부터 남다른 재질을 보였고, 6~7세 무렵에 벌써 어른스러운 행동과 말을 보였다. 박지화(朴枝華)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일찍이 효자로서 이름이 났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스무 살 되던 해 부친상을 당하자, 물도 미음도 입에 넣지 않고 여러 날을 보냈고 슬픔에 못 이겨 피눈물을 쏟았다. 더구나 어머니도 애통해 하다가 중한 병이 들자, 하늘도 감동할 정도로 극진히 섬겼다. 아버지 3년 상을 마치자 기운이 모두 빠져, 거의 10여 년을 죽은 사람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과거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효행이 높고 순덕함이 널리 알려진 까닭에, 선조 19년(1586) 주부에 특제되고 다시 청산현감으로 추천되었으나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같은 해 겨울 무주현감을 거쳐 이듬해 송화현감으로 나갔다. 무주현감으로 부임하여 그 고을의 녹(祿)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나, 의복과 제반 도구는 화려한 것을 물리고 노복의 공물을 쓸 정도로 검소하였다.

송화현감으로 재직할 때의 일로, 어느 날 제삿날이 되었는데 살림이 빈한하여 차릴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마지못해 꿩이나 사냥하여 제물로 삼으려 하였으나 그것도 여의치 못하자, 자신의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 괴로워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꿩 한 마리가 날아들어 무사히 제사상을 차려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칭송해 마지않았다.

1591년 한성부판관이 되었는데,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 굶주리는 백성이

많아지자 구제에 적극 나섰다. 1593년 호조정랑으로서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의 도감낭청을 겸하였다. 언제인가 해수에 있던 행재소(行在所)에 갔다가 그 해 겨울 왕과 함께 환도하면서 군량 수급의 책임을 졌다. 또한 비변사낭청 까지 겸하여 군량미 조달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 해 12월에 덕천군수로 나갔으나 1594년 어머니 정씨(鄭氏)의 죽음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1596년 청풍군수에 제수되었으나 응하지 않다가, 이산해(李山海)의 계속된 추천으로 1599년 상원군수로 부임하였다. 많은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그 청렴함을 인정받아, 선조 34년(1601) 청백리에 녹훈되었다. 이듬해 연안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연이어서 군자감부정·사도시정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은거하면서 학문 연구에만 열중하였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 뒤 다시 이천부사·예빈시부정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고, 광해군 2년(1610) 부호군 제수도 거절하였다. 그 뒤에도 승지 등의 직이 내려졌으나 영창대군이 서인으로 쫓겨나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시국을 개탄하여 끝내 벼슬을 사양하였다.

그 뒤 여생 동안 서울 삼청동 백련봉(白蓮峯) 아래 연봉정(蓮峯亭)을 짓고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경사·천문·지리·율학·병술 등 여러 방면에 정통하였으며, 당시 사대부의 사표로서 인정받았다. 왕의 명으로 학행 세 사람을 추천할 때, 영의정 이항복이 김장생·신응구 등과 함께 지목할 정도로 학문의 깊이를 인정받았다. 죽은 다음해인 인조 1년(1623) 정경세(鄭經世)의 건의로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생전에 효행과 학행으로 세상에 널리 그 이름이 빛났고, 1633년에는 인조가 특명으로 정려를 내렸는데 그 액을 효자삼세(孝子三世)라 하였다. 1623년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 저서 : 蓮峯集

이 기 하 (李基夏) 인조 24년 (1646) ~ 숙종 44년 (1718)

조선 무신. 자는 하경(夏卿), 본관은 한산(韓山), 어영대장 여발(汝發)의 아들.

음보(蔭補)로 무관직에 나가 여러 벼슬을 역임하고 숙종 20년(1694) 총융사(摠戎使)에 올랐다. 이때 문수산성의 축조가 완성되자 통진현을 이곳으로 옮기려하였는데, 그는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삼도수군통제사를 거쳐 숙종 23년(1697) 한성군(韓城君)에 습봉되고 이듬해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숙종 27년(1701) 병조참판·훈련대장을 지냈다. 숙종 30년(1704) 병조판서 윤세기(尹世紀)와 공식회의 석상에서 언쟁을 벌인 일로 파직당했다가, 10월 왕명으로 북한산을 답사, 북한산성의 축조를 발의하여 7천 6백 20보(步)의 성을 축조케 했다.

숙종 35년(1709) 왕명으로 강화(江華)의 형세와 문수산성(文殊山城) 등의 방어 태세를 조사 보고했다. 이듬해 국방대책을 강력히 상소, 병기의 제작과 각 진(鎭)의 성지(城池)를 보수토록 했다. 이듬해 지훈련원사(知訓練院事)·포도대장(捕盜大將)을 역임하고 숙종 43년(1717) 유도대장(留都大將)을 지냈다. 새로운 도법(刀法)을 채용하고 새 전차를 제작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사신(史臣)은 그를 평하기를, 중외(中外)에 출입하면서 큰 업적을 내지는 못하였지만 숙종의 총애를 받아 20여 년이나 통수권을 장악하게 된 복장(福將)이라고 하였다. 시호는 정희(貞僖)이다.

- ▶ 문헌 : <肅宗實錄>, <始興郡誌>, <始興金石總覽>,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이 길 보 (李吉輔) 숙종 25년 (1699)~영조 47년 (1771)

조선 문신. 자는 계상(季祥), 본관은 연안(延安), 진사 정신(正臣)의 아들, 김포시 김포읍 곁포리에서 출생.

영조 14년(1738) 진사가 되고 뒤에 신천군수(信川郡守)를 역임하고 영조 30년(1754)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묘는 김포읍 곁포리에 있다.

▶ 문헌 : <國朝榜目>, <延安李氏譜>, <京畿人物誌>

이 능 문 (李能文) 헌종 9년 (1843)~1920

김포 출신, 자는 열경(烈景), 노환(魯煥)의 아들.

어려서 봉친하는 데 뜻을 두어 조석의 정성과 계절에 맞는 의복을 준비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부모가 병으로 고생할 때는 모든 약이(藥餌)를 더하였고, 위독해졌을 때는 잠시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시측(侍側)하였으며, 주혈지효를 실천하여 잠시나마 목숨을 연장시켰다.

조우하여서는 애훼(哀毀)하고 읍혈(泣血)함이 몹시 심하였고 3년을 묘 앞에 여막(廬幕)을 짓고 시묘(侍墓)하였다. 상을 마친 후에도 풍설을 가리지 않고 조석으로 성묘하여 호곡하였으니 그 효행은 왕상(王祥)의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었다.

1927년 경성모성존도원(京城慕聖尊道院) 도약장 서궁순(徐肯淳)을 비롯한 약장 이범석(李範錫) 외 19명이 포상을 청하여 효자정려(孝子旌闥)의 은전이

내려졌다. 묘는 통진면 귀전리에 있다. 효자 정려는 후손이 50여 년 전 서울로 떠나면서 가지고 가 김포시에는 현존치 않는다.

▶ 문헌 : <金浦郡誌>

이 덕 형 (李德馨) 명종 16년 (1561)~광해군 5년 (1613)

조선조 문신.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쌍송(雙松)·포옹산인(抱擁山人), 본관은 광주(廣州),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민성(民聖)의 아들.

1. 생 애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고 침착하였으며, 문학에 통달하여 어린 나이로 양사언(楊士彦)과 막역한 사이였다.

선조 13년(1580)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의 관원이 되었으며, 재주 있는 신하로 선발되어 선조로부터 서적을 하사받았다.

1582년 명나라에서 조사(詔使)로 온 왕경민(王敬民)이 그를 만나려 하였으나 사사로이 면대함은 도리에 어긋남을 들어 사양하였다. 이에 왕경민은 만나보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그의 인격이 출중함을 칭찬하는 글귀를 전하였다. 이어 정자를 거쳐 1583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고, 이듬해 서충대(瑞蔥臺)의 응제(應製)에서 수석에 선발되었고, 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석을 차지하였다.

그 뒤 부수찬·정언·부교리를 거쳐 이조좌랑이 되었고, 1588년 이조정랑으

로서 일본사신 겐소(玄蘇) 등을 접대하여 그들의 존경을 받았다.

1590년 동부승지·우부승지·부제학·대사간·대사성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이듬해 예조참판이 되어 대제학을 겸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북상중인 왜장 고니시(小西行長)가 충주에서 그와 만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단기(單騎)로 적진으로 향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왕이 평양에 당도하였을 때 왜적이 벌써 대동강에 이르러 화의를 요청하자, 그는 단독으로 겐소와 회담하고 대의로써 그들의 침략을 공박하였다.

그 뒤 정주까지 왕을 호종하였고, 청원사(請援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명군의 파병을 성취시켰다. 돌아와 대사헌이 되어 명군을 맞이하였으며, 이어 한성판윤으로 명장 이여송(李如松)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었는데, 전란 중 줄곧 그와 행동을 같이하였다.

1593년 병조판서, 이듬해에는 이조판서로 훈련도감당상을 겸하였고, 1595년 경기·황해·평안·함경 4도 체찰부사가 되었으며,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어사 양호(楊鎬)를 설복시켜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스스로 명군과 울산까지 동행, 그들을 위무(慰撫)하였다.

그 해에 우의정에 승진되고 이어 좌의정에 올라 훈련도감도제조를 겸하였다. 이어 명나라 제독 유정(劉綎)과 함께 순천에 이르러 통제사 이순신(李舜臣)과 함께 적장 고니시의 군사를 대파하였다.

1601년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로 경상·전라·충청·강원 4도 체찰사를 겸하여 전란 뒤의 민심수습과 군대의 정비에 노력하였으며, 대마도정벌을 건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듬해 영의정에 올랐다.

1604년 이항복(李恒福)이 그의 공을 들어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녹훈할 것

을 건의하였으나 본인의 사양과 그를 시기하는 자의 반대로 책록되지 못하였고, 1606년 영중추부사가 되었다가,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진주사(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광해군 5년(1613)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삼사에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과 폐모론을 들고 나오자 이항복과 함께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 이에 삼사가 모두 그를 모함하며 처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광해군은 관직을 삭탈함으로써 이를 수습하였다.

그 뒤 용진(龍津)으로 물러가 국사를 걱정하다 병으로 죽었다. 남인출신으로 북인의 영수 이산해의 사위가 되어 남인과 북인의 중간노선을 지키다가 뒤에 남인에 가담하였다.

어렸을 때 이항복과 절친한 사이로 기발한 장난을 잘하여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글씨에 뛰어났고, 포천의 용연서원(龍淵書院), 상주의 근암서원(近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며, 현 통진면 고정리 남정동에서 우거하였다 한다.

원출생지(元出生地)는 김포시(金浦市) 대곶면(大串面) 송마리(松麻里) 성포부락(城浦部落)에서 태어났다고 전(傳)해지고 있으며 성포(城浦)안 마을에는 한음(漢陰)이 복용(復用)하였다는 한음(漢陰)의 우물이 있다.

2. 저 서

《한음문고》

목판본. 12권 5책. 인조 12년(1634) 맏아들 여규(如圭)가 초간, 그 후 현종 9년(1668) 손자 상정(象鼎)과 외손 이송령(李松齡) 등이 재간. 조경(趙綱)이 쓴

서문과 9세손인 의익(宜翼)의 발문이 있다. 뒤에 7대손 기양(基讓)이 연보 2권을 편집했으나 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의익이 내용을 덧붙여 고종 6년(1869)에 <한음문고>의 부록으로 <한음선생연보>를 간행했는데, 이는 4권 3책이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65권에 실려 있다.

내용은 시(詩)·표(表)·교서(敎書)·소차(疏劄)·계사(啓辭)·정문(正文)·간독(簡牘)·잡저(雜著)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차는 대부분이 사직소이지만, 「청령묘당양처유병편의차(請令廟堂量處留兵便宜劄)」, 「인구언진폐차(因求言陳弊劄)」, 「진신정차(陳新政劄)」 등은 당시의 시사(時事)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의 치책(治策)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계사 가운데 「진시무팔조계(陳時務八條啓)」에서는 활민책(活民策)·둔전책(屯田策)·어염판매책(魚鹽販賣策)·방수책(防守策)·군병훈련책·병황(兵荒)후의 내치책(內治策), 관리를 자주 바꿀 때의 폐단과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 등을 상세히 논하였다. 간독은 대부분이 이항복(李恒福)에게 보낸 것으로서 두 사람 사이의 친분 관계를 짐작할 수 있으며,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답한 편지도 수록되어 있다.

잡저 「회재선생론태극서발(晦齋先生論太極書跋)」에서는 이언적이 논한 태극서 4편이 주렴계와 정이천 두 선생의 깊은 뜻을 다 겸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훈제자첩(訓諸子帖)」에서는 정호(程顥)·장재(張載)·소옹(邵雍)·호안국(胡安國)·주희(朱熹) 등 중국 송(宋)나라 성리학자들의 인품과 학문의 성격 및 교육 방법을 간략히 기술함으로써 자손을 훈계하고 있다.

3. 묘지 및 신도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 있는 이덕형의 묘와 신도비.

1985년 9월 20일 경기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었다. 광주이씨 의정공파 종중이 소유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이덕형의 묘와 신도비로, 청계산(淸溪山) 서쪽 형제봉(兄弟峯) 줄기에 있다.

묘에는 봉분을 중심으로 묘비 1기(基), 상석(床石)이 있으며 그 앞에 가로로 장대석(長臺石)으로 단을 쌓았다. 단 아래 좌우에는 동자석(童子石)이 있고 그 앞에 망주석(望柱石)·문인석(文人石)이 좌우로 있다. 대리석으로 된 묘비의 크기는 높이 155cm, 너비 60cm, 두께 20cm이다.

신도비는 효종 4년(1653)에 세웠으며 묘역 아래 약 300m 지점에 있다.

화강암으로 된 직사각형 비좌(碑座)에 비신을 세우고 이수(이수)를 올렸다. 크기는 높이 360cm, 너비 110cm, 두께 42cm이고 근래에 비각을 건립하였다. 비문은 조경(趙綱)이 찬(撰)하였으며, 정규상(鄭奎祥)이 전액(篆額)을 썼다.

4. 오성과 한음 설화

오성 이항복(李恒福)과 한음 이덕형(李德馨)에 관한 설화이다. 오성과 한음은 조선 선조 때 명신으로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장난이 심하고 기지가 뛰어나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몇 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오성의 담력

한음으로부터 한밤중에 전염병으로 일가족이 몰살한 집에 시체 감장을 부탁받은 오성이 혼자 그 집에 이르러 시체를 감장(監葬)하다가 갑자기 한 시체가 벌떡 일어나며 불을 쥐어박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였는데 알고 보니 시체인 채 누워 있었던 한음의 장난이었다는 것이다. 오성의 아버지는 오성의 담력을 시험하

려고 한밤중에 외딴 숲 속의 고목나무 구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오라고 시키고 먼저 가서 나무 구멍 속에 숨어 있다가 오성이 구멍으로 손을 넣을 때 안에서 그의 손을 잡았는데 오성은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체온이 느껴지자 귀신이 아니고 사람의 장난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2) 오성에게 똥을 먹인 한음부인

오성이 한음부인과 정을 통하였다고 한음에게 말하자 이 말을 들은 한음부인을 오성을 초청해서 떡에 똥을 넣어 오성에게 먹이고 거짓말을 하는 입에는 똥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성과 한음설화에는 어린이들의 기지와 해학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본성을 신선하게 조명한 우리의 귀중한 해학문학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 저서 : 漢陰文稿

▶ 문헌 :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韓國人名大事典>

이 덕 형 (李德潤) 명종 21년 (1566) ~ 인조 23년 (1645)

조선조 문신. 자는 원백(遠伯), 호는 죽천(竹泉), 본관은 한산. 오(澳)의 아들.

1. 생 애

선조 23년(1590) 진사가 되고, 1596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이어 1597년에서 1608년까지 봉교·정언·지평·수찬·부교리·헌

납·전적·문학·집의·교리·부응교·사간·사예·사첨시부정·응교·시강
원보덕·사도시정 등을 거쳤다.

광해군 때에도 응교·동부승지·승지·대사간·좌부승지·부제학·이조참
의·우승지·병조참판·도승지 등의 경관직(京官職)과 나주목사·전라감사·
황해감사 등의 외관직을 지냈다.

특히, 광해군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해치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킬 때에 직접
반대의 입장에 서지 않고 왕의 뜻에 따르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광해군 말년에 도승지로 있을 때 어지러운 세태가 극도에 달하자 병을 이유로
사직하려고 소를 올렸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인조반정을 당하여 광해군을 죽이지 말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본 능양군(綾
陽君：仁祖)이 그를 충신이라고 판단하여 반정 후 인목대비를 맞이하는 의식에
서 그를 앞세워 반정을 보고하였으며 능양군에게 어보(御寶)를 내리게 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인조 때는 한성부판윤이 되어 이괄(李适)의 난 진압에 공로가 있어 숭정(崇
政)으로 승계하고, 주문사(奏聞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바 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왕을 강화에 호종하고,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남한
산성에 왕을 호종하였다. 환도 후 승록(崇祿)으로 승계하여 예조판서·판의금부
사·지돈녕부사·우찬성 등을 지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2. 주요 저서

《송도기이》

야담집(野談集). 활자본. 1권 1책. 인조 7년(1629) 간행.

책머리에 자서를 싣고, 본문에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을 비롯, 차식(車
軾)·안경창(安慶昌)·최영수(崔永壽)·황진이·한명회(韓明澮)·차천로(車

天略)·한호(韓濩)·임제(林悌) 등 송도의 유명 인사들에 얽힌 설화·일화 등을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고려의 우왕(禡王)·양왕(讓王)의 정위왕씨설(定爲王氏說), 이죽천송도견문록후(李竹泉松都見聞錄後)가 수록되었고, 책 끝에는 신익성(申翊聖)·이식(李植)·이경전(李慶全) 등의 발(跋)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죽창(竹窓) 강주의 <죽창한담(竹窓閑談)>과 혼기(混記)되어 <죽창한설>·<죽창만록>·<죽천한화> 등의 이름으로 잘못 불리기도 하며, <대동야승(大東野乘)> 권70에도 수록되어 있다.

《죽창한화》

수필집. 필사본. 1책. 규장각도서.

명사(名士)에 관한 일화(逸話)와 한국 고사(故事) 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저자의 선조인 이색(李穡)을 비롯, 한산이씨(韓山李氏)에 관한 이야기가 많으며, 풍수지리(風水地理)·복서(卜筮) 등에 관한 설화도 기술하였다. <대동야승(大東野乘)> 권71에도 수록되었다.

▶ 저서 : 竹窓閑話, 松都記異

▶ 문헌 : <宣祖實錄>,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이 돈 림 (李惇臨) 광해군 1년 (1609)~?

조선 문신. 자는 여길(汝吉), 호는 번포(樊浦), 본관은 연안(延安), 기설(基高)의 아들. 전직 판관(判官)으로 현종 3년(1662)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벼슬은 병조정랑을 지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이 돈 서 (李惇叙) ? ~인조 14년 (1636)

조선 중기 병자호란 때의 순절인(殉節人). 본관 연안(延安). 자 자륜(子倫). 호 만사(晩沙). 시호 충민(忠愍). 병자호란 때 순절한 돈오(惇五)의 동생이다.

단아한 몸가짐과 청아한 기질을 타고났으며,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장현광(張顯光)에게서 배우며 많은 가르침을 들었다. 인조 5년 (1627)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선산으로 피난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과 대신들이 강화성으로 갈 때 함께 들어갔다. 얼마 뒤 적에게 성이 함락되자 마니산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적병에게 잡히고 말았다.

포로가 된 뒤 “대대로 충과 효를 이룬 집안의 자제로서 만일 내가 이번에 죽지 아니하면 집안이 없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하면서 끝끝내 굽히지 않았고, 함께 잡힌 류옹(柳雍)과 같이 죽음으로서 절의를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결국 적에게 끌려가면서 진강(鎭江)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순조 24년(1824)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

▶ 문헌 : <純祖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이 돈 오 (李惇五) ? ~인조 15년 (1637)

조선 중기 병자호란 때의 순절인. 본관 연안(延安). 자 자전(子典). 호 일죽(一竹). 시호 충현(忠顯).

의행(義行)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져 선조 41년(1608)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후 제릉과 선원전의 참봉, 사섬시봉사,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시직(侍直) 등을 지냈다. 17년 대북(大北)의 주도

로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한 폐비론(廢妃論)이 높아지자 벼슬에서 물러났다.

인조 3년(1625)에 복직되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와 종친부 등의 여러 관직을 거쳐 종부시주부에 이르렀고 외직은 가평군수를 지냈다. 인조 14년(1636)년에 관직에서 사퇴하여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현직에 있지 않았는데도 자연도(紫燕島)로 피하라는 김포수령의 권유를 뿌리치고 종묘의 신주가 모셔진 강화도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훈련도감(訓練都監) 낭청(郎廳)에 임명되어 군기를 관리하였는데, 적이 들어오자 적병이 세자빈(世子嬪)을 핍박하여 남한산성으로 가는 것을 보고 비분함을 참지 못하여 적병을 꾸짖는 소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1637년 1월 26일에 전사하였다.

처 김씨는 그 전날 적병이 가까워지자 떨어져 있는 남편이 순절할 것을 믿고 자결하였으며, 동생 돈서(惇敘)도 적에게 잡혔다가 자결하였다. 후에 정부에서 본인과 처에게 정려문(旌閭門)을 세움으로써 한 가문에 정려문이 여덟 개가 세워진 것으로 유명해졌다. 좌참찬(左參贊)에 추증되었으며,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

▶ 문헌 :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이 만 용 (李晩用) 정조 19년 (1792) ~ ?

조선 문신. 자는 여성(汝成), 호는 동변(東樊), 본관은 전주(全州), 명오(明五)의 아들. 진사(進士)로 철종 9년(1858) 정시별시문과(庭試別試文科)에 병과로, 벼슬은 병조참지(兵曹參知)에 이르렀다. 시문(詩文)이 우뚝하게 뛰어나 당대에 추앙을 받았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이 만 춘 (李萬春)

자는 자원(子元), 호는 은구와(隱求窩), 본관은 전주(全州), 송시열(宋時烈) 문인. 일찌기 중봉(中峰) 조헌(趙憲)의 절의를 흠모하여 한 고을 선비들과 함께 서원을 세우고 상소하여 편액(扁額)을 청했다. 벼슬은 하지 않았다. 유고(遺稿)가 있다.

▶ 문헌 : <金陵郡誌>

이 만 형 (李萬亨) 현종 4년 (1663) ~ 숙종 32년 (1706)

조선 학자. 자는 자하(子夏), 호는 삼우재(三友齋), 본관은 전주(全州), 김포 출신으로,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향리인 김포에 은거하며 과거에 응하지 않았으나,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학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숙종 1년(1675) 송시열이 유배당하자 유학(幼學)으로 조정의 대신들을 비난하는 소를 올린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령으로 정배가 결정되었으나, 허적(許積)의 상계로 정배 명령이 환수되고 단지 유벌(儒罰)을 받고 향리로 방환(放還)되었다.

1683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장릉참봉이 되었으며, 재임 중 능침(陵寢)의 제례에 육선(肉膳)을 쓰지 않은 채 소찬으로만 제사하는 것이 예에 어긋난다는 소를 올렸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여 스승인 송시열이 사사되자 유생들을 이끌고 돈화문 밖에서 소(訴)를 안고 울며 항변하다 고성(固城)으로 유배

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로 노론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자 풀려나 공릉참봉이 되었으며, 건원릉참봉·세마(洗馬)를 거쳐 함열현감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치적이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아 말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1701년 장악원주부를 역임한 뒤, 다시 외직으로 나가 연풍현감이 되어 6년 간 재임하던 중 죽었다.

그는 현직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빈번히 소를 올려 당시의 공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문헌 : <肅宗實錄>, <藥坡漫錄>, <金陵郡誌>, <韓國人名大事典>

이 명 오 (李明五) ? ~ 현종 2년 (1836)

조선 후기의 학자. 자는 사위(士緯), 호는 박옹(泊翁), 본관은 전주(全州), 봉환(鳳煥)의 아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시를 배워 시사(詩史)에 능하였다.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경인옥사에 아버지가 옥사 당하였음을 원통히 생각하여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다.

영조(英祖) 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다. 정조(正祖)가 장릉(章陵)에 행차했을 때 불러 보고 화공에게 청수동(淸水洞) 풍경을 그려드리라 이르고 하교하기를 ‘경의 가문에서 대대로 문장이 배출되니 그 사는 곳의 산천이 어떤지 보고자 함’이라 하였다.

길거리에 거적을 깔고 옷을 바꾸어 입지 않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수차 탄원하다가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순조 때에 아버지가 신원(伸冤)되자 음관(蔭

官)으로 세상에 나가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일본에 내왕하였고, 벼슬은 3품에 이르렀다.

저서인 <박옹시초>는 그의 아들 이만용(李晩用)이 유고 가운데서 추려 철종 10년(1859)에 간행하였다. 책 머리에 홍취영(洪就榮)의 서문이 있고, 정완용(鄭元容 : 1783~1873), 좌의정 조두순(趙斗淳 : 1796~1870), 이조판서 윤정현(尹定鉉 : 1793~1874), 김병학(金炳學 : 1821~1879), 남병철(南秉哲 : 1817~1863) 등 4인의 서문(序文)이 차례로 있다.

이렇게 풍요한 서문은 저자의 시명(詩名)이 높은 탓도 있겠지만, 저자 3대가 모두 당세를 올린 문장가였던 때문인 듯하다. 저자의 아버지인 이봉환(李鳳煥)은 영조 조에 이미 문장(文章)으로 이름이 높은 문신(文臣)이었다.

아버지 이봉환이 억울하게 옥사한 일에 자극되어, 50살이 되도록 세상에 나오지 않고,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순조 9년(1809) 아버지의 원옥이 신원되자 비로소 벼슬길에 나왔다. 종사관이 되어 일본에 다녀왔으며, 뒤에 음보(蔭補)로 관직이 3품(三品)에 이르렀다. 그는 80평생 시를 썼으므로 그 량도 많지만 質에 있어 더욱 유의하였다.

홍취영(洪就榮)은 서문에서 “그는 시를 지음에 소재는 새롭고 조어(造語)는 신기하며 구상(構想)은 심오하고 자(字)를 고르는 데는 힘들었다”고 평하였다. 모방을 싫어하고 창조성을 살리는 데 고심한 그를 흔히 괴벽한 시인이라고 하였다 한다. 대체로 그의 시작(詩作)을 보면 밝고 명랑한 면보다는 어둡고 슬픈 작품이 많은데, 이는 아마도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크게 영향을 끼친 때문인 듯하다.

작품 중에는 지금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명사들과 교유하여 지은 시가 상당한 수에 달한다. 실학자이면서 시문사대가(詩文四大家)의 한사람인 박제가(朴齊

家), 시인(詩人) 신위(申緯), 문인이면서 시인인 이복현(李復鉉), 명필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와 김노경(金魯敬), 문장과 글씨로 이름 있는 서영보(徐榮輔), 시인 이요헌(李堯憲) 외 여러 명사들과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저서 : 泊翁詩抄

▶ 문헌 : <金陵郡誌>

이 목 (李 穆) 성종 4년 (1471)~연산군 4년 (1498)

조선 문신. 자는 중용(仲雍), 호는 한재(寒齋), 본관은 전주(全州), 개국공신(開國功臣) 백유(伯由)의 후손, 윤생(閔生)의 아들로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 다.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에서 출생·성장했다.

19세에 진사시에 합격, 성균관 유생(儒生)이 되었다. 이 때에 왕대비가 성균관에 음사(淫祠)를 설치하고 무녀(巫女)를 부르자 이를 쫓아냈고, 또 유생을 이끌고 윤필상(尹弼商)을 탄핵하다가 공주(公州)에 부처(付處)되었다.

뒤에 풀려나 연산군 1년(1495) 증광문과에 장원, 사가독서하고, 전적(典籍)으로 종학사(宗學司)를 겸하고 이어 영안도평사(永安道評事)가 되었다. 연산군 4년(1498)에 무오사화에 윤필상의 모함을 받아 김일손(金駟孫)·권오복(權五福) 등과 함께 처형되고 다시 갑자사화(甲子士禍)에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중종반정(中宗反正) 뒤 신원(伸寃)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공주 충현서원(忠賢書院)에 제향되고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저서인 <이평사집>은 시문집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인조 10

년(1632) 증손 이구징(李久澄)이 초간본을 다시 보완해서 중간했다. 저자는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 때 윤필상(尹弼商)의 모함으로 김일손(金駟孫)·권오복(權五福)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단명한 탓으로 자신이 지은 글 가운데에는 당시 정치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가끔 발견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부록으로 김일손·권오복·이중이 쓴 글들을 첨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중이 쓴 「무오사화사적(戊午士禍事蹟)」에는 무오사화의 전말과 관련자들의 처벌 내용이 들어 있고, 「무오당적(戊午黨籍)」에는 김종직·김일손·권오복·권경유·이목 등의 인적사항·학문계통·처형종류 등 무오사화와 관련된 측면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

▶ 저서 : 李評事集, 寒齋集

▶ 문헌 :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朝鮮古今名賢傳>,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이 병 린 (李炳麟) 고종 24년 (1887)~1930

김포시 월곶면 서암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면 군하리(郡下里)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2일 군하리 장터에서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격문을 배부하며 독립 만세를 고창한 후 학교·향교·면사무소 등을 돌며 시위 행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6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

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判決文(1919. 5. 22 京城地方法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이 봉 환 (李鳳煥) ? ~ 영조 46년 (1770)

자는 성장(聖章), 호는 우념재(雨念齋),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영조(英祖) 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벼슬이 양지현감(陽智縣監)에 이르렀다. 영조 46년(1770) 최익남(崔益男)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던 중 옥사(獄死)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여겼다.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으며, 1910년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을 추증하고 충정(忠貞)이라 시호했다.

저서인 <우념재시고>는 필사본이며 서(序)·발(跋) 모두 없다. 취진자(聚珍字)로 된 <우념재시초> 10권 4책이 전하고 있으므로, 본서는 그것에서 발췌하여 편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목록에 저자가 이봉환(李鳳煥)으로 되어 있으나 본집(本集)에는 전혀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단지 윤심형, 신광수, 서명응 등에게 준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조~정조 연간의 인물로 보이며 청(淸)에 다녀온 여행시(燕行詩)가 있기도 하다. 시 350여 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여행시(燕行詩) 40여 수와 부(賦) 수 편이 포함되어 있다. 시제(詩題)에는 상국(相國) 등 고위인사와의 증시(贈詩) 차운(次韻) 등이 있으며 서명응(徐命膺) 등 명사에게 심회(心懷)를 읊은 것도 있다. 신광수(申光洙)에게 보

낸 시에서는 귀양살이의 고달픔이 엿보이기도 한다. 시는 자연을 노래하고 풍광을 읊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조출한 시인의 작품임을 엿볼 수 있다.

▶ 저서 : 雨念齋詩藁

▶ 문헌 : <英祖實錄>, <國朝人物考>

이 산 해 (李山海) 중종 33년 (1538)~광해군 1년 (1609)

조선조 문신.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종남수옹(終南睡翁), 본관은 한산, 내자시정(內資寺正) 지번(之蕃)의 아들.

1. 생애

명종 13년(1558)에 진사가 되고, 156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고, 이듬해 홍문관정자가 되어 명종의 명을 받아 경복궁(景福宮) 대액(大額)을 썼다. 이어 부수찬이 되고 1564년 병조좌랑·수찬을 역임하였으며, 이듬해 정언을 거쳐 이조좌랑이 되었다.

선조 1년(1567) 원접사종사관(遠接使從事官)으로 명나라 조사(詔使)를 맞이한 뒤 이조정랑·의정부사인·사헌부집의·상의원정(尙衣院正)·부교리를 역임하고, 직제학이 되어 지제교를 겸하였다. 이어 교리·응교를 지내고 사가독서를 마친 뒤 1570년 동부승지로 승진하였다.

1577년 이조·예조·형조·공조의 참의를 차례로 역임하고 대사성·도승지가 되었다. 1578년 대사간이 되어 서인 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윤현

(尹睨) 등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다음해 대사헌에 승진되고 1580년 병조참판에 이어 형조판서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오르고, 다시 이조·예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면서 제학·대제학·판의금부사·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를 겸하였다.

1588년 우의정에 올랐고, 이 무렵 동인이 남인·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영수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다음해에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으며,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에 책록되고,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이듬해 정철(鄭澈)이 건저문제(建儲問題)를 일으키자 아들 경전(慶全)을 시켜 김공량(金公諒 : 仁嬪의 오빠)에게 정철이 인빈과 신성군(信誠君)을 해치려 한다는 말을 전하여 물의를 빚었으며, 아들 경전으로 하여금 정철을 탄핵하게 하여 강제로 유배시키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호조판서 윤두수, 우찬성 윤근수와 백유성(白惟成)·유공진(柳拱辰)·이춘영(李春英)·황혁(黃赫) 등 서인의 영수급을 파직 또는 귀양 보내고 동인의 집권을 확고히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여 개성에 이르렀으나 양사로부터 나라를 그르치고 왜적을 침입하도록 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파면되어 백의(白衣)로 평양에 이르렀으나 다시 탄핵을 받아 평해(平海)에 중도부처(中途付處)되었다.

1595년에 풀려나서 영돈녕부사로 복직되고 대제학을 겸하였다. 북인이 다시 분당될 때 이이첨(李爾瞻)·정인홍(鄭仁弘)·홍여순(洪汝諄) 등과 대북파가 되어 그 영수로서 1599년 재차 영의정에 올랐으나 이듬해 파직되었다가 1601년 부원군(府院君)으로 환배(還拜)되었으며, 선조가 죽자 원상(院相)으로 국정을 맡았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동으로 불렸으며, 특히 문장에 능하여 선조조 문장팔

가(文章八家)의 한 사람으로 불렸다. 서화에도 능하여 대자(大字)와 산수묵도(山水墨圖)에 뛰어났으며, 용인의 조광조묘비(趙光祖墓碑)와 안강의 이언적묘비(李彦迪墓碑)를 썼고, 이이(李珥)·정철과 친구였으나 당파가 생긴 뒤로는 멀어졌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2. 저 서

《아계유고(鵝溪遺稿)》

시문집으로 이산해는 많은 저술을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나 대부분 병화로 소실되고 잔고(殘稿)만이 남아 있다. 권1~2 기성록(箕城錄), 권3 기성록 잡저(雜著), 전(傳), 기(記), 권4 기성록 후집(後集)으로 종현록(鍾峴錄), 쌍문록(雙門錄) 등의 시, 권5 소차(疏筭), 발(跋), 권6 기(記), 서(序), 명(銘), 지(誌), 제문(祭文), 부(賦) 등이 수록되어 있다.

기성록(箕城錄)의 시는 임진왜란 후 저자가 정치권에서 밀려난 후 유배 생활 3년 동안 지은 것으로 대체로 제작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전집 2권은 시이고, 후집 1권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진폐차(陳弊筭)」는 모두 3,000언에 달하는 장문으로 모병모속(募兵募粟)의 효율적 방법과 둔전(屯田)과 어염(漁鹽)의 이익수취 정책이 나타나 있어 당시의 군역문제와 사회경제 시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傳)은 충효인, 이덕지인(異德之人)을 다룬 것들로 저자의 인물관을 엿볼 수 있다.

3. 작 품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시 두 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월송촌(越松村) 농가에 처음 우거하며」

행궁의 옥음을 다시 들을 수 없으니
아득한 꿈길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까
월송정 가에 뜬 삼경 달은
죽지 못한 이 신하의 일편단심일세

「백발(白髮)」

천 가닥 실처럼 백발은 어지럽고
한 조각달인 양 단심은 밝구나
관군은 자구만 전쟁에 패하고
도적떼는 아직도 날뛰고 있네
나라에 바친 몸 헛되이 늙음이 부끄러운데
국난을 당한 마당에 구차히 살길 도모하라
밤중에 저 북두성을 바라보노라니
눈물도 말라 피가 섞이어 떨어지네

▶ 저서 : 鵝溪集

▶ 문헌 : <明宗實錄>, <中宗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韓國人
名大事典>

이 살 늑 고종 23년 (1886)~1948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으로 1919년 당시 성서학교(聖書學校) 학생으로 김포시 월곶면(月串面) 고양리(高陽里)에서 성태영(成泰永)·백일환(白日煥)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3월 22일 군하리(郡下里)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부해 주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 행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 해 7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8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判決文(1919. 5. 22 京城地方法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이 삼 (李 森) 현종 3년 (1677)~영조 11년 (1735)

조선 무신. 자는 원백(遠伯), 본관은 함평(咸平), 감역(監役) 사길(師吉)의 아들.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수학 중 병조판서 김구(金構)의 권고로 무예를 연마, 숙종 31년(1705) 무과(武科)에 급제했다. 숙종 39년(1713) 통진부사를 지내고, 이어 정주목사(定州牧使)를 거쳐 평안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경종(景宗) 때 소론(少論)으로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

총융사(摠戎使)를 역임, 영조 1년(1725) 어영대장(御影大將)이 되었다가 노론(老論)의 탄핵을 받고 곤양(昆陽)에 안치되었다.

영조 3년(1727)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풀려나 훈련대장(訓練大將)이 되고, 이듬해 이인좌(李麟佐)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으로 함은군(咸恩君)에 피봉, 그 뒤 소론 출신으로서 누차 이인좌의 일당이라는 무고를 받았으나 왕의 신임으로 무사했고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무예가 출중하고 학문에도 뛰어났으며 기계 제조의 방법과 도창기예(刀槍技藝)에 이르기까지 정통했다.

▶ 저서 : <關西切要>

▶ 문헌 :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歸鹿集>, <藥坡漫錄>, <韓國人名大事典>, <通津府先生案>

이 상 주 (李相周) 인조 21년 (1643) ~ 숙종 39년 (1713)

조선 문신. 자는 주경(周卿), 본관은 연안(延安), 후면(后勉)의 아들. 전직 도사(都事)로 숙종 20년(1694)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 벼슬은 장령(掌令)을 지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이 선 호 (李善浩) 순조 11년 (1822) ~ ?

자는 성능(性能), 본관은 여흥(驪興), 진영(鎭永)의 아들. 고종 7년(1870)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벼슬은 정랑을 지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이 수 준 (李壽俊) 명종 14년 (1559) ~ 선조 40년 (1607)

조선 문신. 자는 태징(台徵), 호는 용계(龍溪)·지범재(志範齋), 본관은 전의(全義), 병마절도사 제신(濟臣)의 아들, 성혼(成渾)의 문인.

선조 22년(1589) 사마시를 거쳐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承文院)에 등용, 감찰(監察), 좌랑(佐郎)을 역임. 선조 24년(1591) 통진현감(通津縣監)으로 재직 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녀자와 선비 및 양식을 통진에서 강화도로 보낸 뒤, 우성전(禹性傳) 등과 함께 경외(京外)에 흩어진 군졸들을 모아 왜적을 방어하고, 통진현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공을 세웠다.

선조 28년(1595) 영해부사(寧海府使)가 되었고, 선조 32년(1599) 강화부사(江華府使)에 이어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장령(掌令)·공주목사(公州牧使)·강계부사(江界府使)·사복시정·승문원판교·길주목사·영흥부사를 역임했다. 선조 39년(1606) 승문원 판교 겸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이 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된 실록 복간에 참여했고, 이 해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영평(永平)에서 병을 얻어 이듬해 봉산관(鳳山館)에서 죽었다.

▶ 문헌 :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通津府先生案>

이 숙(李 翹) 광해군 4년(1626)~숙종 14년(1688)

조선 문신. 자는 중우(仲羽), 호는 일휴정(逸休亭), 본관은 우봉(牛峰). 참의 유겸(有謙)의 아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인조 14년(1636) 11살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포로가 되어 심양(瀋陽)에 잡혀갔다가 사신으로 간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의 주선으로 귀국했다. 인조 26년(1648) 진사가 되고, 효종 6년(1655)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로 급제, 수찬(修撰)·응교(應敎) 등을 지내고, 현종 1년(1660)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지냈다.

현종 8년(1667) 집의(執義)로 있을 때, 청나라 조정이 청나라 도피인을 돌려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선에 책임을 물어 당시의 재상들을 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지탄을 받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홍명하(洪命夏), 진주사(陳奏使) 허적(許積) 등이 그 책임을 오히려 현종에게 돌리자, 그는 임금 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음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들을 크게 꾸짖고 처벌을 청하였다.

그들을 탄핵하다가 한 때 변방으로 귀양, 현종 10년(1669) 광주부윤(光州府尹), 현종 13년(1672) 경상도 관찰사, 이듬해 대사간이 되었다. 숙종 1년(1675) 서인(西人)이 실각하자 물러났으나 뒤에 다시 등용되어 이조판서를 지내고 숙종 13년(1687) 우의정에 이르렀다.

대구 상덕사(尙德祠)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 문헌 : <肅宗實錄>, <陶庵先生集>, <藥坡漫錄>, <韓國人名大事典>, <通津府先生案>

이 언(李 壎) 세종 10년(1428)~중종 10년(1510)

휘(諱) 의간공(義幹公)의 아들.

문종(文宗) 원년에 장령(掌令) 하위지가 계한 내용에, 이언(李壎)을 평양 소윤으로 삼았는데 평양은 합당하지 못하고 또한 오품(五品)의 품계로서 소윤직을 삼는 것도 불가하니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자 상이 김종서에게 물으니, 이언(李壎)은 청렴 근검하여 재주가 많은 자라 하여 문종은 그렇다면 가벼이 바꿀 것이 아니라 한 기록이 실록에 전한다.

단종 1년(1453)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단종 2년(1454) 사헌부 집의(執義) 대행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이듬해에 사헌부 집의가 되었다. 세조 4년(1458) 이조(吏曹)에서 충청, 경상 진휼사(軫恤使)의 계본에 의거하여 계한 내용에 의하면, 그는 흉년에 백성을 구하는 모든 처사가 빈틈없고 간결하니 진실로 포상할 만 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언(壎)은 자급(資級)이 이미 다하였으니 아들이나 사위 중에서 한 사람을 경직(京職)을 주어서 그 남다른 행적을 표창할 것을 권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세조 1년(1455) 가선대부(嘉善大夫) 남원부사로 품계(品階)가 오를 때 왕의 유서에, 치정이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크게 치적을 올렸으니 특별히 품계를 높이는 것임을 밝혔다. 세조 7년 중추부사(中樞府使)로 재직 시 왕의 친서(親書)를 받들고 명(明)나라 하정사(賀正使)로 가서 하정(賀正)을 하고, 돌아와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다.

현 월곶면 고양리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으며 그 후손들이 김포시 통진면 귀전리에 세거하고 있다.

▶ 문헌 :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이 여 직 (李汝迪) 숙종 5년 (1679)~영조 10년 (1734)

조선 무신. 자는 혜백(惠伯), 본관은 전주(全州),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한규(漢珪)의 아들.

24세 때 무과 급제하고 선전관(宣傳官)으로 비변사낭청(備邊司郎廳)이 되고, 숙종 32년(1706) 사신을 따라 북경(北京)에 다녀와서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도총부도사(都總府都事), 경력(經歷)을 거쳐 훈련원부정(副正), 장흥부사(長興府使)를 역임했다.

숙종 36년(1710) 훈련원정(訓練院正)·내금위장(內禁衛將)·숙종 38년(1712) 금산첨사(金山僉使) 이듬해 선천부사(宣川府使)를 거쳐 숙종 40년(1714) 내금위장, 숙종 41년(1715) 길주첨사(吉州僉使)를 지내고 숙종 45년(1719) 풍덕부사(豐德府使), 이듬해 전라좌수사, 경종 2년(1722) 여주목사(驪州牧使), 이듬해 도총부부총관(都總府副總管), 경종 4년(1724) 충청병사, 부령(富寧)에 귀양 갔다가 영조 3년(1727)에 귀양에서 풀려 이듬해 장단방어사(長湍防禦使), 이어 경상우도병마사(慶尙右道兵馬使)가 되고, 영조 10년(1734) 금위중군겸총관(禁衛中軍兼總管),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고 56세로 죽었다. 묘는 김포시 검단면 왕길리에 있다.

▶ 문헌 : <李汝迪墓碑>

이 영 보 (李永寶)

본관은 단성(丹城)이고, 호는 광영당(光影堂)으로, 단성이씨(丹城李氏)의 중시조(中始祖)이다.

세종(世宗)에서 세조(世祖) 대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재임하면서 자헌대부행호조판서(資憲大夫行戶曹判書) 겸 경연춘추관사(經筵春秋館事)와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에 이르렀다.

만년(晩年)에는 경남(慶南) 단성(丹城)에 소재한 익호(諡號) 강성군(江城君) 문익점 선생(文益漸 先生)의 서원인 도천서원(道川書院) 원장(院長)으로서 후학양성에 힘썼다.

묘소는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에 있다.

이 용 희 (李容熙) 순조 11년 (1811)~?

조선 무신. 자는 공습(公習), 호는 기원(淇園), 시호는 정의(靖毅).

철종 12년(1861) 전라우도수군절제사를 거쳐 1863년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고종 3년(1866)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훈련도감중군으로 강화도에서 항전하다가 성이 함락된 뒤에는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선봉장이 되어 통진(通津)을 수비, 프랑스 군대를 격퇴하였다.

그 공으로 1867년 총융사(摠戎使)가 되고 진무사(鎭撫使)·어영대장·형조판서를 역임, 이듬해 삼군부지사(三軍府知事)·병조판서에 이르렀다. 1871년 어영대장, 이어서 훈련대장, 1875년 한성부판윤을 지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때 홍순목(洪淳穆)·김병학(金炳學) 등과 쇄국척화론을 주장하였다.

▶ 문헌 : <두산동아세계대백과사전>

이 우 항 (李宇恒) ? ~경종 2년 (1722)

조선 무신. 자는 여구(汝久), 본관은 광주(光州), 삼도수군통제사 도빈(道彬)의 아들.

무과(武科)에 급제 사과(司果)를 지내고 숙종 20년(1694) 통진현감(通津縣監)에 부임 문수산에 축성했다. 숙종 24년(1698)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숙종 27년(1701) 총융사(摠戎使)·포도대장·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역임, 숙종 47년(1721) 부사직(副司直)이 되었다. 이해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소론(少論)의 탄핵을 받고 고금도(古今道)에 유배, 이듬해 백망(白望) 이희지(李禧之) 등과 모역(謀逆)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투옥 장살됐다. 신임사화 3장신(三將臣)의 한사람으로 불렸으며 경종 4년(1724)에 신원(伸冤)되고 시호는 경무(景武)이다.

▶ 문헌 : <肅宗實錄>, <景宗實錄>, <辛壬提要>, <韓國人名大事典>, <通津縣先生案>, <黨議通略>

이 원 일 (李源一) 정조 5년(1781)~?

본관은 단성(丹城)이며, 중시조(中始祖) 자헌대부행호조판서(資憲大夫行戶曹判書) 영보(永寶)의 13대 손이다.

정조 5년(1781)에 양촌면 유현리에서 출생하여 행통훈대부(行通訓大夫) 사헌부지평(司憲部 持平)을 역임하였고, 승소행사간원정언(承召行司諫院正言)으로 있으면서 많은 직간(直諫)을 하였다. 제개성부경력(除開城府經歷), 승소(承召)하여 장령(掌令)에 오르셨다.

묘는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에 있다.

이 원 희 (李元熙)

조선 무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선장(善長), 시호는 정희(靖僖).

철종 9년(1858) 경상좌도병마절도사에 오르고 1860년 우포도대장에 재직 중, 돈의문(敦義門)에서 발생한 패서사건(掛書事件)의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책임으로 파직되었다. 고종 3년(1866)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로즈 제독(提督)이 군함 7척을 거느리고 물치도(勿淄島) 앞바다에 침입하자 충융중군(摠戎中軍)이 되어 충융사 신관호(申觀浩)와 함께 양화진(楊花津)에 진을 치고 통진(通津)·부평(富坪) 등의 연안을 순찰·경비하였고, 다시 소모사(召募使)가 되어 경기 일원에서 장정을 모집하였다. 1868년 어영(御營)대장이 되고 훈련대장을 거쳐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 문헌 : <韓國人名大事典>

이 은 선 (李殷先, 異名 : 鍾) 고종 13년 (1876) ~ 1919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으로 1919년 3월 24일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 장날을 이용하여 심혁성(沈赫誠) · 이담(李潭) · 최성옥(崔成玉) 등이 주동하여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장기리 장터에서 3백여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부내(富內) 경찰 주재소에서 이궁희삼차(二宮喜三次) 등 4명의 일본인 순사가 주동자 심혁성을 체포하였다.

이에 그는 시위 군중과 함께 순사를 포위하고 심혁성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일경을 구타하여 심혁성을 도망치게 하였다. 이때 일본인 순사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차고 있던 칼로 선두에 있던 그를 찔러 현장에서 죽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순국은 장기리 일대의 독립만세 시위를 더욱 격렬하게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이 익 선 (李益先)

조선 문신. 성균관 유생으로 영조 35년(1759)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과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문묘(文廟)에 배향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허락되지 않았다. 이듬해 인일제(人日製)에서 급제하고 영조 39

년(1763) 설서(說書), 1765년 정언(正言), 영조 45년(1769) 지평(持平), 문학(文學)을 거쳐 영조 47년(1771)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을 지내고, 정조 7년(1783)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 문헌 : <英祖實錄>, <正祖實錄>, <陽川邑誌>

이 익 철 (李翼哲)

자는 명중(明仲), 본관은 전주(全州). 경진(庚辰)에 부직(付職)되고, 을유(乙酉)에 영창군(靈昌君)에 봉해지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오위도총관(五衛都總管)을 지냈다.

▶ 문헌 : <金陵郡誌>

이 장 후 (李章垈) 영조 29년 (1753) ~ ?

자는 여경(汝卿), 본관은 성주(星州), 형(迥)의 아들. 정조 13년(1789)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정조 19년(1795)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로 급제, 주서(注書), 전적(典籍), 지평(持平), 태천현감(泰川縣監),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지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이 종 근 (李宗根) 고종 9년 (1868) ~ 1943

자는 경조(景朝). 경기도 통진(通津 : 지금의 金浦) 사람으로 1908년 4월 23일(음력) 향리인 경기도 통진군에서 18명의 동료 의병과 함께 통진군 내 3개 면의 동장들을 모아놓고 1만 5천냥의 군자금을 모금하였으며, 계속해서 군도와 양총(洋銃)으로 무장하여 교하군(交河郡) 민판서(閔判書)로부터 양총 7자루와 탄환 200발, 군도 2자루를 모집하는 등 활약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유형 5년을 언도받고 정배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문헌 : <判決文(1908. 10. 31 景狀地方裁判所)>,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1>

이 지 익 (李之翼) 광해군 3년 (1625) ~ 숙종 20년 (1694)

조선 문신. 자는 여휘(汝輝), 호는 계촌(桂村), 본관은 함평(咸平), 관찰사 춘원(春元)의 손자, 초로(楚老)의 아들이다.

효종 3년(1652) 진사로 증광문과 병과로 급제, 검열(檢閱), 정언(正言)을 거쳐 현종 2년(1661) 지평(持平)으로 공조 판서 이일상(李一相)의 탐학(貪虐)을 탄핵했다가 파직, 이듬해 남구만(南九萬)의 주선으로 복관됐다.

그 후 성주목사(星州牧使), 동래부사(東萊府使), 광주부윤(廣州府尹), 광해도관찰사를 역임, 현종 15년(1674) 송시열 처벌 문제가 일어나자 대사간으로 그

의 당론(黨論)에서는 반대했으나, 처벌에는 적극 반대해 물의를 일으켜 사임, 이듬해 다시 대사간에 복직, 사은부사(謝恩府使)로 청나라에 사행, 숙종 2년(1676)에 예조판서·대사헌·우참찬·지중추부사를 역임, 이듬해 형조판서가 되었으나 앞서 송시열을 변호했다 하여 파직되었다.

숙종 4년(1678) 다시 기용, 공조·형조판서를 거쳐 숙종 6년(1680) 개성유수·한성판윤·함경·전라감사를 역임, 숙종 15년(1689) 평안감사로 있다가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다시 파직됐다. 그 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고 숙종 20년(1694)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조정에 있는 40년 동안 정국이 몇 번 바뀌었으나 시세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념대로 시종일관하였다.

▶ 문헌 : <顯宗實錄>, <肅宗實錄>, <明谷集>,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이 태 섭 (李泰燮)

자는 내길(來吉), 호는 구졸와(九拙窩), 본관은 연안(延安), 세집(世揖)의 아들. 학행(學行)으로 여러차례 천거되었으나 출사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고 40년간이나 김포(金浦)에서 살았다. 유고(遺稿) 3권이 전한다.

▶ 문헌 : <金陵郡誌>

이 하 진 (李夏鎭) 인조 6년 (1628)~숙종 8년 (1682)

조선 문신. 자는 하경(夏卿), 호는 매산(梅山)·육우당(六寓堂), 본관은 여주(驪州), 지평(持平) 지안(志安)의 아들이고 실학자 익(瀾)의 아버지다.

효종 5년(165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현종 3년(1662) 내시교관(內侍敎官)을 지내고 현종 7년(1666) 식년문과에 갑과(甲科)로 급제, 가주서(假注書)·사옹원직장(司饗院直長)·전적(典籍)을 역임했다. 그 뒤 지평(持平)·장령(掌令) 등을 거쳐 도승지(都承旨)를 지내고 숙종 6년(1680) 대사간이 되었다. 같은 해에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 일어나 남인(南人) 윤휴(尹鑄)·허목(許穆) 등이 축출되자, 대사간으로 이에 항의하는 소를 올리고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진주목사(晋州牧使)로 좌천되었다가 얼마 뒤 관직을 그만 두었다.

김석주와 매사에 뜻이 맞지 않아 운산(雲山)에 유배되고, 다음 해 배소에서 죽었다. 그는 시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붓을 들면 몇 편의 시를 지었고, 또한 명필이었다. 숙종 11년(1685)에 복관됐다. 그가 쓴 비문으로는 「문수사풍담대사비(文殊寺楓潭大師碑)」가 있다.

-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韓國人名大事典>, <京畿金石大觀>, <京畿人物誌>

이 행 진 (李行進) 선조 30년 (1597)~현종 6년 (1665)

조선조 문신. 자는 사겸(士謙), 호는 지암(止菴), 본관 전의(全義), 현령 중기(重基)의 아들.

인조 2년(1624) 생원이 되어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보직, 인조 13년(1635) 김포군수(金浦郡守), 인조 24년(1646)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 급제, 필선(弼善)·보덕(輔德)·교리(校理)·응교(應敎)·사인(舍人)·집의(執義)·사간(司諫)·승지(承旨)를 역임, 효종 1년(1650) 문신정시(文臣庭試)에 급제, 대사간에 오르고 효종 5년(1654)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효종 6년(1655) 동지 겸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오고 참판·도승지·대사헌을 거쳐 효종 10년(1659) 개성유수(開城留守)·경기관찰사를 지내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 문헌 : <孝宗實錄>, <顯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國朝榜目>, <金浦群先生案>

이 현 조 (李玄祚) 효종 5년 (1654)~숙종 36년 (1710)

조선 문신. 자는 계상(啓商), 호는 경연(景淵), 본관은 전주(全州), 영의정 성구(聖求)의 손이고, 좌랑(佐郎) 석규(碩揆)의 아들.

숙종 7년(1681) 진사가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로 급제, 숙종 9년(1683) 검열·대교를 거쳐 숙종 14년(1688) 지평이 되었다. 이 해 정언으로 박세채(朴世采)를 친구(伸救)했고, 이듬해 수찬(修撰)·헌납(獻納)·이조좌랑, 숙종 16년(1690) 이조정랑·문학(文學)·사인(舍人)·부응교를 역임, 이듬해 병조참지(兵曹參知)를 거쳐 우부승지(右副承旨), 숙종 19년(1693) 대사간, 강원도관찰사, 숙종 36년(1710) 통진부사에 부임, 장손(長孫) 혼례일로 상경하여

사망했다.

저서인 <경연당집>은 시문집으로, 권 1~4는 시집(詩集)이고, 권 5~6은 문집(文集)이다. 시집에는 소우록(消憂錄)·북정록(北征錄)·동유록(東游錄)·관동록(關東錄)·화산록(花山錄)·오성록(奠城錄)·학성록(鶴城錄)·귀전록(歸田錄) 및 부(賦), 문집에는 소(疏)·제문(祭文)·행장(行狀)·잡저(雜著)·여문(儷文) 등이 수록되었으며, 부록으로 저자의 묘갈명(墓碣銘)이 들어 있다. 책머리에 채제공(蔡濟恭)의 서문이 있다.

▶ 저서 : 景淵堂集

▶ 문헌 :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通津縣先生案>

이 형 (李 迥) 선조 36년 (1603)~ 효종 6년 (1655)

조선조 문신. 자는 여근(汝近), 본관은 전주(全州),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후재(厚載)의 아들.

1623년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6품직에 오르고 인조 8년(1630) 진사시에 합격. 사옹원주부(司饗院主簿)·감찰(監察)·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다. 인조 14년(1636) 동복현감(同福縣監), 인조 27년(1649) 김포군수(金浦郡守), 효종 1년(1650)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 급제, 정언(正言)·필선(弼善), 효종 4년(1653) 헌납(獻納)이 되었다.

1652년 장령이 되었을 때 김자점의 옥사 사건 뒤처리에 공헌하였고, 이듬해 헌납으로 있을 때 정언 황준구 등과 함께 대간 신상(申愴)을 탄핵하다가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왕의 노여움을 사 경성판관으로 좌천되었다. 이때 김육(金堉) 등이, 80 고령의 아버지를 둔 독자로서 멀리 외직에 좌천된 것을 누차 왕에게 간청, 1년 만에 다시 내직에 돌아와 헌납으로 있다가 얼마 뒤에 죽었다.

▶ 문헌 : <孝宗實錄>, <國朝榜目>, <韓國人名大事典>

이 효 승 (李孝承) 선조 26년 (1593)~숙종 1년 (1675)

세종(世宗)의 7대손으로 영천군수(永川君守), 수자첨중추(壽資僉中樞),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묘는 김포시 통진면 웅정리에 있다.

이 후 정 (李后定) 인조 9년 (1631)~숙종 15년 (1689)

조선 문신. 자는 정숙(定叔), 호는 만안당(晩安堂), 본관은 연안(延安), 장령(掌令) 기설(基堯)의 손자다.

현종 1년(1660) 생원이 되고 숙종 1년(167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지평(持平)·정언(正言)·부수찬(副修撰)·헌납(獻納)을 지냈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병조참지(兵曹參知)로 인현왕후(仁顯王后) 폐위의 부당함을 상소했으나 용납되지 않자 격분하여 죽었다. 후에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 문헌 :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이 후 항 (李后抗) 인조 28년 (1630) ~ 숙종 15년 (1689)

조선 문신. 자는 태초(太初), 본관은 연안(延安), 돈서(惇敘)의 아들. 통덕랑(通德郎)으로 현종 4년(1673)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벼슬은 한림(翰林)·응교(應敎)를 지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임 규 (任奎) 광해군 12년 (1620) ~ 숙종 13년 (1687)

조선 문신. 자는 문중(文仲), 호는 호은(壺隱), 본관은 풍천(豐川), 준백(俊伯)의 아들.

현종 1년(1660) 9일과제(九日課製)에 합격하고 현종 11년(1670) 부사(府使)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현종 8년(1667)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지냈다. 현종 13년(1672) 장령(掌令)·필선(弼善)·헌납(獻納)·사간(司諫)·집의(執義), 이어 수찬(修撰)을 거쳐 숙종 6년(1680) 승지를 지내고 외직으로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 다시 내직으로 자리를 옮겨 승지를 거쳐, 숙종 12년(1686)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고 68세로 죽었다.

▶ 문헌 :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通津縣先生案>

임 용 우 (林容雨) 고종 21년 (1884)~1919

독립운동가.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開谷里) 출생.

1919년 3월 29일 최복석(崔復錫)·윤영규(尹寧圭) 등과 함께 월곶면 갈산리·조강리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시위운동을 주동하였다. 외딴섬인 부천군 덕적면 진리에 은거하여 사립인 명덕학교(明德學敎)를 설립하고 교사로서 2세 교육과 주민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1919년 2월 하순 경 천도교측의 연락을 받고 상경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전개된 3·1운동 독립선언식에 참가하였다. 3월 29일 정오경 갈산리에 시위 군중을 집결시켜 최복석이 만든 태극기를 앞에 내세워 독립만세행진을 벌이고 오후 2시경에 군하리 향교와 공립보통학교·면사무소를 차례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4월 9일 교사로 있던 명덕학교의 운동회를 덕적도 해안가에서 개최하여 면민과 학생 전원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이들 앞으로 나아가 이재관(李載寬)·차경창(車敬昌) 등과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인천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일제의 가혹한 고문을 못 이겨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47년 3월 1일 덕적도민과 문인·제자들이 위국충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덕적도 중앙에 충절비를 세웠다. 1968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권말 부록 참조

- ▶ 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우리고장 獨立運動功勳史(京畿道敎育委員會)>, <韓國人名大事典>, <金浦郡誌>

임 철 모 (林哲模) 고종 20년 (1883)~1919

독립운동가. 본관은 부안(扶安).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출생.

자는 중협(仲協). 통정대부(通政大夫) 승필(承弼)의 자. 25세까지 한학을 수학하였는데 구한말에 구래리(九來里)에 소재한 분남학교(汾南學敎)를 졸업하고 참봉직을 수임하였다.

1919년 3월 23일 양촌면 양곡리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서당의 교사인 정인섭(丁寅燮)·이효원(李孝元) 등과 협의하여 독립시위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날 오후 4시 경, 3백여 명의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전날 정인섭이 제작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오라리시장(양곡시장)에 집결한 시위대의 앞에 서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대를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로 이끌고 가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일본 경찰에게 태극기를 압수당하고 체포되었다. 이날 시위의 영향으로 김포시 전역에 독립시위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같은 해 6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면서도 다른 수인들을 규합하여 감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의지를 보였으나 일제의 극심한 고문 끝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6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권말 부록 참조

- ▶ 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殉國烈士 林哲模先生 追慕事業始終記>

장 기 정 (張 麟 禎) 중종 20년 (1525)~선조 27년 (1594)

조선 문신. 자는 유성(遊聖), 호는 송계(松溪), 본관은 인동(仁同), 의정부 사인(舍人) 계문(季文)의 아들이고 도원수 만(晩)의 아버지로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에서 성장했다.

부친이 병환으로 고생하자 형 봉정(鳳禎)과 함께 무명지를 끊어 피를 입에 흘려 넣었으며 친상을 당해서는 예법에 따라 집상(執喪)을 하고 3년을 여막에서 시묘(侍墓)했다. 이런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명종 8년(1553)에 효자 정문이 세워지고 또 태학(太學)의 천거로 창릉참봉(昌陵參奉)을 제수, 이어 예빈시별제(禮賓寺別提)·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내섬시직장(內贍寺直長)·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병조좌랑을 역임했다. 선조 14년(1581) 증산현령(甌山縣令)으로서 흉년으로 유리하는 백성들을 잘 진휼하여 평안도어사 이산보(李山甫)의 장계로 표리(表裡) 한 벌을 하사받고 일년 연임했다.

내직에 들어와 종친부주부(宗親府主簿)를 지내고, 옥천군수(沃川郡守)·양천현령(陽川縣令)·가평군수(加平郡守)·한성판관(漢城判官)·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 등을 역임했다. 뒤에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에 추봉되었다.

▶ 문헌 : <明宗實錄>, <續三綱行實錄>, <仁同張氏世譜>, <京畿人物誌>

장 만 (張 晩) 명종 21년 (1566)~인조 7년 (1629)

조선조 문신.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 본관은 인동(仁同), 군수 기정(麒禎)의 아들이다.

1. 생애

선조 22년(1589) 생원·진사 양시에 모두 합격하고 1591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승문원의 벼슬을 거쳐,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그 뒤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형조좌랑·예조좌랑·전직·직강·사서·정언·지평을 역임하고, 1599년 봉산군수로 나갔다.

이때 서로(西路)에는 명나라 군사가 내왕하여 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수령들을 결박하고 옥을 보이는 등 행패가 심하였으나 그들을 잘 다스려서 도리어 환심을 샀다. 이러한 일이 조정에 전하여지자 이를 포상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계(陞階)되고 동부승지에 승진되었다.

이듬해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계되고,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조정에 들어와 도승지·호조참판·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왕후의 고명주청부사(誥命奏請副使)·세자책봉주청부사(世子冊封奏請副使)로 2차에 걸쳐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수년 동안 안으로는 형조·병조의 참판, 밖으로는 전라·함경 양도의 관찰사가 되었다.

특히, 함경도관찰사 재임 시에는 누르하치(奴兒哈赤)의 침입을 경고하여 그 방어책을 세울 것을 상소하였고, 광해군 2년(1610) 동지중추부사로 호지(胡地)의 산천지도를 그려 바쳤다.

이듬해 이항복(李恒福)의 건의로 평안도병마절도사로 나가 관서민(關西民)들이 편리하도록 군제(軍制)를 개혁하고, 여연(閔延) 등 오래 폐지되었던 4군(郡)을 버려 둘 수 없음을 역설하고 여진추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공첩(公牒)을 전달하고 조선의 땅임을 인식시켜 들어와 사는 여진사람들을 철수하게 하였고, 그 뒤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호조참판으로 조정에 들어와 동지의금부사를 겸하였다.

당시 대북의 전횡을 힐책하다가 일시 삭직되었으나 곧 승계되어 형조판서에 오르고, 1619년 체찰부사가 되어 요동파병에서 패물하여 서쪽 국경이 동요되자 이를 무마하는 데 힘썼으며, 왕명으로 찬획사(贊畫使) 이시발(李時發)과 함께 대(對) 후금정책을 협의하였다. 이어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오르고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공명정대한 공사처리가 도리어 권간(權奸)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 벼슬을 포기할 각오로 시정(時政)을 극론하다가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자 병을 청탁하고 통진으로 물러갔다. 다음 해 인조반정으로 새 왕이 등극하자 도원수에 임명되어 원수부를 평양에 두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각지의 관군과 의병을 모집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전공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에 책록되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라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이어 우찬성에 임명되고 팔도도체찰사로 개성유수를 겸하였으며, 그 뒤 병을 구실로 풍덕 별서(別墅)로 내려갔으나 왕의 절책(切責)을 받고 다시 조정에 들어와 병조판서로 도체찰사를 겸하였다. 그러나 1627년 정묘호란에 후금군을 막지 못한 죄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부여에 유배되었으나 앞서 세운 공으로 용서를 받고 복관되었다.

문무를 겸비하고 재략이 뛰어났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통진의 향사(鄉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2. 저 서

《낙서집(洛西集)》

시문집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돼 있다. 권두에는 이의현(李宜顯)

의 서문이 있고, 권1에는 시(詩), 권2·3에는 소차(疏筵)가 있다. 장만은 군사통으로서, 함경도·평안도의 관찰사와 병사(兵使) 및 부체찰사(副體察使)와 도원수(都元帥)를 오랫동안 역임하였다.

소차는 대부분 변경의 군사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권4는 계(啓)·의(議)·장계(狀啓)·기행(紀行)·서(書)가 있다. 「장단적벽선유일기(長湍赤壁船遊日記)」는 광해군 7년(1615) 4월 2일부터 6일까지 임진강을 유람하면서 기록한 기행문이다. 권5는 부록으로 최명길(崔鳴吉)이 지은 행장, 장유(張維)의 신도비명, 이식(李植)의 묘지명, 송시열(宋時烈)의 묘표 등 당대 최고의 문신과 학자들이 지었다.

권6·7도 부록인데, 권6에는 1623년 이괄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정하는 장만을 위해 이정구(李廷龜)의 「서행증언서(西行贈言序)」와 유근(柳根)의 「장원수출사서(張元帥出師序)」가 붙은 <서행증언>이 있다. 권7은 김기종(金起宗)의 서문이 붙어 있는 <서정록(西征錄)>이 대부분이다. <서정록>은 장만이 이괄(李适)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정하여 난을 평정하기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다. 권말에는 저자의 현손 보현(普顯)의 발문이 있다.

3. 관련 사건

(1) 이괄의 난

이괄은 인조반정에 공이 많았는데도 논공행상에는 반정계획에 늦게 참가하였다 하여 2등 공신이 되었으며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임명되었다. 그러던 중 관서(關西) 지방에 호인(胡人)이 침입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괄을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 휘하의 부원수(副元帥) 겸 평안병사로 좌천시켜 평안도 영변

(寧邊)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에 그의 불만은 더욱 커져 반란을 꾀하게 되었는데, 조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교수(前敎授) 문회(文晦)의 밀고로 미리 알고 서울에 있던 이괄의 아들을 체포하였다.

이괄은 그의 부하 이수백(李守白)·기익헌(奇益獻), 구성부사(龜城府使)인 한명련(韓明璉)과 함께 가까운 병영(兵營)의 군사 1만여 명과 항왜병(降倭兵) 100여 명으로 먼저 개천(价川)을 점령하고 평양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아 반란군을 토벌하게 하는 한편, 반란군과 내용할 것을 염려하여 전 영의정 기자헌(奇自獻) 등 35명을 처형하였다.

반란군은 평안도의 순천(順川)·자산(慈山)·중화(中和), 황해도의 수안(遂安)·황주(黃州) 등을 차례로 점령하고 평산(平山)으로 진격하였다. 중앙에서 파견한 토벌군과 장만이 이끄는 추격군은 합세하여 저탄(猪灘)에서 반란군과 싸웠으나, 도리어 반란군에게 패하였고 반란군은 승승장구하여 경기도의 개성·벽제에 이르렀다. 이에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갔고 한성은 반란군에게 점령되었다. 이괄은 1624년 2월 11일 선조(宣祖)의 열 번째 아들 흥안군(興安君)을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바로 그날 밤 장만은 패잔병을 수습하여 반란군을 한성 근교의 안령(鞍嶺)에서 대과(大破)하였다.

이괄은 패잔병을 이끌고 광희문을 빠져나와 경기도 이천(利川)으로 달아났으나, 전부대장(前部大將) 정충신(鄭忠信)의 추격을 받았다. 이에 이괄의 부하 기익헌·이수백 등은 자기들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이괄·한명련 등 9명의 목을 베어 관군에 투항하여 반란은 평정되었다.

▶ 저서 : 洛西集

▶ 문헌 : <先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韓國人名大事典>

장 상 원 (張象元) 영조 3년 (1727)~순조 11년 (1811)

조선 문신. 자는 자후(子厚), 본관은 인동(仁同),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 장만(張晩)의 후손.

영조 때 참봉을 거쳐 특별히 현풍(玄風)·회양(淮陽)·영산(靈山) 현령을 두루 하고 정조 21년(1797) 왕의 특명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하고, 그 두 아들을 충의위(忠義衛)에 소속시켰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에 있다.

▶ 문헌 : <正祖實錄>, <京畿人物誌>

전 득 우 (田得雨) 숙종 38년 (1712)~?

중국의 광평전씨(廣平田氏) 시조 전언실(田彦實)의 11세손으로서 명나라 말 조선으로 나와 조선국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朝鮮國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을 지낸 전호겸(田好謙)의 증손자이다. 부(父)는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과 안동진영장(安東鎭營長) 등을 지낸 전만추(田萬秋)요, 조부(祖父)는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을 지낸 전유일(田有一 : 贈職 嘉善大夫戶曹參判)이다.

문무를 겸비한 무장(武將)으로서 별군직(別軍職)부터 시작해 평해군수(平海郡守), 오위도총부도사(五衛都摠府都事), 경상좌도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 전라병마절도사(全羅兵馬節度使) 등을 지냈다. 지취관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증직(贈職)되었다. 묘는 김포시 하

성면 마근포리에 있다.

▶ 문헌 : <肅宗實錄>, <廣平田氏世譜>, <廣平田氏術先錄(尋原錄)>

전 태 순 (全泰順, 異名 : 泰淳) 고종 34년 (1896) ~ 1963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으로 1919년 3월 23일 김포시 양촌면(陽村面)에서 박충서(朴忠緒)가 주도하는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 박승각(朴勝珪)·박승만(朴勝萬)·안성환(安聖煥) 등과 함께 격문과 선언문 10여 매를 작성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배부한 후, 이날 양곡(陽谷)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는 등 일경의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권말 부록 참조

▶ 문헌 : <判決文(1919. 6. 26 京城覆審法院)>

정 괄 (鄭 适) 세종 17년 (1435) ~ 연산군 1년 (1495)

조선 문신. 자는 경회(慶會), 본관은 동래(東萊), 영의정 창손(昌孫)의 아들. 세조 2년(1456)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기용, 공조정랑에 이르러 세조 11

년(1465) 식년문과에 급제 사예(司藝)·장령(掌令)을 거쳐 성종 4년(1473) 대사간에 올라 언로의 확충, 내수사(內需司) 장리(長利)의 폐단 시정, 과거급제정원의 증가, 관리 서용의 새 기준 마련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병조참의를 거쳐 성종 8년(1477) 황해도 관찰사에 승진, 대사헌·이조판서·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병조판서 등을 역임, 1485년 좌찬성(左贊成)이 되고 성종 19년(1488) 병조판서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 치적을 올렸다.

성종 23년(1492)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가서 황태자(皇太子) 책봉을 축하, 이듬해 다시 병조판서,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 병으로 사직을 요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평안도는 중국사신의 경유지이므로 명망자(名望者)가 파견되어야 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연산군 1년(1495) 우의정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귀국 중 칠가령(七家嶺)에서 죽었다.

그는 맡은 일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기상이 엄준하여 대신의 풍도가 있었다고 한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며, 묘는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있다.

- ▶ 문헌 : <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정 만 순 (鄭晩淳)

조선 문신. 영조 29년(1753) 5릉영건(五陵營建)의 공으로 6품직에 오르고, 영조 32년(1756) 정언(正言)·지평(持平)을 지냈다. 영조 35년(1759)에는 어사

(御史)로 갑산에 내려가 쟁송사건(爭訟事件)으로 갑산위(甲山倅) 한석필(韓碩弼)을 무고(誣告)한 이진(李晉)을 서울에 압송 정법(正法)케 하고, 영조 36년(1760) 관직(館職)을 띠고 있으면서 그들끼리의 승강이로 문천군수(文川郡守)로 외보(外補)되고, 영조 38년(1762) 부교리(副校理)에 이어 승지, 영조 43년(1767) 대사간이 되고, 영조 50년(1774) 대사성(大司成)·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이듬해 승지(承旨)가 되었다. 영조 52년(1776) 정조(正祖)가 즉위하고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추존(追尊)하고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추상(追上)할 때 그 신주서사관(神主書寫官)의 공으로 가자(加資)되고 정조 1년(1777) 대사헌이 되었다.

▶ 문헌 : <英祖實錄>, <正祖實錄>

정 백 형 (鄭百亨) 선조 23년~인조 14년 (1636)

조선 문신. 자는 덕후(德後), 본관은 진주(晋州), 관찰사 효성(孝成)의 아들. 1623년 음보(蔭補)로 연원도찰방(連源道察訪)이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을 거쳐 인조 5년(1627) 대교(待敎)·봉교(奉敎)를 역임하고, 인조 9년(1631) 통진현감(通津縣監), 인조 10년(1632) 원종(元宗 : 인조의 生父) 추존 논의에 반대하고 면직, 인조 12년(1634) 예조정랑·장령을 지냈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강화에 들어갔다가 섬이 함락되자 자결했다. 이듬해 정문(旌門)이 세워지고, 순조 5년(1805) 도승지(都承旨)에 추증,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文科榜目>, <國朝人物考>, <通津縣先生案>

정 선 (鄭 歆) 숙종 2년 (1676)~영조 35년 (1759)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겸초(兼艸)·난곡(蘭谷). 아버지는 시익(時翊)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2남 1녀 중 맏아들이다. 그의 선세(先世)는 전라남도 광산·나주 지방에서 세거한 사대부 집안이었다.

1. 관 직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며 그 뒤 김창집(金昌集)의 도움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위수(衛率 : 王世子를 따라 호위하는 직책)라는 벼슬을 비롯하여, 1729년에 한성부주부, 1734년 청하현감을 지냈으며, 또 자연·하양의 현감을 거쳐 1740년경에는 훈련도감랑청(訓練都監郎廳), 1740년 12월부터 1745년 1월까지 양천의 현령을 지냈다.

그 뒤 약 10년 동안은 활동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754년에 사도시첨정(司導寺僉正), 1755년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그리고 1756년에는 화가로서는 파격적인 가선대부지중추부사(嘉善大夫知中樞府事)라는 종2품에 제수되기까지 하였다.

2. 화업 수련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있었다는 기록과 현재 남아 있는 30세 전후의 금강산그림 등을 통하여 젊었을 때 화가로서 활동한 것이 확실하지만, 40세 이전의 확실한 경력을 입증할만한 작품이나 생활기록 자료는 없다.

그가 중인(中人)들이 일하고 있었던 도화서화원(圖畫署畫員)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원래 사대부출신으로 신분상의 중인은 아니며 몇 대에 걸쳐 과거를 통하여 출세하지 못한 한미한 양반이었으나 그의 뛰어난 그림재주 때문에 관료로 추천을 받았으며 마침내 화단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막연한 중국의 자연을 소재로 하던 시나 문학의 영향에서 이루어진 산수화의 화제(畵題)는 빛을 잃고, 대신 우리 자연으로 대치하게 되는 시기에 태어난 그는 마침 중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남종화법(南宗畵法)이나 오파(吳派)와 같은 새로운 산수화기법에 접하게 되고, 또 당시 다시 유행하게 된 시서화 일체 사상을 중시하던 문인들 사이에 참여하여 자신의 교양을 높이거나 창작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이병연(李秉淵)같은 시인과의 교우를 통하여 자기 회화세계에 대한 창의력을 넓히고 일상적 생활의 주제를 회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자연을 다룬 그의 화제들은 당시 기행문의 소재였던 금강산, 관동지방의 명승, 그리고 서울에서 남한강을 오르내리며 접할 수 있는 명소들과 그가 실제 지방수령으로 근무하던 여가에 묘사한 것들이다.

그밖에도 자기 집과 가까웠던 서울장안의 사철의 경치들, 특히 인왕산 동북 일대의 계곡과 산등성이들이 화제가 되었으며, 문인지우(文人知友)들과 관련되는

여러 곳의 명소나 특수한 고장들의 자연을 다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사도(故事圖)같은 중국적 소재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성리학자들의 고사도 제작에서 그의 관심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3. 회화기법

회화기법 상으로는 전통적 수묵화법(水墨畵法)이나 채색화(彩色畵)의 맥을 이어받기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필묵법(筆墨法)을 개발하는데, 이것은 자연미의 특성을 깊이 관찰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 소장의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에서는 인왕산의 둥근 바위봉우리 형태를 전연 새로운 기법으로 나타내는데, 바위의 중량감을 널찍한 쉬운 붓으로 여러 번 짙은 먹칠하여 표현하며(積墨法), 또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의 <통천문암도(通川門巖圖)>에서는 동해안 바위 구조를 굽직한 수직선으로 처리하여 세밀한 붓놀림이나 채색·명암 등 효과를 무시하면서도 물체의 외형적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붓쓰임의 예는 서울근교나 해금강은 물론 우리나라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의 묘사법인데, 몇 개의 짧은 횡선과 하나의 굵게 내려긋는 사선(斜線)으로 소나무의 생김새를 간략하면서도 들어맞게 그린다.

호암미술관 소장의 1734년 작 <금강전도(金剛全圖)>(130.7×95cm)는 금강내산(金剛內山)을 하나의 큰 원형구도로 묶어서 그리는데, 이는 기법 상 천하도(天下圖)라는 전통적인 지도제작기법에 근거하며, 금강내산을 한 떨기 연꽃 또는 한 묶음의 보석다발로 보는 종래의 자연묘사시에서 조형적 원리(造形的原理)를 따오는 기발한 착상이다.

우선, 원형을 대강 오른쪽의 골산(骨山 : 금강내산의 화강암바위로 된 삐죽삐죽한 모습)과 왼쪽의 토산(土山 : 금강내산의 수림이 자라는 둥근 뿔부리)으로 구분하되, 골산은 예리한 윤곽선으로, 토산은 그의 독특한 침엽수법(針葉樹法)과 미점(米點)으로 묘사한다.

그 다음 이 원형외곽을 엷은 청색으로 둘러 여타 공간을 생략함으로써 산 자체만을 돋보이게 한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은 원의 중심이 되는 만폭동(萬瀑洞)에 일단 모이게 하여 구도상의 중심을 이룬 다음, 화면의 앞쪽으로 흘러 장안사 비홍교(長安寺飛虹橋)를 지난다.

이 그림은 실제의 자연을 새로 해석하여 조형화한 좋은 예이며, 오른편 위쪽에 쓴 제시(題詩)의 내용과 형태가 일치한다.

그의 회화기법은 다른 화가들에 비하여 아주 다양하여 정밀묘사법에서부터 간결하고 활달한 사의화(寫意畵)까지 있어, 자연에서 얻은 인상을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과감성과 회화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등 여러 단계의 작품을 보여주는 가운데, 특히 우리 주위에서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구체적 자연을 특징짓는 기법이 독창적인 면이다.

4. 평가와 업적

이러한 그의 창의력은 그가 즐겨하였다는 역(易)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의 소재·기법 어느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소화하였으며, 심지어 지두화(指頭畵)까지도 실험하고 있다.

또한, 문인들과의 가까운 교류와 자신의 성리학에 대한 지식 등 중국 고전문화와 사상도 두루 섭렵하여 이들을 조형세계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미 청나라 문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한 시화첩(詩畵帖)같은 것은 선비들 간에 시 짓고 그림그리기와 글씨쓰기놀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실경산수화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인들과 함께 하는 여행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다.

그는 이미 말한 노론의 명문인 안동김씨네와의 관계에서 관로(官路)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사상과 우수한 수장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김창흡(金昌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파벌에만 치우치지 않은 매우 폭넓은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애 후반의 계속적인 승진은 영조가 세제로 있을 때 위술이라는 직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입은 배려로 생각되며, 이것이 노년에도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겠다.

그는 조선시대의 어느 화가보다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선비나 직업 화가를 막론하고 크게 영향을 주어 겸재파화법(謙齋派畵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실경산수화의 흐름을 적어도 19세기 초반까지 이어가게 하였다. 이들 중에는 강희언(姜熙彦)·김윤겸(金允謙)·최북(崔北)·김응환(金應煥)·김홍도(金弘道)·정수영(鄭遂榮)·김석신(金碩臣)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인 만교(萬僑)와 만수(萬遂)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지 못하고 손자인 황(曄)만이 할아버지의 화법을 이어받고 있다. 정선에 관한 기록은 어느 화가보다 많으며 작품수도 가장 많다.

그러나 그가 지었다는 <도설경해(圖說經解)>라는 책과 유고(遺稿) 수십 권은 전하지 않으며, 자작시나 화론(畵論)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를 더 깊이 연구하는 데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초년기의 작품이 거의 밝혀지지 않아 화가로서의 생애를 전부 조명하는 데

공백이 있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정 업 (鄭 曄) 명종 18년 (1563)~인조 3년 (1625)

조선 문신. 자는 시회(時晦), 호는 수몽(守夢)·설촌(雪村), 본관은 초계(草溪), 진사 유성(惟誠)의 아들.

1. 생애

이이(李珣)·성혼(成婚)·송익필(宋翼弼)의 문인. 선조 16년(158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고, 선조 20년(1587) 감찰(監察)·형조좌랑을 거쳐 모친을 봉양키 위해 결군(乞郡), 김포군수(金浦郡守)가 되었다. 1593년 황주판관으로 왜군을 격퇴, 그 공으로 중화부사가 되었고, 이듬해 홍문관수찬·장령을 거쳐 서천군수를 역임하였다.

1597년 예조정랑으로 있을 때 정유재란이 일어나 고급사(告急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었고, 귀국 후 성균관사성을 거쳐 수원부사가 되었다. 삼남대로에 있는 수원은 당시 난을 치르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군민을 잘 다스려 서천군수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로부터 크게 칭송을 받았다.

1598년에 응교·집의로서 시강원필선을 겸하고, 동부승지·우부승지를 거쳐 형조참의로 있을 때 동지사(冬至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귀국 후 나주목사를 거쳐, 병조참지·대사간·예조참의를 역임하였고, 영위사

(迎慰使)로서 관서지방에 다녀왔다. 이 무렵 척속 기자헌(奇自獻)이 이조좌랑의 추천을 받았으나 끝까지 반대하였다.

1602년 정인홍(鄭仁弘)이 권력을 잡아 성혼을 배척하자, 성혼의 문인이었던 그도 종성부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학교 교육을 크게 일으키고, 때마침 오랑캐 수만 명이 침입하자 계교로써 적을 물리쳤다. 이때 피해는 피로자(被擄者) 한 명뿐이었으나, 기자헌의 농간으로 동래에 유배되었다.

1605년에 풀려나 이듬해에 성주·홍주의 외직을 차례로 맡았고, 광해군 1년(1608)에 예조참의가 되었다가 이듬해에 대사성을 거쳐, 1610년에는 충청감사가 되었다.

그 뒤 예조참의·승지·판결사·도승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도승지로 있을 때 광해군이 경연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직언하다가 호조참의로 강등되었으나 곧 참판에 오르고 1613년에 다시 도승지가 되었다. 이때 계축옥사가 일어나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의 만류로 상소를 포기하고 스스로 도승지를 사직하였다.

1617년에 폐모론이 제기되자 외직을 구하여 양양부사로 나갔다가, 이듬해에 폐모의 조처가 단행되자 관직을 버리고 여주에 돌아와 지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으나 며칠 뒤에 조정에 나와 강화도에 위리안치키로 된 광해군을 전날에 북면(北面)한 군주이므로 곡송(哭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 주위로부터 크게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반정 초에 비변사의 합사(合辭)로 대사성에 동지경연(同知經筵)·원자사부(元子師傅)를 겸하는 중책이 맡겨져, 학제를 상정하여 성균관을 다시 크게 일으키는 공적을 남기고, 곧 대사간에 제수되어 대사성을 그만두어야 하였으나, 국왕의 특명으로 그대로 겸하게 되었으니, 대사성으로서 타직을 겸하는 예가 그로부

터 비롯되었다 한다.

인조반정 이후 친명정책의 표방과 함께 후금에 대한 적극정책으로 적의 침입이 있으면 국왕이 삼군을 이끌고 송도에 진주한다는 친정(親政)의 계획이 공식적으로 택하여졌는데, 이 안이 그로부터 나왔으며, 이괄(李适)의 난 때 공주파천의 안을 과감히 제기한 것도 그였다.

공주에 있을 때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되고, 환도 후에 다시 정헌대부(正憲大夫)로 대사헌에 제수되고, 또 우참찬이 되었다. 대사헌을 다섯 번 겸하고, 한꺼번에 네 가지 직임을 겸하기까지 하여 격무로 병을 얻어 63세에 죽었다.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2. 저 서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목판본. 14권 4책. 김장생(金長生)이 시작한 주석 작업을 정엽이 이어받아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에 생질인 나만갑(羅萬甲)이 정서하여 세상에 전하였다. 그 후 송시열(宋時烈)이 본문과 주석을 구분하고 내용을 고증하여 현종 2년(1661)에 간행하였다.

<근사록>은 중국의 주희(朱熹 : 주자)와 여조겸(呂祖謙)이 학문의 중심이 되고 일상생활에 요긴한 내용들을 편집한 신유학의 중심문헌으로서, 조선에서는 사람파가 널리 보급하고 탐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사록석의>는 이황과 이이에 의하여 신유학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체계가 갖추어진 후 17세기에 이르러 그 연구가 더욱 심화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산출된 학문적 성과이다.

편자 정엽이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성균관 대사성을 오래 맡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당대 학문에 대한 정부조직 내의 중심인물이었고, 편찬에 참여한 김장생과 송시열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던 재야출신의 산림학자였던 만큼 17세기 서인학계의 관심과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사록>의 원문과 원주(原註) 중에서 문제가 되는 구절을 큰 글자로 제시하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선배 유학자들의 학설을 모은 주석을 붙였으며, 편자의 견해도 실었다. 예를 들어 본문의 첫머리에서는 ‘태극이무극(太極而無極)’이라는 <근사록> 본문의 첫 구절과 그 원주에 대해서 주희의 보충설명을 비롯하여 진순(陳淳)·사방숙(謝方叔)·이황·김장생과 편자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 저서 : 守夢集, 近思錄釋疑

▶ 문헌 :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誌狀輯略>,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정 용 대 (鄭用大) 고종 19년 (1882)~1910

의병장. 본관은 광주(光州). 파주(坡州) 출신. 호는 의암(毅庵), 의병 인태(寅泰)의 손, 의병 두환(斗煥)의 자.

할아버지 인태는 1895년 1월 15일 의병으로 왜적과 싸우다가 순국하였고, 같은 해 9월 19일 부친 두환도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에 분기하여 동지를 규합하여 일본군과 싸우다가 순국하였다. 의병집안의 장남으로 어린시절부터 조부와 선친의 우국충정 정신을 이어받아 기백과 인품이 남달랐다.

18세 때에는 적성읍(積城邑) 명륜당에서 수학하며 유림과 교유하였다. 1905

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분기하여 경기지방을 순회하면서 의병을 수백 명 모집하고 적성창의부(積城倡義府) 좌군장(左軍將)이 되어 동료 의병장 이은찬(李殷贊)·윤인순(尹仁淳)·강기동(姜基東)·연기우(延起羽) 등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경기·강원·황해 각지의 우국지사를 규합하여 적성·양주(楊洲)·풍덕(豐德)·교하(交河)·통진(通津) 등지에서 일본 관헌과 투쟁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일본군과 투쟁하는 한편, <의암고(毅庵稿)>를 작성하여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공함서(公函書)를 보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통박하였고, 항일투쟁에 앞장 서 의병의 모집과 협조를 부탁하는 <서중문(誓衆文)>을 배포하는 등 문장을 통한 항일 운동도 아울러 전개하였다. 1907년 1월 17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있었던 연평도·견산도 전투에 따라 1908년 이은찬 의병장이 의병운동의 확대를 위해 상경하던 길에 용산역에서 일경에 체포되자, 경기도 의병대장이 되어 의병을 총지휘하게 되었다. 다소 전세가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적과의 교전과 동시에 군자금 조달에도 신경을 써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항일투쟁을 모색하였다.

일제의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군자금 조달을 위한 활동상은 다음과 같다. 1908년 4월 23일 부하 이종근(李宗根) 외 18명으로 하여금 통진군의 심진사(沈進士) 집에 가서 동장들을 일제히 불러 총을 구입할 비용을 염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5일 후에 대금 1만 5천 냥을 거두어 거사 자금에 보태었다. 그리고 4월 24일 그곳에 거주하는 부위 김순좌(金順佐)에게서 군도 1자루, 양릉면 한(韓) 모에게서 군도 2자루, 교화군 민(閔)판서에게서 양총 7자루, 탄핵 9백발, 그리고 고을 사람에게서 군도 4자루를 거두어 전력을 보완하였으며, 고을 사람 조운원(趙云遠) 등과 미리 기맥을 통하여 헌병·순사의 동정을 탐지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부하 신관수(申寬秀)는 4월 12일 통진군의 김화안(金和安)

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 10원을 조달하였으며, 그리고 부하 백영현을 시켜 1908년 12월 20일 경 양주군 강동(薑洞)을 거점으로 하여 송범석(宋範錫) 집에 가서 군자금 6천원을, 그리고 이계운(李季雲)의 집에서 5천 원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1909년 6월 초에 동지 30~40명과 함께 변유삼(邊留三)에게 두차례에 걸쳐 3천 원을 거두는 등 군자금 조달에 활약이 매우 컸다.

1909년 6월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에서 일본 관헌과 교전 중 체포되었으며, 동년 10월 28일 경성지방법판소 제1심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언도받았다. 1910년 1월 12일 고등법원형사부 제2심에서 역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며, 동년 1월 27일 경성공소원 제3심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어 동년 12월 16일 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법정에서 ‘비굴하게 생을 도모하고자 함은 흥황복조(興皇復朝)에 손상인 바,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므로 순절할 것을 결심했다. 대한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다. 일제는 내정에 간섭치 말라’고 하여 일인 법관도 인격과 우국충정에 감탄하였다. 1977년 12월 13일에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 문헌 : <明治百年史叢書 1>, <梅泉野錄>,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卷>,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3輯>, <우리고장 獨立運動功勳史(京畿道教育委員會)>, <내고장 전통가꾸기>, <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1>, <楊州郡誌>, <京畿人物誌>

정 인 섭 (鄭寅燮) 고종 23년 (1886)~1944

독립운동가. 김포(金浦) 출신.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草元芝里)의 서당 교사.

1919년 3월 23일 양촌면(陽村面) 양곡리(陽谷里) 장날을 이용하여 임철모(林哲模)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이날 오후 4시 경 전날 무명 천으로 제작한 태극기를 휘두르며 시장의 서쪽에 있던 300여 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시위를 지휘하였다. 이어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주재소·면사무소 등으로 옮겨가서 시위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시장 입구에서 이들을 제지하고 강제 해산시키려던 일경에 의하여 주모자로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98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권말 부록 참조

- ▶ 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京畿人物誌>

정 인 지 (鄭麟趾) 태조 5년 (1396)~성종 9년 (1478)

조선 문신, 학자. 자는 백휴(伯睢), 호는 학역재(學易齋), 본관은 하동(河東), 석성현감(石城縣監) 흥인(興仁)의 아들, 권우(權遇)의 문인.

1. 생 애

(1) 태종·문종대의 관력 및 업적

태종 11년(1411)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414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예빈시주부(禮賓寺注簿)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예문관부교리에 개수(改授)되고, 이어 감찰·예조좌랑을 역임하였다.

세종 1년(1418) 8월 병조좌랑을 거쳐 1421년에는 상왕(上王 : 태종)의 “대임을 맡길만한 인물이니 중용하라.”는 요청과 함께 병조정랑에 승직되고, 이후 세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조·예조의 정랑을 역임하였다.

1424년 집현전관(集賢殿官)에 뽑히면서 응교에 제수되고, 다음해 직전(直殿)에 승진되었다.

1427년 문과증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다시 직제학에 승진, 곧 세자시강원좌필선을 겸대한 뒤 다음해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면서 또다시 부제학에 승진되었다.

1430년 10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면서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다음해에는 정초(鄭招)와 함께 대통력(大統曆)을 개정하고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을 저술하는 등 역법을 정비하였다.

1432년 예문관제학겸동지춘추관사(藝文館提學兼同知春秋館事), 1433년 2월 인수부윤(仁壽府尹), 같은 해 6월 예문관제학이 되었다. 1434년 4월 이조좌참판에 발탁되고, 같은 해 10월 다시 예문관제학을 거쳐 1435년 6월 충청도관찰사로 나간 뒤 다음해 9월 부상으로 사직하였다.

1437년 세종의 문운육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복(起復)되어 예문관제학에 서용되고, 1439년에는 집현전제학이 된 뒤 곧 형조참판으로 옮겼다가 1440년 5

월 정연(鄭淵)의 천거를 받아 형조판서에 발탁되었다.

같은 해 11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거쳐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42년 예문관대제학으로 <사륜요집(絲綸要集)>을 편찬하고, 이듬해 지중추원사로 당시에 찬·반의 논의가 격렬하던 공법(貢法)을 극력 주장하여 그 실시를 확정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의 제조(提調) 및 삼도도순찰사(三道都巡察使)로 파견되어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전품(田品)을 분정(分定)하는 등 내·외의 전제사를 주관하였다.

1445년 1월 우참찬이 되고, 그해 <치평요람(治平要覽)>을 찬진하였다. 다음 해 예조판서를 거쳐 1447년에는 이조판서가 된 뒤 지춘추관사가 되어 <태조실록>을 증수(增修)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한편 전라도에 파견되어 전품을 다시 상정하였다.

1449년 공조판서를 거쳐 문종 1년(1450) 좌참찬이 되고, 1451년 김종서(金宗瑞) 등과 함께 <고려사>를 개찬(改撰)하였고, 이듬해 김종서 등과 함께 <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다.

(2) 단종·세조대의 관력 및 업적

세조 1년(1455) 세조의 즉위와 함께 영의정부사에 승진되고, 세자사(世子師)를 예겸(例兼)한 뒤 세조 즉위에 끼친 공로로 다시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458년 공신연(功臣宴)을 베풀 때 세조의 불서간행을 반대한 일로 세조의 노여움을 사서 불경죄로 논죄되면서 고신(告身)이 몰수되었으나, 곧 고신을 환급받고 하동부원군에 제수되었다.

1459년 취중에 직간한 일이 국왕에게 무례를 범하였다고 논죄되면서 다시 고

신을 몰수당하고 외방에 종편(從便)되었으나 그해에 다시 소환되어 고신을 환급 받고, 그 이듬해에 하동부원군에 복직되었다.

1465년 나이 70을 이유로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궤장(几杖)을 하사받았으며, 다음해 관제개혁으로 인한 부원군호의 군호로의 개칭과 함께 하동군(河東君)에 개봉(改封)되었다.

(3) 예종·성종대의 관력

예종 1년(1468) 남이(南怡)의 옥사에 끼친 공로로 다시 익대공신(翼戴功臣) 3등에 책록되었으며, 성종 1년(1470) 부원군호의 복구와 함께 하동부원군에 개봉되고 경연영사(經筵領事)를 겸대하였다. 1471년 성종 즉위에 끼친 공로로 또 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78년 성종의 호학 및 당시의 문운 융성과 함께 연덕(年德)을 구비하고 명망이 높은 유학자를 삼로오경(三老五更：王師)으로 봉하여 문풍을 한층 더 진작시키자는 논의와 함께 삼로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진봉식의 거행 직전에 대간의 “한미한 가문에서 기신하였으나 식화(殖貨)에 전념하여 치부하였으니 불가하다.”라는 반대가 있었다.

비록 한명회(韓明澮) 등의 대신이 “정인지의 식화는 장리(長利)에 불과하였으니 큰 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실시를 주장하였지만, 결국은 진봉되지 못하였으며, 같은 해에 하동부원군으로 죽었다.

(4) 공 로

그는 유학과 전고(典故)에 밝아 조선 초기의 대표적 유학자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었고, 비록 큰 정치력은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세종~문종대에는 국왕의 신

임을 받으면서 문한(文翰)을 관장하고 역사·천문·역법·아악을 정리하였고, 한글창제에도 참여하는 등 문풍육성과 제도정비에 기여하였다.

단종~성종초에는 학덕을 구비한 원로대신으로서의 풍도를 지킴으로써 빈번한 정변과 어린 국왕의 즉위로 인한 경직되고 혼란된 정치 분위기와 민심을 진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호는 문성(文威)이며, 김포 사당에 제향되었다. 이 사당은 김포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돼 있다.

2. 관련 사건

(1) 계유정란

세종(世宗)의 뒤를 이은 병약한 문종(文宗)은 자신의 단명(短命)을 예견하고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남지(南智), 우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에게 자기가 죽은 뒤 어린 왕세자가 등극하였을 때, 그를 잘 보필할 것을 부탁하였다. 세 사람 중 남지는 병으로 좌의정을 사직하였으므로 그의 후임인 정분이 대신 당부를 받았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1453년 문종의 유탁(遺託)을 받은 삼공(三公) 중 지용(智勇)을 겸비한 김종서의 집을 불시에 습격하여 그와 그의 아들을 죽였다. 이 사변 직후에 수양대군은 “김종서가 모반하였으므로 주륙(誅戮)하였는데, 사변이 창졸간에 일어나 상계(上啓)할 틈이 없었다”고 사후에 상주(上奏)하였으며, 곧 이어 단종의 명이라고 속여 중신을 소집한 뒤, 사전에 준비한 생살(生殺)계획에 따라 황보 인, 이조판서 조극관(趙克寬), 찬성 이양(李穰) 등을 궐문(闕門)에서 죽였으며, 좌의정 정분과 조극관의 동생인 조수량(趙遂良) 등을 귀양보냈다가 죽였

으며, 수양대군의 친동생인 안평대군이 ‘황보 인·김종서 등과 한 패가 되어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다’고 거짓 상주하여 강화도로 귀양보냈다가 후에 사사(賜死)하였다.

수양대군은 10월 10일의 정변으로 반대파를 숙청한 후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그는 의정부영사와 이조·병조판서, 내외병마도통사(內外兵馬都統使) 등을 겸직하였고, 정인지(鄭麟趾)를 좌의정, 한확(韓確)을 우의정으로 삼았으며, 집현전으로 하여금 수양대군을 찬양하는 교서(敎書)를 짓게 하는 등 그의 집권태세를 굳혀갔다.

이 정변이 계유년에 일어났으므로 이를 계유정난이라 하는데, 이 사건에 공이 있다 하여 수양대군·정인지·한확·이사철(李思哲)·박종우(朴從愚)·이계전(李季甸)·박중손(朴仲孫)·김효성(金孝誠)·권람(權攄)·홍달손(洪達孫)·최항(崔恒)·한명회(韓明澮) 등 37명은 정난공신(靖難功臣)이 되었다.

(2) 남이옥사

예종 1년(1468) 남이(南怡) 등이 역모를 꾀하였다 하여 처형한 사건.

의산위(宜山尉) 휘(暉)와 태종의 넷째 딸 정선공주(貞善公主) 사이에서 태어난 남이는 일찍부터 무반의 기질을 나타내어, 세조 3년(1457) 17세로 무과에 급제한 뒤 태종의 신임을 받아 여러 무반직을 역임하였다. 이시애(李施愛)의 반란을 토벌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의 칭호를 받고 의산군(宜山君)에 봉해졌으며, 건주위(建州衛)의 오랑캐를 토벌한 공로로 공조판서를 거쳐, 27세로 병조판서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종이 즉위한 뒤 겸사복장(兼司僕將)으로 있을 때, 궁궐에서 숙직하던 중 혜성이 나타나자 “혜성이 나타난 것은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펼칠

정조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병조참지(兵曹參知) 유자광(柳子光)이 듣고 곧바로 남이가 반역을 꾀하였다고 모함하였다. 남이를 비롯하여 강순(康純)·변영수(卞永壽)·조정치(曹敬治)·문효량(文孝良) 등 관련된 인물들이 국문을 받고 처형되었다. 이 옥사는 그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순탄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 즉위한 세조가 왕권강화를 도모하다가 죽고 어린 왕이 새로 즉위하는 등 유동적인 정국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남이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 뒤 사림(士林)이 세력을 잡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자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이의 옥사 역시 그가 조작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뒷날 남이의 방계인 남용익(南龍翼)·남유용(南有容)·남공철(南公轍) 등이 빛을 볼 수 있었다.

3. 저 서

《치평요람(治平要覽)》

갑진자본(甲辰字本). 150권 150책. 중종 11년(1516) 간행. 세종 때 왕명에 의하여 정인지(鄭麟趾) 등 집현전 학사들이 편찬하였다.

주(周)나라에서 원(元)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역사와, 기자조선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 중에서 국가의 흥망(興亡), 군신(君臣)의 사정(邪正), 정교(政敎)·풍속(風俗)·외환(外患)·윤도(倫道) 등 각 방면에 걸쳐 권징(勸懲)할만한 사실들을 발췌하여 후세인들의 귀감으로 삼게 한 것이다. 산질되어 규장각에 72책의 영본이 전하고 일본 내각문고(內閣文庫)에 150책 중 33·34·86이 빠진 147책이 전한다.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세종의 명을 받아 이순지(李純之), 김담(金淡)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것으로 중국 원나라 때의 수시력(授時曆)을 서울의 실정에 맞게 수정 개편한 것이다.

칠정, 즉 해와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완성해놓은 것인데, 삼국시대 이래 고려 때까지는 이런 계산이 아직 완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칠정산내편>의 완성으로 계산이 완벽해져 서울에서 일어날 일식 등의 천문현상을 정확하게 예보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조선 왕조의 개국을 칭송하는 국문가사와 그에 대한 한문 주석을 싣고 있는 책이다. 10권 5책. 총 125장(章)이다.

전체 편제는 정인지(鄭麟趾)의 서(序), 권제·정인지(鄭麟趾)·안지(安止) 등의 전(箋), 권1(제1장~제9장), 권2(제10장~제12장), 권3(제13장~제17장), 권4(제18장~제26장), 권5(제27장~제40장), 권6(제41장~제49장), 권7(제50장~제58장), 권8(제59장~제77장), 권9(제78장~제97장), 권10(제98장~제125장), 최항(崔恒)의 발(跋)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을 살펴보면 제1장은 1행, 제2장부터 제124장까지는 2행 그리고 제125장은 3행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은 국문 가사를 먼저 싣고 그것을 풀이한 한시를 뒤에 붙였다. 1445년(세종 27) 4월에 <용비어천가>가 처음 이루어졌고, 1447년 2월에 주석 작업이 박팽년(朴彭年), 강희안(姜希顔), 신숙주(申叔舟), 이현로(李賢老), 성삼문(成三問), 이개(李塏), 신영손(辛永孫) 등에 의해 마무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10월에 <용비어천가> 550권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간행 경과는 이 책의 첫머리에 실린 <진용비어천가전(進龍飛御天歌箋)>과 끝에 실린 <용비어천가발(龍飛御天歌跋)>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초간본은 권 1, 2의 1책만이 전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125장의 국문 가사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로, 조선왕조 건국의 어려움과 그 천명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여섯 대 선조의 행적은 모두 하늘의 명을 받들었다는 중국의 제왕의 그것과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 여섯 선조도 역시 하늘의 명을 받고 있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각 장은 국문 가사, 한시, 한문 주해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문 가사에 나오는 한자에 한자음은 달려 있지 않다. <용비어천가>는 문학적으로 볼 때, 고려 시대의 3음보율 시가에서 조선 시대의 4음보율 시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정형성을 찾기 어려우나 대체적인 경향성은 찾을 수 있다.

우선 각 장은 “먼저 중국의 옛날 제왕의 자취를 펴고, 다음에 우리 조종의 일을 서술하였습니다[先敍古昔帝王之迹 次述我朝祖宗之事]”라는 의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적을 노래하는 2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행은 3개의 통사 단위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우 통사 단위를 구(句)라고 한다면 1행에서 나타나는 음보율의 양상은 각 구가 2음보를 이루는 형태, 제1구와 제2구는 2음보 그리고 제3구는 3음보를 이루는 형태, 제1구와 제2구는 2음보 그리고 제3구는 4음보를 이루는 형태 등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1구와 제2구는 2음보로 굳어지는 고정성을 갖고, 제3구는 2음보·3음보·4음보가 혼재하는 가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전대(前代)의 시가와 비교해 볼 때 전대절(前大節)·후소절(後小節)로 분절되던 형태가 앞 절과 뒷 절이 대등한 자격으로 분절되며,

10장 이내의 연장 형식을 취하던 형태가 보다 길어진 형태로 장편화 되는 차이를 보여 준다. <용비어천가>는 그 내용이 “시종 일관한 스토리가 없이 산만하고 단편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이해될 수 있는 비서사시적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다른 영웅 서사문학과 마찬가지로 영웅의 일대기라고 하는 일정한 유형에 의하여 내용이 전개되는 영웅서사시이다.

다만 어느 한 영웅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 아니고, 6조(穆祖·翼祖·度祖·桓祖·太祖·太宗) 전체의 사적을 영웅서사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대체적으로 4조(四祖)의 행적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의 유형들이 나타나고, 태조와 태종의 행적에서는 영웅의 성장한 후의 유형들이 나타난다.

이 책은 한글 창제 이후의 최초 한글 문헌으로서 그 가치는 크다. <용비어천가>는 국문학과 국사 연구에도 이용되지만, 국문 가사와 주해 속에 나오는 고 유명사와 관직명의 한글 표기로써 국어사 자료로 소중하다.

<용비어천가>의 초간본은 활자본이었을 것이나 전하지 않고,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목판본이다. 현재 원간본으로 보이는 책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가람문고와 규장각도서에서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은 가람본으로 초쇄본(初刷本)으로 가장 좋은 판본이나 1·2권뿐이고 내사본이나 내사기(內賜記)는 없다. 규장각본도 목판본으로 가람본과 같으나 후쇄본이어서 탈자와 탈획이 많다. 같은 계통의 책이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에 있다.

그밖에 국문가사가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실록본이 있고, 광해군 4년(1612)에 간행된 목판본인 만력본(萬曆本), 효종 10년(1659)에 간행된 순치본(順治本), 영조 41년(1765)에 간행된 건륭본(乾隆本) 등이 있다. 이들 중 만력본은 규장각도서의 태백산본과 오대산본의 두 종이 있다. 1972년 아세아문화사에서 나온 영인본 등 현재의 영인본은 만력본 중 태백산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

는데, 만력본의 방점이 불완전했으므로 일제 시대 담당자들이 고판본에 의거하여 임의로 부분적으로 수정·보충 작업을 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정인지서문(鄭麟趾序文)」

정인지서문(鄭麟趾序文)은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의 맨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맨 앞에 있는 세종대왕의 서문과 구별하기 위하여 「정인지후서(鄭麟趾後書)」라고도 한다. 정인지 서문은 세종 28년 9월에 세종어제 서문(世宗御製序文), 훈민정음본문(訓民正音本文)과 함께 게재되어 있어서, 훈민정음해례본이 1940년경에 안동지방에서 발견되기 전부터 학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 특히 이 서문에는 訓民正音의 창제에 관하여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倣古篆)”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어서, 꾸준히 고전문자를 모방하여 창제하였다는 학설을 꾸준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천지사연의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소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어서 온갖 사물의 실상(實相)과 통하게 하였고, 삼재의 도리를 책에 신게 하니, 후세 사람이 능히 이를 바꾸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계는 기후와 토질이 나뉘어져 있으며, 말소리의 기운도 또한 서로 다르다.

그런데 대개 중국 이외의 나라말은 그 말소리는 있으나, 그 글자는 없다. 하여, 중국의 글자를 빌어 그 사용을 같이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해서 막힘이 없을 수 있겠는가? 요컨대 글자란 모두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여 같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은 예악(禮樂), 문장(文章)등 문물제도가 중국에 견줄만하나 다만 방언(方言) 이어가 중국과 같지 않다. 따라서 글 배우는 이는 그 뜻의 깨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법을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글자를 만들었는데, 관청과 민간에서는 이제까지도 그것을 쓰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어서 사용하므로, 어떤 것은 어색하고 어떤 것은 들어맞지 않는다. 비단 속되고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적는데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통달치 못하는 것이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비로소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으셨다.

이 글자는 상형해서 만들어진 글자 모양은 중국의 고전(古篆)을 본떴고,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음은 칠조에 맞고, 삼재의 뜻과 이기(二氣：陰陽)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게다가 이 28글자를 가지고도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고도 요긴하고 정(精)하고도 통하는 까닭에,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 글자로써 한문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써 송사를 심리하더라도 그 실정(實情)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가(樂歌)의 율려(律呂)가 고르게 되며,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어떤 경우여라도 이르러 통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바람 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

드디어 세종께서 저희들에게 자세히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분부하시니, 이에 신(臣)은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신 박팽년,

신 신숙주, 수찬 신 성삼문, 돈녕부 주부 신 강희안, 행(行) 집현전부수찬 신 이개, 신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해(解)와 예(例)를 지어서 이 글자에 대한 경계를 서술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바랐사오나, 그 깊은 연원이나 자세하고 묘한 깊은 이치에 대해서는, 신들이 능히 펴 나타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시정 업적이 백왕(百王)을 초월하여, 정음을 지으심도 어떤 선인(先人)의 설을 이어 받으심이 없이 자연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들어 있지 아니한 데가 없으니, 이는 어떤 개인의 사적(私的)인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저 동방에 나라가 있음이 오래 되지 않음이 아니나, 문물을 창조하시고 사업을 성취시켜 주실 큰 지혜는 대개 오늘을 기다리심이 계옵셨구나!

정통 11년 9월 상한, 자현대부·예조판서·집현전 대제학·지춘추관사·세자우빈객, 신 정인지는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 조아려 삼가 씀.

《고려사(高麗史)》

조선 초기 김종서(金宗瑞 : 1390~1453)·정인지(鄭麟趾 : 1396~1478) 등이 세종의 교지를 받아 만든 고려시대의 역사책.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연표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 총 139권으로 되어 있다. 태조 1년(1392) 10월 태조로부터 이전 왕조의 역사책을 만들라는 명을 받은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은 1396년 37권의 <고려국사>를 만들어 바쳤다. 정도전과 정충(鄭摠)이 책임을 지고 예문춘추관의 신하들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우선 통사인 이제현(李齊賢)의 <사략>, 이인복(李仁復)·이색(李穡)의 <금경록>, 민지(閔漬)의 <본조편년강목> 등의 체제를 참고하면서, 역대 고려실록과 고려말의 사초(史草)를 기본자료로 삼았다. 이것은 그 내용과 서술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1414년 하륜(河崙)·남재(南在)·이숙번(李叔蕃)·변계량(卞季良)에게 공민왕 이후의 사실을 바로잡고, 특히 태조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1416년 대표자인 하륜이 죽자 중단되었다.

이를 잇고자 하는 논의는 세종의 즉위 후 왕 자신에 의해서 제기되고, 마침내 세종 1년(1419) 9월 유관(柳觀)과 변계량 등에게 일을 맡기니, 이들은 1421년 정월에 다 만들어 올렸다. 이리하여 본래의 사초와 달리 마음대로 고쳤던 곳이 바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고려된 부분에서는 유교적이고 사대적인 관점이 오히려 강화되어 제척(制勅)·태자(太子) 등을 교(敎)·세자(世子) 등으로 고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책도 반포되지 못하다가 1423년 12월에 다시 유관과 윤희(尹淮)로 하여금 이 부분을 실록에 따라 바로 쓰도록 하고 있다. 1424년 8월 이 일은 끝났지만, 이번에도 변계량의 반대로 발간되지 못하였다.

세종은 1431년에 <태종실록>이 편찬된 것을 계기로 <고려사>를 다시 쓰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1442년 8월에 신개·권제가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바쳤다. 이 책은 1448년에 양성지(梁誠之)의 교감을 거쳐 일단 인쇄되었으나 편찬자 개인과 관련된 곳이나 청탁 받은 곳을 제멋대로 썼기 때문에 배포가 곧 중지되었다.

세종은 다시 1449년에 김종서·정인지·이선제(李先齊)·정창손(鄭昌孫)에게 명령을 내려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면서 이런 잘못을 고치게 하였다. 김종서는 드디어 문종 1년 8월에 이 책을 완성하였다. 이번의 작업에서는 늘어난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기 위하여 체제를 바꾸는 일도 아울러 이루어져, 최항(崔恒) 등

이 열전, 노숙동(盧叔全) 등이 기(紀)·지(志)·연표, 김종서·정인지 등이 교감을 맡았다. 열전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 있어서 비판이 거셀 것을 우려하여, 단종 1년(1452)에 조금만 인쇄하여 내부에 보관하다가, 1454년 10월에 이르러 비로소 널리 인쇄, 반포되었다.

<고려사>에 실려 있는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에는, 본기(本紀)라 하지 않고 세가(世家)라 함으로써 명분이 중요함을 보이고, 거짓 왕인 신우(申禰) 부자를 열전에 내림으로써 분수 넘치는 것을 엄하게 처벌하고 충직하고 간사함을 명확히 구분한다 하였으며, 제도를 나누고 문물을 헤아려서 비슷한 것끼리 모음으로써 계통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연대를 헤아릴 수 있게 하며, 사적을 상세하게 하는 데 힘을 다하고, 빠지고 잘못된 것을 메우고 바르게 하려 하였다는 편찬의 방침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침은 다시 범례에서 각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먼저 세가에 관한 것을 보면, 왕기는 세가라 하여 명분을 바르게 하고, 분수를 넘는 칭호도 그대로 써서 사실을 보존하며, 일상적인 일은 처음과 왕이 직접 참여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생략하며, 고려세계는 실록에 있는 3대 추증 사실을 기본으로 삼는다 하였다. 또한 우왕·창왕을 거짓 왕조로 규정하여 열전에 강등시켰으며,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제현 등의 평론을 그대로 실을 뿐, 따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세가에서는 32왕의 왕기가 46권에 수록되어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서술의 방식은 <원사(元史)>를 모방하여 첫머리에 왕의 출생, 즉위에 관한 것을 쓰고 끝 부분에 사망, 장례 및 성품에 관한 것을 썼다. 왕의 연대는 실제로는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삼고 있었으나, 이 책에서는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삼고 있다. 세가 다음에는 지(志)를 두었는데, 천문·역지·오행·지리·예·

악·여복·선거·백관·식화·병·형법 등 총 12지 39권으로 되어 있다. 이 지(志)도 <원사>에 준하여 분류하였으며, 실록 등이 없어서 빠진 곳은 <고금상정례>, <식목편수록> 및 여러 사람의 문집 등으로 보충하였다 한다.

그런데 실제 고려의 제도는 당나라 것을 기본으로 삼고 송나라 것이 덧붙여지고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고유의 전통이 깔려 있었다. 예를 들면, 원구·사직 등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토속적인 연등회·팔관회 의식이 중요시되었고, 중국의 아악(雅樂)과 당악(唐樂)을 사용하면서도 예로부터의 속악이 성행하였으며, 중국의 관제와 산관계(散官階)를 이용하였으나 또한 도병마사·식목도감 및 향직 등 독자적인 제도를 아울러 썼고, 당률을 채용하면서도 실제 고유의 관습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지(志)의 맨 첫머리에는 편찬자의 서문이 놓여 있는데, 대개 일반론과 실제 사실에 대한 개설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설명의 큰 줄기는 태조 이후 문종 때까지의 고려 전기를 제도가 정비되고 국세가 번창한 시기로 보고, 무신란 이후 몽골 간섭기에 들어서는 제도가 문란하여 나라가 쇠망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어 본문에서는 먼저 연월일이 없는 일반 기사를 쓰고 그 뒤에 연대가 있는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였다.

세가·지 다음으로 표가 들어 있는데, 실제 본문에서는 연표라 하여 하나의 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따랐다. 제일 위에 간지를 쓰고 그 아래 중국과 고려의 연호를 썼으며, 고려 난에는 왕의 사망과 즉위 및 중국과의 관계 등 중요한 일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열전을 두었는데, 후비전(后妃傳)·종실전(宗室傳)·제신전(諸臣傳)·양리전(良吏傳)·충의전·효우전·열녀전·방기전(方技傳)·환자전(宦者傳)·혹리전(酷吏傳)·폐행전(嬖幸傳)·간신전·반역전(叛逆傳) 등 총 50권, 1,009명으로 되

어 있다. 열전의 구성은 역시 <원사>를 모방하였지만, 그 서문은 이제현이 쓴 제비전(諸妃傳)이나 종실전의 서문처럼 이미 있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내용 중 반역전에 우왕 부자를 넣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고 있고, 문신 위주, 과거 위주로 인물을 선정하여 조선 유학자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홍망사관에 입각하여 개국공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개별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전부터 있던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비교적 공정하게 쓰려고 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개찬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종래의 편년체의 역사서술에서 기전체로 편찬된 <고려사>는 첫째, 동양의 전통적인 왕조사 편찬방식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있던 사료를 선정 채록하여 그 나뉠음으로 재구성하였으므로 역사성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둘째, 이렇게 사실을 있는 대로 쓰려고 애썼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체성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그러면서도 한편 편찬자인 유학자의 사대적인 명분론이 반영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을 큰 원칙으로 하여 고려시대를 이해하고 있는데, 첫째, 홍망사관에 의해 고려 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후기를 부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조선 건국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둘째, 무인(武人)을 천하게 보는 관념과 왕실의 권리를 도둑질하여 나라를 마음대로 한 데 대한 정통론의 입장에서 무신정권을 부정적으로 쓰고 있다. 셋째, 원나라를 섬긴 부분에 대하여 대명관계가 확립된 시기에 해당하는 고려사 편찬자는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 그 이전 시기에 기록된 고려사 속 사신(史臣)의 견해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여 있다. 넷째, 고려 말 개혁론자의 견해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에서 고려 당시의 사실과 다른 점이 생기게 되었다.

- ▶ 저서 : 學易齋集
- ▶ 편서 : 歷代曆法, 資治通鑑訓義, 歷代兵要
- ▶ 문헌 : <太宗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海東名臣錄>, <國朝人物考>, <新增東國輿地勝覽>,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정 종 (鄭 惊) ? ~ 세조 7년 (1461)

본관은 해주(海州), 시호는 헌민(獻愍).

세종 32년(1450) 문종의 딸 경혜공주(敬惠公主)와 결혼, 영양위(寧陽尉)가 되고, 단종 초 형조판서로서 왕의 신임을 받았다. 단종 3년(1455) 수양대군 제거를 모의한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친교가 있었다 하여 영월에 유배되었다.

이 해 수양대군이 즉위, 문종의 유일한 사위라는 점을 참작, 양근(楊根)에 양이(量移)되었으나, 세조 2년(1456) 사육신(死六臣) 사건으로 죄가 가중되어 수원(水原)을 거쳐 통진(通津)·광주(光州)에 안치되었다. 1461년 승려 성탄(性坦) 등과 모반을 꾀하였다 하여 능지처참되었다. 영조 때 신원(伸寃)되었고 시호가 내려졌다. 단종묘와 공주 동학사(東鶴寺) 숙모전(肅慕殿)에 배향되었다.

- ▶ 문헌 : <韓國人名大事典>

정 태 화 (鄭太和) 선조 35년 (1602)~현종 14년 (1673)

조선 문신. 자는 유춘(囿春), 호는 양파(陽坡), 본관은 동래(東萊), 참판 광성(廣成)의 아들.

1. 생 애

인조 6년(162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인조 8년(1630)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지냈다. 1631년 정언(正言)을 거쳐 이듬해 이조좌랑, 이어 부교리(副校理)·헌납(獻納)·사인(舍人)·부응교(副應敎)를 역임, 인조 13년(1635) 사간(司諫)·집의(執義)가 되었으며 1637년 세자시강원의 보덕이 되어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따라 심양(瀋陽)에 가기까지, 당하관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홍문관에서는 수찬·교리·응교를, 사간원에서는 정언·헌납·사간을, 사헌부에서는 집의를, 세자시강원에서는 설서·사서·필선을, 성균관에서는 사예·사성을 각각 지냈고, 또, 행정부서에서는 예조의 좌랑, 이조의 좌랑·정랑, 의정부의 사인, 예빈시(禮賓寺)·제용감(濟用監)·장악원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면서 1631년 시강(試講)에서 우등으로 뽑혀 숙마(熟馬) 1필을 수상하는 문재를 보였고, 또 사간으로 있던 1636년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원수부의 종사관에 임명되어 도원수 김자점(金自點)휘하에서 군무(軍務)에 힘쓰다가 병자호란을 맞아 황해도의 여러 산성에서 패잔병을 모아 항전하는 무용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듬해 비변사가 유장(儒將)으로 합당한 인물 4인을 천거하는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것도 이 까닭이었다.

1637년 말 심양으로부터 귀국하자 그 이듬해 충청도관찰사로 발탁되어 당상관

에 올랐다.

그리고 6개월만에 승정원동부승지가 되어 조정에 돌아온 이후 1649년 48세의 나이로 우의정에 오르기까지, 육조의 참의·참판, 한성부우윤·대사간, 평안도·경상도의 관찰사, 도승지 등을 두루 지내다가 1644년 말부터는 육조의 판서와 대사헌을 되풀이 역임하였다.

이 무렵은 소현세자의 죽음과 그 후계문제로 조정 정신(廷臣)들 사이에 심한 충돌이 일고 있었고, 그 결과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姜氏)가 사사(賜死)되고 그 아들들이 제주에 유배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어서 중진관료로서의 처신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조·형조·사헌부의 장관과 같은 난감한 직책을 되풀이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성품이 온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적대세력을 두지 않았던 까닭으로 전하고 있다.

심지어는 뒷날에 사신(史臣)이 “조정의 의논이 자주 반복되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그의 영현(榮顯)은 바뀌지 않았으니, 세상에서는 벼슬살이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그를 으뜸으로 친다.”고 평할 정도였다.

우의정에 오른 직후 효종이 즉위하자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 연경(燕京)에 갔고, 그 뒤 곧 좌의정에 승진되었으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향리에 머무르다가, 효종 2년(1651)에 상복을 벗으면서 영의정이 되어 다시 조정에 나아갔다.

현종 14년(1673) 심한 중풍 증세로 사직이 허락되기까지 20여 년 동안 5차례나 영의정을 지내면서 효종과 현종을 보필하였다.

북벌정책과 예송(禮訟)으로 신료들의 반목이 격화되던 시기여서 당색을 기피하였고, 또한 치화·만화·지화 등을 비롯한 일가 친족들이 현·요직에 많이 올

라 있었으므로 매우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정가(鄭哥)가 모두 움직인다.”는 야유를 듣기도 하고, 또 “재주가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숙하여 나라일은 적극 담당하려 하지 않고 처신만을 잘하니, 사람들은 이를 단점으로 여겼다.”는 비평을 듣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기의 예송에서 일어나기 쉬웠던 선비들의 희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형제들은 이 무렵 청나라와의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나라의 고위관원들과도 적절히 교류하였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당할 때마다 대체로 그나 그의 형제들에게 해결의 책무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가 노구를 무릅쓰고 1662년에 진하겸진주사(進賀兼陳奏使)로 연경에 다시 다녀온 것도 이 까닭이었다.

1673년 다섯 번째의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난 지 6개월이 되던 달에 나이 72세로 죽으니, 현종은 3년 동안 능록(廩祿)과 제수를 내리도록 특명하였으며, 그 뒤 현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익헌(翼憲), 뒤에 충익(忠翼)으로 바꿨다.

2. 저 술

《양파연기(陽坡年紀)》

필사본. 2권 2책. 규장각 도서. 선조 35년(1602)부터 효종 7년(1656)까지 55년 동안에 걸친 공사(公私)의 크고 작은 일을 기록한 것이다. 3차례나 영의정을 지낸 저자의 일기이므로, 당시의 국내실정 및 초기의 대청관계(對淸關係)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양파조천일록(陽坡朝天日錄)》

필사본. 2권 1책. 권1은 인조 27년(1649) 3월 20일 사은사(謝恩使)로 서울을 떠나 5월 11일에 베이징[北京]에 도착하여 7월 26일 서울에 돌아올 때까지의 기록, 권2는 현종 3년(1662) 7월 26일 청나라의 윈난[雲南] 평정을 축하하기 위한 진하사(陳賀使)로 허적(許積)·이동명(李東溟)을 대동하고 서울을 떠나 10월 20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가 이해 12월에 귀국하기까지의 기록을 각각 수록한 것이다.

당시의 대청관계(對淸關係)를 알아보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1961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大東文化研究院)에서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하(下)에 수록하여 영인·출판하였다.

▶ 저서 : 陽坡遺稿, 陽坡年紀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桐巢漫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通津縣先生案>

정 희 량 (鄭希良) 예종 1년 (1469)~?

자는 순부(淳夫), 호는 허암(虛庵), 본관은 해주(海州), 부사(府使) 연경(延慶)의 아들.

1. 생 애

김종직(金宗直)의 문인. 성종 23년(1492)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으나,

성종이 죽자 태학생(太學生)·재지유생(在地儒生)과 더불어 올린 소가 문제되어 해주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연산군 1년(149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의 권지부정자에 임용되었다. 이듬해 김전(金詮)·신용개(申用溉)·김일손(金駟孫)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될 정도로 문명이 있었다.

1497년 예문관대교에 보직되어 ①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아 경연(經筵)에 근면할 것, ② 간언을 받아들일 것, ③ 현사(賢邪)를 분별할 것, ④ 대신을 경대(敬待)하며, 환관을 억제할 것, ⑤ 학교를 숭상하며 이단을 물리칠 것, ⑥ 상벌을 공정히 하고 재용(財用)을 절제할 것 등의 소를 올린 바 있다.

다음해 선무랑·행예문관봉교로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무오사화 때에는 사초문제(史草問題)로 윤필상(尹弼商) 등에 의하여 신용개·김전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았는데, 난언(亂言)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장(杖) 100, 유(流) 3,000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 5월 김해로 이배되었다.

이듬해 유배에서 풀려나 직첩을 돌려받았으나 대간·홍문관직에는 서용될 수 없게 되었다. 그 해 어머니가 죽자 고향에서 수분(守墳)하다가, 산책을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총민박학(聰敏博學)하고 문예에 조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양학(陰陽學)에도 밝았으며, 영달에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2. 관련 사건

(1) 무오사화

사람과의 중앙 진출을 보면, 세조 때 중앙집권·부국강병을 지나치게 추구하

고, 훈구 대신들이 권력·재산을 모으자, 성종 때 김종직(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사림파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 정계로 진출하였다. 3사(三司 : 司諫院 · 司憲府 · 弘文館)의 언론직(言論職) 및 사관직(史官職)을 차지하면서 훈구 대신의 비행(飛越)을 폭로·규탄하고, 연산군의 향락을 비판하면서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였다.

한편 훈구파는 사림파를 야생귀족(野生貴族)으로 보고, 사림이 봉당을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힌다고 비난하여 연산군 이후 그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직과 유자광은 일찍이 개인감정이 있었고,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성종 때 춘추관(春秋館)의 사관(史官)으로 있으면서 훈구파 이극돈(李克墩)의 비행과 세조의 찬탈을 사초(史草)에 기록한 일로 김일손과 이극돈 사이에도 반목이 생기게 되었다. 유자광·이극돈은 김종직 일파를 증오하여 보복에 착수하였다.

1498년 <성종실록>을 편찬하자, 실록청(實錄廳) 당상관(堂上官)이 된 이극돈은, 김일손이 사초에 삽입한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 하고, 이를 문제삼아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에게 고하였다.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심문하고 이와 같은 죄악은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었다.

사림파 김일손·권오복(權五福)·이목(李穆)·허반(許盤)·권경유(權景裕) 등은 선왕(先王)을 무록(誣錄)한 죄를 씌워 죽이고, 정여창(鄭汝昌)·강겸(姜謙)·이수공(李守恭)·정승조(鄭承祖)·홍한(洪澣)·정희량(鄭希良) 등은 난을 고하지 않은 죄로, 김굉필(金宏弼)·이종준(李宗準)·이주(李胄)·박한주(朴漢柱)·임희재(林熙載)·강백진(姜伯珍) 등은 김종직의 제자로서 봉당을 이루어 조의제문의 삽입을 방조한 죄로 귀양보냈다.

한편 이극돈·유순(柳洵)·윤효손(尹孝孫)·어세겸(魚世謙) 등은 수사관(修史官)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하지 않은 죄로 파면하였다. 이로써 사화 발단에 단서가 된 이극돈이 파면된 뒤 유자광은 그 위세가 더해진 반면, 많은 사람과 인사들이 희생되었다.

(2) 정희량에 얽힌 일화

그는 글을 잘 지어 명성을 날렸고 특히 역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가 벼슬을 하고 있을 때, 성종이 돌아가셨는데 허암은 복을 입고 성균관 유생들을 거느리고 ‘성종을 위하여 불사를 한다’고 글을 지어 올렸는데 그 글이 문제가 되어 귀양 보내졌다가 얼마 후 풀려났다.

연산군 2년(1496) 김전·신용개·김일손 등과 함께 사가독서가 될 정도로 문명이 있었다. 1497년 예문관 대교가 되어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아 경연에 근면할 것 등 열 가지 소를 올린 바 있다.

다음 해 선무랑 행예문관봉교로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무오사화 때에는 사초문제로 윤필상 등에 의하여 신용개·김전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았는데, 난언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장 100대, 유 3,000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이배되었다가 다시 김해로 이배되었다. 그는 유배중에 어머니상을 당하였는데 죄인이라서 집에 가지 못하였다.

이듬해 유배에서 풀려나 직첩을 돌려받았으나 대간, 홍문관직에는 임명될 수 없게 되었다. 그 해 어머니가 죽자 고양에 있는 어머니 묘에서 시묘(侍墓)한 뒤 단오날에 종들을 모두 밖에 내보낸 다음 집이 빈틈을 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집에 돌아온 종들이 허암을 찾아 헤맸으나 종적을 알 수 없었고 다만 한강 백사장에 그의 신 두 짝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빠져 죽은 줄

알고 강을 뒤졌으나 시체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때 그는 부평땅 서곶 검암동 허암산에 은거하다가 폭군인 연산군에게 알려지면 불리할 것을 알고 행방불명이 되었던 것이다.

충민박학하고 문예에 조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양학에도 밝았으며, 영달에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개풍군 풍덕에서 수묘살이 하다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정희량은 이천년으로 변성명하고 안동, 묘향산 등의 산사를 유람하다가 만년에 평안북도 정주군 심원동에서 생애를 마치었다고 한다. 현재 그의 후손이 평북 정주에서 월남하여 부평에 살고 있다.

정희량은 심성이 강직하고 영달하는 마음이 없었고 문장과 시에 능하고 음양학에도 밝았다. 정희량이 김포 강변에서 자취를 감출 때 남긴 시가 전하여지고 있다. 그 시에 적혀있기를 “해저문 강상(江上)에 찬 물결 절로 이는데 쪽배는 이미 강가에 대어 있으되 밤사이 풍량은 사납겠구나.” 하였다.

그는 또 가천 원벽에다 써 놓기를, “새는 무너진 담구멍으로 보고 중운 석양에 샘물을 길네. 산과 물을 집으로 삼는 손님의 천지는 어디가 끝인고.”하였다.

“어제 분 비바람에 놀라, 문명한 이 때를 저버렸네. 괴로울지라도 간에서 놀고 있으니 시끄러움이 싫어도 시조차 짓지 않으려다.”

이행이 이곳을 지나다가 이 시를 보고 허암의 시임에 틀림없다고 물으니 헌누더기를 입은 중이 조금 전에 이곳을 지나갔다고 대답하였다.

일찍이 음양학에 정통한 그는 장안에 소문난 점쟁이들을 찾아가 점도 치고 대화를 나누어 본 뒤 주부 오순형을 빼고는 전부 엉터리라 했다.

그는 또한 축지법에 능하여 어릴 때 그의 부친이 강원도에서 고을살이를 했는데 그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나서 어머니 보고 “아버지 좀 뵙고 오겠습니다.”하고 떠났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부친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놀라

게 한 일이 있었다.

3. 작 품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두 편의 시를 소개한다.

「춘한(春寒)」

물나라에는 아직도 봄이 얹어,
추위가 그 위엄을 풀지 않았다.
미친 사람은 아직도 요초(料峭)하고,
가랑비는 스스로 염섬(廉纖)하여라.
땅이 궁벽하여 지나가는 이 적고,
몸이 외로운데 노병(老病)을 겪었구나.
약간의 따뜻한 빛도 참으로 좋아,
등을 쬔며 처마 밑에 앉는다.

「음 공검지 제 퇴암 (吟公檢池題退庵)」

거친 땅을 처음으로 다루어,
소연(蕭然)히 거기에 퇴암(退庵)을 짓다.
갈매기와 더불어 시냇달을 다투고,
산을 이웃하여 맑은 놀음 간직한다.
야복(野服)은 마름과 연꽃에서 늠냈는데,
산노(山奴)는 굴과 유자를 보태었다.

이 강호(江湖)가 어찌 좋지 않은가,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참여하거니.

▶ 문헌 :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海東名臣錄>, <韓國人名大事典>,
<金陵郡誌>

조 건 (趙 健) 현종 14년 (1673) ~ 숙종 45년 (1719)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 자산부사(茲山府使)를 지냈으며 북방주민의 안민(安民) 치적(治績)에 전력(全力)을 다하여 임지(任地)에서 순직(巡職)하였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관 증 (趙寬增)

자는 순재(舜在), 호는 중농(仲農)이다. 성균관(成均館) 도집례(都執禮)였고, 벼슬은 도감랑 통훈대부 도지부 주사 법무주사평양공소운재판주사, 고촌면장(高村面長)을 역임하였다. 묘는 고촌면 풍곡동에 있다.

조 급 (趙 伋) 숙종 38년 (1712)~정조 9년 (1785)

자는 은중(恩仲),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학덕과 품행이 방정하고 장수하여 향당(鄉黨)의 귀감이 되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기 태 (趙祺泰) 영조 33년 (1757)~순조 33년 (1833)

자는 노경(怒卿),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했다. 수가자(壽加資)로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제수 받았다.

90여 세의 아버지를 극히 편안히 모시어 온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농가의 가난을 극복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연중 주야를 불문하고 아버이를 섬기며 주경야독(晝耕夜讀)하여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도리를 다하였다. 엄동설한에 70세 노인이 새벽에 일어나 시근방에 군불때기와 찬옷을 자기가 먼저 입어서 녹여 아버지를 입혀 드리고 용변 수발 목욕 등 까지 하며 편안히 모셔 그 아버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4대 동거의 대가족이 이를 따르고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이루었다 전한다. 아직도 생존한 80여 세 노인 등이 이 사실을 전하여 나라에서 내린 효자정문(孝子旌門)이 있었음을 전한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대 (趙 垓) 영조 13년 (1737)~순조 1년 (1801)

본관은 평양(平壤),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중 병조참판(贈兵曹參判)을 제수 받았다. 북방 국경 근무 시 공이 많았다고 전한다. 묘는 통진면 고정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동 하 (趙東夏) 숙종 36년 (1710)~영조 31년 (1755)

자는 성대(聖大), 본관은 평양(平壤), 평안병사관지포도대장(平安兵史官至捕盜大將)을 지냈다.

열선조가 끼친 교훈을 지켜 충효관(忠孝觀)이 뚜렷하니 성실히 근무하여 지존(至尊)의 포상과 치하를 받았다고 전하여 내려온다. 각 지방 수령 방백으로 재직할 때도 장수로써 국가와 향당에 끼친 칭송이 자자하였다. 묘는 통진면 고정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두 석 (趙斗錫) 영조 45년 (1769)~순조 21년 (1821)

조선 무신, 자는 경칠(景七),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정조 24년에 무과에 올라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도사를 역임하였다. 사후

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명 귀 (趙名龜)

자는 수경(壽卿), 본관은 백천(白川), 유술(有述)의 아들, 김포에 살았다. 현종 12년(1846) 춘당대(春塘臺)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조 명 호 (趙命鎬) 고종 32년 (1895)~1951

자는 영배(永配),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구한말(舊韓末)에 태어나 가혹한 일제치하(日帝治下)를 거치고 광복을 맞고, 다시 6·25 전쟁을 체험하고, 재수복, 1·4 후퇴 이후까지 파란만장한 정변으로 인한 격동(激動)의 세월이 지난 후 하성면 지역 사회에서 힘없는 자의 구휼에 힘써온 귀인(貴人)이었다. 하성면장직을 재임하는 등 정치 계몽 지원운동 등에 앞장 선 지도자였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목 (趙 默) 인조 7년 (1629)~숙종 30년 (1704)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사용(士容)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을 제수 받고 사마시(司馬試) 진사(進士)를 지냈다. 통진부(通津府) 원통(元通 : 현재 원산리)에서 출생했다.

통진의 유림(儒林)들과 교유하고 효제충신제가(孝悌忠信齊家)와 선영(先塋)을 보호하고 향당(鄉黨)의 인륜지도(人倫之道) 교화에 힘써 못사람의 사표(師表)가 되어 명성이 높았다. 아들 세망(世望)에 의해 호조참판으로 증직(贈職)되었다. 묘는 통진면 고정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문 석 (趙文錫) 순조 27년 (1827)~1908

조선조 문신, 자는 군강(君綱), 본관은 평양(平壤), 통진면 동을산리에서 출생하였다.

벼슬이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학행(學行)이 뛰어나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으며 못사람들에게 덕행을 베풀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봉 호 (趙奉鎬) 高宗光武 7년 (1903)~ 6.25拉北 (실종)

자는 영진(永振),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항시 온화하고 후덕한 성품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았다. 과도 정부 때부터 민주화 정책에 동화협력(同和協力)하여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지역 사회에서 기여한 공로가 매우 컸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하성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하여 북의 도발 후 납북(拉北)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 삽 (趙鋌) 선조 36년 (1603)~ 현종 15년 (1674)

자는 인보(仁甫), 호는 추포(秋浦)이다.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역임하였다.

인조 14년 우리나라에서 명(明)을 인정하고 청(淸)을 배척한다 하여 청의 임금인 14만기를 통솔하고 의주(義州)에서 서울로 오자,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하고 대신에게 명하여 종묘(宗廟)의 위패(位牌)와 빈궁원 손봉임인평양대군을 피난하게 하였다. 또한 병자호란 때는 의분을 참지 못했으며 나라가 위급할 때는 근심 없이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왕족(王族)을 호위(護衛)하여 갑곶진에 이르기도 했다. 그리고 공은 충효(忠孝)와 도의(道義)에 힘쓰고 지조(志操)를 확고히 하였으며, 학문을 연구하는 데 정진했으며 생활을 순결히 하였다. 묘는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신동에 있다.

조 상 현 (趙常顯) 현종 10년(1844)~고종 41년(1904)

자는 여로(汝老),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1년(1864)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판관(判官), 첨정(僉正),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 등을 역임하였다. 탁월한 무예로 명성이 높았으며 치안관으로서 선치(善治)한 공로가 지대하였다고 전한다. 묘는 하성면 하시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세 망 (趙世望) 현종 3년(1662)~영조 1년(1725)

자는 여구(汝久), 본관은 평양(平壤)이며 하성면 원산 2리에서 출생하였다.

숙종 22년(1696) 식년방 무과(武科) 내직(內職)으로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사(都事) 및 사복시내승(司僕寺內乘) 훈련원 정 금위영중군(禁衛營中軍)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냈으며 외직으로 초계군수, 부산첨사, 장흥 및 죽산·선천·회령부사,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황해 평안병사 등을 지냈다.

구척장신(九尺長身)의 효행(孝行)이 지극하고 무언(無言) 실천형의 맹장이었다. 경상도 금산군수 당시 적포 왜인(倭人)의 잦은 출몰로 백성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장군이 정벌하여 굴복시켜 군민이 감복하고 송덕입석(頌德立石)하였다. 경원군수 재직 시 북방 호인의 침몰로 국경을 혼란케 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어 토벌하고 굴복시키므로 국경 수비가 안정되어 선치하였다. 또 관북 병마절도사로서 압록강을 건너 침범하는 호인을 정벌하고 낚은 성루를 보수

하였으며 수비에 만전을 다하였다. 전투에 임하여 칼을 뽑아 마상에 오르면 죽기를 맹서하고 숙련된 무술과 기교를 다하니 가는 곳마다 승승개신(勝勝凱旋)하였으니 조야(朝野)에서 송덕성이 높았다. 후일 조정에서 원종공신훈(原從功臣勳)의 공로 표창을 받고 병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顯宗實錄>, <平壤趙氏大同譜>

조 세 발 (趙世發) 효종 3년 (1652)~숙종 6년 (1680)

호자. 본관은 평양(平壤), 남양(南陽 : 화성) 출생이며, 자는 자장(子章). 유(猷)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지효(至孝)하고 문장에 뛰어났다. 서법에도 탁월하여 송설체에 능하였다. 현종 6년(1665) 부친상을 당하여 애곡하고 통음함이 몹시 심하였고, 숙종 4년(1678) 모친상을 당해서는 집례(執禮)의 예절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상중에는 추운 겨울이나 복(伏) 중에도 상복을 벗지 않고 오직 눈물로 세월을 보내 주위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종형(宗兄)이 부친의 묘소를 천장하려 함에 지사(地師)가 자리는 좋으나 옮기지 않으면 중간 자손이 나쁘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중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묘자리가 좋으면 부친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니 나는 패념치 말라 하였다. 부친의 상을 마치고 병으로 돌아가니 향리에서 포상을 청하여 효자정려의 은전이 배풀어졌으며,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김포시 김포읍 감정리에 있다. 영조 16년(1740)에 건립된 비의 묘갈명은 진선(進善) 윤동원(尹東源)이 짓고 서명균(徐明均)이 썼으며 조현명(趙顯命)

이 전액(箋額)을 하였다. 또 <세보(世譜)>에는 교리(校理) 김광세(金光世)가 지은 행장이 전한다.

조 세 보 (趙世輔) 숙종 2년 (1676)~?

자는 덕수(德叟),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건공장군(建功將軍) 행동산포진 첨절제사(行登山鋪鎮僉節制使)를 거쳤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수군의 기지 사령관으로서 해상 방어에 힘쓰고 임지에 어려운 백성을 구휼하였다고 전한다. 묘는 통진면 서암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세 완 (趙世完) 숙종 11년 (1685)~영조 25년 (1749)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했다. 현량과(賢良科)로 오우포덕포진첨사(吾又浦德浦津僉使)를 지냈다.

효종(孝宗)의 북벌정책(北伐政策)에 따라 강군(强軍) 육성령(育成令)이 내려 군비 및 무인 양성에 힘입어 서울 서부 관문의 수비(守備) 요충지인 덕포진에서 사령관(司令官)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다. 묘는 통진면 고정리에 있다.

▶ 문헌 : <肅宗實錄>, <平壤趙氏世譜>

조 세 좌 (趙世佐) 숙종 4년 (1678)~영조 31년 (1755)

자는 국래(國來),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향토를 지키고 살면서 주야로 갈고 닦아서 일하며 향당의 제생들을 교화하였으니 그 덕업(德業)의 뿌리가 깊이 내렸다. 묘는 통진면 동을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수 증 (趙壽增)

자는 수경(壽卿), 초명(初名)은 명구(名龜)이다. 현종 6년 정시문과(廷試文科) 무신초사목능별검(戊申初仕穆陵別檢), 이배기린찰방역(移拜麒麟察訪歷) 이조좌랑(吏曹佐郎) 개성경력사간(開城經歷司諫) 집의(執義) 경기도사(京畿道事)를 역임하였다. 묘는 김포시 고촌면 가장현에 있다.

조 수 헌 (趙守憲) 명종 2년 (1547)~광해군 14년 (1622)

조선 문신, 자는 사성(師聖), 호는 귀로헌(歸老軒), 본관은 풍양(豐壤)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정권(廷權)의 아들로 숙부 정량(廷樑)에게 입양.

선조 9년(1576)에 생원이 되고 세자익위사부솔(世子翊衛司副率), 형조좌랑 등을 지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에 생부모(生父母)가 모두 전란으로 죽

자 양주에 장사 지내고 4촌 수준(守準)과 군사를 규합, 왜적을 물리칠 결심을 하고 고경명(高敬命)의 아들 고종후(高從厚)가 복수장(復讎將)이 되어 기병하자 따르기로 하였다. 이 때 임피현령(臨陂縣令)이 되었다가 이어 태인현감(泰仁縣監)이 되어 군량과 병기를 조달하고 뒤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이 되었다.

선조 34년(1601) 영월군수(寧越郡守)에서 품계가 4품으로 뛰어오르는 인사에 사헌부에서 논란하였고 선조 38년(1605) 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 부정(副正)을 역임했고 광해군 4년(1612) 재종제인 수륜(守倫)이 평택현감으로 무옥(誣獄)에 연루, 큰아들 탁(濯)이 함께 화를 당하자 사직하고 통진 장정촌(長井村)에 은거했다.

광해군 10년(1618) 폐모론이 일자 그 부당성을 역설, 자손들에게 사환(仕宦)에 의 단념과 형에게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인조 때 좌승지에 추증되고 헌종 때 이조 참관을 추증했고 고종 7년(1870) 왕명으로 정문(旌門)을 세웠다. 묘는 김포시 통진면 고정리에 있다.

▶ 문헌 : <金浦郡誌>

조 속 (趙 倅) 영조 7년 (1731)~순조 22년 (1822)

자는 후숙(厚倅),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첨지(僉知)에서 동지(同知)로 가승계(加承階), 장수하여 덕업으로 충실봉사하며 후세 교화에 전력한 공이

투철하여 조가(朝家)에서 사은(謝恩)하였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승 현 (趙承顯) 현종 4년 (1838) ~ 고종 37년 (1900)

자는 의경(宜卿),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철종 9년(1858) 무과(武科) 급제, 당하선전(堂下宣傳)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관관(判官), 첨정(僉正), 외직으로 광양현감(光陽縣監) 초산부사(楚山府使) 검사복장(兼司僕長),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 강계부관찰사(江界府觀察使)를 지냈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식 (趙 軾) 세종 2년 (1420) ~ 중종 1년 (1506)

본관은 평양(平壤)이며 고려 말 충절신(忠節臣) 송산(松山) 조견(趙狷) 선생의 손자로서 선조부 및 선친의 엄한 유훈(遺訓)에 따라 이씨 조선에 불사(不仕)하였다. 세조 1년(1456) 단종(端宗)을 몰아내고 세조(世祖)가 등극함에 불운을 탄핵(彈劾)하여 복위(復位) 운동을 하다가 실패하니 이른바 세조의 왕위 찬탈(篡奪)에 반대한 절신(節臣)으로 연좌(連坐)되어 그 화가 두려워서 통진현(通津縣) 동방 동성산(童城山) 서록에 은거하였다. 조선 왕조는 여말 절신에게 군

신유의(君臣有義)를 본받은 신하의 도리에 귀감이 된다 하여 그 후손들에게까지 후사(厚賜)하여서 어모장군충좌위부호군(禦侮將軍忠佐衛副護軍)을 내렸으나 받지 않고, 낙향 이후 50년 간에 걸쳐서 무예 연마와 탁월한 학문으로 후학에 힘쓰니 조가(朝家)와 향당(鄉黨)에서 전하기를 3대 충절가(忠節家)라고 일컬었다.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를 추증(追贈)했으며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杜門洞72人碑文>, <麗末忠義列傳>, <杜門洞書院誌>, <平壤趙氏大同譜>

조 심 석 (趙心錫) 영조 48년 (1772) ~ 순조 22년 (1822)

조선조 무신, 자는 경일(景一),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순조 5년 무과에 급제, 선전관(宣傳官),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등을 거쳐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도사를 지냈다. 묘는 하성면 하사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심 태 (趙心泰) 영조 16년 (1740) ~ 정조 23년 (1799)

조선 무신. 자는 집중(執仲). 본관은 평양(平壤), 통제사 경(敬)의 아들. 일찍이 무예에 뛰어나 음보로 선전관이 되었고, 영조 44년(1768)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무관직을 두루 거친 다음, 정조 9년(1785)에 충청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같은 해 3도수군통제사로 승진한 뒤, 좌포도대장·총융사에 이어 1789년에 수원부사로 임명되었다.

이때 수원이 매우 중시되어 현릉원(顯隆園)을 옮겨오는 일, 도시규모를 확대하는 일 등 어려운 임무가 많았으나 이를 모두 차질 없이 처리하여 큰 공적을 남기고, 1791년 훈련대장으로 직을 옮겼다.

정조(正祖)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위하여 수원성을 쌓고 능침(陵寢)을 옮기니 특명으로 설계하고 감수하여 팔달산에다 축성하였다. 또한 정조의 행궁 정리, 행진도를 그려서 질서정연한 행궁에 기여한 공로와 수원시의 금일의 발전에 기반을 세운 기린각에 그려 모실 승평 양장이라 하였다. 특히 수원성의 축성은 근대 축성 문화에 다시없는 문화유산이며 방어와 공격 전술 등에 그 과학적 용도를 높이 평가하여 세계적인 문화재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병제를 개편하여 군사력 동원과 운영에 기여하였다. 특히 수원유수는 종2품관의 자리이나 정조의 특명에 의하여 이후부터 정2품관으로 승계 발령토록 하였다.

그 뒤 총융사·금위대장·어영대장 등을 역임하였고, 1794년 승격된 수원부유수로 다시 등용되어 수원성 축성, 화성봉수대(華城烽燧臺)설치 등의 방어시설은 물론, 호수를 중심으로 송림을 보호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의 공헌은 적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전후 5년 간을 수원지방관이 된 그는 왕으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아 논공행상에서 우의정 채제공(蔡濟恭)과 함께 가장 뚜렷한 공신으로 평가되어 전민(田民)을 상으로 받고 관계가 승자되었다.

1797년 이후 한성판윤·형조판서·대호군·장용대장(壯勇大將)을 지냈다.

무관으로서는 보기 드문 명필이었으며, 특히 대자(大字)에 뛰어났다. 정조는 예장을 갖추어서 치제문(致祭文)을 내리고 노적(勞績)을 치하하여 종 1품의 반

열인 좌찬성에 추증하였고,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묘는 김포시 김포읍 감정리에 있다.

- ▶ 문헌 : <正祖實錄>, <耳溪集>, <華城城役儀執>, <平壤趙氏族譜>,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金浦郡誌>

조 언 태 (趙彦泰) 숙종 35년 (1709)~정조 5년 (1781)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했다. 사마시(司馬試) 진사(進士), 수가자(壽加資)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를 제수 받았다. 탁월한 학덕으로 후세 교화에 진력한 공이 있어 지역 사회에서 덕성이 높았다. 73세를 수(壽)하면서 아들의 양명으로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엄 (趙儼) 숙종 5년 (1679)~영조 27년 (1751)

자는 매헌(梅軒), 본관은 평양(平壤).

무과에 급제 외직으로서 전라병사(全羅兵使), 내직으로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을 지냈다. 사대부가의 전통을 이어 받아 문무변(文武邊)을 고루 거친 지략이 높은 명장(名將)으로서 그 업적이 지대하다. 묘는 통진면 고종리에 있다.

-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여 학(趙汝學) 광해군 1년(1609)~숙종 15년(1689)

본관은 풍양(豐壤) 김포출신, 자는 서직(西直), 예조참판 조탁(趙濯)의 아들. 부친이 예조참의로 있을 때 평택현감과 함께 시사(時事)에 휩쓸려 옥사를 치루고 난 후, 병을 어어 돌아가자 원통해 하고 호읍(號泣)함을 참지 못하였다. 집례(執禮)하는 데는 정성을 다하여 3년 상을 치루었고 눈·비를 가리지 않고 매일 성묘하여 읍혈(泣血)하였다. 모친 역시 부친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병이 들어 돌아가시자 더욱 애통해 하며 3년을 시묘(侍墓)하였다. 고종 때 이르러 조정에서 효자정문을 하사하여 효행을 포상하였다. 정려문은 현재 통진면 고정리에 보존되어 있다.

▶ 문헌 : <金浦郡誌>

조 연(趙 然) 인조 23년(1645)

본관은 평양(平壤), 향학(鄉學)의 유생. 통진부 원통에서 출생하였다. 학행저어세(學行著於世)하여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이 투철하였으니 승평양재인(升平良材人)이라고 하는 칭송이 전하였다. 안으로 선영(先塋)의 가르침에 따라 수신제가(修身齊家)에 힘써 위로 아버지 섬기기와 슬하를 잘 이끌어 명실공히 그 행장(行狀)이 슬하에 미쳐 그 아들 세보(世輔)에 의해 증가선대부 형조참판(贈嘉善大夫刑曹參判)으로 추증되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완 기 (趙完基) 선조 3년 (1570)~선조 25년 (1592)

조선 의사(義士). 자는 덕공(德恭), 호는 도곡(道谷), 본관은 백천(白川), 의병장 헌(憲)의 아들, 김포 출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에 옥천(沃川)에서 의병을 일으킨 아버지를 따라 종군, 청주(淸州)에서 승장(僧將) 영규(靈圭)의 군사와 합세하여 왜적을 격파했다. 이해 금산(錦山)의 왜적을 공격하다가 적의 역습을 받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관복(冠服)을 갈아입고 아버지와 함께 순절했다. 적에게 주장(主將)으로 오인되어 그 시체도 수습하지 못했다 한다. 광해군 7년(1615) 고향에 정문(旌門)이 세워졌고 현종 14년(1673)에 사헌부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 옥천의 표충사(表忠祠)에 제향되었다.

▶ 문헌 :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조 우 석 (趙禹錫) 정조 6년 (1782)~철종 14년 (1863)

조선의 장신(將臣), 자는 여현(汝玄),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1. 생애

순조 4년에 무과 급제하여 중시(重試)를 거쳐 선전관(宣傳官), 군기시정(軍器寺正), 어영천총(禦營千總), 제주목사, 충청우사, 전라병사, 황해병사 통어사가 되고,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도총관(都總管),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

냈다. 특히 무비요람(武備要覽) 5책을 저술하여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소장되어 있으며, 당시의 각종 병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무기 연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문헌으로 남아있다. 아들 5형제가 모두 등과하여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추증되었다.

2. 저 서

《무비요람(武備要覽)》

필사본(원본). 4권 3책. 철종 6년(1855) 편찬. 당시 한국 실정이 안일(安逸)에 젖어, 문무(文武)를 닦고 군비(軍備)를 충실히 하는 일에 소홀함을 우려한 저자가 명나라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와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대본으로 삼고, 그 밖에 손자(孫子)·위료자(尉繚子)·당나라 태종(太宗)·원나라 세조(世祖) 등 중국 역대의 여러 병가(兵家)의 저술 중에서 요긴한 대목을 발췌하여, 택장재(擇將才)로부터 허실(虛實)에 이르는 15항목으로 나누어 체계화시킨 병서이다.

책머리에 조우석의 서문이 있고, 이어 범례(凡例)와 목록 및 본문이 차례로 실려 있다. 자서(自序)에서는 병사(兵事)란 인류사회에 부득이 있어야 한다는 근원론부터 시작하여 본서 찬술의 경위까지 서술하였는데, 범례는 18항목으로 된 장문이다. 목록을 보면 택장재·논장(論將)·선사(選士)·편병(編兵)·연병(鍊兵)·논병(論兵)·기계(器械)·군향(軍餉)·요적(料敵)·진도(陣圖)·전략상(戰略上)·전략하(戰略下)·상벌(賞罰)·기정(奇正)·허실 등으로 되어 있다. 당시의 군사 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저서 : 武備要覽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우 신 (趙又新) 선조 16년 (1583) ~ ?

조선 문신. 자는 여집(汝輯), 호는 백담(白潭), 본관은 한양(漢陽), 곧(栢)의 아들로 정경세(鄭經世) · 이현영(李顯英)의 문인.

광해군 5년(1613) 진사시에 합격, 마침 인목대비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를 반대, 정인홍(鄭仁弘) · 이이첨(李爾瞻)을 참하라는 소를 올리고 은거했다. 인조 22년(1644) 학행으로 추천을 받아 참봉(參奉)이 되고 인조 26년(164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정자(正字) · 학정(學正) · 전적(典籍)을 지냈다.

저서인 <백담집(白潭集)>은 현종 11년(1670)에 후학(後學) 김계광(金啓光)이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있을 때 간행하였다. 속집은 숙종 17년(1691) 이윤휴(李裕垂)와 김성구(金成九)가 간행하였다. 내용은 시(詩) · 율(律) · 절구(絶句) · 유(類) · 소(疏) · 계문(啓文) · 서(書)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소 가운데 「의홍문관진폐소(擬弘文館陣弊疏)」는 이황(李滉)의 문인이기도 한 저자의 사상을 엿보게 하는 역작이다. 책머리에 홍여하(洪汝河)의 서문과 책끝에 유동준(柳東濬)의 발문, 속집에는 김굉의 서문이 있다.

상주(尙州) 지강서원(芝岡書院)에 제향되었다.

조 우 신 (趙又新) 1494 ~ 1565

이름은 우신이고 자는 자수, 본관은 평양이다. 시중 조인규의 후손이다. 공의 성관은 평양부의 상원군에서 비롯하고, 함양군수(咸陽郡守)와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역임하였다. 상원군은 본래 식달현이다. 고려 충숙왕이 조인규공의 고향이

라고 하여 군으로 승격시켰다. 조인규공은 고려에 벼슬하여 큰 공을 세우고 선충
익대보조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판도첨의사사 평양부원군이 되었다.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조인규공은 왕부단사관이 되어 부를 열고 관속을 배치하였다.
고려 국내에 큰 일이 있으면 국내에서 사람들이 조인규공의 집에 가서 의견을
묻곤 하였다. 조인규공의 시호는 정숙이다. 따님이 충선왕의 왕비가 되었다.

그 다음은 첨추의 자성으로 시호는 충숙이다. 찬성공은 덕유를 출생하였는데
덕유공은 판도관서 증문하시중이다. 판서의 아들 견은 기록에 의하면 우리 태조
대왕을 도와 개국공신에 책봉되었으며 그후 평양부원군에 녹훈되었고 시호는 평
간공에 추증되었다. 이 분은 곧 평양백 조준의 동생이고 공에게는 증조가 된다.
할아버지는 철산이니 첨지중추원사이고 증좌찬성이다. 아버지는 식이니 부호군이
다. 어머니는 박씨이니 내자시부정 박안명의 따님이고 영의정 문헌공 박원형의
손녀이다. 박씨 부인은 공을 홍치 갑인년에 출생하였다. 공은 13세에 부모를 잃었
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교육열에 힘입어 학문에 뜻을 두었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가정 정미년에 비로소 과거
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처음에 의장고 낭청에 보임되었다가 신
해년에 통례원 인의에 제수되었다. 의장고는 본래 무신의 직임이었는데 이를 문
신의 자급으로 바꾸어 문신직으로 서용한 것이다. 이로부터 공은 비로소 사헌부
감찰, 양재도찰방, 남부주부, 선공감 사옹원 군기시 판관을 역임하였다. 정사년에
또 예빈시판관에 임명되었다.

이때 국가에서는 을묘왜변을 겪은 이후로 군기를 중시하였다. 이에 재조가 왕
에게 요청하여 군기시의 직임에 그대로 머물게 하였다. 공은 군기시에서 공이 가
장 크다 하여 상을 받았다. 이해 겨울에 함양의 수령으로 나갔으나 무오년에 파
직되어 돌아왔다. 신유년에 도총부의 도사로 임명되었다. 임술년에 경력으로 진

급되었다. 갑자년에 병으로 사직하였다. 다음해 을축년 5월 15일에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때 향년 72세였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金石文大觀>

조 원 남 (趙沅男) 선조 원년 (1568) ~ 인조 20년 (1642)

자는 형지(亨之), 호는 휘재이다. 생원시 등제서사(等第書司)로 장낙원주부(掌樂院主簿)와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역임하였다.

공은 용모가 비범하고 천성이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어려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임진왜란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시묘(侍墓)하면서 몹시 슬퍼하여, 당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광해군 10년 때에는 이이담 등이 왕에게 인목대비 소생인 영창대군을 추대하고자 한다 하여 인목대비를 폐(廢)하여 서궁으로 내쫓으니, 공이 슬피 울면서 이르기를 국모(國母)가 없는 세상에 나가서 활동함은 부당하다고 향리인 김포에 내려와 도덕과 학문에 힘썼다. 묘는 부천군 서곶면 심곡리에 있다.

▶ 문헌 : <白川趙氏 派譜>

조 원 희 (趙元禧)

호는 노재(魯齋)이다. 소년 시절에 사마방시(司馬榜試)의 생원에 오르고 세종 23년에 방문과(榜文科)에 등제(登第)하고 문종 원년에는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이르렀다. 세조 원년에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원종공신(原從功臣) 이등(二等)에 책록되고 한성판윤(漢城判尹)과 승문원사(承文院事)를 역임하다 김포 군수를 지낸 바 있어, 만년에 김포석호정(金浦石湖亭)(현 고촌면 풍곡리)에 은거하여 당대의 명사(名士) 양눌재성지(梁訥齋誠之) 선생과 시율(詩律)을 읊으며 도의지교(道義之交)을 맺었다. 묘는 양주 해유현 서도란서 평내 독산에 있다.

▶ 문헌 : <金浦派譜>

조 유 (趙 猷) 광해군 13년 (1621)~ 현종 2년 (1665)

지금의 하성면 원통(원산리)에서 효제충신(孝悌忠信)과 열녀(烈女) 가문에서 태어났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16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강화도에서 의병으로 출정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정축년 정월 이종형이며 의병장인 전창위(全昌尉) 유정량(柳廷亮 : 선조의 딸인 정휘옹주의 부군)을 따르다 적장 마골대(馬骨大) 군에게 포로가 되어 적국 심양땅에서 수용 생활을 하였다. 당시 인질로 포로가 되어 온 나라의 비빈(妃嬪) 등과 왕세자를 비롯한 왕자와 같이 기거한 소년의 나이 겨우 17세였지만 8척의 기골이 장대하고 수려한 장사였으며 학문 또한 사서와 시경, 주역과 춘추를 통달한 의인이었다. 포로 생활 중 적국의 장수 말질개

(末叱介)의 횡포가 심하여 이를 암살하고 연못 속으로 수장한 사건은 많은 동료 포로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귀국 후 절치부심하여 부모를 살해한 오랑캐에 대한 복수일념으로 1644년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지방에서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 평해군수(平海郡守), 청주영장(淸州營將) 등을 지내며 지역마다 치적이 우수하여 포계(褒啓)로 특진하였다. 곧이어 영흥부사(永興府使),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경기수사(京畿水使), 내직으로 어영천총(御營千摠), 금군장(禁軍將) 등을 역임하다 이완(李完), 유혁연(柳赫然) 대장의 추천으로 경기통어사(京畿統禦使)가 되니 당시 북방 여진족 오랑캐의 잦은 출몰로 길주(吉州)에 파송하여 수비하다 순절하니 공이 이른 곳마다 용력과 송덕성이 그치지 않아 임금이 특히 은사를 내리고 중용할 것을 다짐하였지만 길주 임소에서 39세의 나이로 순절하였다.

▶ 문헌 : <陶谷集>, <平壤趙氏世譜>, <韓國人名大事典>, <薪膽錄>, <諡狀>

조 은 석 (趙恩錫) 영조 33년 (1757) ~ 순조 31년 (1831)

조선조 무신, 자는 천여(天與),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무과에 등과하고 파주목사, 전라좌수사, 경상우수사, 통어사(統禦使),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을 지냈다. 평안도 귀성(龜城) 수령으로 재임 시 홍경래(洪景來)의 난을 당하여 임기응변의 기지와 지극한 충성심을 다하여 6개월에 걸쳐 성을 비키니 칭찬이 자자하였다. 사후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

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의 (趙 儀) 영조 43년 (1768) ~ 순조 29년 (1829)

자는 명봉(鳴鳳),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했다.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계계승승(繼繼承承) 충의열사 수명(壽命) 장수(長壽)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희 식 (趙義錫) 정조 10년 (1786) ~ 철종 11년 (1860)

조선조 무신, 자는 중화(仲和),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순조 20년(1820) 무과 급제, 선전관(宣傳官),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판관(判官),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 내금장(內禁將) 등을 거쳐 외직으로 성진(城津), 통진(通津)에서 선정을 베풀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通津邑誌>, <通津鄉校誌>

조 이 석 (趙彝錫) 정조 2년 (1778)~순조 26년 (1726)

조선조 무신, 자는 호여(浩汝),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무과에 올라 선전관(宣傳官),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판관(判官),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경력(經歷), 진도(珍道) 및 위원(渭源)의 군수(郡守)를 역임했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익 현 (趙翼顯) 순조 30년 (1830)~고종 37년 (1900)

자는 비경(飛卿),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철종 2년(1851)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판관(判官), 훈련원(訓練院), 금위영(禁衛營), 충융청(摠戎廳)의 삼영과총(三營把摠), 당상선전(堂上宣傳) 및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지냈다. 문무에 기교 있는 솜씨를 발휘하여 곳곳마다 안민(安民) 치안(治安)하였다. 묘는 하성면 가금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인 (趙 寅) 선조 8년 (1575)~?

본관은 평양(平壤)이며 자는 명중, 충좌위부사과(忠佐衛副司果)를 지냈다. 의지가 높고 뛰어났으며, 문행이 탁월하였으나 여러 번 천거되어 침낭(寢囊)에

이르렀지만 마침 광해군 시절 혼탁한 조정에 나가지 아니하고 통진부 원통에 정착하였다. 자호(自號)를 강호산인(江湖散人)이라 칭하고 공암강(孔岩江) 위에서 시주풍월(詩酒風月)에 선유(仙遊)하니 태백(太白)과 화담(火潭)이 잔을 높이 들어 외쳤다. “폭풍한설(暴風寒雪) 쌓인 임의 집에 화풍난양(和風暖陽)이 불어오기를 청하였네! 아아! 그대 밖에 또 누가 알소냐! 요순이여 대답하소서” 이러한 뜻으로 시류(時流)를 탄식하여 자작(自作)한 공암진가(孔岩津歌)를 읊고 송도 죽림칠현(竹林七賢) 등과 함께 어울렸다. 하지만 향당(鄉黨)과 규중(閨中) 궁궐(宮闕)에까지 전하였다는 이 공암진가는 현재 전하여지지 않는다. 슬하에 3자를 두었으며 모두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굴지거목으로 타의 귀감이 되었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재 오 (趙載五) 헌종 14년 (1848) ~ 1919

자는 경교(敬敎),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16년(1878) 무과(武科)에 급제, 이듬해 선전관(宣傳官), 금부도사(禁府都事),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판관(判官), 첨정(僉正), 중추원경력(中樞院經歷), 자계특제수통정대부(資階特除受通政大夫)가 되었다. 귀향 후 후계 교화에 힘써 송덕성이 높았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재 옥 (趙載玉) 철종 14년 (1863) ~ 1932

자는 경진(敬振),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25년(1891) 무과(武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 병조좌랑(兵曹佐郎), 금부도사(禁府都事),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 등이 되었다. 장신(長身)에 수려한 몸매로 역발산기계세(力拔山氣勸世)라 하였다. 한참 장령기에 국가의 봉사할 것이나 시운이 비색하여 일제(日帝)에 무장해제(武裝解除) 당하여 귀향하니 속세도인이 되어 숨졌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재 형 (趙載亨) 철종 14년 (1863) ~ 1930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하사리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25년(1888)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당하선전관(堂下宣傳官),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 중추원의랑(中樞院外郎)을 지냈다. 일제에 의해 강탈된 군인(軍人)의 처지를 개탄하여 귀향 후 근신하며 후세 양민 교화에 힘쓰니 향당(鄉黨)의 귀감이 되었다. 묘는 원산리 원통동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정 익 (趙廷翼) 선조 32년 (1599) ~ 인조 14년 (1636)

조선 순국자. 자는 익지(翼之), 호는 낙도재(樂道齋), 본관은 평양(平壤), 배위는 예안이씨, 고려의 명신 인규(仁規)의 후손이다.

1. 생애

용모가 단정하고 거동이 출중하여 재주나 기운이 보통사람보다 뛰어나 문무(文武)를 겸전(兼全)한 초시, 복시, 전시 등 삼장(三場)에 연이어 장원하였다. 의리와 지절을 추모하고 선비의 나아갈 길이 오직 벼슬이 아니라 인의군자지덕(仁義君子之德)을 독실히 실천 궁행함에 있어 낙원을 이루는 것이라 믿고 그 호를 낙도라 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처 이씨(李氏)와 강화(江華) 의병으로 출진하였다. 청병이 강화에 육박하여 이씨는 적병에게 능욕을 당할까 우려되어서 먼저 부군의 칼로 할복자결, 그 시신이 마니산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다. 부군이 부인의 시신엄습을 마칠 무렵, 적군에 포위를 당한지라 대갈일성으로 꾸짖어 “남의 나라를 침범한 오랑캐는 물러가라” 외쳤으나 5개의 화살을 맞고 순절하였다.

정묘조는 이 충절을 극찬하고 포상하여 이조판서로 추증하고 “충숙”으로 시하였다. 또 예안이씨는 열녀정려를 내렸다.

아들 유(猷)는 오랑캐 마골대(馬骨大) 군의 포로가 되어 청국 땅 심양에서 볼모로 있는 도중 적장 말질개(末叱介)를 암살하여 연못 속으로 수장하였다 한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으며 열녀비각도 있다.

2. 평양조공 시 정숙 정익 치제문(平壤趙公 諡 貞肅 廷翼 致祭文)

경의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덕이 있으니 모두 충성하고 정절을 다하였도다. 평간공 조건의 높은 절개는 주인을 생각한 깊은 정성이었고 경은 가족띠와 베옷으로 능히 집안에 명성을 이었도다. 집 이름을 낙도재라 하고 마음껏 힘쓰고 병자호란 시에 강화도에 의지하여 창졸간에 오랑캐 군사를 만나 자기 몸에 찬 칼로 자결코자 부인이 열렬하여 경보다 먼저 자결하였도다. 경도 또한 도적을 꾸짖고 죽음을 영광으로 하였도다. 적이 함부로 쏘아 화살이 몸에 모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였도다. 편한 땅을 던져버리고 벼랑이 평지였으며 진미를 취하고 목숨을 홍모(鴻毛)와 같이 가벼이 여겼도다. 두 아우가 시신을 부둥켜 안고 그 형을 염습하면서 화살 다섯 개를 빼어내니 그 형의 피가 가득히 고였다. 얼이 조정에 들리니 가상하고 상께서 정문을 내리어 남은 경사가 후손을 덮으니 대대로 영귀(榮貴)함을 이었네. 정조대왕이 슬퍼하시어 경의 고귀한 실적을 수습하고 경의 고귀한 이름을 가상(嘉賞)하였도다. 드디어 은혜로 부절을 내렸으니 인재를 더욱 기린 바 되어 집 안에 명예는 날과 달로 더불어 빛을 다투어 내렸도다. 무릇 절개를 세운 신하가 대개 자기 집안이나 다스렸는데 경은 나라를 맡아서 지키는 자도 아니요, 또한 시골 선비였으나 대절을 세웠으니 유림의 영혼이 부끄럼이 없도다. 내사 써 슬픔을 일으켜 특별히 묘에 제사하니 그대의 외로운 넋이 이 잔을 흠향하기 바라노라.

고종(高宗) 병자(丙子) 5월 11일 전신(遣臣) 통진부사(通津府使) 이규일(李奎逸) 유제(諭祭)

- ▶ 문헌 : <仁祖實錄>, <正祖實錄>, <江華邑誌>, <通津邑誌>,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朝鮮人物考>

조 정 준 (趙廷俊) 선조 33년 (1600) ~ 효종 4년 (1653)

1. 생 애

자는 자호(子濠)이며,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열선대로부터 효제충신(孝悌忠信) 가문에 태어나서 사대오상(四大五常)의 실천공행이 뛰어났다. 아버지는 강호산인공(江湖散人公) 조인(趙寅)이니 광해군의 혼조하(昏朝下)에 누제불사(屢除不仕)하고 향리에서 스스로 지은 공암진가를 읊으며 태평성대를 기다리며 지냈다. 그는 이러한 가풍(家風)을 지키며 장형 정익(廷翼)과 더불어 여기(廬基) 삼년(三年)에 효행의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지니 상이 사미부호(賜米復戶 : 임금이 포상하며 미곡을 하사하고 부역을 면제함)을 내렸다.

병자년 호란(胡亂)에 백형 충숙공(忠肅公), 형수 증정부인(贈貞夫人) 예안이 씨(禮安李氏)와 더불어 백의종군하여 순직한 시신을 거두어 선영에 안장하였다.

조카 유(猷)는 효종(孝宗)의 복벌을 위한 강병육성 정책에 공헌한 이완, 유혁연 대장과 더불어 수도 방위의 관문 경기통어사(京畿統禦使)가 되어 공헌한 바가 컸다. 손자 세망공은 평안병사가 되어 오랑캐 출몰 지역인 관서 변방 방위에 공헌한 공으로 원종공신훈(原從功臣勳)에 책록되었다. 뒤에 선생을 조정에서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로 추증하였다.

2. 묘갈 :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조공지묘

공의 휘는 정준(廷俊)이요, 자는 자호(子濠)이니 평양인(平壤人)으로 시조 춘(椿)은 고려의 추밀원사(樞密院使)를 지냈다. 몇 대를 지나 휘 인규(仁規)가 있으니 벼슬은 시중(侍中)으로 네 조정을 보필하여 으뜸 주선생의 신하가 되었다.

3대를 지나 휘 견(狷)은 초명은 윤(胤)인데, 영남을 관찰하고 있다가 미처 돌아오지 않아서 고려가 망하여 아태조(我太祖)가 호조전서(戶曹典書)를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았고 또 친히 납시어 권유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망하였으나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개와 다름없다 하여 그 이름을 고쳐 견(犬)자 변을 따서 옛 주인을 생각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드디어 산으로 숨어들어 종신토록 나오지 않았다. 시호는 평간(平簡)이다. 형인 영의정 준(浚)은 원훈(元勳)에 열록(列錄)되어 부원군의 계제에 올랐다.

또 3대를 전하여 휘 우신(又新)은 군수이니 이분이 공의 고조이다. 증조 휘 부(溥)는 부윤(府尹)이요, 조부 휘 창생(昌生)은 장사랑(將仕郎)이고 고(考) 휘 인(寅)은 학행이 있어 집의(執義)에 증직되었으며 비(妣) 숙인(淑人) 전의이씨(全義李氏)는 현령에 증 참판인 휘 화(華)의 다님인데 외가가 무후하여 공더러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공은 만력(萬曆) 경자(庚子, 선조 33년, 1600) 9월 초 4일에 태어나서 계사(癸巳, 효종 4년, 1653) 5월 24일에 졸하니 향년 55세요, 통진(通津), 원통(元通), 선산의 간좌원(艮坐原)에 장사지냈다. 공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행의(行誼)가 탁이(卓異)하여 상중(喪中)에 있을 때에는 형제와 함께 묘소 가에 여막(廬幕)을 치고 3년을 눈물로 지새웠으며, 조식 상식에 몸소 밥을 지었는데 하루는 우연히 쭉대 나부랭이가 밥 속에 떨어지자 공이 묘소 앞에 서서 노복(奴僕)으로 하여금 매질을 하게 하여 피가 비친 뒤에야 그만 두게 하였다. 그 뒤에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쌀을 내리는 은전을 입었다.

병자년(丙子年)의 병화(兵火)를 겪은 뒤에 고을의 향교가 화를 당하여 터만 남게 되자 공이 개연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사(多士)들을 종용하여 재력을 모아 다시 지었으니 그 성효(誠孝)와 기절(氣節)이 이와 같았다. 또 기우(氣宇)가 장

엄하고 말씨는 무거웠으며 위엄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바라만 보아도 두려워하였다. 집에 한가히 있을 때에도 몸가짐이 극히 엄하여 자제와 노복들이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처지는 한사(寒士)에 지나지 않았으나 온 고을에서 존경하였고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웃 마을에서까지 공을 의지하고 지냈으니 그 독실한 행의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바로 천부의 본성에서 나왔던 것이다. 한 고을 선비들이 공을 위하여 글을 올려 천거하려고 하니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실상을 벗어난 허명(虛名)으로 복록을 취할 생각을 하겠는가?” 하고 마음으로 깊이 부끄러워하여 마치 자기를 더럽히는 듯이 여겼다.

▶ 문헌 : <金浦 金石文大觀>

조 정 현 (趙廷賢) 인조 11년 (1633)~1696

자는 현재(賢哉)이다. 숙종 7년에 이연보(李延普) 등과 더불어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에 종사(從祀)할 것을 상소하였다. 묘는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에 있다.

조 정 휘 (趙廷彙)

본관은 평양(平壤). 증집의 조인(趙寅)의 아들이고 병자호란 시 순국인인 증이조판서 시호 충숙의 둘째 동생이다. 병자호란 시 30세의 나이로 이종형인 의병

장 전창군(全昌君) 유정량(柳廷亮)을 따라 의병에 가담하여 강화도 선원면과 불은면에서 호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우다 순절하였다.

▶ 문헌 : <江華史>, <平壤趙氏世譜>

조 존 구 (趙存龜) 순조 18년 (1818) ~ 고종 34년 (1896)

조선조 무신, 자는 태하(太河),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무과 급제 후 홍원현감(洪原縣監), 내금장(內禁將) 등을 역임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존 기 (趙存夔) 순조 21년 (1821) ~ 고종 12년 (1875)

조선조 무신, 자는 성일(聖一),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무과에 오르고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이르고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지냈다. 묘는 하성면 양택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존 익 (趙存億) 순조 33년 (1833) ~ 고종 2년 (1888)

조선조 무신, 자는 태원(太元), 호는 학산(學山),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충량무과(忠良武科)에 오르고 전주 중군(全州中軍), 해방영사마(海防營司馬)를 거쳐 죽산부사(竹山府使), 김포군수(金浦郡守), 인동부사(仁同府使)를 역임했다. 김포군수 재직 시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가선대부(嘉善大夫)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에 추증되었다. 묘는 김포시 감정동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金浦郡誌>

조 존 정 (趙存鼎) 정조 5년 (1781) ~ 순조 30년 (1830)

조선조 무신, 자는 대여(大汝),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무과에 오르고, 흥양(興陽), 삼척(三陟)의 영장(營將)을 역임하였다. 후에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하성면 가금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존 혁 (趙存赫) 순조 14년 (1814) ~ 철종 14년 (1863)

조선조 무신, 자는 태서(太瑞),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무과 급제 후 선전관(宣傳官),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사, 훈련원첨정(訓

練院僉正) 등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자헌대부(自獻大夫)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추증되었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주 현 (趙周顯) 철종 8년 (1855)~1928

자는 여문(汝文),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하사리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13년(1876) 무과(武科)에 급제, 의정부공사관(議政府公事官), 중추원원외랑(中樞院員外郎)을 역임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 후 국권회복의 민족정신 함양에 주력하였으며 1919년 3·1운동에 동참하였다. 묘는 하성면 마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중 기 (趙重基) 숙종 6년 (1680)~1755

자는 자후(子厚)이다. 후능참봉(厚陵參奉)을 지냈다. 숙종 43년 조염빈(趙謙彬)과 함께 김장생(金長生)의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상소하였다.

조진석(趙晉錫) 영조 49년(1773)~철종 2년(1851)

조선조 무신, 자는 군거(君巨),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순조 14년 무과에 오르고, 선전관(宣傳官), 금위영종사관(禁衛營從事官) 등을 거쳐 무산(茂山), 만포(滿浦), 용천(龍川)과 통진(通津)에서 수령으로서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다섯 아들이 모두 과거에 올라 후에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通津邑誌>, <鄉校誌>

조창기(趙昌期) 인조 18년(1640)~숙종 2년(1676)

조선의 문신·학자. 자는 문경(文卿), 호는 조암(槽巖), 본관은 임천(林川), 마전군수(麻田郡守) 시형(時馨)의 아들.

현종 1년(1660)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이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본원부정자(本院副正字)로 제수된 뒤부터 저작박사·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호조좌랑 겸 춘추관기사·지평 등을 두루 거쳐 사간에 이르렀다.

저작박사가 되었을 때 가주서(假奏書)로서 현종 앞에 입시하여 치청(治政)에 대한 규모와, 성학(聖學)을 숭상할 것과, 인재를 뽑아 기르는 방법, 백성을 사랑하고 구제할 것 등 십수조를 올려 시무(時務)에 가장 적합하다는 왕의 칭찬을 받아 승진되었다.

사헌부감찰이었을 때에는 행정의 요체로 근정(勤政)·존심(存心)·궁리(窮

理)·입규모(立規模)·파봉당(破朋黨) 등 10조를 진언하여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경제에 밝았으며, 성품이 충직하여 언제나 신망이 높았다.

▶ 저서 : 槽巖集

▶ 문헌 : <顯宗實錄>, <肅宗實錄>, <朝鮮圖書解題>, <韓國人名大事典>

조 창 현 (趙昶顯) 철종 7년 (1856)~1916

자는 사연(士淵),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18년(1880) 무과(武科)에 급제, 시종원시어(侍從院侍御)를 역임하였으나 조선왕조의 몰락(沒落)으로 강제 무장 해제되고 귀향하여 분개한 나머지 득병(得病)하여 사망하였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첩 영조 11년 (1735)~정조 18년 (1794)

본관은 평양(平壤), 통진부사(通津府使)를 역임하였고 전라병사(全羅兵史)를 지내며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通津邑誌>

조 충 호 (趙忠鎬) 고종 36년 (1899)~1975

본관은 평양(平壤)으로, 하성면 하사리에서 출생하였다.

강직한 성품과 총명한 두뇌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니 대하는 이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다고 전한다. 김포시 월곶면장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4·19 당시 민주화 운동에 의해 장면 정권이 수립되니 처음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초급 단위를 읍면 단위로 하고 초대 민선 하성면 의회 의장을 역임했다고 전한다. 묘는 하성면 하사리에 있다.

조 탁 (趙 濯) 선조 15년(1582)~광해군 4년 (1612)

본관은 풍양(豐壤), 호는 사청(士淸), 수헌(守憲)의 아들.

서울에서 출생하여 김포에서 성장, 아버지와 사촌 형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성균관에서 공부했다. 학문과 덕망이 높았으나 벼슬을 하지 말라는 선고(先考)의 분부에 따라 과거 시험장에 나가지 않았다. 평택현감으로 있던 당숙인 수륜(守倫)에게 다니며 학문을 논하고 국사에 관한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1612년 이이첨이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김직재(金直哉) 옥사를 일으켰을 때 억울하게 연루되어 수륜과 함께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했다. 인조반정 뒤 예조참의에 추증하고 정문(旌門)을 세웠다. 묘는 김포시 통진면 고정리에 있다.

▶ 문헌 : <金浦郡誌>

조 태 석 (趙台錫) 영조 28년 (1752) ~ 순조 30년 (1830)

조선조 무신, 자는 경삼(景三),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정조 19년 무과(武科)에 올라 장용위초관(壯勇衛哨官), 내금장(內禁將) 등을 거쳐 장흥, 초산수령을 지내고 충청도수사(忠淸道水使)에 이르렀다. 묘는 하성면 가금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택 현 (趙澤顯) 철종 1년 (1850) ~ 고종 16년 (1879)

자는 사빈(士賓),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11년(1874)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당하선전관(堂下宣傳官)이 되었으나 젊은 나이에 작고하였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평 (趙 枰)

소년사마시(少年司馬試)를 거쳐 세조 11년 을유식년시문과(乙酉式年試文科)에 올라 성균관 전적(典籍) 겸 서학교수(西學敎授)를 거쳐 예종 원년 조산

대부공조좌랑(朝散大夫工曹佐郎)에 올랐다. 또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 「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여 성종 2년에 마쳤다. 성종 4년에는 공조좌랑(工曹佐郎) 조평(趙枰)을 황해도 점마관(點馬官)으로 보내 역마람용죄(驛馬濫用罪)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성종 12년에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편찬에 참여하였다.

▶ 문헌 : <王朝實錄>, <東國輿地勝覽>

조 필 현 (趙弼顯) 고종 35년 (1898) ~ 1967

자는 보여(輔汝),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부조의 고향땅을 떠나 서울에 기거하였으나 고향의 옛 자취의 고양에 힘썼다. 건국초 국문회에 참여하여 조국 민주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한국전쟁 후 전후복구건설과 정당정치 구현에 기여하였고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여 수도권 재건에 기여한 공이 크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조 헌 (趙 憲) 중종 39년 (1544) ~ 선조 25년 (1592)

조선 문신, 의병장.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후율(後栗), 본관은 백천(白川), 응지(應社)의 아들이고 율곡·우계의 문인이다.

1. 생애

명종 10년(1555) 12세 때 김황(金滉)에게 시서(詩書)를 배웠는데, 집이 몹시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옷과 신발이 다 헤어졌어도 눈바람을 무릅쓰고 멀리 떨어진 글방 가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밭에 나가 농사일을 도울 때나 땀감을 베어 부모의 방에 붙을 땀 때에도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한다.

1565년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156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선조 1년(1568)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 정주목·과주목·홍주목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사풍(士風)을 바로잡았다. 1572년부터 교서관의 정자·저작·박사를 지내면서, 궁중의 불사봉향(佛寺封香)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려 국왕을 진노하게 하였으며, 성절사(聖節使) 박희립(朴希立)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동환봉사(東還封事)>를 지어 올렸다.

1575년부터 호조좌랑·예조좌랑·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을 거쳐, 경기도 통진현감(通津縣監)으로 있을 때, 내노(內奴)의 횡행죄를 엄히 다스리다가 죽인 죄로 탄핵을 받아 부평으로 귀양갔다가 3년 만에 풀려났으며, 다시 공조좌랑·전라도도사·종묘서령(宗廟署令)을 역임하였다.

1582년 계모를 편히 모시기 위하여 자청하여 보은현감으로 나가는 동안, 그 치적이 충청좌도에서 으뜸으로 손꼽히었으나, 대간의 모함에 따른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다시 공주목제독(公州牧提督)을 지냈다.

1587년 동인 정여립(鄭汝立)의 흉패함을 논박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지어 현도상소(縣道上疏)하는 등 5차에 걸쳐 상소문을 올렸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다시 일본사신을 배척하는 소와 이산해(李山海)가 나라를 그르침을 논박하는 소를 대궐문 앞에 나아가 올려 국왕의 진노를 샀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옥천군 안읍밤티(安邑栗峙)로 들어가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였다.

1589년 지부상소(持斧上疏)로 시폐(時弊)를 극론하다가 길주 영동역(嶺東驛)에 유배되었으나 이해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풀려났다.

1591년 일본의 도요토미(豊臣秀吉)가 겐소(玄蘇)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명나라를 칠 길을 빌리자고 하므로, 조정의 상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옥천에서 상경, 지부상소로 대궐문 밖에서 3일간 일본사신을 목베려 할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李瑀)·김경백(金敬伯)·전승업(全承業) 등과 의병 1,600여명을 모아, 8월 1일 영규(靈圭)의 승군(僧軍)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충청도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해산 당하고 불과 700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행진, 영규의 승군과 합진하여,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우세한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의 왜군과 8월 18일 전투를 벌여 끝까지 분전하다가 중과부적으로 모두 전사하였다. 후세에 이를 금산전투라 일컬어 숭모하게 되었다.

1604년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책록되고, 영조 10년(1734)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고종 20년(1883) 문묘에 배향되고, 옥천의 표충사(表忠祠),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 김포의 우저서원(牛渚書院),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에 제향되었으며, 1971년 금산의 순절지 칠백의총이 성역화되었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2. 관련 사건

(1) 금산싸움

임진왜란이 교착상태에 들어가 강화를 교섭하던 중 왜군의 일부는 전라도 금산에 주둔하여 크게 세력을 떨쳤으며, 의병들이 이들을 치다가 여러 번 패하였으나 의병장 조현은 승장 영규(靈奎)와 함께 관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단독으로 금산성 밖 10리 되는 곳까지 진격하였다.

후속부대가 없는 것을 알아차린 성내의 왜군은 군대를 몰래 뒤로 보내어 길을 차단하는 한편, 좌우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병력수의 열세로 조현·영규 이하 전원이 전사하였다.

이때 전사한 700의사의 무덤을 ‘금산 칠백의총(錦山七百義塚)’이라고 한다.

(2) 청주성 싸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도 서남지역에 1,600명의 의병을 모은 조현은, 선조 25년(1592) 7월 하순 청주성 교외에서 승장(僧將) 영규(靈圭)가 이끄는 약 1,000명의 승병과 방어사(防禦使) 이옥(李沃)의 500관군을 거느리고, 8월 1일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가 지휘하는 왜군이 점령하고 있던 청주성을 공격하였다. 이날 종일 계속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왜군은 밤 사이에 성을 버리고 퇴각했다.

3. 일화

의병의 선봉장으로 왜군과 싸우다 7백 의사와 함께 장렬히 순국(殉國)하신 중봉선생은 김포읍 감정리에서 출생한 분이다.

이 분은 어려서 집은 가난했지만 글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웃 동네의 글방에 다녔다. 서당에 가려면 도중에 여우재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서 다녀야 하는데, 하루는 서당을 가느라고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예쁜 처녀가 나타나더니 중봉선생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 일이 있는 후로는 날마다 그 처녀가 나타나서 입을 맞추곤 했는데, 하루는 서당선생이 중봉선생을 보고서 “너는 어째서 얼굴에 화색이 없고 병색이 되어 가느냐? 너 요새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하고 물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하고 중봉이 대답했다. 그러나 서당 선생은 재차 “너 서당에 오는 도중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이에 중봉이 “예, 있었습니다. 서당에 오느라고 고개를 넘노라면 예쁜 처녀가 나타나서 강제로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선생은 이 말을 듣고 “그 처녀하고 입 맞출 때, 그 처녀가 무슨 구슬 같은 것을 네 입에다 넣었다가 다시 제 입으로 가져가지 않더냐?”하고 물었다. 중봉이 “그랬습니다.”고 하니까 선생은 “여우가 둔갑한 처녀인데 그 여우가 네 정기를 빼앗아 가느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입을 맞추고 구슬을 네 입에 넣거든 입을 딱 다물고 돌려주지 말고 거기서 쏙살같이 뛰어오너라”하고 일렀다.

중봉은, 선생이 이른 대로 그 처녀가 입을 맞추고 넣어 준 구슬을 입에 문 채 처녀를 떠밀고는 달려오려고 했다. 그랬더니 처녀는 중봉을 붙잡고 구슬을 도로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중봉이 뺏기지 않으려고 둘이 한참 옥신각신 하다 중봉이 그 구슬을 삼켜 버렸다.

그랬더니 처녀는 흰여우로 변해서 슬피 울며 숲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중봉이 서당에 갔더니 선생이 그 구슬을 가져왔거든 내어놓으라고 했다.

중봉이 “여우에게 그 구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삼켜버렸습니다

다”하고 말하니, 선생은 “어허, 아까운 보배가 없어졌구나, 너는 그 구슬을 삼켰으니 지리(地理)는 훤히 알지만 천문(天文)은 모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처녀는 원래 여우인데 사람의 정기를 빼앗아 먹고 사람이 되려고 너한테 달려들어서 네 정기를 빼앗아 먹던 중이었다. 그것이 안 되어 여우로 되돌아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중봉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통진 앞 바다에 난데없이 대패밥이 떠밀려 오므로 사람들이 중봉선생께 무슨 징조인가 물었다. 중봉이, 그것을 왜놈들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고 수 없이 배를 만드느라고 대패질 한 그 대패밥이 우리 조선에까지 흘러와서 그렇다고 말했다. 중봉이 그 여우 구슬을 삼켰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훤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몇 년 안 가서 아니나다를까 왜구가 조선 땅을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4. 저 서

《중봉집(重峯集)》

활자본. 20권 10책.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초간본은 조헌이 순절한 지 22년 뒤인 광해군 5년(1613)에 동학과 의병동지인 안방준(安邦俊)이 그의 유문(遺文)과 사적을 수집·편찬하고, 이정구(李廷龜)의 서문과 강항(姜沆)·안방준의 발문을 붙여 15년에 발간하였다. 그 뒤 영조 16년(1740) 원집(原集) 13권, 부록 7권, 도합 20권 10책으로 간행되었다.

숙종 24년(1698) 왕명으로 <동환봉사(東還封事)>와 <항의신편(抗義新編)>을 종합·간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책명이 <유적(遺蹟)>, <유고(遺稿)>, <선우록(先憂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중봉집(重峯集)>으로 통합, 일

원화하였다. 이 문집은 간기(刊記)로 보아 1740년 왕명에 따라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천일기(朝天日記)》

조헌이 1574년 5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성절사(聖節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를 다녀온 후에 쓴 일기체의 전문록.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의 정사(正史)는 박희립(朴希立), 서장관(書狀官)은 허봉(許)이었다. 명·청나라에 사행한 일기류를 조선 초기에는 봉사록(奉使錄)·점마록(點馬錄)·부경일기(赴京日記)로, 중종대 이후에는 조천록(朝天錄)·조천일기 등으로, 인조대 이후에는 심양록(審陽錄)·북행록(北行錄) 등으로, 효종 이후에는 연행록(燕行錄) 등으로 불렀다. 이 책은 강(綱)과 목(目)을 구분하여 본문과 소주(小注)를 두었으며, 상권은 주로 입궐까지의 기행, 중권은 베이징[北京]에서의 생활, 하권은 명나라 조정의 소식인 중조통보(中朝通報)로 구성하였다. 하권의 말미에는 연물(燃物)·석유(石油) 등 23개 물명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있고, 이 책이 간행된 경위를 적은 민진원(閔鎭遠)의 발문이 있다.

《동환봉사(東還封事)》

목판본. 1권 1책. 규장각도서. 제목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밀봉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조헌이 선조 7년(1574) 명나라 신종(神宗)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된 성절사(聖節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중국을 다녀온 뒤, 조선에서도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상소로 초한 것을 묶은 것이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앞부분은 8조로 된 소가 수록되어 있다. 1조는 중국의 공자를 비롯한 유현들의 추송과 배향을 소개하며, 한국의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을 문묘에 배향하는 ‘성묘배향(聖廟配享)’을 논한 글이다. 2조는 ‘내외서관(內外庶官)’으로 관원 임면제도의 개선에 관한 글이며, 3조는 의관제도를 논한 ‘귀천의관(貴賤衣冠)’이고, 4조는 검소한 식생활을 관원들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식품연음(食品宴飮)’이다. 5조는 사대부가 서로 접대하는 예에 대해 논한 ‘사부읍양(士夫揖讓)’이고, 6조는 스승과 제자 간에 접대하는 예에 대하여 논한 ‘사생접례(師生接禮)’이다. 7조는 향촌의 풍속을 순화시키는 데 대한 ‘향려습속(鄉閭習俗)’을 논하고, 8조에서는 ‘군사기율(軍師紀律)’을 논하였다.

조헌은 위의 8조 소와 질정록(質正錄) 1편을 선조에게 바치며, ‘우리나라에도 명나라 제도를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선조가 상소문에 대해 비답(批答)하기를, ‘수천 리 밖이라 풍속이 같지 않는데, 만일 풍기(風氣)와 습속의 다름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행하려고 하면 한갓 세상을 놀라게만 하고 일은 맞지 않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헌은 자신의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뒷부분에 수록된 16조의 상소문은 올리지 않았다.

조헌은 그대로 명나라 제도를 본받아 시행하는 데에만 그 뜻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夏)·은(殷)·주(周) 3대(代)의 정치를 만회해 보려 했다고 한다. 책 끝에는 안방준의 발문(跋文)이 있다.

《항의신편(抗義新編)》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의병장 조헌(趙憲)의 유문(遺文) 및 행록(行錄)을 수록한 책.

목판본. 4권 2책. 광해군 때 안방준(安邦俊)이 편찬, 광해군 11년(1619) 판각(板刻)에 착수, 1621년에 완성해 인조 3년(1625) 발행하여 광포(廣布)하였다. 내용은 조헌의 봉사(封事 : 왕에게 올리는 비밀상소문)로 청절왜사봉사(請絕倭使封事) · 청참왜사봉사(請斬倭使封事) 등 여러 가지 글을 실었으며, 책머리에 궁경양친도(躬耕養親圖) 이하 8도를 첨부하여 그 뜻이 있는 곳을 명백하게 하였다. 편자 안방준의 서문과 발문이 있다. 현전본은 철종 14년(1863)의 중간본으로, 같은 해에 쓴 송내희(宋來熙)의 중간발(重刊跋)과 송근수(宋近洙)의 발문이 있다. 이 책은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 저서 : 重峯集, 重峯東還封事

▶ 문헌 : <宣祖實錄>, <亂中雜錄>, <實齋史草>, <大庵集>, <海東名臣錄>, <韓國人名大事典>

조 희 갑 (趙羲甲) 고종 8년 (1871)~1916

자는 윤삼(允三),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양택리에서 출생하였다.

충양무과(忠良武科), 육군참위(陸軍參尉), 온양군수(溫陽郡守), 예산군수(禮山郡守)를 지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희 겸 (趙義謙) 순조 20년 (1820) ~ 고종 41년 (1903)

조선의 장신(將臣), 자는 중익(仲益),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헌종 9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 등을 역임하고 삼영천총(三營千總),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 철원방어사(鐵原防禦使), 충청수사, 황해병사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희 문 (趙義聞) 철종 9년 (1858) ~ ?

조선 무신. 자는 윤명(允明), 호는 우학(又學), 본관은 평양, 존억(存億)의 아들로 김포 출생이다.

고종 13년(1867) 무과에 급제, 선전관(宣傳官), 거문도첨사(巨文島僉使)를 지내고, 고종 31년(1894) 동학란이 일어나자 별군관(別軍官)에 임명됐다. 고종 32년(1895) 민비시해사건(閔妃弑害事件)에 관련, 일본으로 망명, 융희 1년(1907)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으로 군대 해산, 고종 퇴위 후 사면되어 귀국, 1908년 황해도 관찰사,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가 되었다. 묘소는 김포시에 있다.

▶ 문헌 : <高宗實錄>, <純祖實錄>, <解放前後史의 認識>, <京畿人物誌>

조 희 승 (趙羲升) 순조 27년 (1827)~?

자는 치윤(稚允),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양택리에서 출생.

헌종 15년(1849) 무과(武科)에 급제, 내외직으로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당하선전을 지냈고, 영월군수(寧越郡守), 경상좌병우후(慶尙左兵虞候), 황해중군(黃海中軍), 덕산군수(德山郡守), 죽산부사(竹山府使), 창성부사(昌城府使),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자헌대부한성부판윤(自獻大夫漢城府判尹)을 역임하였다.

문무를 겸비했으며 탁월한 인품을 갖춘 인재로서, 지방과 중앙에서의 행적이 두루 우수하며 명성이 높았다. 특히 한성부판윤으로 선정한 공이 커서 칭송이 높았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희 연 (趙羲淵) 철종 7년 (1856)~1911

조선 상신(相臣), 자는 심원(深源), 호는 기원(杞園),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1873년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대원군이 실각하고 뒤이어 윤양호(雲揚號) 사건으로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자 열강 제국들과도 잇달아 수호조약을 맺어 수구파와 개혁파와의 알력이 점증하는 시기에 관료에 오른 조희연은 개화파의 일원으로서 기기국총판(機器局總辦), 형조판서(刑曹判書) 등을 거쳐 갑신정변(甲申政變), 갑오경장(甲午更張), 을미사변(乙未事變), 아관파천(俄館播遷)

등의 소용돌이 정국에서 한때 군부대신(軍部大臣)의 고위직까지 올랐으나 아관 파천 이후 유길준(兪吉濬)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高宗實錄>, <平壤趙氏大同譜>

조 희 용 (趙羲容) 헌종 3년 (1837)~1913

조선조 무신, 자는 경구(景九),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16년 무과에 올라 절충장군(折衝將軍), 오위장(五衛將), 개성중군(開城中軍)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김포시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조 희 준 (趙羲俊) 순조 20년 (1820)~고종 9년 (1905)

자는 치교(稹敎),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에서 출생하였다. 헌종 16년(1850) 무과(武科) 급제, 문무 겸직으로 언양현감(彦陽縣監), 내금위영영장(內禁衛營營將)을 지냈다. 80세를 넘게 수(壽)하여 가의대부(嘉義大夫)가 되었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희 진 (趙義晉) 고종 5년 (1868)~고종 30년 (1893)

자는 중빈(仲斌), 호는 송하(松下),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했다.

1886년 청시사(廳試射)에 무과(武科) 급제,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 통훈대부의금부도사(通訓大夫義禁府都事), 어모장군(禦侮將軍),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 훈융진병마첨절제사(訓戎鎭兵馬僉節制使)로 선정(善政)하였다. 묘는 하성면 양택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희 춘 (趙義春) 순조 21년 (1821)~고종 21년 (1894)

자는 성원(聖元),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헌종 10년(1844) 무과(武科) 급제, 비변랑(備邊郎),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도청부도사(都廳府都事), 금위영과총(禁衛營把摠), 남해현령(南海縣令), 상주영장(尙州營將), 무산부사(茂山府使), 어영(禦營) 및 금위영(禁衛營) 천총별장(千摠別將)을 지냈다. 후에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묘는 월곡면 갈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世譜>

조 희 풍 (趙義豐) 순조 8년 (1808)~고종 18년 (1881)

조선의 장신(將臣), 자는 치수, 본관은 평양(平壤), 하성면 원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순조 34년에 무과에 올라 내외직(內外職)을 두루 거쳐 가선대부(嘉善大夫),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부총관(副總管), 창성부사(昌城府使), 전라병사(全羅兵使) 등을 역임했다. 묘는 하성면 원산리에 있다.

▶ 문헌 : <平壤趙氏大同譜>

차 식 (車 軾) 중종 12년 (1517)~선조 8년 (1575)

조선 학자. 자는 경숙(敬叔), 호는 이재(頤齋), 본관은 연안(延安), 교수(教授) 광운(廣運)의 아들. 서경덕(徐敬德)의 문인. 중종 38년(1543) 진사로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로 급제,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통진(通津)·황주(黃州)·고성(高城)의 현감·군수를 역임하고 선조 7년(1574) 평해군수(平海郡守)가 되었다가 이듬해 죽었다. 경사(經史)에 밝았고, 평생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문집이 있었으나 전란에 유실되었다고 한다.

▶ 문헌 :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채 유 후 (蔡裕後) 선조 32년 (1599)~현종 1년 (1660)

조선 문신. 자는 백창(伯昌), 호는 호주(湖洲), 본관은 평강(平康), 진사 충연(忠衍)의 아들.

17세에 생원이 되고 1623년 개시문과(改試文科)에 장원,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인조 4년(1626) 통진현감(通津縣監)에 부임, 친상을 당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집의로서 인조를 호종하였다. 김류(金瑬) 등의 강화천도 주장을 반대하고 주화론에 동조하였다가 구금되었고, 1638년 석방되었다.

1641년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사망하자 예조참의로서 호상(護喪)을 맡아보았으나 행상(行喪)할 때 담군(擔軍)에게 백건(白巾)을 쓰게 하였다는 탄핵을 받아 병을 빙자하여 사임하였다.

중년 이후 술을 좋아하여 때때로 주실(酒失)을 저질러 인조의 눈밖에 났으나, 1646년 이조참의로서 지제교가 되어 누구도 싫어하는 강빈폐출사사교문(姜嬪廢黜賜死敎文)을 지어 다시 현용(顯用)되었다.

그러나 그 자신도 강빈사건에 반대견해를 취하였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 소장하고 있던 교문을 짓는 데 필요한 사륙전서(四六全書)를 모두 불태워버릴 만치 후회하였다고 한다.

이어 대사간을 거쳐 병조참의로 별시문과 초시의 시관이 되었으나, 부정이 있다고 하여 한때 파직되었다.

1647년 동부승지를 거쳐 부제학·대사성·대사간을 역임하고, 다시 이조참의가 되었다.

효종이 즉위한 뒤에도 대사간으로 있으면서 상작남상(賞爵濫觴)을 경계하였으며, 효종 3년(1652) 이조참판에 오르고, 이듬해에는 대제학으로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여 가자(加資)되었다.

이후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역임하고, 여러 차례 대사헌을 거친 뒤 1657년 대제학으로서 <선조개수실록> 편찬의 책임을 졌으며, 곧이어 예조판서·우참찬에 승서되었다.

이듬해 이조판서에 오르고, 대제학을 8년 동안 겸하고 있었으나 여러 차례 사직소를 올렸다. 형조판서로 옮겼다가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술에 취하여 실의(失儀)하였다는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현종이 즉위하자 찬집청당상(撰集廳堂上)으로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현종 1년(1659)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9월 다시 대사헌에 올랐으나 유계(兪槩)의 탄핵으로 사임하고, 공조참판·내국제조(內局提調)를 거쳐 다시 대사헌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병으로 죽었다.

죽고 난 뒤 실록편찬의 공으로 승정대부(崇政大夫)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술 때문에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으나 문재에 뛰어나 중용되었다.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 저서 : 湖洲集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歸鹿集>, <國朝文科榜目>, <韓國人名大事典>, <通津縣先生案>

최 속 정 (崔淑精) 세종 15년 (1433)~성종 11년 (1480)

조선의 문신. 자는 국화(國華), 호는 소요재(逍遙齋)·사속재(私淑齋), 본관은 양천(陽川), 사정(司正) 중생(仲生)의 아들.

1. 생애

세조 7년(1461) 진사시에 합격하고, 1462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사관(史官)으로 발탁되었다.

1464년 문풍 진흥을 위한 본관(本官)으로서 예문관직을 겸비하고 유학을 습업(習業)하게 한 겸예문직의 운영과 함께 겸예문직에 제수되고 사학문(史學門)에 배속되었으며, 1466년 문과중시에 3등, 계속해서 발영시(拔英試)에 2등으로 급제한 뒤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혜택을 입었다.

성종 1년(1470) 형조좌랑·경연시독관에 개수(改授)되면서 춘추관기주관이 되어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의 편수에 참여하고, 실록편수가 끝난 뒤 1계(階)가 가자(加資)되었다. 1472년 사헌부지평, 이후 예문관교리·경연시독관·경연시강관 등을 역임하고, 1476년 12월에 찬진(撰進)된 <삼국사절요>의 편찬에 예문관부응교로서 참여하였다.

1477년 예문관직제학·춘추관편수관이 되어, 이듬해 찬진된 <동문선>의 편집에 참여하고, 같은 해 통정대부에 오르면서 여주목사(驪州牧使)로 파견되었고, 1479년 “두량(斗量)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그 이듬해 홍문관부제학으로 복직되었다.

일세의 명현이었다는 평판과 높은 시격(詩格)이 있다는 평을 들었다.

2. 저서

《삼국사절요》

유교적 명분론에 저촉된 변칙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세조는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하되 고기류(古記類)로써 보완하는 역

사서의 편찬을 추구하였다. 이에 세조 4년(1458) 삼국사와 고려사를 합쳐 <동국통감>을 편찬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1463년에 구체적으로 동국통감청(東國通鑑廳)을 설치하여 양성지(梁誠之)가 주관하고 신숙주(申叔舟)·권람(權攄)이 감수하며 이파(李坡)가 출납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로대신과 유교적 명분에 철저한 유신의 반발 등으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세조가 죽자 작업이 중단되었다. 예종이 즉위하여 작업을 계속했으나 곧 이은 예종의 죽음으로 다시 중단되었고, 성종 5년에 신숙주의 건의로 작업하되 이파가 주도하였으며, 이때는 고대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이에 1476년 12월에 삼국시대까지만 다룬 <삼국사절요>를 완성했는데 진전(進箋)은 노사신(盧思愼), 서문은 서거정이 서술하였다. 이 책은 총 15권인데, 삼국 이전의 상고사는 외기(外紀)로서 권수에 포함하지 않고 14권으로 목차를 작성하였다.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하고 <삼국유사>, <수이전>, <동국이상국집>,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설화·신화·전설·민담 등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종교행사·풍속·사냥·교병·방언·축성·전란 등 국가의 흥망과 백성의 안녕에 관계되는 사건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삼국시기에 관련된 것을 주로 하였고, 단군신화를 언급하지 않거나 불교기사를 생략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직서주의를 내세워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저술된 <동국사략>에서 폄하되었던 국왕과 국왕 관련 용어들을 폄하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였다. 또한 종래 신라 중심의 역사서술 방식을 수정하여 삼국을 무정통으로 하되 문무왕 9년(669)에 삼국이 통일된 다음부터 신라를 정통으로 삼았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삼국사 서술의 정형이 되었다. 또한 즉위년 칭원법을 그대로 기록하고, 통일 이후에는 절충하여 원년 기

사를 전왕의 말년 기사에 적었다. 사론(史論)은 <삼국사기>와 <동국사략>의 것을 이용했는데, 대부분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고대문화를 비판한 것이었다.

이 책의 사학사적 가치는 성리학적 명분론에 대한 집착이 <동국사략>보다 덜하여 중국과 한국과의 고대문화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으며, 신라 중심의 삼국사관을 극복했고, 고기류의 사용으로 기존 정사(正史)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끝이어서 편찬되는 <동국통감>의 고대사 대본이 되었다는 의의가 있었다. 1482년에 간행되었으며 전주사고(全州史庫)에 보관되었고, 그 뒤 필사되어 전해졌으며, 1973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하였다.

3. 작 품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두 편의 시를 소개한다.

「을미 이월 초팔 배 사은사 부경 숙 벽제역 서회(乙未二月初八陪謝恩使赴京宿碧蹄驛書懷)」

밤새도록 우리(郵吏)들이 시끄러이 떠들어,
부서진 침상에 기대인 잠이 깊지 못하다.
봄빛은 가만히 시냇가의 풀에 돌아오는데,
시름의 흔적은 용하게도 살쥔에 점쳤다.
어제 술이 개지 않아 머리는 아직도 무겁고,
잠자코 앞길을 헤아려 보매 꿈이 또한 수고롭다.
밤에 들어 이별한 회포는 바다처럼 깊은데,
푸른 등에서 나는 불꽃이 나그네 도포를 비춘다.

「칠가령 우우(七家嶺遇雨)」

상원(上苑)에 꽃이 날아 봄 일이 끝났는데,
나그네 길 어느 곳에서 등루(登樓)하였다는 시를 지으리,
누른 매화가 핀 울타리에는 집집마다 저물었는데,
보리가 익은 편편한 밭에는 볼수록 가을뿐이다.
비바람[風雨]의 오경(五更)에는 고국의 꿈이요,
강과 산의 만 리에는 나그네 창 의 시름이다.
상하는 마음에는 짧은 것대의 소리소리가 괴로운데,
쇠잔한 등불을 돋우어 다하기에 머리가 모두 희었더라.

▶ 저서 : 逍遙齋集

▶ 문헌 :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韓國人名大事典>

최 항 (崔 恒) 태종 9년 (1409)~성종 5년 (1474)

조선 문신. 학자. 자는 정부(貞父), 호는 태허정(太虛亭)·동량(東梁), 시호는 문정(文靖). 본관은 삭녕(朔寧), 증영의정(贈領議政) 사유(士柔)의 아들, 김포시 양촌면 출생.

1. 생애와 업적

세종 16년(1434)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 집현전 부수찬으로 정인지·박팽년 등과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 세종 26년(1444) 집현전 교리(校理)로 <오례

(五禮)>를 찬진했다. 이듬해 집현전 응교(應敎)로 권제(權蹏) 등과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어올렸고 <동국정운(東國正韻)>·<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용비어천가보수(龍飛御天歌補修)>를 찬진했다.

세종 30년(1450)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세종 32년(1450) 선위사(宣慰使)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고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직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문종 1년(1451) 좌사간대부로 수사관(修史官)을 겸임, 정인지(鄭麟趾) 등과 <고려사(高麗史)> 개찬(改撰)에 힘썼다. 부제학(副提學)에 올라 <통감훈의(通鑑訓義)>를 편찬하고 가자(加資)되고, 뒤에 <문종실록(文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단종 1년(1453)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도와 계유정란(癸酉靖亂)에 공을 세워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이 되고 도승지(都承旨), 이듬해 이조 참판으로 영성군(寧城君)에 피봉되고, 세조 1년(1455) 대사헌(大司憲), 좌익공신(佐翼功臣) 2등에 책록, 호조·이조 참판을 역임했다.

세조 4년(1458) 형조·공조판서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대사성(大司成)을 겸임했다. 세조 6년(1460) 이조판서, 이듬해 양성지(梁誠之)의 <잠서(蠶書)>를 번역 간행하고, 다시 왕명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에 착수, 조선 초기 법률제도를 집대성하는 데 공헌했다.

세조 9년(1463) 우참찬(右參贊)·좌참찬(左參贊)을 지내고 <동국통감(東國通鑑)> 찬수를 착수하는 한편, 신숙주(申叔舟) 등과 <어제유장설(御製諭將設)>에 주를 달고 풀이했다.

세조 12년(1466)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거쳐 좌찬성(左贊成), 이듬해 승록대부(崇祿大夫)가 되어 우의정에 올라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를 겸했다. 이해

영의정에 올라 영경연사(領經筵事)를 겸했다.

예종 1년(1469) 경국대전상정소제조(經國大典詳定所提調)를 겸하여 오랫동안 끌어오던 <경국대전>을 찬진했고, 이어 <무정보감(武定寶鑑)>을 찬수했다. 이듬해 부원군(府院君)에 봉작되고 성종 2년(1471) 좌리공신(佐理功臣) 1등에 책록,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세조·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조선 초기 훈구파(勳舊派)의 대학자로서 세조를 도와 문물제도 정비에 크게 공헌했다.

2. 평 가

그는 18년 동안 집현전관원으로 있으면서 경연관·지제교(知製敎)로서 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의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고제연구와 각종 편찬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에 대한 평가는 서거정이 찬한 비명, <필원잡기(筆苑雜記)>, 김육(金堉)이 지은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의 것과 <성종실록>에 있는 그의 졸기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자에서는 그의 성품이 겸공(謙恭)·간정(簡靜)·단개(端介)·무화(無華)·공정(公正)하고 정관(正冠: 의관을 바로함)·위좌(危坐: 무릎을 꿇고 몸을 바르게 하여 앉음)하며, 침착 신중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청백하여 재산을 탐하지 않으며, 40년 간 벼슬하였으나 한번도 탄핵을 받지 않았다고 극구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겸근과언(謙謹寡言: 겸손하고 삼가며 말이 적음)과 정관·위좌하였다 한 것은 거의 비슷하나, 일을 처리하는 데 결단성이 없고, 정승

자리에 있었으나 한번도 인사(人事)를 건의하는 일이 없이 우물쭈물 넘겼으며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문형(文衡)에 있던 사람이 의정으로 임명되면 반드시 문형직을 사양하는 것이 예였는데 그는 오히려 이를 사양하지 않고 겸하였다고 못마땅하게 평하고 있다.

특히, 가정문제에서도 부인의 성품이 사나워서 집안일은 부인의 주장대로 행해져 자유가 없었다고 하고, 혼사에 있어서도 인품으로 보지 않고 재산만을 보고 사위와 며느리를 얻었다고 혹평하고 있다.

<성종실록> 줄기에 보이는 이와 같은 혹평은 당시 삼사(三司) 계통에 진출하여 훈구대신들을 공격하던 사림(士林)계통의 신진관료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저 서

《관음현상기》

조선 세조 때의 문신 최항이 왕명을 받아 관음보살의 현상(現相)을 기록한 책. 목판본. 1권 1책. 세조 7년(1461) 간행.

1461년에 왕이 경기 지방을 순수(巡狩)하고 지평(砥平) 상원사(上院寺)에서 유숙하던 날 밤, 관음보살이 나타나 상서로운 빛이 온 누리를 비치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다가 한참만에 흩어졌다. 이에 세조는 크게 기뻐하여 그 절에 우상(優賞)을 내리고 죄인들을 사면하였으며, 정부의 관원들은 축배(祝杯)를 올렸다. 훈부(勳府)에서는 관음상을 만들고, 불전(佛殿)을 세웠다. 또 왕은 그때의 장면을 그린 그림을 국내에 두루 반포하게 하고, 최항에게 명하여 현상기(現相記)를 짓게 한 것이다.

《동국정운》

활자본. 6권 6책. 국보 제71호(간송문고본, 권1·6)와 국보 제142호(건국대학 박물관 소장본, 완질)가 있다. 왕명으로 집현전(集賢殿) 학사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강희안(姜希顔)·이현로(李賢老)·조변안(曹變安)·김증(金曾) 등 9명이 편찬에 착수하여 세종 29년 완성, 이듬해 간행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산실되었으나, 1940년 경북 안동에서 첫째 권과 여섯째 권이 발견되었고, 1972년 강릉에서 6권 6책의 전질이 발견되었다.

1443년 훈민정음(訓民正音) 완성 후, 한국 한자음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국 명나라의 운서(韻書)인 <광운(廣韻)>, <집운(集韻)>, <홍무정운(洪武正韻)> 등을 참고로 삼아 엮었다. 내용은 모두 91운(韻), 23자모(字母)로 되어 있으며, 글자마다 국어음을 먼저 표기한 다음 그 밑에 한자를 달았는데, 엄선한 이 23자모는 그대로 훈민정음의 초성체계와 일치한다. 조선 초기의 한자음과 훈민정음 연구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1973년 4월 건국대학 출판부에서 전6권을 영인(影印), 간행한 바 있다.

《경국대전》

조선왕조는 개창과 더불어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고려 말 이래의 각종 법령 및 판례법과 관습법을 수집하여 태조 5년(1396)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 전에 왕조 수립과 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한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지어 바친 일이 있었지만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다. <경제육전>은 바로 수정되기 시작하여 태종 때에 <속육전(續六

典)>이 만들어지고, 세종 때에도 법전의 보완작업이 계속되지만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것들이 많았다. 국가체제가 더욱 정비되어 감에 따라 조직적이고 통일된 법전을 만들 필요가 커졌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당시까지의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후대에 길이 전할 법전을 만들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임원준(任元濬)·홍응(洪應)·성임(成任)·서거정(徐居正) 등에게 명하여 편찬작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세조 6년(1360) 먼저 <호전(戶典)>이 완성되고, 1366년에는 편찬이 일단락 되었으나 보완을 계속하느라 전체적인 시행은 미루어졌다. 예종 때에 2차 작업이 끝났으나 예종의 죽음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성종 대에 들어와서 수정이 계속되어 성종 2년(1371) 시행하기로 한 3차, 1374년 시행하기로 한 4차 <경국대전>이 만들어졌다. 1381년에는 다시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많은 내용을 수정하여 5차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다시는 개수하지 않기로 하여, 1385년부터 시행하였다.

그 뒤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이 계속 마련되어 1392년의 <대전집록(大典輯錄)>, 명종 10년(1555)의 <경국대전주해>, 숙종 24년(1698)의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을 거느리게 되었다. 숙종 32년(1706)의 <전록통고(典錄通考)>는 위의 법령집을 <경국대전>의 조문과 함께 묶은 것이다.

또한 반포 때에 이미 <예전(禮典)>의 의식절차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따르고, <호전>의 세입과 세출은 그 대장인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에 의거하도록 규정되었다. 또 형벌법으로서 <대명률(大明律)>과 같은 중국법이 <형전>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었다.

시기가 많이 지남에 따라 후속 법전도 마련되었다. 영조 22년(1646)에는 각종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법령만을 골라 <속대전>을 편찬하여 시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법전이 나타났고, 정조 9년(1685)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속대전> 이후의 법령을 합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만든 <대전통편>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의 법령을 추가한 <대전회통(大典會通)>이 조선왕조 최후의 법전으로서 고종 2년(1865)에 이루어졌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개창 때부터의 정부체제인 육전체제(六典體制)를 따라 6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14~6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전(吏典)>은 궁중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직제 및 관리의 임면과 사령, <호전>은 재정을 비롯하여 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래 등, <예전>은 여러 종류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등, <병전(兵典)>은 군제와 군사, <형전>은 형벌·재판·노비·상속 등, <공전(工典)>은 도로·교량·도량형·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실었다.

짧게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길게는 고려 말부터 약 100년간의 법률제정사업을 바탕으로 완성된 이 법전의 반포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밑받침하는 통치규범의 확립을 의미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의 일방적인 창조라기보다 당시 현존한 고유법을 성문화하여 중국법의 무제한적인 침투를 막고 조선 사회 나름의 질서를 후대로 이어주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형전>의 자녀균분상속법, <호전>의 매매 및 사유권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규정, <형전>의 민사적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 등은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법이다.

한편, 당시 사회의 한계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한 예이다. 실제 정치운영에서는 점점 세밀한 규정들이 수립되어 국왕의 권한에

많은 제약을 가하였지만, 조선 사회의 기본 정치이념에서 국왕은 법률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의 자격에 대해 천민이 아닐 것 이상의 신분적 제약을 정해놓지 않아 중세 신분제의 극복과정에서 한층 발전된 수준을 보여주지만, 노비에 대한 규정을 <형전>에 자세하게 담은 것은 당시의 지배층이 노비제의 기반 위에 서 있었고 그들을 죄인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최고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법률의 개폐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것을 반영한 법전이 출현하였지만, 이 법전의 기본체제와 이념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대전회통>에는 비록 폐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국대전>의 조항이 그 사실과 함께 모두 수록되었다.

사회운영의 질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고 따라서 법전의 시행 내용 또한 매우 큰 폭으로 달라져 갔다. 그것은 단순한 법질서의 혼란이 아니라 사회의 변동과 발전에 대한 체제의 적응 노력이었다. 예를 들어 최고위 관서로 의정부와 있고 그곳의 3정승이 관료의 정상을 이룬다는 기본구조는 19세기 말까지 변화가 없었지만, 조선 전기 3정승과 의정부가 비교적 강력하게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괄한 반면, 조선 중기 이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국정을 총괄하는 관서가 되었고 3정승이 그곳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 때의 비변사는 고위관리의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합좌기구로서 당시 지배층의 확산에 조응하여 좀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끌어 모으고, 더욱 복잡해진 국가행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지녔다. 물론 후기 법전인 <속대전>부터는 비변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매우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법제처가 1962년에 번역본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5년에 번역본과 주석서를 함께 간행하였다.

《역학계몽요해》

주희(朱熹)의 <역학계몽> 해설서.

목활자본. 4권 2책. 세조 11년(1465)에 세조가 문신 최항(崔恒)과 한계희(韓繼禧)에게 명하여 알기 쉽게 보충·해설한 것이다. 권두에 세조가 쓴 어제역학계몽요해서와 권말에 최항의 발문이 있다. 권1에 본도서(本圖書), 권2에 원괘(原卦), 권3에 명시책(明蓍策), 권4에 고변점(考變占)으로 구성되었다. <주역>의 난해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대주(大註)·소주(小註)·할주(割註)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편집·교열에는 김국광(金國光)을 비롯 당시의 손꼽히는 학자 10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주역>의 교재로도 쓰였다.

4. 작 품

여기서는 그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무진정(無盡亭)」

하늘이 비경(秘境)을 아꼈다가 호웅(豪雄)에게 주었으니,
그지없는 기관(奇觀)이 한동(漢東)을 독차지했네.
봄비에 바다 갈매기 난간 밖에 가까이 오고,
석양 노을 따오기는 술잔 속에 비치누나.
죽백(竹帛)의 이름 오르기로서니 그것이 무엇이리,
계산(溪山)의 흥치야말로 늙을수록 무궁하네,
절름발이 나귀 거꾸로 타고 가는 곳마다 경치 좋아라,
지친 새 한가함을 아는 것이 어찌 너와 같을꼬.
녹사의(錄蓑衣)로 어부(漁父)아 취해 붙들기도,

흰 베수건으로 목옹(牧翁)과 함께 노래 부르기도,
 안 돌아갈망정 돌아가면 곧 되는걸,
 오호(五湖)의 풍월(風月) 헛되이 생각만 하는 나 부끄럽구나.

▶ 저서 : 太虛亭集, 觀音現相記

▶ 문헌 :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國朝寶鑑>,
 <東文選>,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최 호 문 (崔虎文) 정조 24년 (1800)~철종 1년 (1850)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성안(性安), 호는 송애(松厓).
 아버지는 공조참판 상원(尙遠)이며, 어머니는 성주도씨(星州都氏)로 상회(尙會)의 딸이다. 큰아버지 상준(尙峻)에게 입양되었으며, 정종로(鄭宗魯)의 문인이다. 헌종 7년(1841)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고, 다음해 저작(著作)·박사 등을 거쳐 1843년 성균관전직·예조좌랑·가례도감낭청(嘉禮都監郎廳)을 지냈다. 그 뒤 사간원정언으로 있을 때에는 과거의 부조리를 엄단할 것과 시험종목에 현실성이 없는 시(詩)·부(賦) 등을 없애고 경국지문(經國之文)을 위주로 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문교진흥에 힘쓰자는 「흥학소(興學疏)」와 당시의 정책적인 시폐를 개혁하자는 「시폐소(時弊疏)」를 올렸다.

봉화현감으로 재직 시에는 선정을 베풀어 많은 치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심성론(心性論)에 있어서는 심이 이미 생긴 뒤에 성이 마음에 갖추어지게 되므로 심이 성보다 앞선다는 심선성후설(心先性後說)을 주장하였다.

- ▶ 저서 : 松厓集
- ▶ 문헌 : <純祖實錄>

한 광 근 (韓光近) 영조 11년 (1735)~?

조선 문신. 자는 계명(季明), 본관은 청주(淸州), 사열(師說)의 아들. 영조 44년(1768)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한 광 심 (韓光暹) 숙종 42년 (1716)~?

자는 자명(子明), 본관은 청주(淸州), 사열(師說)의 아들. 영조 49년(1773)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한 금 유 (韓兢裕) 영조 45년 (1769)~?

자는 여림(汝臨), 본관은 청주(淸州), 광섭(光燮)의 아들로 광근(光近)에게 입양. 순조 11년(1811)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 ▶ 문헌 : <國朝文科榜目>, <金陵郡誌>

한 덕 원 (漢德遠) 명종 5년 (1550)~인조 8년 (1630)

통진현(通津縣)에 입향(入鄕)한 치량(致良)의 6세손(世孫)이며 자는 의백(毅伯), 호는 홍암(紅岩)으로, 좌참찬(左參贊) 추증을 받은 곤의 아들.

선조 6년(1573) 식년시(式年試) 사마(司馬)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직에 부임했다. 선조 17년(1584) 예문관 응교(應敎) 사간(司諫) 사헌(司憲)에 특진(特進)하였고, 선조 25년(1592) 장단부사 원종녹훈(原從錄勳), 선조 29년(1596) 강원도 감찰 부임 계주(啓奏)로 감사직, 그 해에 인천부사(仁川府使)를 역임했다.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이후 선조 36년(1603) 황해도(黃海道) 감사(監司), 선조 38년(1605) 한성부윤을 역임했으며 이외에도 의주부윤, 충청감사 등을 지냈다. 광해군 2년(1610) 호조참판을 지냈고 이듬해에 전라도감사로 부임했으나 광해군 4년(1612)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같은 해에 의주부윤으로 재임(再任)되었고 이듬해에 평안감사, 광해군 7년(1615)에는 경기감사를 지냈다. 광해군 9년(1617)에 정헌대부(正憲大夫)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좌찬성(左贊成) 겸(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경연(知經筵) 춘추관(春秋館) 성균관사(成均館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등을 지내고 광해군 11년(1619)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묘는 김포시 대곶면에 있고 입구에 신도비가 있다.

▶ 문헌 : <淸州韓氏監司公實錄>

한 명 옥 (韓明勗) 명종 22년 (1567)~효종 3년 (1652)

조선 문신. 자는 옥재(勗茂), 호는 율헌(栗軒), 본관은 청주(淸州), 슬조(述祖)의 아들.

선조 39년(1606) 진사가 되고, 문음으로 입사(入仕)하여 충무위사과(忠武衛司果)·호조좌랑을 거쳐, 통진현감(通津縣監)으로 재직 중 광해군 4년(1612)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14년 예조좌랑이 되었고, 이듬해 사서·정언을 거쳐 지평이 되었는데, 이때 소북파의 영수 남이공(南以恭)을 탄핵하여 파직 후 평산으로 유배하게 하였다. 이어서 장령·군기시정(軍器寺正)을 역임한 뒤 1618년 군자감정·봉상시정을 거쳐, 이듬해에는 양서어사(兩西御史)로 파견되었다.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실각하매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다시 기용되어 인조 8년(1630) 동지사 겸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인조 20년(1642) 행호군이 되었고, 그 뒤 지돈녕부사가 되었다.

▶ 문헌 :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文科榜目>, <通津縣先生案>

한 백 룬 (韓伯倫) 세종 9년 (1427)~성종 5년 (1474)

조선 문신. 자는 자후(子厚), 호는 의암(毅庵), 본관은 청주(淸州), 관찰사 창(昌)의 아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질을 보였으며 장성(長成)하자 경술(經術)을 통(通)하고 기국(器局)과 도량이 있었다. 세종 26년(1444) 식년문과에 급제, 내시별감

(內侍別監)에 속하고 세조 8년(1462) 사옹원별좌(司饗院別坐)로 있을 때 딸이 세자빈(世子嬪 :睿宗妃・安順王后)으로 책봉되자 세조 12년(1466) 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에 발탁, 세조 14년(1468) 공조정랑(工曹正郎)으로 전임, 이해 예종이 즉위하자 국구(國舅)로 청천군(淸川君)에 봉해졌다.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스리고 익대공신(翼戴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성종 즉위 후 우의정이 되고 성종 2년 (1471)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에 봉작되었다.

관후(寬厚)하고 화평(和平)하며 늘 선세(先世)의 미덕을 계승하였고 몸이 국구(國舅)가 되어 문벌의 경사(慶事)가 더욱 컸지만 마음 갖기를 겸손하게 하였으니 복덕(福德)으로 보아 마땅히 그 영화(榮華)를 누릴 것이고 장수(長壽)하리라 여겼으나 갑자기 병으로 졸(卒)하니 모두가 애통하게 여겼다. 유명(遺命)에 이르기를 모든 상제(喪祭)를 일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하라고 했다 하니 공의 수양(修養)한 바를 알 수 있다. 시호는 양혜(襄惠)이며, 묘소는 김포시 검단면 마전리에 있다.

▶ 문헌 :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한 봉 석 (韓鳳錫)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김포(金浦) 출신, 서울 거주.

1919년 조선총독부 토목기사로 근무 중 3·1운동에 참가하였다. 그 해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1년 군자금 모금을 위해 국

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안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언도 받고 복역 중에 1924년 6월 감형 받아 징역 3년 4개월만에 풀려났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문헌 : <우리고장 獨立運動功勳史(京畿道教育委員會)>

한 성 근 (韓聖根)

1. 생 애

조선 무신. 고종 3년(1866) 병인양요(丙寅洋擾)에 순무영초관(巡撫營哨官)으로 문수산성(文殊山城)을 수비하여 공을 세우고, 고종 18년(1881) 통진부사(通津府使)를 거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또 신식 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이 창설되자 정령관(正領官)으로 군사훈련에 힘썼다. 고종 18년(1881) 8월 안기영(安驥永) 등이 대원군의 서자 이재선(李載先)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사건이 일어나고 이에 연루된 혐의로 투옥되었으나 무혐의로 석방되고, 그 뒤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거쳐 1893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1896년 중추원의관, 1899년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등을 역임했다.

2. 관련 사건

(1) 병인양요

고종 3년(1866) 대원군의 천주교도 학살·탄압에 대항하여 프랑스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

대원군은 병인년(1866) 정초부터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려, 몇 개월 사이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비롯하여 남종삼(南鍾三)·정의배(丁義培) 등 한국인 천주교도 8,000여 명을 학살하였다.

5월 한국을 탈출한 리델 신부는, 중국 톈진[天津]에 주둔한 프랑스 인도차이나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천주교도 학살사건을 알렸다. 보고를 받은 베이징[北京]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는 청국 정부에 공한(公翰)을 보내어 한반도로 진격할 결심을 표명하고, 이후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든 청국 정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 청국 총리아문사무(總理衙門事務)의 공한을 통해 프랑스 동태를 알게 된 대원군은,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변경(邊境)의 수비를 굳게 하였다.

9월 18일 리델 신부와 한국인 신도 3명의 안내로, 로즈 제독이 인솔한 프랑스 군함 3척은 인천 앞 바다를 거쳐 양화진(楊花津)을 통과하여, 서울 근교 서강(西江)에까지 이르렀다. 극도로 긴장한 조정에서는, 어영중군(御營中軍) 이용희(李容熙)에게 표하군(標下軍)·훈국마보군(訓局馬步軍)을 거느려 경인연안을 엄중 경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함대는 이러한 경비태세에 불리함을 느꼈는지, 9월 25일 강류(江流)·연변만 측량하고 중국으로 퇴거하였다.

그러나 10월 로즈 제독은 순양전함(巡洋戰艦) 게리에르를 비롯, 모두 함대 7척과 600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부평부(富平府) 물치도(勿淄島：芍藥島)에 나타났다. 10월 14일 이 중 4척 함정과 해병대가 강화부(江華府) 갑곶진(甲串津) 진해문(鎭海門) 부근의 고지를 점거하였다. 프랑스군은 한강수로의 봉쇄를 선언하고, 16일 전군이 강화성을 공격하여 교전 끝에 이를 점령하고, 무기·서적·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조선은 이경하(李景夏)·신헌(申櫨：申觀浩)·이기조(李基祖)·이용희·한성근(韓聖根)·양헌수(梁憲洙) 등 무장들에게, 서울을

위시하여 양화진·통진(通津)·문수산성(文殊山城)·정족산성(鼎足山城) 등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19일 일단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퇴거할 것을 통고하였다. 로즈는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극구 비난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할 것과,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맞섰다. 10월 26일 프랑스군 약 120명은 문수산성을 정찰하려다 미리 잠복, 대기중인 한성군의 소부대에게 27명이 사상되는 등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었다. 이로부터 민가·군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만행은 황해도 연안(延安)에까지 미쳤다.

11월 7일 프랑스 해병 160명은 대령 올리비에의 지휘로 정족산성을 공략하려다가 잠복·대기 중인 양현수가 이끈 500명 사수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받아 사망 6, 부상 30여 명의 손실을 입고 간신히 갑곶으로 패주하였다. 정족산성에서의 참패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게 저상시켜, 로즈 제독도 조선 침공의 무모함을 깨닫고 철수를 결정하였다.

11월 11일 프랑스군은 1개월 동안 점거한 강화성을 철거하면서, 장녕전(長寧殿) 등 모든 관아에 불을 지르고 앞서 약탈한 은금괴(銀金塊 : 당시 화폐로 환산하여 3만 8000달러)와 대량의 서적·무기·보물 등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다. 이로써 세계정세에 어두운 대원군은 그 기세를 돋구어,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는 등 쇄국양이(鎖國攘夷)정책을 더욱 굳히고, 천주교 박해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구미열강은 이를 계기로 조선을 청국의 종속국가가 아닌 독립한 주권국가로 인식하여, 종래의 한·청 관계를 재검토하였다. 프랑스군이 탈취한 많은 서적·자료 등은, 뒷날 유럽 사람들이 한국·동양을 연구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 문헌 : <日省錄>, <朝鮮最近世政治史>, <韓國人名大事典>, <通津縣先生案>

한 치 량 (韓致良) 세종 17년 (1435)~ 중종 20년 (1525)

본관은 청주(淸州), 덕종(德宗)의 비(妃)인 인수대비(仁粹大妃)의 숙부(叔父) 한질의 삼남(三男)이다.

1463년 출사(出仕) 후,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 김제군수(金堤郡守), 전설사수(典設司守), 사삼시부정(司膳寺副正), 서흥도호부사(瑞興都護府使), 통례원(通禮院) 좌통례행(左通禮行 : 정3품), 회양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를 지냈다.

1498년 신병(身病)으로 사임(辭任)할 당시 연산군(燕山君)의 폭정(暴政)이 더욱 심해져 1504년 중형(仲兄)인 치형(致亨)이 상소문으로 직간(直諫)하자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고 팔촌(八寸)까지 연좌(連坐)되어 통진현에 살고 있던 단양우씨(丹陽禹氏)의 집에 입향(入鄉)하였는데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신원(伸冤)이 원상복구(原狀復舊)되었지만 일절(一切) 환로(宦路)에 나가지 않았다. 배위(配位)인 단양 우씨와 오자(五子)를 두고 1525년에 천수(天壽)를 다하였다. 묘는 김포시 대곶면에 있다.

▶ 문헌 : <淸州韓氏淮陽公實錄>

허 감 (許 鑑) 영조 12년 (1736)~?

조선 후기 도화서(圖畵署) 출신의 화가.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군명(君明). 화원(畵員) 담(倓)의 아들이다. 벼슬은 첨사(僉使)에 올랐다. 그림은 산수·인물·초충(草蟲)을 모두 잘 그렸다고 전해오나 알려진 유작은 없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강 (許 樞) 중종 15년 (1520)~선조 25년 (1592)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사아(士牙), 호는 송호(松湖)·강호거사(江湖居士). 좌찬성 자(磁)의 아들이며, 목(穆)의 할아버지이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즐기고 박람강기(博覽強記)하며, 심성이 높고 깨끗하여 이달(利達)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아버지가 문정왕후 때 이기(李芑)의 모함으로 홍원에 귀양감을 보고 벼슬을 단념하였다.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죽자, 여막살이로 죽을 먹으면서 매우 슬퍼하였다. 복상을 마치매 행의(行誼) 때문에 전감사별제(典監司別提)에 제수되었으나 출사(出仕)하지 않고, 40년 간 강호에 방랑하면서 옛사람의 책으로 자오(自娛)하고 교유를 사절하였다.

다학박식하여 만물의 변에 능통한 정작·이지함·양사언·김태균과 교제(交契)가 특별히 깊었다. 임진왜란 때 토산(兎山)에서 피난하던 중 죽었다.

아버지가 편찬하던 <역대사감(歷代史鑑)>을 완성하였다.

저서로 <송호유고>가 있으며, 시조 7수와 가사 <서호사(西湖詞)>(일명 서호별곡) 1편이 허목이 엮은 <선조영언(先祖永言)>에 수록되어 전한다. <서호별곡>은 양사언의 친필사본 첩책(牒冊)에도 들어 있다.

▶ 저서 : 松湖遺稿

허 경 (許 垧) 중종 6년 (1511)~명종 3년 (154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중원(重遠). 우찬성 허굉의 아들이다.

중종 31년(1536) 친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중종이 등극하기 전에 친구사이었으므로 특별히 총애를 받았다. 당시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많아 전조(銓曹)에서 일곱 번이나 감찰관에 추천하였으나, 모두 임명받지 못하였다. 그 뒤 수찬을 거쳐, 병조좌랑을 지냈다.

1537년 김안로(金安老)의 일당이 되어 옥사(獄事)를 함부로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등 행패를 자행하던 정유삼흉의 한 사람인 허항(許沆)의 죄에 연루되어 영암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유배생활 속에서도 산수에 마음을 두고 노닐며 돌아올 줄을 몰랐다.

저서로는 <호산록(湖山錄)> 2권이 있으나 병화로 전해지지 않는다.

▶ 문헌 : <明宗實錄>, <中宗實錄>, <國朝榜目>, <星湖文集>

허 경 (許 穎) 호종 1년 (1650)~숙종 45년 (171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요부(堯夫), 호는 빙호(氷湖). 아버지는 지평 열(悅)이며, 어머니는 권현(權峴)의 딸이다.

숙종 1년(1675) 생원시에 합격하고, 숙종 7년(168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정자·지평·응교·장령을 거쳐 동부승지를 지냈다. 이어 경주부윤이 되고,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 저서 : 氷湖遺稿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계 (許 啓) 선조 27년 (159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옥여(沃余), 호는 성암(醒菴). 아버지는 판중추부사 휘(徽)이며, 어머니는 한광립(韓光立)의 딸이다.

광해군 4년(1612) 진사가 되고, 인조 2년(1624) 호조좌랑으로서 증광문과에 병과로, 1636년 증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637년 우승지·경기도관찰사, 1642년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이해에 이경여(李敬輿)·이명한(李明漢)·신익성(申翊聖)·신익전(申翊全) 등과 함께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사건, 즉 오신죄안(五臣罪案)에 연좌되어 심양(瀋陽)에 잡혀가 심문을 받고 관직을 삭탈당한 뒤 이듬해 귀국하였다.

귀국 후 도승지가 되고, 호조·병조·예조의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 저서 : 醒菴集

▶ 문헌 : <仁祖實錄>, <國朝榜目>, <瀋陽日記>, <江漢集>

허 계 (許 槩) 정조 22년 (1798) ~ 고종 3년 (1866)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이숙(而肅). 통제사 임(任)의 손자이며, 군수 죽(戢)의 아들이다.

순조 14년(1814)천거로 선전관이 되고, 1815년 무과에 급제, 헌종 1년(1835) 경상좌도병마절도사, 1837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 1841년 함경북도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거쳐, 이듬해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에 올랐다.

이어 1846년 평안도병마절도사를 거쳐 철종 2년(1851)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을 세번이나 역임한 뒤 1858년 금위대장을 지냈다. 1865년 조두순(趙斗淳) 내각에서 공조판서·어영대장으로 경복궁 건영도감의 제조(提調)가 된 뒤 판의금부사·도총관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효민(孝敏)이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굉 (許 礪) 성종 2년 (1471) ~ 중종 24년 (1529)

조선 문신. 자는 굉지(宏之), 호는 정와(澄窩), 본관은 양천, 좌의정 침(琛)의 아들.

성종 23년(1492) 진사, 연산군 9년(150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檢

闊)·정자(正字)·지평(持平)을 거쳐 이조정랑·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사간(司諫)·직제학(直提學)을 역임했다. 중종 10년(1515) 동부승지(同副承旨) 이듬해 전라 감사를 거쳐 대사간(大司諫)·대사헌(大司憲)을 역임, 다시 평안·경기·함경 등 3도 관찰사를 지냈다.

중종 15년(1520) 조윤손(曹潤孫)이 여연(閔延)·무창(茂昌)의 야인을 정벌할 때 그를 도와 큰 공을 세워 예조판서에 오르고, 중종 23년(1528) 우찬성(右贊成)에 승진했다. 이 때 서쪽 변방이 야인들의 잦은 침범으로 소란해지자 순변사(巡邊使)가 되어 평정하고 개선,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 중 별세했다.

▶ 문헌 : <中宗實錄>, <海東名臣錄>, <韓國人名大事典>

허 교 (許 喬) 명종 22년 (1567)~인조 10년 (163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유악(維岳)·수옹(壽翁). 별제 허강의 아들이다. 부인은 임제(林悌)의 딸이다.

어려서 수호자(垂胡子)에게서 시(詩)를, 신봉생(申鵬生)에게서 <사기>를 배우고 박지화(朴枝華)의 문인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피난지 토산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많은 가족을 이끌고 각지를 전전하며 이들을 부양하였다. 재상 김명원(金命元)의 천거로 군자감참봉(軍資監參奉)이 되고, 그 뒤 직장·판관을 거쳐 거창현감이 되었다.

인근 읍에 살인자가 있었는데 세력 있는 자가 그를 숨기고 오래도록 의옥(疑獄)이 되게 하였다. 이에 그가 추관(推官)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였다.

인조 10년(1632) 포천현감이 되었다.

▶ 문헌 : <記言>

허 균 (許筠) 선조 2년 (1569) ~ 광해군 10년 (16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 · 학산(鶴山) · 성소(惺所) · 백월거사(白月居士).

1. 생애

(1) 가계와 학통

아버지는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서 학자 ·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엽(曄)이며, 어머니는 후취인 강릉김씨(江陵金氏)로써 예조판서 광철(光轍)의 딸이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성(箴)이 이복형이며, 봉(筠)과 난설헌(蘭雪軒)이 동복형제이다.

5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9세 때 시를 지을 줄 알았다. 12세 때 아버지를 잃고 더욱 시 공부에 전념하였다. 학문은 유성룡(柳成龍)에게 나아가 배웠으며, 시는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하나인 이달(李達)에게 배웠다. 이달은 둘째 형의 친구로서 당시 원주의 손곡리(蓀谷里)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시의 묘재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인생관과 문학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여러 관직을 거치다

그 뒤 26세 때인 선조 27년(1594)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고 설

서(說書)를 지냈고, 1597년에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하였다.

이듬해 황해도 도사(都事)가 되었는데, 서울의 기생을 끌어들이려 가까이 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여섯달 만에 파직되었다. 뒤에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형조정랑을 지내고, 1602년 사예(司藝)·사복시정(司僕寺正)을 역임하였으며, 이해에 원접사 이정구(李廷龜)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하였다.

1604년 수안군수(遂安郡守)로 부임하였다가 불교를 믿는다는 탄핵을 받아 또 다시 벼슬길에서 물러나왔다.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글재주와 넓은 학식으로 이름을 떨치고, 누이 난설현의 시를 주지번에게 보여 이를 중국에서 출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공로로 삼척부사가 되었으나 여기서도 석 달이 못되어 불상을 모시고 염불과 참선을 한다는 탄핵을 받아 쫓겨났다.

그 뒤 공주목사로 다시 기용되어 서류(庶流)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또다시 파직당한 뒤에는 부안으로 내려가 산천을 유람하며 기생 계생(桂生)을 만났고 천민출신의 시인 유희경(柳希慶)과도 교분을 두터이하였다.

광해군 1년(1609) 명나라 책봉사가 왔을 때 이상익(李尙毅)의 종사관이 되었다. 이해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고 이어 형조참의가 되었다. 1610년 전시(殿試)의 시관으로 있으면서 조카와 사위를 합격시켰다는 탄핵을 받아 전라도 함열(咸悅)로 유배되었다.

그 뒤 몇 년간은 태인(泰仁)에 은거하였는데, 1613년 계축옥사에 평소 친교가 있던 서류출신의 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이 처형당하자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이첨(李爾瞻)에게 아부하여 대북(大北)에 참여하였다.

(3) 역적모의 죄로 참수되다

1614년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중국에 다녀왔으며, 그 이듬해에는 동지겸진

주부사(冬至兼陳奏副使)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 두 차례의 사행에서 많은 명나라 학자들과 사귀었으며 귀국할 때 <태평광기(太平廣記)>를 비롯하여 많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천주교 기도문과 지도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1617년 좌참찬이 되었으며 폐모론을 주장하다가 폐모를 반대하던 영의정 기자헌(奇自獻)과 사이가 벌어지고 기자헌은 길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 아들 기준격(奇俊格)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허균의 죄상을 폭로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허균도 상소를 올려 변명하였다.

1618년 8월 남대문에 격문을 붙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허균의 심복 현응민(玄應旻)이 붙였다는 것이 탄로났으며 허균과 기준격을 대질 심문시킨 끝에 역적모의를 하였다 하여 허균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4) 불교·도교사상에 심취하다

당시의 허균에 대한 평가는 총명하고 영발(英發)하여 능히 시를 아는 사람이라 하여 문장과 식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됨에 대하여서는 경박하다거나 인륜도덕을 어지럽히고 이단을 좋아하여 행실을 더럽혔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의 생애를 통해볼 때 몇 차례에 걸친 파직의 이유가 대개 그러한 부정적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허균은 국문학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은 작가로 인정되고 있다. 한때 그가 지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그보다 18년 아래인 이식(李植)이 지은 <택당집(澤堂集)>의 기록을 뒤엎을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를 「홍길동전」의 작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의 생애와 그의 논설 「호민론(豪民論)」에 나타난 이상적인 혁명가상을 연결시켜

볼 때 그 구체적인 형상화가 홍길동으로 나타났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의 문집에 실린 「관론(官論)」·「정론(政論)」·「병론(兵論)」·「유재론(遺才論)」 등에서 그는 민본사상과 국방정책, 신분계급의 타파 및 인재등용과 봉당배척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내정개혁을 주장한 그의 이론은 원시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백성들의 복리증진을 정치의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허균은 유교집안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한 유가로서 학문의 기본을 유학에 두고 있으나 당시의 이단으로 지목되던 불교·도교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한때 출가하여 중이 되려는 생각도 있었으며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한평생을 헛되이 보낼 뻔하였다는 술회를 하기도 하였다.

불교를 믿는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고서도 자기의 신념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음을 시와 편지글에서 밝히고 있다. 도교사상에 대해서는 주로 그 양생술과 신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은둔사상에도 지극한 동경을 나타내었다.

은둔생활의 방법에 대하여 쓴 <한정록(閑情錄)>이 있어 그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허균 자신이 서학(西學)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없으나 몇몇 기록에 의하면, 허균이 중국에 가서 천주교의 기도문을 가지고 온 것을 계기로 하늘을 섬기는 학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그가 새로운 문물과 서학의 이론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예교(禮敎)에만 얽매어 있던 당시 선비사회에서 보면 이단시할 만큼 허균은 다각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인물이며, 편협한 자기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꺾박받는 하층민의 입장에서 정치관과 학문관을 피력해 나간 시대의 선각

자였다.

(5) 많은 저작을 남기다

그의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는 자신이 편찬하여 죽기 전에 외손에게 전하였다고 하며, 그 부록에 <한정록>이 있다.

그가 스물 다섯 살 때 쓴 시평론집 <학산초담(鶴山樵談)>이 <성소부부고> 가운데 실려 있는 <성수시화(惺叟詩話)>와 함께 그의 시비평 안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반대파에 의해서도 인정받은 그의 시에 대한 감식안은 시선집 <국조시산(國朝詩刪)>을 통하여 오늘날까지도 평가받고 있다. <국조시산>에 덧붙여 자신의 가문에서 여섯 사람의 시를 뽑아 모은 <허문세고(許門世藁)>가 전한다.

2. 저 서

《국조시산(國朝詩刪)》

목판본. 2권 1책. 30.3×20.3cm. 광해군 때의 문신이며 소설가인 교산(蛟山) 허균(許筠)이 엮었고, 숙종 21년(1695) 동계(東溪) 박태순(朴泰淳)이 간행하였다. 수록된 시는 정도전(鄭道傳)의 작품에서부터 권필(權)의 시에 이르기까지의 한시(漢詩)로, 권1에는 5언 절구와 6언 절구를, 권2에는 7언 절구를 수록하였고, 권필이 비선(批選)한 허문세고(許門世藁)와 허균이 권필에게 비선을 부탁하였을 때의 왕복서신을 붙였다. 허문세고에는 57고시(五七古詩)·57율시(五七律詩) 및 57절구(五七絕句)를 수록하였다. 책머리에는 간행년에 쓴 박태순의 서(序)가 실려 있다.

《도문대작(屠門大嚼)》

광해군 3년(1611) 허균이 전국 8도의 식품과 명산지에 관하여 적은 책.

필사본. 1권. 규장각도서. 저자는 서문에서 “내가 죄를 짓고 귀양살이를 하게 되니 지난날에 먹었던 음식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다. 이에 유(類)를 나누어 기록해 놓고 때때로 보아가며 한 번 맛보는 것이나 못지 않게 한다…”고 밝히고, 당시의 식품을 유형별로 나누고 이들 식품의 특징과 명산지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은 방풍죽(防風粥: 강릉)·석이병(石耳餅: 개성)·엿·대만두(大饅頭)·두부·다식(茶食)·옹지정과(熊脂正果) 등 병이류(餅餌類) 11종, 강릉의 천사배[天賜梨], 전주의 승도(僧桃) 등 과실류 28종, 곰의 발바닥[熊掌], 표범의 태[豹胎], 사슴의 혀와 꼬리 등 비주류(飛走類) 6종, 붕어·청어·복어·송어·광어·방어·도루묵·홍합·대하 등 해수족(海水族) 46종, 무·배추 등 채소류 33종, 기타 5종을 나열하고, 이들 식품의 특징과 명산지를 밝혔으며, 끝으로 서울 음식 28종을 계절과 재료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책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실국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의 오동(吳同)이라는 사람이 이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오늘날의 ‘우동’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고 있다. 책 끝에는 1611년 4월에 쓴 저자의 제사(題辭)가 있는데, <도문대작>이라는 제목은 고기를 먹고 싶으나 먹을 수가 없으므로 도문(도살장의 문)이나 바라보고 대작(질경질경 씹는다)하며 자위한다는 것으로, 가당치 아니한 것을 부러워한다는 뜻이다.

《학산초담(鶴山樵談)》

허균(許筠)의 시평서.

필사본. 1책. 1969년 조윤제(趙潤濟)가 소장한 편자 미상의 <패림(稗林)>을 탐구당에서 영인하면서 6집에 실려 있는 이 글이 알려지게 되었다. 1972년 성균관대학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허균전집>에도 수록되었다. 선조 26년(1593) 적자가 임진왜란을 피해 강릉에 있으면서 지은 것으로, 그가 살았던 선조 무렵의 시인들에 대한 시화·시평 99칙과 시인에 관한 소개 9칙, 총 108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문(文)은 도(道)를 실어 전하는 도구(載道論)로 보는 당말·송대의 시풍을 심미론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이백·두보로 대표되는 성당(盛唐) 시대의 시풍을 회복할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당파(學唐派)를 중심으로 한 문단 흐름이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당시 조선 문단은 송시(宋詩)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는 당시(唐詩)의 전통은 이주(李胄)·김정(金淨)을 태두로 하여 노수신(盧守愼)·정사룡(鄭士龍)·황정욱(黃庭彧) 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달(李達)·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 등 3당파(三唐派) 시인의 등장으로 완성되며, 허봉·허난설현(許蘭雪軒)·백대봉(白大鵬) 등에게 계승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3당파 시인이 18칙, 하곡 25칙, 난설현 6칙, 소·호·지 5칙, 이주·김정·백대봉 등에 관한 시평과 시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한정록(閑情錄)》

필사본. 17권 4책. 은거자의 정신적·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은거자들에 대한 자료와 농사법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교양서이다. 1961년 성균관대학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의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1980년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한 <허균전서>에도 수록

되어 있다. 1981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하였다.

광해군 2년(1610) <은둔(隱遁)>·<한적(閑適)>·<퇴휴(退休)>·<청사(淸事)>의 4문(門)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가, 1618년 내용을 증보하여 16문으로 구성하고 부록을 덧붙였다. 15문까지는 <은둔(隱遁)>·<고일(高逸)>·<한적(閑寂)>·<퇴휴(退休)>·<유흥(遊興)>·<아치(雅致)>·<숭검(崇儉)>·<임탄(任誕)>·<광회(曠懷)>·<유사(幽事)>·<명훈(名訓)>·<정업(靜業)>·<현상(玄賞)>·<청공(淸供)>·<섭생(攝生)> 등 해당 주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국의 서적에서 채록하였다. 16문인 <치농(治農)>은 은둔자의 생활 방편으로 중요한 농사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명나라 농서인 <도주공치부기서(陶朱公治富奇書)>를 발췌·수록하였다.

여기에는 농사법뿐만 아니라 양잠(養蠶)·양우(養牛)·양어(養魚)·양계(養鷄) 등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치농조는 조선 후기에 맨 처음으로 시도된 농서로서 농업에 관한 중국 고서의 자료를 수집·정리한 점에서 <농사직설(農事直說)> <금양잡록(衿陽雜錄)> 등과는 다른 경향의 농서로 평가된다.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조선 선조 때 허균이 지은 고소설(古小說).

작자가 손수 편찬한 그의 시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수록된 5편의 한문소설(漢文小說) 중에서 가장 긴 작품으로, 그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과 함께 허균 소설의 쌍벽을 이룬다.

전라도에 남궁두(南宮斗)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그가 서울에서 진사 벼슬을 하는 동안 고향에 혼자 남아 있던 애첩이 남궁두의 당질과 간통을 한다. 분통이 터진 그는 두 남녀를 활로 사살하고 귀경하나, 이 일이 탄로되어 붙잡힌 끝에 갖

은 악형을 받는다.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난 그는 금대산(金臺山)에 들어가 중이 되며, 한 노인을 만나 수련을 쌓고 도에 통한다. 그 뒤에 남궁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속세에 돌아와 새로 장가를 들고 사는데, 때마침 파직을 당하고 부안(扶安)에서 살던 작자 허균을 찾아와 선가(仙家)의 비결을 알려 준다는 줄거리이다.

《홍길동전(洪吉童傳)》

조선조 광해군(光海君) 때 허균이 지은 고전 소설. 방각본, 필사본, 활자본. 작자가 허균이 아니라는 설도 있으나 활동시기에 큰 차이가 없는 이식(李植)의 <택당집(澤堂集)>에 「홍길동전(洪吉童傳)」을 허균이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대체로 허균을 작자로 보고 있다. 이본으로는 김동욱(金東旭) 편 <경인고소설 판각본전집(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소재의 한남본(翰南本), 야동교본(冶洞橋本), 어청교본(漁靑橋本), 송동교본(宋洞橋本), 안성(安城) 23장본, 안성 19장본, 완판본(完板本) 등이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경판계인 한남본이 최고본(最古本), 혹은 최선본(最先本)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야동교본이 보다 앞선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완판본의 경우는 경판계에 비해 배불 의식(排佛意識)이나, 탐관오리 및 소인배에 대한 징치 의식이 보다 첨예하게 드러나 있으며,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가 더 부각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길동은 아버지 홍승상이 용몽을 꾸 후 시비(侍婢)인 춘섬과 정을 통하여 태어난다. 홍길동은 천한 신분으로 말미암아 비범한 재주를 지녔지만 천대받고 호부호형(呼父呼兄)조차 할 수 없었다. 더욱이 홍승상의 애첩 곡산모는 홍길동을 시기하여 자객을 시켜 그를 해치려고 한다. 곡산모의 간계를 알아챈 홍길동은 특

재와 상녀(相女)를 살해하고 그 길로 방랑의 길을 떠나 마침내 활빈당(活貧黨)의 괴수가 된다. 이후 홍길동은 무리를 이끌고 합천 해인사와 함경감영을 공략하여 재물과 무기를 탈취하고 전국을 소란에 빠뜨린다. 국가에서는 우포장 이흠을 파견하여 홍길동을 잡으려 하지만 우포장은 도리어 홍길동에게 속아 농락당한다. 이에 홍길동의 형 홍인형을 경상감사로 삼아 홍길동을 잡으려 하니, 홍길동은 마지못해 잡혀온다. 그러나 재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사대문에 방을 붙여 자신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면 조선을 떠나겠다고 한다. 임금이 병조판서를 제수하자 홍길동은 약속대로 조선을 떠난다. 조선을 떠난 홍길동은 제도에서 울동이라는 괴물을 처지하고 두 아내를 얻으며, 마침내 울도국이라는 나라를 정벌하여 왕위에 오른 후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다가 생애를 마감한다.

이 작품은 연산군대의 “홍길동(洪吉同) 사건”이나 명종대의 “임꺽정 사건”, 허균 당대의 “칠서(七庶)의 사건” 등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신양동기(申陽洞記)」와 같은 중국 소설의 영향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영웅의 일생”을 기본 구조로 하면서 당대 사회의 문제를 예리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적서 차별의 문제이다. 홍길동의 반항적 행동은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신분이 미천하다 하여 인재를 버리는 불합리한 당대 상황의 부당성과 그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허균이 「유재론(遺才論)」에서 재주 있는 자를 버리는 당대의 사회 제도를 비판했던 것과 연결된다.

또한 홍길동의 행적은 허균이 「호민론(豪民論)」에서 목민자(牧民者)가 정치를 잘못하면 호민이 그 틈을 노려 무도(無道)한 자를 죽이게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이상 사회의 실현이라는 낭만적 동경 의식이 짙게 배어있는 작품

이기도 하다. 「홍길동전」은 영웅 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후대 영웅 소설의 출현 및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 저서 : 蛟山詩話, 惺叟詩話, 鶴山樵談, 屠門大爵, 早年識記, 閑情錄

허난설헌 (許蘭雪軒) 명종 18년 (1563) ~ 선조 22년 (1589)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본관은 양천(陽川). 본명은 초희(楚姬). 자는 경번(景樊), 호는 난설헌. 강릉 출생. 엽(曄)의 딸이고, 봉(筠)의 동생이며 균(筠)의 누이이다. 가문은 현상(賢相) 공(珙)의 혈통을 이은 명문으로 누대의 문한가(文翰家)로 유명한 학자와 인물을 배출하였다.

1. 생애

아버지가 첫 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에게서 성(箴)과 두 딸을 낳고 사별한 뒤, 강릉김씨(江陵金氏) 광철(光轍)의 딸을 재취하여 봉·초희·균 3남매를 두었다.

이러한 천재적 가문에서 성장하면서 어릴 때 오빠와 동생의 틈바구니에서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으며, 아름다운 용모와 천품이 뛰어나 8세에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梁文)」을 짓는 등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허씨 가문과 친교가 있었던 이달(李達)에게 시를 배웠으며, 15세 무렵 안동김씨(安東金氏) 성립(誠立)과 혼인하였으나 원만한 부부가 되지 못하였다. 남편은 급제한 뒤 관직에 나갔으나, 가정의 즐거움보다 노류장화(路柳牆花)의 풍류를

즐겼다. 거기에다가 고부간에 불화하여 시어머니의 학대와 질시 속에 살았으며, 사랑하던 남매를 잃은 뒤 설상가상으로 뱃속의 아이까지 잃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친정집에서 옥사(獄事)가 있었고, 동생 군마저 귀양 가는 등 비극의 연속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책과 먹으로 고뇌를 달래며, 생의 울부짖음에 항거하다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과 잇달은 가정의 참화로, 그의 시 213수 가운데 속세를 떠나고 싶은 신선시가 128수나 될 만큼 신선사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 일부를 군이 명나라 시인 주지번(朱之蕃)에게 주어 중국에서 <난설헌집>이 간행되어 격찬을 받았고, 1711년에는 일본에서도 분다이(文台屋次郎)가 간행, 애송되었다.

유고집에 <난설헌집>이 있고, 국한문가사 「규원가(閨怨歌)」와 「봉선화가(鳳仙花歌)」가 있으나, 「규원가」는 허균의 첩 무옥(巫玉)이, 「봉선화가」는 정일당 김씨(貞一堂金氏)가 지었다고도 한다.

2. 저 서

《난설헌집(蘭雪軒集)》

허난설헌의 시는 임종 때의 유언에 의해 대부분을 소각해 버렸는데, 동생 허균이 남은 작품들을 모아 명나라에서 온 사신 주지번(朱之蕃)에게 준 것이 중국에서 1606년에 간행되었다.

역시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도 개주 갑인자본(改鑄甲寅字本)이 간행되었으나, 1692년 동래부에서 중간한 중간본(重刊本)이 현재 널리 전해져 온다. 이 중간본이 일본에 건너가 1711년 분다이(文台屋次郎)에 의해 일본에서도 간행

되었다. 시 210수, 사(辭) 1수, 「몽유광상산시서(夢遊廣桑山詩序)」 1편,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梁文)」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가 허난설헌의 시가 아니라 허균의 위작(僞作)이거나 허균이 중국 시를 몰래 섞어 놓은 것 또는 중국 시를 표절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수광, 김만중, 신흠 등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남용익(南龍翼)이 허난설헌 시의 격이 오빠 허봉의 시보다도 높아서 허균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시재(詩才)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 중국에서 처음 출간된 만큼 중국 시를 섞어 놓은 것은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허난설헌의 시로 긍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작 품

여기서는 「사시사(四時詞)」 중 가을의 노래를 소개한다.

비단 장막으로 찬 기운 스며들고 새벽은 멀었지만
텅 빈 뜨락에 이슬 내려 구슬 병풍은 더욱 차갑다.
못 위의 연꽃은 시들어도 밤까지 향기 여전하고
우물가의 오동잎은 떨어져 그림자 없는 가을.
물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서풍타고 울리는데
주렴 밖에는 서리 내려 밤벌레 시끄럽구나.
베틀에 감긴 옷감 가위로 잘라낸 뒤
임 그리는 꿈을 깨니 비단 장막은 허전하다.
먼길 나그네에게 부치려고 임의 옷을 재단하니

쓸쓸한 등불이 어두운 벽을 밝힐 뿐.
 울음을 삼키며 편지 한 장 써놓았는데
 내일 아침 남쪽 동네로 전해준다네.
 옷과 편지 봉하고 뜨락에 나서니
 반짝이는 은하수에 새벽별만 밝네.
 차디찬 금침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룰 때
 지는 달이 정겹게 내 방을 엿보네.

▶ 저서 : 蘭雪軒集

▶ 문헌 : <許筠全集>, <歷代女流漢詩文選>

허 련 (許鍊) 순조 9년 (1809)~고종 29년 (1892)

조선 말기의 선비화가.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마힐(摩詰), 호는 소치(小痴)·노치(老痴)·석치(石痴). 조희룡(趙熙龍)·전기(田琦) 등과 함께 김정희 일파(金正喜一派)에 속한다.

중국 당나라 남종화와 수묵산수화(水墨山水畵)의 호시인 왕유(王維)의 이름을 따라서 '허유(許維)'라고 개명(改名)하였고, 마힐은 왕유의 자를 따른 것이다. 허균(許筠)의 후예 가운데 진도에 정착한 허대(許垓)의 후손이다. 그림으로 유명해진 이후 헌종의 배려로 1848년 고부감시(古阜監試)를 거쳐 친임회시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초년에는 해남의 윤선도(尹善道) 고택에서 윤두서(尹斗緒)의 작품을 통하여

전통화풍을 익혔다. 대흥사 초의(草衣)의 소개로 1839년 상경하여 김정희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서화를 수업하였다.

김정희로부터 중국 북송의 미불(米芾), 원말의 황공망(黃公望)과 예찬(倪瓚), 청나라의 석도(石濤) 등을 배우고, 그의 서풍(書風)도 전수받으면서 남종문인화의 필법과 정신을 익혔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회화세계를 구축하여 김정희일과 가운데 남종화풍을 토착화시킨 화가로 지목된다. 김정희를 통하여 명사들과 폭넓게 교류하였으며, 1846년에는 권돈인(權敦仁)의 집에 머무르며 헌종에게 그림을 바쳐 궁중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고, 왕과 여러 차례의 접촉을 가졌다.

명류(名流)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화세계를 풍부하게 하였으며, 남종화의 문기(文氣)와 화경(畵境)을 깊게 하였다. 그와 교우관계를 가진 인사들로는 해남의 우수사 신관호(申觀浩), 정약용(丁若鏞)의 아들 학연(學淵), 민승호(閔升鎬)·김흥근(金興根)·정원용(鄭元容)·홍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민영익(閔泳翊) 등이 있다.

만년인 1856년에는 진도에 귀향하여 화실인 운림산방(雲林山房)을 마련하고 제작활동에 몰두하였다.

1866년에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선면산수도(扇面山水圖)> 등을 남겼고, 1867년에는 <몽연록(夢緣錄)>·<소치실록(小痴實錄)> 등을 저술하였다.

다방면의 화재에 능통하였지만 산수화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산수화는 황공망·예찬의 구도와 필법을 바탕으로 하였으면서도 붓끝이 갈라진 거친 독필(秃筆)의 자유분방한 필치와 생편한 담채의 색감에서 독특하고 개성이 두드러진 화풍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산수화 외에 진한 먹을 대담하고 능란하게 구사한 사군자·모란·파초·괴석·노송·연화 그림도 특징적인 개성미를 지녔다. 스승 김정희도 “압록강 동쪽으로 소치를 따를만한 화가가 없다.”든지, “소치 그림이 내 것보다 낫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토착화된 화풍은 아들 형(潐)에게 전수되고, 손자 건(楗), 방계인 허백련(許百鍊) 등으로 계승되어 현대 호남화단의 주축을 이루었다.

유작으로는 <산수도첩(山水圖帖)>·<오백장군암도(五百將軍巖圖)>·<방예찬죽수계정도(倣倪瓚竹樹溪亭圖)>·<방석도산수도(倣石濤山水圖)>·<선면산수도(扇面山水圖)>·<누각산수도(樓閣山水圖)>·<김정희초상(金正喜肖像)> 등이 있으며, 이 밖에 모란·괴석·사군자 등 많은 양의 작품이 전한다.

▶ 문헌 : <槿域書畫徵>, <秋史集>

허 로 (許 輅) 선조 31년 (1598)~인조 15년 (1637)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川). 아버지는 행부호군 수(修)이며, 어머니는 응교 채경선(蔡慶先)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학업에 힘써 문명(文名)이 있었으며, 용력이 뛰어났다.

인조 11년(1633) 무과에 급제, 다음해 선전관 겸 비변랑(宣傳官兼備邊郎)이 되고, 1636년 서쪽 변방의 적침을 염려하여 무관을 뽑아 서부 각 주·현에 배치할 때, 순안현감이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다음해 좌영장(左營將)으로 평양감사 홍명구(洪命耆)를

따라 김화(金化)에 이르러 적을 만났는데, 뒷고개에 진을 치고 싸울 것을 극력 청하였지만, 홍명구가 듣지 않고 들에 진을 치자 마지못하여 보병을 거느리고 역 공격을 하여 적을 두 차례나 격파했으나, 다음날 아침 적이 뒷고개를 넘어와 기습함으로써 홍명구와 함께 전사하였다.

1649년 전공(戰功)으로 승정원좌승지에 추증되었다.

▶ 문헌 :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典故大方>

허 목 (許 穆) 선조 28년 (1595)~숙종 8년 (168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 찬성 자(磁)의 증손으로, 별제 강(樞)의 손자이고, 현감 교(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정랑 임제(林悌)의 딸이다. 부인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손녀이다.

1. 생 애

광해군 7년(1615) 정언웅에게 글을 배우고, 1617년 아버지가 거창현감에 임명되자 아버지를 따라가서 문위(文緯)를 사사하였으며, 그의 소개로 정구(鄭述)를 찾아가 스승으로 섬겼다.

인조 2년(1624) 광주(廣州)의 우천(牛川)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하여 그의 독특한 전서(篆書)를 완성하였다.

1626년 인조의 생모 계운궁 구씨(啓運宮具氏)의 복상(服喪)문제와 관련하여

유신(儒臣) 박지계(朴知誠)가 원종의 추숭론(追崇論)을 제창하자, 그는 동학의 재임(齎任)으로서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예를 혼란시킨다고 유벌(儒罰)을 가하였다. 이에 인조는 그에게 정거(停擧)를 명하였는데, 뒤에 벌이 풀렸으나 과거를 보지 않고 자봉산에 은거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을 당하여 영동(嶺東)으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강릉·원주를 거쳐 상주에 이르렀으며, 1638년 의령의 모의촌(慕義村)에서 살게 되었다.

1641년 다시 사천으로 옮겼으며, 그 뒤 창원·칠원(漆原) 등지로 전전하다가 1646년 마침내 경기도 연천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음해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상중에 <경례유찬(經禮類纂)>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3년 뒤에는 상례편(喪禮篇)을 완성하였다.

효종 1년(1650) 정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1개월만에 사임하였다. 이듬해 내시교관이 된 뒤 조지서별좌(造紙署別坐)·공조좌랑을 거쳐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57년 공조정랑에 이어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효종을 만나 소를 올려 군덕(君德)과 정폐(政弊)를 논하고 사임을 청하였다. 이에 사복시주부로 옮겼으나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1659년 장령이 되어 군덕을 논하는 소를 올렸으며, 또한 당시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이 주도하는 북벌정책에 신중할 것을 효종에게 간하는 옥궤명(玉几銘)을 지어 바쳤다.

이어 둔전의 폐단을 논하였다. 이해 효종이 죽자 상소로써 상례를 논하였고,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현종 1년(1660) 경연(經筵)에 출입하였고, 다시 장령이 되어 효종에 대한 조대비(趙大妃 : 인조의 繼妃)의 복상기간이 잘못되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소하여 정계에 큰 파문을 던졌는데, 이를 기해복제라 한다. 숙종 1년(1675) 이조참판·비국당상(備局堂上)·귀후서제조(歸厚署提調)를 거쳐 자헌대부(資

憲大夫)에 승진되고, 의정부우참찬 겸 성균관제조로 특진되었다.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승진되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유일(遺逸)로서 삼공(三公)에 올랐다. 이해 덕원(德源)에 유배 중이던 송시열에 대한 처벌문제를 놓고 영의정 허적(許積)의 의견에 맞서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 이로 인하여 남인은 양파로 갈라져 송시열의 처벌에 온건론을 주장하던 탁남(濁南)과 대립,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다.

지덕사(至德祠)의 창건을 건의하고, 체부(體府)·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지패법(紙牌法)·축성(築城) 등을 반대하였으며, 이해 왕으로부터 궤장(几杖)이 하사되었다. 이듬해 차자(笥子)를 올려 치병사(治兵事)·조병거(造兵車) 등 시폐(時弊)를 논하였다. 이해 사임을 아무리 청하여도 허락하지 않아 성묘를 핑계로 고향에 돌아왔으나 대비의 병환소식을 듣고 예궐하였다.

특명으로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이 되었는데 음사(蔭仕)로서 기로소에 든 것은 특례였다.

1677년 비변사를 폐지하고 북벌준비를 위하여 체부를 설치할 것과 재정보전책으로 호포법(戶布法) 실시를 주장하는 윤휴(尹鑄)에 맞서 그 폐(弊)를 논하고 반대하였다. 이듬해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나라에서 집을 지어주자 은거당(恩居堂)이라 명명하였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영의정 허적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양성에 전심하였다.

2. 관련 사건

(1) 복제논쟁

당시 송시열 등 서인(西人)은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맏아들과 중자(衆子)의 구별 없이 조대비는 기년복(基年服：1年喪)을 입어야 한다고 건의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은 의례(儀禮) 주소(註疏)에 의거하여 효종이 체이부정(體而不正), 즉 아들이기는 하지만 맏아들이 아닌 서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기년복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또 종묘의 제사를 주재하여 사실상 맏아들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맏아들에 대한 복으로서 자취삼년(齊衰三年)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복제논쟁의 시비로 정계가 소란하여지자 왕은 그를 삼척부사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썼으며, <척주지(陟州誌)>를 편찬하는 한편, <정체전중설(正體傳重說)>을 지어 삼년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674년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의 복제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조정에서는 대공(大功)으로 9개월복을 정하였으나 대구유생 도신징(都愼徵)의 상소로 다시 기해복제가 거론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맏아들·중자의 구별이 없이 부모는 아들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고 규정하였으나 며느리의 경우 맏며느리는 기년, 중자처는 대공으로 구별하여 규정하였다.

그런데 인선왕후에게 대공복(大功服)을 적용함은 중자처(衆子妻)로 대우함이

고, 따라서 효종을 중자로 보기 때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경국대전>이 아니라 고례(古禮)의 체이부정설이었다.

이는 효종의 복제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새로이 즉위한 왕, 즉 숙종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기해복제가 잘못이라 판정되어 송시열 등 서인은 물리게 되고 그의 견해가 옳았다고 인정되어 대공복을 기년복으로 고치게 되었다. 이로써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의 집권과 더불어 그는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렸고, 병이 나자 숙종은 어의를 보내어 간호하기까지 하였다.

3. 업적

그는 이기론(理氣論)에 있어서 기(氣)는 이(理)에서 나오고 이는 기에서 행하므로 이기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독특한 도해법(圖解法)으로 해설한 <심학도(心學圖)>와 <요순우전수심법도(堯舜禹傳授心法圖)>를 지어 후학들을 교육하였다. 그의 사후 1688년 관작이 회복되고, 숙종은 예장(禮葬)의 명령을 내려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으며, 자손을 등용하도록 하고 문집을 간행하게 하였다.

그림·글씨·문장에 모두 능하였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품으로 삼척의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시흥의 영상이원익비(領相李元翼碑), 과주의 이성중표문(李誠中表文)이 있고, 그림으로 묵죽도(墨竹圖)가 전한다.

1691년 그의 신위(神位)를 봉안하는 사액서원으로 미강서원(蟬江書院)이 마전군(麻田郡)에 세워졌으며 나주의 미천서원(眉川書院), 창원의 회원서원(檜原書院)에도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4. 작 품

여기서는 그가 자찬한 묘지명(墓地銘)을 소개한다.

「자명비(自銘碑)」

늑은이는 허목(許穆)으로 자가 문보(文父)라는 사람이다. 본래는 공암(孔巖) 사람인데 한양(漢陽)의 동쪽 성곽 밑에서 살았다. 늑은이는 눈썹이 길어 눈을 덮으므로 스스로 호를 미수(眉叟)라 하고, 나면서부터 손에 문자(文字) 무늬가 있으므로 또한 스스로 자를 문보라고 했다. 늑은이는 평소에 고문(古文)을 독실하게 좋아하여 일찍이 자봉(紫峰) 산중에 들어가 고문으로 된 공자의 글을 읽었고 늦게야 문장이 이루어졌는데 이 글이 대단히 방사(放肆)하면서도 방탕하지 않았다. 혼자 지내며 내키는 대로 즐기며 마음에 옛사람들이 남긴 교훈을 추구하기 좋아하였고, 평소에 스스로 지키기를 몸에 허물이 적게 하려 하였지만 되지 않았다. 스스로 명(銘)하기를, “말은 행동을 숨기지 못하고 행동은 말을 실천하지 못하며, 한갓 요란하게 성현의 글을 읽기만 좋아했지 하나도 과오를 보완해 가지 못했기에, 돌에다 새겨 뒷사람들이 경계 삼도록 하노라.”하였다.

▶ 저서 : 東事, 邦國王朝禮, 經說, 經禮類纂, 眉叟記言

▶ 문헌 : <顯宗實錄>, <肅宗實錄>

허 반 (許 磐) ? ~ 연산군 4년 (1498)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병(文炳).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성종 14년(1483) 사마시에 합격하고, 음보(蔭補)로 사직서참봉(社稷署參奉)이 되었다. 연산군 4년(1494) 식년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였고, 이해에 <성종실록> 편찬이 시작되면서 사관(史官) 김일손(金駟孫)의 사초(史草)가운데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수록되어 있음이 밝혀져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일손·이목(李穆)·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 등과 함께 참형되었다. 평소에 글재주가 뛰어나고 인품이 단정하여 세칭 무오사화의 오현(五賢)이라 일컬어졌다. 뒤에 신원되었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백 련 (許百鍊) 고종 28년 (1891)~1977

한국화가. 본관은 양천(陽川). 호는 의재(毅齋). 전라남도 진도출생.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다닌 후, 신학문에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와 기호학교(畿湖學校)에 입학하였다가 1913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동경의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법정학을 전공하려다가 그림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일본화단의 활발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으며 고향에서 종고조(從高祖)뻘 되는 19세기의 대화가 허련(許鍊)의 아들인 허형(許滢)에게 묵화의 기초를 익혔던 재질이 전문적인 그림수업을 결심하게 한 것이었다.

동경에 약 6년 간 머무르며 당시 일본의 대표적 남종화가(南宗畫家)였던 고무로(小室翠雲)의 영향을 받아 정통 남종산수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1918년 고향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1922년 서울에 올라와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전통적인 산수화를 출품하여 입상하면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27년까지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고, 그 뒤 전라남도 광주에 정착하여 독자적 화필생활과 문하생 지도에 전념하였다.

그는 같은 세대의 신예들이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근대적 작품을 추구한 것과 달리, 오로지 옛법에 충실한 화격(畵格)을 자신의 세계로 심화시키는 방향을 고수하였다. 그의 산수화와 문인화는 전통 남종화 정신과 그 기법의 철저한 계승이었다.

1938년에는 광주에서 연진회(鍊眞會)를 발족시켜 회관까지 마련하고, 호남지역의 서화 전통을 더욱 떨치게 하려는 노력을 주도하였다. 문인화가 이범재(李範載)와 구철우(具哲祐)는 그때의 제자이다.

그 뒤에도 문하에서金玉振(金玉振)을 비롯한 많은 전통적 산수화가가 배출되었다.

1945년 광복 직후에는 무등산다원(無等山茶園)을 인수하여 축산농장을 경영하면서 화필생활을 병행하였고, 1947년에는 농업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고 가난한 집안의 청소년들에게 농사기술을 익히며 학업도 닦게 하는 등 사회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1949년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國展)가 시작되자 추천작가·초대작가로 추대되고,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1960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되었고, 1962년 문화훈장 문화포장(文化褒章)을 받았다. 또 1966년에는 예술원상 미술부문을 수상하였다. 한시(漢詩)와 고전화론(古典畵論)에 통달하고 서법(書法)도 독특한 경지를 보인 시·서·화 겸전의 전형적 남종화가로서 호남서화계의 상징적 거봉으로 추앙되었다. 1973년에 대규모 회고전이 서울에서 동아일보사에 의하여 개최되었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봉(許 筠) 명종 6년(1551)~선조 21년(1588)

조선 중기의 문인. 자는 미숙(美叔), 호는 하곡(荷谷). 본관은 양천(陽川). 동지중추부사 엽(曄)의 아들이며, 난설헌(蘭雪軒)의 오빠이자 균(筠)의 형이다. 유희춘(柳希春)의 문인이다.

선조 1년(1568)에 생원과, 1572년에 친시문과(親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으며, 1574년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자청하여 명나라에 가서 기행문 <하곡조천기(荷谷朝天記)>를 썼다.

이듬해 이조좌랑이 되었고, 1577년 교리가 되었으며, 1583년 창원부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김효원(金孝元) 등과 동인의 선봉이 되어 서인들과 대립하였다.

1584년 병조판서 이이(李珣)의 직무상 과실을 들어 탄핵하였다가 종성에 유배되었고, 이듬해 풀려났으나 정치에 뜻을 버리고 방랑생활을 하다 38세의 나이로 금강산에서 죽었다.

<조천기>에서 그의 사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바, 뚜렷이 도통사상(道統思想)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성학집요(聖學輯要)>에 큰 관심을 두었고, 양명학으로 무장된 중국학자들과의 담론에서도 주체적 인식으로 그들의 논리를 배척하고 있다.

특히 시인으로 유명하였는데, 그의 시는 청신완려(淸新婉麗)하다는 평을 들었다.

- ▶ 저서 : 荷谷集 · 荷谷粹語 · 海東野言 · 伊山雜述
-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성(許 箴) 명종 3년 (1548)~광해군 4년 (161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공언(功彦), 호는 악록(岳麓)·산전(山前). 엽(曄)의 아들이며, 봉(筍)·균(筠)의 형이고, 난설헌(蘭雪軒)의 오빠이다. 당시 이름난 문장가였으며 유희춘(柳希春)의 문인이다.

선조 1년(1568) 생원이 되고, 158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90년 전적(典籍)으로서 통신사(通信使)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이어 정언·헌납·이조좌랑·응교·사인·집의를 거쳐, 1594년 이조참의로 승진되었으며, 이듬해 대사성·대사간·부제학을 역임하였다. 이어 이조판관을 지내고 전라도안찰사로 나갔다가 예조와 병조의 판서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 이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

1607년 선조의 유교(遺敎)를 받게 되어 세인들이 고명칠신(顧命七臣)이라 칭하게 되었다. 선조 대에 학문과 덕망으로 사람의 촉망을 받았으며,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찬성에 추증되었다.

▶ 저서 : 岳麓集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수 겸 (許守謙) 명종 18년 (156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이옥(而玉)·백형(伯亨). 억부(億富)의 아들이다.

선조 21년(158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을 지내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자로서 왕을 의주까지 호종(扈從)하였다.

1596년 부여현감으로 있을 때 이몽학(李夢鶴)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적이 오기도 전에 겁을 먹고 아랫사람들이 군기(軍器)를 적에게 실어다주었다는 이유로 죄를 입었다.

또, 강진현감이 되었으나 1602년 사헌부에서 징렴(徵斂)을 많이 하고 중망이가법다고 탄핵하여 파직되었다. 병조정랑을 지냈으며, 외임을 주로 하여 공주목사에 이르렀다.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승 소 (許昇所)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양천(陽川). 호는 진관자(眞觀子). 조선 후기의 감식안(鑑識眼)으로 이름 있던 김광국(金光國)이 소장하였던 화첩에 <괴석추화도(怪石秋花圖)>가 함께 꾸며져 있어 확인되었다.

<괴석추화도>는 간일한 아취(雅趣)가 담긴 화격(畵格)을 갖춘 작품이다. 그 밖에도 소담한 필치의 산수·산수인물도 등이 세간에 전한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실 (許 察) 선조 16년 (1583)~인조 3년 (162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종지(宗之). 경상감사 엽(曄)의 손자로, 이조판서 성(箴)의 아들이다.

선조 39년(1606) 생원이 되고, 1608년 세자시강원설서·병조정랑·지제교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광해군 2년(1610) 정언을 거쳐, 1615년 알성시에 급제하였으나 시의(時議)에 구애되어 이듬해 비로소 성환도찰방(成歡道察訪)이 되었다.

1618년 옥사가 일어나 일문이 화를 당하고 사천에 위리안치되었다. 인조반정으로 귀양이 풀려 성주에 우거하며 어머니상을 마쳤으며, 성균관박사에 제수되어서는 사은숙배만 하고 돌아왔다. 이해 다시 경성판관에 제수, 이곳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잘 보살핀 공으로 승서(陞敘)되었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업 (許 曄) 중종 12년 (1517)~선조 13년 (158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태휘(太輝), 호는 초당(草堂). 군자감부봉사 한(瀚)의 아들이며, 봉(筥)·균(筠)의 아버지이다.

진사시를 거쳐 명종 1년(1546)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고, 1551년 부교리를 거쳐 1553년 사가독서한 뒤, 장령으로 있을 때 재물을 탐한 죄로 파직되었다. 1559년 필선으로 서용되고, 이듬해 대사성에 이르렀다.

1562년 지제교를 겸하였을 때 박계현(朴啓賢)과 함께 왕의 소명을 받고 옥취정(玉翠亭)에 들어가 율시(律詩)로 화답하였다. 이해 동부승지로 참찬관이 되어 경연(經筵)에 참석하여 조광조(趙光祖)의 신원을 청하고 허자(許磁)·구수담(具壽聃)의 무죄를 논한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1563년 삼척부사로 서용되었으나 과격한 언론 때문에 다시 파직되었고, 선조 1년(1568)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향약의 설치·시행을 건의하였다. 1575년 부제학을 거쳐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동지중추부사의 한직에 전임되었다가 상주의 객관에서 객사하였다.

어려서 나식(羅湜)에게 <소학>·<근사록> 등을 배웠고,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 학문을 익혔으며, 노수성(盧守成)과 벗하였다. 동·서인(東西人)의 대립 시 김효원(金孝元)과 함께 동인의 영수가 되어 당시 사류의 지도급 인물이 되었다. 벼슬을 30년간이나 지냈으면서 생활이 검소하였다.

<울곡집>에 보면 이론이 모순된 점이 많고 문의(文義)에 잘 통달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이황(李滉)은 학문 토론에 접하여 차라리 학식이 없었다면 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개탄하였다.

박순(朴淳)과는 동문이었으나 당파가 서로 달라 사이가 멀어졌고, 말년에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김정국(金正國)이 찬수한 <경민편(警民編)>을 보충 반포하고, <삼강이륜행실(三綱二倫行實)>의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청백리에 녹선(錄選)되고, 개성의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제향되었다.

▶ 저서 : <草堂集>, <前言往行錄>

▶ 문헌 : <宣祖實錄>,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國朝人物志>

허 완 (許 完) 선조 2년 (1569)~인조 15년 (1637)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자고(子固). 아버지는 증호조참판 허기이며, 어머니는 경산이씨(京山李氏)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기송(記誦)을 잘하고 필법에 능하였으나, 재략(才略)을 좋아하고 사장(詞章)에 얽매이지 않아 당시의 유명한 무인 유비(柳斐)·성우길(成佑吉) 등과 무예를 겨루었다.

선조 26년(1593) 무과에 급제, 남쪽 해변을 지킬 때 이순신(李舜臣)이 보고 장수의 재목이라 하여 특별히 대해주었고, 돌아와서는 선전관·비국랑(備局郎)을 역임하였다.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남평현감이 된 후 도총부도사·경력 등을 거쳐, 단천군수가 되었다.

이때 여진족의 침입을 물리쳐 공을 세우고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 무산진첨절제사에 제수되고, 얼마 뒤 훈련중군·호서수군절도사·호남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는데, 간 데마다 군사들을 사랑하여 신망이 두터웠다. 광해군의 난정을 당하여 9년 동안 은거하고 있다가 인조반정 후 다시 중군에 등용되어 군졸들의 마음을 수습하였다.

외직에 나가 있는 동안 권귀인(權貴人)의 비위를 건드려 파직당하고, 정묘호란 때 다시 중군이 되어 왕을 호종한 공으로 가선대부로 승자, 영남우도절도사 겸 진주목사를 거쳐, 회령도호부사를 지냈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영남좌도절도사로 있던 그는 보병 1만여 명을 이끌고 북진하여 남한산성에 포위당하여 있던 왕을 구하려 하였으나, 광주(廣州) 쌍령(雙嶺)에서 적을 만나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뒤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병조판서에 추증하였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 문헌 : <宣祖實錄>,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國朝人物志>

허 옥 (許 頊) 명종 3년 (1548)~광해군 10년 (16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공신(公愼), 호는 부훤(負暄). 대사헌 항(沆)의 손자이며, 응(凝)의 아들이다.

선조 5년(1572)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현감 때부터 치적을 쌓고 1591년 공주목사가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금강을 굳게 지켜서 호서·호남 지방을 안전하게 하였고, 승장(僧將) 영규(靈圭)를 불러 도내의 승군을 가려 뽑게 하여 장수로 삼아 의병장 조헌(趙憲)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는 데 전공을 세웠다.

1593년 충청도관찰사가 되고, 서울수복을 위하여 군대를 통진(通津)·독산성(禿山城) 등지로 주둔시키다가 도원수 권율(權慄)로부터 내포(內浦)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군량을 변통치 못한다고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곧 이조의 요청과 유성룡(柳成龍)의 추천으로 형조참의에 임명되고, 청량사(淸糧使)로 명나라에 건너가 산둥 지방의 곡식 2만 2700섬을 얻어왔다.

그 뒤 강계부사로서 여진족의 움직임을 정탐하여 보고하고, 의주부윤·평안도 관찰사·병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1604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남은 역대의 실록을 다시 인출(印出)하여 사고(史庫)에 봉안(奉安)할 때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활약하였다.

그 뒤 한성부판윤에 특배(特拜)되었다가 다시 평안도관찰사를 거쳐 호조판서가 되었으며, 1606년 우의정에 올랐고, 이어 좌의정이 되었다.

광해군 1년(1608)에는 유영경(柳永慶)의 일파로 몰려 파직되었고, 이어 능창군(綾昌君) 전(詮)의 추대 사건에 관련되어 광해군 8년(1616) 원주에 부처(付處)되었으며, 1618년 유배지인 원주에서 죽었다. 인조반정 후에 관작이 복구되

었고, 시호는 정목(貞穆)이다.

- ▶ 문헌 : <明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허 원 (許 源) 현종 12년 (1671)~영조 5년 (172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청보(淸甫). 병자호란 때 순절한 경상좌도병마절도사 완(完)의 후손이며, 증승지 호(鎬)의 아들이다. 이세필(李世弼)의 문인이다.

숙종 15년(1689) 19세의 나이로, “쌍령에서 순절한 사람의 후손을 서용하라”는 숙종의 명에 의하여, 순릉참봉(順陵參奉)이 되었고, 금부도사를 거친 뒤 1695년 예안현감이 되었다. 영조 4년(1728) 천안군수로 재임중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 반군(叛軍)이 병사(兵使)를 죽이고 서울로 향하고 있을 때 인근 고을 수령들은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군대를 징발하여 적에 대비하는 한편, 척후를 보내 적정을 염탐하여 보고하였고, 도순문사 오명항(吳命恒)으로부터 운량사(運糧使)에 임명되어 이 난을 진압하는 데 크게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이듬해 청주목사로 승진되었다가 곧 사소한 일에 연좌되어 파면 당한 뒤 죽었다. 1731년 논공행상에서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으로 책봉되고,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유 레 (許惟禮)

조선 초기의 공신. 본관은 양천(陽川). 길주출신. 송도(崇道)의 아들이며, 이시애(李施愛)의 처조카이다.

세조 13년(1467) 5월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자 사옹별좌(司饔別坐)로 있다가 자원하여 훈융절제사(訓戎節制使) 염목(廉睦)의 군관으로 함길도병마절도사 허종(許宗)의 휘하에 속하여 출정하였다.

이때 그의 아버지 송도가 이시애 밑에서 길주권임(吉州權任)으로 있었는데, 이를 설득하라는 허종의 명을 받고 단신으로 길주로 잠입하였다.

한때 정탐꾼으로 몰려 죽을 뻔하였으나 계교로 이시애를 속여 위기를 면하고 아버지를 만나 대의(大義)로써 역(逆)과 순(順)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뒤 적장 이주(李珠)·이운로(李雲露)·황생(黃生)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경성운위원(雲委院)에서 이시애 일당을 체포하여 난을 평정하는 데 결정적 공로를 세웠다.

이 공로로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녹훈되고, 길성군(吉城君)에 봉하여졌으며, 행중추부첨사(行中樞府僉事)에 임명되었으나 길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성종 2년(1471) 정월 상경하였으나 이시애의 여당(與黨)을 숨겨주었다는 혐의를 입고 이듬해 3월 고신(告身)이 몰수되고 공신적(功臣籍)에서 삭제되는 동시에 수원으로 안치되었다.

1474년 4월, 귀양에서 풀려나고 다음해 2월 고신을 돌려받았으며, 1476년 5월 처의 상언(上言)으로 공신전·별사전 등도 돌려받았다. 공조판서에 추증되고 길주의 향사(鄉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효장(孝莊)이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윤 (許 玠) 인조 23년 (1645)~영조 5년 (172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윤옥(允玉), 호는 계주(桂洲). 좌의정 침(琛)의 후손으로, 동지중추부사 설(髙)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현감 유의함(柳宜涵)의 딸이다.

현종 13년(1672)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며, 숙종 9년(1683)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전적을 거쳐, 병조좌랑·전라도사를 지낸 뒤 지평이 되었다. 1687년 노론·소론의 당쟁에서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을 숭앙한다고 소론의 미움을 사서 남인의 거두였던 윤휴(尹鑄)의 당(黨)이라고 지목받아 한때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정승으로 있던 이단하(李端夏)가 그를 변호하여 이천부사(伊川府使)가 되었으나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로 남인이 몰락한 뒤 다시 등용되어 통례(通禮)·예빈시정·풍기군수를 거쳐, 1697년 문과증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고, 안주목사로 부임하였다.

이어 동부승지·병조참의·경주부윤·한성우윤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1719년 병조참판이 되었다. 경종 즉위 후 소론이 신임사화를 일으켜 노론을 축출하고 득세할 때 관직을 박탈당하였으나 영조가 즉위한 뒤 노론이 다시 득세하게 되자, 영조 1년(1725)에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때 신임사화 때 준소(峻少)계열인 박필몽(朴弼夢)을 신임사화의 문제로 탄핵하여 유배시키기도 하였다. 이어 대질(大耋 : 80세 이상 노인)로서 특별히 은전(恩典)을 받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고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청백리로서 이름이 높았다.

시호는 양경(良景)이다.

▶ 문헌 : <肅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허 응 (許 應) ? ~ 태종 11년 (141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개성윤 교(喬)의 아들이다.

공민왕 20년(1371)문과에 급제하여 낭사(郎舍)가 되었고, 공양왕 3년(1391) 시폐를 들어 배불론(排佛論)을 주장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샀다.

그 뒤 좌상시(左常侍)에 보직되어 이성계(李成桂)의 신진세력에 가담하여 시폐를 혁신할 것과 전제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조선이 개국된 뒤 여러 요직을 거쳐 태종 초에는 대사헌이 되어 배불정책을 강경하게 주장하였고, 부녀의 정절을 중시하여 과부의 개가를 금지하자고 주장하였다.

태종 5년(1405) 공안부윤(恭安府尹)으로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뒤에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에 이르러 은퇴하였다. 시호는 경혜(景惠)이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입 (許 任)

조선 중기의 명의(名醫). 본관은 양천(陽川). 악공(樂工) 억복(億福)의 아들이다.

상민 출신으로, 침구술에 뛰어나 선조 때 임금을 치료한 공로로 동반(東班)의 위계(位階)를 받았다. 광해군 4년(1612) 8월에 광해군이 해수에 머물러 있을 때 부터 남으로 내려올 때까지 시종하였으므로 3등공신과 의관록(醫官錄)에 기록되었고, 1616년에는 영평현령(永平縣令)에 이어 양주목사·부평부사를 지냈으며, 1622년 수년 동안 입시수침(入侍授鍼)한 공으로 남양부사에 특제되었다.

▶ 저서 : 鍼灸經驗方, 東醫聞見方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임 극 (許任克) ? ~ 정조 20년 (1796)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인수(仁叟). 수군절도사 정(鼎)의 손자이며, 성(聖)의 아들이다.

조현명(趙顯命)의 추천으로 선전관에 오른 뒤, 영조 46년(1770) 영종진방어사(永宗鎭防禦使)·황해도수군절도사를 거쳐 여주목사가 되었다. 이 때 선정을 베풀어 고을 백성들로부터 그 청덕(淸德)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였으나 환곡미(還穀米)를 남김없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1776년 재기용되어 정주목사로 있을 때 흉년을 당하였는데, “내가 차라리 조정에 죄를 지을지언정 차마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하고 환곡을 모두 풀어 구제한 까닭에 다시 파직당하였다. 그 뒤 김해부사·장단부사·나주토포사(羅州討捕使)·전라좌수사·내금위장 등을 역임한 뒤, 정조 13년(1789) 신설된 장진부를 맡아 개척사업에 공을 세웠다.

이후 회령부사·함경도남병사를 지낸 다음 1795년 금위중군(禁衛中軍)·오위도총부부총관으로 있다가 이듬해 병사하였다. 지방관으로 있을 때 백성을 애호함이 두텁고 죄인을 다름에 있어서도 함부로 하는 예가 없어 주민들로부터 허불(許佛)이라 불렸으며, 40여 년 관직에 있었지만 재물에 뜻이 없어 죽은 뒤 치상(治喪)이 어려울 만큼 청빈하였다 한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자 (許 磁) 연산군 2년 (1496)~명종 6년 (155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남중(南仲), 호는 동애(東崖). 아버지는 의영고영(義盈庫令) 원(瑗)이며, 어머니는 김수온(金粹溫)의 딸이다.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중종 11년(1516) 생원이 되고, 1523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1525년 저작을 거쳐 이듬해 박사·수찬을 역임한 뒤 사가독서하였다. 1531년 부교리가 되고, 응교·사간·검상·전한 등을 역임한 뒤 이조정랑이 되었으나, 1534년 김안로(金安老)가 집권한 뒤 양근군수·황주목사 등으로 외보되었다가 1537년 김안로가 실각당하자 동부승지를 거쳐 병조참지에 올랐다.

이듬해 이조참의를 거쳐, 1539년 충청도관찰사를 지내고, 1541년 형조참판으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에 귀국, 대사헌을 거쳐 예조판서로 승진하였으며 1543년 한성부판윤·형조판서 등을 거쳐 이듬해 우참찬이 되고, 인종 1년(1545)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

이 해에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 호조판서로 전임되었고, 이어 대사헌이 되어 윤원형(尹元衡)·이기(李芑) 등과 함께 소윤으로서 대운 윤임(尹任)을 제거하는 데 가담, 위사공신(衛社功臣) 1등으로 양천군(陽川君)에 봉하여졌으며, 좌참찬 겸 동지경연사를 거쳐 우찬성에 올랐다.

또한, 이듬해 좌찬성에 올랐으나 이기 등 강경파와 대립함으로써 그들의 미움을 받아 한직인 판중추부사로 좌천되었다가 명종 4년(1549)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대운일파의 신원(伸冤)을 주장하다가 유배된 민제인(閔齊仁)의 동생 제영(齊英)을 당진현감으로 임명함으로써 이기의 심복인 진복창(陳復昌)·이무강(李無疆) 등의 탄핵을 받아 홍원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뒤에 홍문관에서 그의 무죄를 상주하자 명종이 관작을 복구시키고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 저서 : <東崖遺稿>

허 잠 (許 潛)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경량(景亮), 호는 한천(寒泉). 생원 초(礎)의 아들이다.

품행이 바르고 어질어 천거에 의하여 관직에 나가기 시작하여 선조 20년(1587) 선공감봉사(繕工監奉事)가 되고, 1595년 성주목사를 거쳐 1597년에는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1601년 다시 외직으로 나가 중화부사·성천부사·개성유수 등을 역임하였는데, 생활이 검소하고 처사가 공정하여 모두가 그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1605년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

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장 생 (許長生) ?~인조 23년 (164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수백(壽伯).

광해군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출하려 하자 폐모론에 반대하는 소를 올려 미움을 샀다. 광해군 7년(1615) 허국(許國)·한명길(韓命吉)·유숙(柳淑) 등과 함께 이원익(李元翼)을 옹호하는 소를 올렸고, 인조 1년(1623) 인조반정으로 광릉참봉(光陵參奉)이 되고 1628년 빙고별제(氷庫別提)를 지내다가 숙환으로 사퇴하였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재 (許 載) 문종 16년 (1062)~안종 22년 (1144)

고려 문신. 자는 수강(壽康), 본관은 공암(孔巖).

말단 관리로 공을 쌓아 칠주방어판관(鐵州防禦判官)이 되었다. 1109년 9주 싸움에 중군녹사(中軍錄事)로 병마부사(兵馬副使) 이관진(李冠珍) 등과 길주성(吉州城)을 여러 달 동안 고수하며 겹성을 쌓아 여진족(女眞族)을 물리쳐 감찰어사(監察御史)에 발탁되고 같은 해 행영병마판관(行營兵馬判官)이 되어

김의원(金義元) 등과 길주성 밖에서 여진족 30여 명을 죽이고 잡단(雜端)에 올랐다.

예종 12년(1117) 차상서병부시랑(借尙書兵部侍郎)으로 동북면병마부사(東北面兵馬副使)가 된 것을 비롯하여 예종 17년(1122)까지 전후 3차례에 걸쳐 동북면·서북면의 병마사로 오랫동안 변경의 수비관으로 여진의 정세를 파악, 변방수비방책을 왕에게 올려 채택되었다. 인종(仁宗) 초에 이자겸(李資謙)·척준경(拓俊京)이 정권을 잡자 그들에게 아부, 인종 2년(1124) 동지추밀원사, 인종 3년(1125)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좌천, 다시 병부상서(兵部尙書)가 되고 이어 치사(致仕)하게 되자 대간의 논핵을 받았으나 마침 서해도안찰사(西海道按察使)가 그의 풍주방어사 재직 당시의 치적을 들어 변호함으로써 호부상서로 치사하고 개부의동삼사검교태위(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가 더해졌다.

▶ 문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韓國人名大事典>

허 쟁 (許 靖) 선조 6년 (1573) ~ 현종 4년 (1663)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탁보(卓甫).

선조 39년(1606) 무과에 급제하고 곧 선전관에 임명되었는데 영창대군(永昌大君)이 강화로 쫓겨갈 때 선전관으로 따라갔다. 이어 절충장군(折衝將軍)·가을파진첨절제사(加乙波鎭僉節制使)를 거쳐 조방장(助防將)으로 승임되어 1년 동안 함흥에 있다가 할머니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광해군 14년(1622) 첨지중추부사, 이듬해 결성병마도위(結城兵馬都尉)를 지

내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 위장(衛將)으로 인조를 따라 강화에 호종하였다.

그 뒤 부산진첨절제사가 되고 1634년 인동도호부사(仁同都護府使)가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내승 겸 선전관으로 왕과 함께 남한산성에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호종의 공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이어 낙안·장흥의 부사를 역임하고, 1641년 어머니상을 당하여 전려(田廬)로 돌아갔다. 독서하다가 고인의 격언을 얻으면 벽 위에 써놓고 반성의 자료로 삼았다.

호종 3년(1652) 자헌대부(資憲大夫), 현종 3년(1662)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적 명종 18년 (1563)~인조 19년 (164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자하(子賀), 호는 수색(水色). 참봉 방(昉)의 아들이다.

선조 21년(1588) 진사시에 합격하고, 1597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99년 북청판관으로 있다가 형장(刑杖)을 남용한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체직되고, 1602년 예조좌랑에서 체직되었다. 1605년 경기좌도경차관(京畿左道敬差官)을 지냈으나 답험(踏驗)의 부정으로 다시 체직되었다가 곧 영천군수를 제수 받고, 1607년 형조정랑이 되었다.

광해군 6년(1614) 호조좌랑을 지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벼슬을 하지 않다가

인조반정 이후 복직되었다. 인조 4년(1626)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로 재직 중 조정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제례를 그릇되게 시행하였다는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나, 1628년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사건에 공을 세워 영사공신(寧社功臣)에 녹훈되고 양릉군(陽陵君)에 봉하여졌다. 이후 판서에까지 올랐다.

▶ 저서 : <水色集>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적 (許 積) 광해군 2년 (1610) ~ 숙종 6년 (168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여차(汝車), 호는 묵재(默齋)·휴옹(休翁). 부사 한(憫)의 아들이다.

인조 11년(1633) 사마시에 합격하고 163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부수찬을 지내고, 1641년 의주부윤으로 관향사(管餉使)를 겸하였다. 1645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며, 1647년 일본사신 다이라(平成辛)를 위법으로 접대하여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기용되어 효종 4년(1653) 호조참판, 1655년 호조판서, 1659년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이해 효종이 죽어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가 일어나자 남인으로서 서인의 기년설(墓年說)에 대하여 3년설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그 뒤 호조·형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현종 3년(1662) 진주부사(陳奏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664년에 우의정이 되었다. 이해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

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와 좌의정을 거쳐, 1671년 영의정이 되었으나 이듬해 송시열(宋時烈)의 논척을 받아 영중추부사로 전임되었다.

숙종 1년(1674) 인선대비(仁宣大妃)가 죽어 자의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일어나자 서인의 대공설(大功說)을 반대하고 기년설을 주장하여 채택됨으로써 다시 영의정에 복직하여 남인정권을 이룩하였다.

그 뒤 집권한 남인 사이에 송시열의 처벌문제로 청남(淸南)·탁남(濁南)으로 분열되자 탁남의 영수가 되어 왕의 신임을 받아 청남을 밀어내고 집권자로 등장하였다.

1676년 사은 겸 진주변무사(謝恩兼陳奏辨誣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오도도 체찰사가 되고, 1678년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하여 상평통보를 주조, 통용하게 하였다. 왕의 신임을 받아 궤장(几杖)이 하사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680년 할아버지 잠(潛)이 시호를 받게 되어 그 축하연을 베풀 때 궁중의 유악(#유21幄)을 함부로 사용하여 대죄하던 중 서자 견(堅)의 모역사건으로 사사(賜死)되었다.

1689년 숙종이 그의 애매한 죽음을 알게 되어 무고한 김익훈(金益勳)·이사명(李師命) 등을 죽이고, 그의 관작을 추복하였다. 식견이 넓고 총명한 재질로서 선왕으로부터 타고(托孤)의 명을 받고 충성을 다하였으며, 수상이 되어 자기에 게 내리는 은사(恩賜)는 친구들에게 돌리고 녹봉으로 친구들을 구제하였다.

일찍이 사헌부에 있을 때에는 당시 이조판서 이경석(李景奭), 병조판서 이시백(李時白)이 인사행정에 부정이 있다고 탄핵,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주청하여 백관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남인으로서 서인의 송시열 등과 가까이 지냈다.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허 전 (許 傳) 정조 21년 (1797)~고종 23년 (188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이로(以老), 호는 성재(性齋). 포천출생. 정언 형(珩)의 아들이다. 황덕길(黃德吉)의 문인으로 성호학파(星湖學派)의 계승자가 되었다.

현종 1년(1835) 39세에 비로소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1840년 기린도찰방(麒麟道察訪), 1844년 전적(典籍)·지평(持平)을 거쳐 1847년에 함평현감으로 나갔다가 철종 1년(1850)에 교리·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춘추관기사관을 역임하였다. 이로부터 경연에 참여하여 국왕에게 유교경전을 해설하는 학자적 관료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1855년에 당상관이 되어 우부승지와 병조참의에 이르렀다.

1862년 진주민란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민란의 소요가 일어났을 때 3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고종 1년(1864) 김해부사에 부임하여 향음주례를 행하고 향약을 강론하여 유도를 크게 일으켰다. 또, 공무의 여가를 이용하여 젊은 선비들을 모아 직접 교육을 하였고,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이어 1876년 정헌대부(正憲大夫), 1886년에는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이르렀다.

이익(李瀾)·안정복(安鼎福)·황덕길을 이은 기호(畿湖)의 남인학자로서 당대유림의 종장(宗匠)이 되어 영남 퇴계학파를 계승한 유치명(柳致明)과 더불어 학문적으로 쌍벽을 이루었다.

그의 사상은 주로 경연에서 경의(經義)와의 관련에서 항상 실심(實心)·실정(實政)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현실에 투철하여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 ▶ 저서 : <性齋集>, <宗堯錄>, <哲命編>
- ▶ 문헌 : <哲宗實錄>, <承政院日記>, <國朝榜目>

허 정 (許 琤) 광해군 13년 (162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중옥(仲玉), 호는 송호(松湖). 예조참판 계(啓)의 아들이다.

참봉으로 효종 2년(165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현종 때 성천부사를 거쳐 승지와 부윤을 역임하였다.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인 복창군(福昌君) 정(楨)과 복평군(福平君) 연의 궁녀와 관계되는 옥사가 있었을 때 그 사건의 전말을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에게 알려주어 김우명으로 하여금 차자(笱子)를 올려서 복창군과 복평군의 죄를 논핵하게 한 협객(俠客)이기도 하다.

시조작품 약간이 전해지며, 특히 창곡(唱曲)에 뛰어났다.

-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종 (許 琮) 세종 16년 (1434)~성종 25년 (1494)

조선 문신. 자는 종경(宗卿)·종지(宗之), 호는 상우당(尙友堂), 본관은 양천(陽川), 재령군수(載寧郡守) 손(蓀)의 아들.

세조 2년(1456) 생원이 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 의영고직장(義盈庫直

長)·통례문봉례랑지제고(通禮門奉禮郎知制誥)를 거쳐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했다. 세조 6년(1460) 평안도도절제사도사(平安道都節制使都事)가 되고, 이듬해 형조도관좌랑(刑曹都官佐郎), 세조 8년(1462) 함길도도사(咸吉道都事)·정언(正言), 이듬해 지평(持平)을 거쳐 직강겸예문관응교(直講兼藝文館應敎)를 역임, 세조 11년(1465) 함길도절도사, 세조 13년(1467) 이시애(李施愛)난이 일어나자 다시 함길도절도사로 난을 평정,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으로 양천군(陽川君)에 피봉됐다.

예종 1년(1469) 평안도 관찰사·대사헌, 이어 전라도 장영기(張永奇)난을 평정하고 병조판서에 승진했다. 성종 2년(1471)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 성종 8년(1477) 예조판서, 건주위(建州衛)의 여진족 침공을 물리치고 우참찬(右參贊)·좌참찬(左參贊)이 되었다. 성종 11년(1481) 호조판서, 이듬해 우찬성(右贊成)이 되고 1483년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임, 이어 이조판서, 양천부원군(陽川府院君)에 봉해졌다.

성종 22년(1491) 영안도관찰사(永安道觀察使)로 있을 때 여진족이 북변을 괴롭히자 북정도원수(北征都元帥)로 군대를 이끌고 적의 본거지를 소탕, 이듬해 개선하고 우의정에 올랐다. 앞서 성종 19년(1488)에는 서거정(徐居正)·노사신(盧思愼) 등과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을 국역하기도 했다. 철저한 배불론자로 세조의 불교 신봉을 반대했다. 성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고 시로는 충정(忠貞)이다.

▶ 저서 : 尙友堂集

▶ 문헌 : <世祖實錄>, <成宗實錄>, <海東名臣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허 준 (許 浚) 명종 1년 (1546)~광해군 7년 (1615)

의학자(醫學者). 본관은 양천(陽川), 양천현 공암리 출생(현 강서구 가양동).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 김포출신. 할아버지 곤(琨)은 무과출신으로 경상도우수사(慶尙道右水使)를 지냈고, 아버지 윤도 무관으로 용천부사를 지냈다.

그런데 허준은 무과에 지원하지 않고 29세인 선조 7년(1574) 의과에 급제하여 의관으로 내의원(內醫院)에 봉직하면서 내의·태의·어의로서 명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동의보감>을 편술하여 우리 나라 의학의 실력을 청나라 및 일본에 까지 과시하였다. 한의학(韓醫學) 중흥의 거봉(巨峰)이자 동양의 의성(醫聖)으로 이름 높았다.

1. 생애와 업적

1575년 2월에 어의로서 명나라의 안광익(安光翼)과 함께 임금의 병에 입진(入診)하여 많은 효과를 보게 하였으며, 1578년 9월에는 내의원첨정으로 당시에 새로 출판된 <신간보주동인유혈침구도경>을 하사받았다.

1581년에 고양생(高陽生)의 원저인 <찬도맥결>을 교정하여 <찬도방론맥결집성> 4권을 편성하여 맥법진단의 원리를 밝혔다.

1587년 10월에 어의로서 태의 양예수(楊禮壽)·이공석·남응명(南應命) 등과 함께 입진하여 상체(上體)가 평복함으로써 호피(虎皮) 일영을 받았으며, 1590년 12월에 왕자의 두창(痘瘡)이 쾌차하였으므로 당상(堂上)의 가자(加資)를 받았다.

이때에 정원(政院)·사헌부·사간원에서 허준의 의료에 관한 공로는 인정하나 의관으로서 당상가자를 받는 것은 지나친 상사라 하여 여러 차례 그 가자를 거두기를 계청(啓請)하였으나, 그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선조 때 전의(典醫)로 발탁되어 왕실의 진료에 많은 공적을 세웠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어의(御醫)로서 왕을 의주(義州)까지 호종(扈從)하여 1604년 충근정랑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 3등에 녹명(錄名)되었다.

선조 29년(1596)에는 왕명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편찬을 유의(儒醫) 정석(鄭碣), 태의(太醫) 양예수(楊禮壽), 김응택(金應鐸), 이명원(李命源), 정예남(鄭禮男) 등과 함께 시작했으나,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한 때 중단되었다가 광해군 5년(1613) 단독으로 완성하였다.

선조 34년(1601) 어의로서 공이 크다고 하여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승자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이 해에는 세조 때에 편찬한 <구급방(救急方)>을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으로 주해하였으며, 임원준(任元濬)의 <창진집(瘡疹集)>을 <두창집요(痘瘡集要)>로 그 이름을 바꾸어 언해, 간행하였다.

선조 39년(1606) 어의로서 오랫동안 시약(侍藥)의 공이 클 뿐 아니라 중요한 의방서(醫方書)들을 편찬하고 왜란 중에는 왕을 끝까지 호종(扈從)한 공으로 양평군(陽平君)에 봉해지고 승록대부(崇祿大夫)에 가자(加資)됨으로써 의인(醫人)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렸다. 이때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에 서는 정1품 보국(報國)의 가자는 조정대신들과 같은 반열(班列)이니 의관에게 이런 중자(重資)를 내림은 명기(名器)를 욕하는 처사이고 중인(中人) 출신에게 당상관의 위계를 줌은 불가하다고 수차에 걸쳐 개정을 요청하였다. 왕은 처음에

는 듣지 않았으나, 그 후에 계속 간언함으로 양평군의 호는 그대로 두고 보국의 가자는 취소하였다.

선조 41년(1608) 선조의 병환이 깊어짐에 수의(首醫)로서 여러 의관들과 계속 시약하였으나 2월 선조가 승하하자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죄로 한때 파직, 유배의 죄를 명했다가 곧 그 명을 회수하였다. 이 해에는 노중례(盧重禮)의 <태산요록(胎産要錄)>을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의서의 국역(國譯)에도 힘써 광해군 4년(1612), 조선 초부터 의과시험의 강서로 사용되던 <찬도맥(纂圖脈)>을 알기 쉽게 교정하여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 4권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소위 당홍역(唐紅疫)이 유행하여 사망자가 점점 많아지자, 그것을 구료하기 위하여 <신찬벽은방> 1권과 <벽역신방> 1권을 편집하여 내의원에서 간행, 반포하게 하였다. 전자인 <신찬벽은방>은 그 전해 12월에 함경도와 강원도 양도에서 온역이 유행하여 남으로 내려와서 각 도에 전파되므로 이미 전해오던 <간이벽은방>을 다시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며, 후자인 <벽역신방>은 그해 12월에 각 지방에서 발진성(發疹性)의 열병인 당독역(唐毒疫)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집하였다. 이러한 의방서들의 편찬은 <동의보감>과 함께 우리나라 명의로서의 관록을 더욱 자랑할 수 있게 하였다.

<동의보감>은 그 당시의 의학지식을 거의 망라한 임상의학의 백과전서로서 내경(內景)·외형(外形)·잡병(雜病)·탕액(湯液)·침구(鍼灸) 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의학실력을 동양 여러 나라에 드러나게 한 동양의학의 보감으로서, 출판된 뒤 곧 일본과 중국에 전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출판되

어 귀중한 한방임상의학서가 되었다. 허준은 <동의보감> 이 외에도 많은 의방서 등을 증보 개편하거나 또는 알기 쉽게 한글로써 해석하여 출판하였다.

1613년 11월에 70세를 일기로 죽게 되자, 호성(扈聖) 공로의 어의로서 선조가 일찍이 보류하였던 부원군과 보국의 가자를 추증하였다. 허준은 의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인 당상의 부군과 보국의 지위를 가졌다.

2. 동의보감의 탁월성

(1) <동의보감>의 체계와 특성

선조 29년(1596) 왕명에 의해 내의원(內醫院)에 편찬국을 두고 허준·양예수(楊禮壽)·이명원(李命源)·정작·김응탁(金應鐸)·정예남(鄭禮男) 등이 한(漢)나라 때에 이미 체계화를 이룬 한의학을 중심으로 동방의학의 총집성과 더불어 민족의학을 정립시키는 대역사(大役事)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년 후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일시 중단되는 곡절이 있었지만, 허준만은 자신의 일생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심하고 집념으로 저술에 임하였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증적 학구의 자세와 명민한 관찰력, 그리고 고전에 대한 해박한 학식을 토대로, 풍부한 임상경험을 살려 기본학리가 임상에 직결되기까지 일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의술의 구체화를 이룩하였다. 그 결과 14년 후인 광해군 2년(1610) 8월 6일 마침내 25권이라는 방대한 의서가 완성되었고, <동의보감>이라 이름 하여 1613년 11월에 개주갑인자로 인쇄, 간행되었다.

이 책은 내과에 관계되는 내경편(內經篇) 4권, 외과에 관한 외형편(外形篇) 4권, 유행성병·급성병·부인과·소아과 등을 합한 잡병편 11권, 약제학·약물학에 관한 탕액편(湯液篇) 3권, 침구편(鍼灸篇) 1권, 목차편 2권, 계 25권으로

되어 있다.

(2) <동의보감>의 편술방법

각 항목에 병증(病症)과 처방의 실질적인 것만을 빠짐없이 선택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출전(出典)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각 병증에 대한 고금의 처방(治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그밖에도 속방(俗方)을 기재하였다.

(3) <동의보감> 편술의 특색

첫째, 도교적(道敎的) 공리(功利)와 실용주의적 사상을 적용하여 정확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그때까지 번잡다기(煩雜多岐)했던 많은 의서의 의술적 통념을 취사선택하여 정수(精髓)만을 골라 의술이론과 임상에 완벽을 기하였다.

둘째, 허준의 의학사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정(精)·기(氣)·신론(神論)에 근본을 두고 내장기(內臟器)의 생리적 기능변조(機能變調)와 그 직접적인 병증을 일괄하여 내경편(내과)에서 새로 다루었으며, 이것은 지금의 정신신체의학과 같다. 즉, 의술의 본의(本義)를 정신수양과 섭생에 두고, 복약과 치료는 2차적 의의라고 하였다. 이것이 <동의보감> 전편의 일관된 중요한 특색으로서 350여 년 전에 현대의학의 선구적인 학설과 치료법이 이미 강구되었다는 사실은 경이적이지 않을 수 없고, <동의보감>이 한방(漢方)이면서도 한방적(韓方的)이라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

셋째, 당약(唐藥 : 중국에서 나는 약재)이 아닌 한국에서 나는 약재를 권장하였으며, 탕액편에 나오는 약물학의 약재는 속명(俗名)을 일일이 한글로 부기하여 채약(採藥)과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각 고방의서(古方醫書)를 고증할 때 인용한 학설이나 처방의 출처를 명시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역설이 아님을 밝혔고, 후학들에게 연구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다섯째, 각 처방약의 용량에 대한 관심인데, 고서에 표시된 것은 용량이 너무 많아 우리 체질에 적당치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오랫동안의 임상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살려 표준용량의 기준을 만들어 적의(適宜) 가감토록 하고, 그 복용방법 까지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의 저작은 환웅유업(桓雄遺業) 이래로 한국적 의학의 우수성과 민족적 재능을 과시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의학계의 뜻있는 학자들 간에 한방(漢方)이 아닌 한방의학(韓方醫學)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술운동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의의를 중요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동의보감>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몇몇 나라에서 번역 출판됨으로써, 세계적인 의서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본서의 저술자인 허준에게는 그 공을 높이 사 사후(死後)에는 ‘보국숭록대부양평군(輔國崇祿大夫陽平君)’이라는 시호(諡號)가 추증(追贈)되었다.

3. 그 밖의 저서

허준의 대표적 저서는 <동의보감(東醫寶鑑)> 이 외에도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決集成)>,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신찬벽은방(新纂癖癰方)>, <벽역신방(癖疫神方)> 등이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맥결집성》

1권 1책. 목판본. 광해군 4년(1612) 내의원(內醫院)에서 간행하였다. 진맥하는 법을 엮은 책으로, 당시 어의(御醫)로 있던 허준이 왕명을 받들어 중국 육조시대, 고양생(高陽生)이 지은 원저를 고증·정정하여 엮은 것이다. 내용은 진맥입식(診脈入式) 및 인체 각 부문의 맥법을 음양오행설에 따라 풀이하였다.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決集成)》

광해군 4년(1612) 허준(許浚)이 선조(宣祖)의 명에 따라 중국 육조(六朝)시대 고양생(高陽生)의 <찬도맥결(纂圖脈訣)>을 교정한 의서(醫書).

보물 제1111호. 1991년 지정. 활자본. 4권 4책.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원래 허준이 교정을 완료하고 발문(跋文)을 쓴 것은 선조 14년(1581)이었으나,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1612년에야 간행되었다. 진맥입식(診脈入式)을 비롯하여 여러 방식의 진맥법과 오장육부(五臟六腑)를 비롯하여 임부(妊婦)·소아병에 이르기까지 각종 병세에 대한 진맥법 등이 항목별로 기술되어 있다. 원래 고양생의 <찬도맥결>이란 중국의 중세 이전의 저명한 의가(醫家)인 희범(希范)·결고(潔古)·통진자(通眞子) 등의 맥론(脈論)을 집대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

선조 41년(1608)에 허준(許浚)이 왕명을 받아 내의원(內醫院)에서 편찬한 책. 1991년 9월 30일 보물 제1088호로 지정되었다. 활자본·목판본이며 2종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세종 16년(1434) 노중례(盧重禮)가 편찬한 <태산요록(胎產要錄)>이 한문으로 쓰여져 부녀가 보기에 어려웠으므로 선조가 허준으로 하여금 이를 개편, 언

해하게 한 것으로, 아이를 갖는 방법부터 임신 중의 여러 증세와 약방문, 출산시의 방위 및 금기일 등에 관한 내용을 편찬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로 간행한 활자본이고, 한독의약박물관본은 활자본을 후대에 복각(覆刻)한 목판본이다. 전자는 1608년에 대사성 김록(金)에게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이며, 후자 역시 내사본이지만 내사기(內賜記) 부분이 결락되어 누구에게 하사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두역(痘疫) 처방에 관한 한의학 서적.

활자본. 2권 1책. 선조 41년(1608) 어의(御醫) 허준(許浚)이 왕명으로 편찬 번역하였다. 책 끝에 있는 허준의 발문에는 임진왜란으로 없어진 <두창집(痘瘡集)>, <태산집(胎産集)>, <구급방(救急方)> 등 세 가지 의서를 다시 엮어 한글로 간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위급한 환자를 구하는 약방문(藥方文)을 한글로 번역한 책.

활자본(活字本). 2권 2책. 세조 12년(1466) 간행. 원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후대 복각본(覆刻本)의 완질(完帙)은 일본에, 상권(上卷)은 서울대학교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에 있는 완질본을 한글학회에서 1975년 영인본으로 간행하였다.

《신찬벽온방(新纂癖癘方)》

활자본. 1책. 광해군 4년(1612) 함경도 지방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전국에 번지

므로 왕명을 받은 허준(許浚)이 그 예방과 치료법을 저술, 이듬해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하였다. 내용은 온역(瘟疫)의 원인을 비롯하여, 맥리(脈理)·형증(形證)·약명(藥名)·치법(治法)·양법(穰法)·벽법(法)·부전염법(不傳染法)·침법(鍼法)·불치증(不治證)·금기(禁忌) 등으로 되어 있다.

《벽역신방(癘疫神方)》

당독역(唐毒疫)이 유행하자 허준(許浚)이 왕명을 받고 저술, 그 해에 내의원(內醫院)에서 간행하였다. 병의 치료법 및 약방문(藥方文) 가운데서 시행하기 쉽고 효험이 큰 것만을 골라 엮은 것으로, 병의 기원·증세에서, 치료·약방문에 이르기까지 간결하고 요령 있게 서술되어 있다. 지금도 한방에서 성홍열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좀 더 살펴보면, 이는 광해군 4년(1612) 가을부터 유행하여 사망자가 많이 생겼던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다시 당독역이 유행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허준이 지은 것이다. 이 당독역은 의서에 병명이나 치료법이 없던 악성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당자가 붙었다. 허준은 병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치료법을 제시하였는데, 탁월한 안목으로 당시 의서에서 없던 이 질병의 증상으로 두통, 신동, 오한, 고열 후의 얼굴과 몸에 붉은 색의 발진이 생기고 정신이 혼미해져 헛소리를 하며, 앓고 난 후에는 머리가 모두 빠지고 열독으로 피부가 말라 벗겨진다고 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성홍열의 증상을 그대로 기술한 것과 같다.

따라서 두진이나 마진과 혼동하기 쉬운 이 병에 대해 1613년 이렇게 정확히 병증과 요법을 기술한 것은 이 책이 세계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세계병리학사상 허준의 업적은 크게 평가받아야 하며 이 책을 통해 조

선의 의학, 특히 전염병학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허준의 이러한 의학지식과 탁월한 견해는 <동의보감>을 편술한 후 더욱 완숙해져, 이러한 <벽역신방>과 같은 매우 탁월한 과학적 의서를 세상에 내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 ▶ 문헌 : <朝鮮名人傳>, <韓國의 人間像 3>,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朝野僉載>, <寄齋史草>, <東醫寶鑑>, <韓國人名大事典>, <京畿人物誌>

허 진 (許 晉) 중종 31년 (1536) ~ ?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경소(景昭), 호는 서교(西橋). 침(琛)의 4대손으로, 현(鉉)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요년(李堯年)의 딸이다.

156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명종 21년(1566) 정언을 거쳐, 장령이 되었으나 병으로 물러나 여주목사로 나갔으나 동래부사 시에 사정(私情)이 있었다 하여 파직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4년 동지사(東使司)로 중국에 들어가서 왜적의 동태를 알리고, 아울러 군수품의 무역을 바라는 정문을 올려 귀국 시에 많은 무기를 교역하고 돌아왔다.

선조 37년(1604) 한성부좌윤을 거쳐, 이듬해 공조참판이 되었다.

광해군 8년(1616) 나이 81세로 품계가 자헌(資憲)에 올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으며, 이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집 (許 輯)

조선 문신. 자는 백화(伯和), 본관은 양천(陽川), 황(堇)의 아들.

성종 14년(1483) 참봉(參奉)으로 문과 급제, 성종 18년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 이듬해 저작(著作)으로 안산(安山)에 암행 수령7사(守令七事)를 안찰했다. 성종 21년(1490) 수찬(修撰)이 되고, 이듬해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가 됐다. 1492년 지평(持平), 이듬해 헌납(獻納), 이어 정랑(正郎)을 거쳐 1494년 장령(掌令)이 되고 승문원교감(承文院校勘)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502년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이어 부제학(副提學)·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이듬해 좌승지(左承旨)·호조참판(戶曹參判)이 되고 천추사(千秋使)로 중국에 사행, 1506년 병조참판에 이어 1508년 자헌계(資憲階)에 올라 사은부가(謝恩副使)로 차출되었으나 신병으로 교체되었다. 뒤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었다. 시호는 정간(靖簡)이다.

▶ 문헌 :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文科榜目>, <陽川郡誌>

허 침 (許 琛) 세종 26년 (1444)~연산군 11년 (1505)

조선 문신. 자는 헌지(獻之), 호는 이현(頤軒), 본관은 양천, 재령군수 손(蓀)의 아들로 종(琮)의 아우이다.

1. 생 애

세조 8년(1462) 진사가 되고, 성종 6년(1475)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로 급제, 감찰(監察)·전적(典籍)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 예문관부수찬(藝文館副修撰)·부교리(副校理)·지평(持平)을 역임했다. 성종 13년(1482) 진현시(進賢試)에 병과로 급제,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 이듬해 보덕(輔德)으로 승진, 당대의 석학 조위(曹偉)·유호인(兪好仁) 등 학자들과 함께 덕행과 학문으로 세자의 총애를 받았다.

성종 20년(1489)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산정(刪定)하고 직제학(直提學)·좌승지(左承旨)를 거쳐 성종 23년(1492) 전라·경상도 관찰사, 대사헌, 예조·호조 참판을 역임, 성종 25년(1494) 이조참판으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 참판을 거쳐 연산군 8년(1502) 이조판서, 이듬해 우참찬, 연산군 10년(1504) 우의정, 이어 좌의정에 올랐다. 앞서 성종이 윤비(尹妃)를 폐하려 할 때 이를 반대했기로 갑자사화(甲子士禍)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학문이 깊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됐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2. 작 품

여기서는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송 노선성 출진 영안도 용 신차소 운 (送盧宣城出鎮永安道用申次韶韻)」
- 영안도(永安道)로 출진(出鎮)하는 노선성(盧宣城)을 보내며, 신차소(申次韶)의 운을 써서

금원(金源 : 금(金)의 별칭)의 여러 성(姓)이 본래 숙신(肅愼) 족속,
 만고의 유풍(流風)이 석노(石柵)를 전하여,
 한 번 변경(邊境)에서 조금만 실의(失意)해도,
 영악한 오랑캐들이 일제히 날뛰네.
 어젯밤에 모두성(旄頭星)이 빛이 땅에 환하더니,
 부하 몇 사람이 박힌 화살을 슬퍼했는가.
 장군이 당당히 천명(天命)을 받들어 토벌하니,
 십만 장병이 다 함께 일어섰네.
 날씬한 교자(轎子)가 말보다도 편안하고,
 구태여 갑옷으로 문관복(文官服)을 바꿀 것도 없이,
 채찍 들어 곧바로 혼동강(混同江)을 건너가서,
 범의 굴로 기어코 범새끼 잡으려 하네.
 상감께서 북경(北境)의 일을 진념(軫念)하사,
 특히 공(公)을 보내어 길잡이로 삼으시니,
 침기(沈機)와 웅단(雄斷)을 하늘이 주신 바라,
 되놈들이 놀라 머리칼이 곤두서네.
 조용히 낮빛과 소리를 움직이지 앓고,
 앉아서 추장(酋長)들을 섬멸하리니,
 지휘하는 능력은 은위(恩威)가 병행(兵行)하고,
 선무(宣撫)엔 따뜻한 은혜를 베풀네.
 돌아오면 꽃바람에 개선거(凱旋歌) 불러,
 구경꾼들 인산인해 이루리로다.

이로부터 금구(金甌)가 길이 온전하리니,
지과(止戈)가 무(武)인 줄 그제야 알리.

▶ 문헌 :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國朝名臣錄>, <韓國人名大事典>

허 필 (許 泌) 숙종 35년 (1709)~영조 37년 (1761)

조선 후기의 학자·서화가.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여정(汝正), 호는 연객(烟客)·초선(草禪)·구도(舊濤). 지평 열(悅)의 증손이다.

영조 11년(1735)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관직을 가지지 않고 학문과 시·서·화에 전념하여 당시에 삼절(三絶)로 불리었다. 이용휴(李用休)가 쓴 허필의 지명(誌銘)에는 청빈하고 소탈한 성격과 문학과 고예술품(古藝術品)을 사랑하는 태도가 잘 묘사되어 있으며, 또한 모든 서체(書體)에 능통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서(篆書)와 예서(隸書)에 뛰어났다고 하였다.

산수·영모 등의 그림을 그렸으며 산수화는 명대(明代) 심주(沈周)의 양식을 따랐다고 한다. 지금 전하는 몇 폭의 그림들은 명대 오파(吳派) 또는 미가(米家) 산수양식의 특징을 보이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남종화라고 할 수 있다.

▶ 저서 : 仙槎唱酬錄, 烟客遺稿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항(許恒) 선조 1년(156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중구(仲久), 호는 고산(孤山). 별좌(別坐) 사익(思益)의 아들이다.

광해군 10년(1618)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상서원직장(尙瑞院直長)으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출을 겪었다. 1620년 사서를 거쳐 문학이 되고,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옥천군수로서 왕을 호위하였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 강화로 왕을 호종(扈從)하였다. 한때 등극사(登極使) 권반(權盼)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었고, 이듬해 가례도감(家禮都監)의 상례(相禮)를 지내고 벼슬이 올라 좌승지가 되었으나 직언으로 왕의 비위를 거슬러 청송부사로 좌천되었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항(許沆) ?~순조 12년(1812)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원숙(元淑). 첨사 수(秀)의 아들이다.

효성이 지극하고 담용(膽勇)이 뛰어나 어릴 때부터 말달리기와 칼쓰기를 좋아하였다. 27세 때 무과에 응시하였는데, 과규(科規)에는 합격하였으나, 방(榜)에는 누락되어 있어 방방(放榜)하던 날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궁중에 뛰어들어갔다가 위사(衛士)에게 붙잡혀 전옥(典獄)에 갇혔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나와 큰 소리로 억울함을 함외(閤外)에서 호소하니,

그 소리가 왕이 거처하는 대내(大內)에까지 들려 왕이 그에게 까닭을 묻고는 그 기백이 장하다 하여 급제를 내리고, 충장장(忠壯將)을 제수하였다.

순조 11년(1811)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자 거우(居憂) 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반도토벌에 앞장섰다. 이 공으로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오르고 우림장(羽林將)에 임명되었으나 전사하였다.

전공으로 통제사에 추증되었으며, 정려되고 정주의 표절사(表節祠)에 배향되었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협 (許 俠) 인조 8년 (1630) ~ 숙종 6년 (168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유중(愉仲). 사헌부감찰 제(稹)의 아들이다.

효종 3년(1652) 생원시에 합격하고, 현종 9년(166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도원찰방(桃源察訪)을 거쳐 1670년 의금부도사·성균전직·사헌부감찰 등을 지냈다. 1671년 예조좌랑을 거쳐 당진현감으로 부임하였는데 임무를 잘 수행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1674년 신령현감으로 나가 피폐한 백성을 구휼하고 노인들을 봉양하며 송사를 잘 처리하여, 이곳 관찰사의 주청으로 왕으로부터 표리(表裏) 1습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 뒤 숙종 6년(1680) 병조좌랑·정랑 등을 지내고, 대간에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병으로 죽었다. 성품이 강직하고 아침을 싫어하였으며, 아랫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형 손 (許亨孫) 세종 9년 (1427)~성종 8년 (1477)

조선 초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川).

유년부터 궁사에 능하여 내금위(內禁衛)에 소속되었으며, 단종 1년(1453)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부사가 되었으며, 세조 1년(1455) 오위행사정(五衛行司正)으로서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어 가자되었다.

1457년 무과증시에 급제하고, 지훈련원사겸선전관(知訓練院事兼宣傳官)이 되고, 1459년 첨지중추원사에 승진하였다. 같은 해 지병조사(知兵曹事)를 겸대하고, 1460년 신숙주(申叔舟)를 도원수로 하여 모련위(毛憐衛) 야인을 정벌할 때에 위장(衛將)으로 출전하여 공훈을 세우고, 철군하여 중추부부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의주목사로 파견되었다.

1463년 의주목사 재직 중에 “사람을 보내어 사냥하게 하다가 야인을 만나 살해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역전(力戰)하지 않고 분궤(奔潰)하였으니 참형에 처하라.”는 의금부의 상계(上啓)로 평안도 창성군에 충군(充軍)되었다가 1466년에 사면되고, 같은 해 무과 등준시(登俊試)에 급제하였다.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친정(親征)이 논의되면서 사자위장(獅子衛將)에 임명되고, 다음해 전라도병마절도사로 파견되었다. 예종 1년(1469) 절도사 재직 중에 징병(徵兵)을 위요하여 군민(軍民)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각되어 파면되었다가, 곧 인아(姻婭)인 병조판서 박중선(朴仲善)에게 의뢰하여 복직되었다가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고, 또다시 중추부사에 복직되었다.

성종 3년(1472)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면서 행첨지중추부사, 1475년경 지중추부사가 되었다가 죽었다. 성품이 강직하였고, 세조의 신임을 받으면서 병

정(兵政)에 기여하였다. 시호는 양안(襄安)이다.

▶ 문헌 : <世祖實錄>, <成宗實錄>, <韓國人名大事典>

허 황 (許 堇)

조선 문신. 자는 자실(子實), 본관은 양천(陽川), 추(樞)의 아들.

세조 14년(1468) 문과 급제하고 성종 4년(1473) 병조정랑(兵曹正郎)을 지내고, 성종 13년(1482) 사헌부 장령(掌令), 이듬해 사간(司諫)이 되어 채수(蔡壽)를 논핵하고 파직, 성종 21년(1490) 다시 사간이 되고 이듬해 사복시정(司僕寺正)·목사(牧使)를 지냈다.

▶ 문헌 : <成宗實錄>, <國朝文科榜目>, <陽川邑誌>

허 후 (許 厚) 선조 21년 (1588)~현종 2년 (166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중경(重卿), 호는 관설(觀雪)·돈계(遯溪)·일휴(逸休). 양천현감 양(亮)의 아들이며, 우의정 목(穆)의 형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인조 1년(1623) 이항복(李恒福)의 천거로 내시교관(內侍敎官)이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의병장 김창일(金昌一)을 도와 공을 세웠고, 난이 끝난 뒤 제용감직장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사도시주부를 거쳐 지평현감이 되었

는데, 내노(內奴)가 인폐를 끼친 바 있어 이들을 엄중히 다스려 숙폐를 일소하였다. 그러나 남살(濫殺)한 죄과로 투옥되었는데, 현민들이 호소하여 풀려나 치악산 돈계 시냇가에 소암(素庵)이라는 정자를 짓고 기거하였다.

1637년 태묘영(太廟令)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가 그 뒤 의성현령, 형조·공조의 좌랑, 은산현감을 역임하고 1644년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좌익위(左翊衛)가 되었다. 인조가 죽자 원주의 관설로 돌아가니 이것으로 호를 정하였다.

효종 5년(1654) 선공감부정에 이어 지평이 되고, 곧 장령에 발탁되었다.

1658년 회양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효종의 장례를 당하여 장악원정이 되었다. 이때 자의대비(慈懿大妃 : 仁祖繼妃)의 복상문제로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서인의 기년설(基年說 : 1년상)에 반대하여 3년상을 주장하였다. 글씨에 능하며 특히 전서(篆書)에 뛰어났다. 원주 도천서원(陶川書院)에 제향되었다.

▶ 저서 : 遯溪集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國朝人物考>

허 휘 (許 徽) 선조 1년 (1568) ~ 효종 3년 (165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휘지(徽之), 호는 퇴암(退菴). 좌의정 침(琛)의 5대손이며, 지중추부사 진(晉)의 아들이다.

선조 40년(1607)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 광해군 8년(1616) 양천현령이 되었

다가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사직하였고, 1623년 인조반정과 함께 다시 등용되어 안성군수·예천군수·이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인조 13년(1635) 동지중추부사에 선임되었다.

이듬해 다시 경주부윤이 되고, 이어 광주목사(廣州牧使)가 되어서는 호란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남한(南漢)의 성보(城堡)를 증축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같은 해 겨울에 그가 예측한 대로 청나라군사가 급히 쳐들어와서 왕과 신하들이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하게 되었으나 그의 선견지명 덕으로 40일 가량 지나도 비축된 군량미가 남은 것이 알려져 왕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광주부윤에 승진되었다.

1638년 지중추부사를 거쳐,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어 한성부판윤·강화유수·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80세가 되는 1647년에는 판중추부사가 되었으며, 1649년 효종의 즉위와 함께 다시 공조판서가 되었다. 성품이 공손하면서 근면하였고, 자신이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권세를 부리지 않았으며 항상 검소하였다 한다. 시호는 익정(翼靖)이다.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國朝人物考>

허 휘(許 彙) 숙종 35년 (170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진경(晋卿). 목사(牧使) 원(源)의 아들이며, 집(集)과 채(采)의 아우이다. 영조 19년(1743)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

제하였으며, 벼슬이 지평(持平)을 거쳐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 문헌 : <한국인물대사전>

허 혼 (許 昕) 중종 38년 (1543) ~ 광해군 14년 (162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경晦(景晦). 아버지는 결성현감 운(雲)이며, 어머니는 감찰 이구정(李龜楨)의 딸이다.

선조 12년(1579) 생원이 되고, 158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감찰·형조좌랑·성균관직강·춘추관편수관을 역임하였다. 이어 경상·평안도도사가 되었을 때 의령현감으로 있던 정인홍(鄭仁弘)이 영송(迎送)에 무례하므로 그가 그 주관한 아전을 벌주니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 뒤 기축옥사 때 정여립(鄭汝立)과 관련이 있다 하여 감옥에 갇혔다가 혐의가 없어 풀려났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평안도도사로 임금을 모시고 의주로 갔는데 왕을 호종한 공으로 절도사가 되었다. 성을 나누어 지켰는데 그는 왕실의 신주(神主)를 관리하였으며, 얼마 뒤 정주목사가 되었다.

1615년 죽주부사(竹州府使)로 임명되었다가 나이가 70이라 하여 체차되었고, 광해군의 폐모론이 일어나자 벼슬을 멀리하였다. 임진왜란의 공으로 공신에 녹훈되었다가 인조반정 후 삭훈되었다.

▶ 문헌 :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홍길주(洪吉周) 정조 10년(1786)~헌종 7년(1841)

학자. 자는 헌중(憲中), 호는 항해(沆海), 본관은 풍산(豊山). 우부승지 인모(仁模)의 아들, 석주(奭周)의 아우. 순조 7년(1807) 생·진 양시에 합격한 뒤 학문에 전심했고 만년인 헌종 6년(1840) 김포군수(金浦郡守)를 역임, 선정을 베풀었다. 벼슬에 뜻이 없어 곧 사퇴했으며 문장에 능했다.

저서인 <표룡을참>은 시문집으로,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되어 있으며 간행 연대와 간행 경위는 알 수 없다. 홍길주의 <현수갑고(峴首甲藁)>·<표룡을참>·<항해병함(沆海丙函)> 등의 문집은 30세 이전, 30~50세까지, 50세 이후의 저작들을 모은 일련의 문집이다. 내용은 잡저·기·전·행장·술·묘지명·묘갈·서(序)·제발·서(書)·진향문·제문·찬·명·송·변려·시·충비기·잡문·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잡저 중의 「위정(爲政)」, 「정본(正本)」, 「도속(導俗)」, 「종선(從善)」 등은 대지(大知)와 대용(大勇)에 기초하여 근본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풍속을 선(善)으로 이끌고자 하는 위정의 핵심과 방향을 논한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말단이 되는 일을 먼저 다스려 이루어지지 않은 뒤에 서서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살피면 근본은 드러나게 되며, 근본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본 점이다. 또, 「관형(寬刑)」, 「제전(制田)」, 「양병(養兵)」 등은 형벌과 토지 및 군사 문제 등 위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서 이상은 모두 통치자의 덕목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김영전(金泳傳)」, 「김운서전(金雲瑞傳)」은 몸을 바쳐 나라에 충성한 인물의 전기를 기록한 것으로서, 피치자로서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드러낸 것이다. 「삼학조례(三學條例)」는 치국의 요체인 인재의 등용문으로서의

과거제도가 경학에 정통한 인재를 등용할 수도, 경제에 빼어난 인재를 등용할 수도 없는 난맥상을 시정하는 방책으로 제시한 과거제도 개선안이다. 그는 여기에서 과거를 경학(經學)·정학(政學)·사학(詞學)의 세부분으로 나눌 것과, 시험 과목과 시험 방법(講製條例), 각 부분별 합격자의 운용(三學入仕之道)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수여방필(睡餘放筆)」, 「수여연필(睡餘演筆)」 등은 당대 학계와 문단의 흐름, 문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글로서, 조선 후기 문학비평사 서술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명리(明理)」, 「명성(明性)」, 「명교(明敎)」 등은 이(理)의 선천성과 성이 이(理)라는 것을 부정하고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기하잡쇄보(幾何雜碎補)」는 <현수잡고>와 <항해병함>에 실려 있는 「기하신설(幾何新說)」과 「호각연례(弧角演例)」 등과 함께 연립방정식의 해법·평방근·입방근의 해법을 설명한 글이다.

- ▶ 저서 : 沆瀣丙函, 표릉을참
- ▶ 문헌 : <淵泉集>, <韓國人名大事典>

홍 대 겸 (洪大謙) 정조 9년 (1787)~헌종 7년 (1841)

자는 공익(公益)이다.

가선대부규장각직제학(嘉善大夫奎章閣提學)에 증직(贈職)되었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마금포리에 있다.

홍 대 협(洪大協) 영조 26년(1750) ~ ?

조선 문신. 자는 화중(和仲), 본관은 남양(南陽), 역(櫟)의 아들로 익에게 입양(入養).

정조 16년(1792) 직장(直長)으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로 급제, 이해 관동위유어사(關東慰諭御史)로 나갔다 돌아와 여러 고을의 폐막(弊瘼)을 복명했다. 정조 17년(1793) 다시 호서안핵어사(湖西按覈御史)로 나가 구순(具純)을 신지도(薪智島)에, 이광섭(李光燮)을 영동현(永同縣)에 귀양 보내고, 충청도 관찰사 이형원(李亨元)을 파직했다. 또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 해서위유어사(海西慰諭御史)로 연안(延安) 등지의 농사 형편을 살펴보고 복명, 이듬해 가자(加資)되고 다시 충청도위유어사가 되었다.

정조 19년(1795) 정언(正言) 민사선(閔師宣)에 의해 탄핵되고, 정조 21년(1797) 정조(正祖)의 비위에 거슬려 승지(承旨)로서 김포군수(金浦郡守)에 좌천되고, 이해 8월 임금의 불려 김포의 폐막을 물었을 때 본군은 민호(民戶)가 1천 호(戶)에 지나지 않는데 군액(軍額)은 1천 7백여 명이나 되니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아뢰었다. 순조 1년(1801) 신유사옥(辛酉邪獄)에 연루, 간원(諫院)의 탄핵을 받고 해남현(海南縣)에 귀양갔다.

▶ 문헌 :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文科榜目>, <金浦郡先生案>

홍 득 우 (洪得禹) 인조 19년 (1641)~숙종 26년 (1700)

조선 문신. 자는 숙범(淑範), 호는 수졸재(守拙齋), 본관은 남양(南陽). 우의정 중보(重普)의 아들.

송준길(宋浚吉)의 문인. 현종 3년(166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음보(蔭補)로 기용, 현종 15년(1674) 통진현감(通津縣監), 숙종 2년(1676) 송준길이 관직을 추탈 당하자 그 부당함을 상소하고 무안(務安)에 유배, 그 해 겨울에 풀려났다. 그 후 장악원(掌樂院)·사복시(司僕寺) 주부(主簿)를 거쳐 병조좌랑(兵曹佐郎)·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숙종 26년(1700)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사망했다. 스승의 무고를 벗기려 일생동안 힘썼고, 수령의 직임을 맡아서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었다.

▶ 문헌 :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通津縣先生案>

홍 무 직 (洪茂績) 선조 10년 (1577)~효종 7년 (1656)

조선 문신.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석(白石), 본관은 남양(南陽), 성혼(成渾)의 문인.

광해군 7년(1615) 생원(生員)으로 이이첨(李爾瞻)이 정조(鄭造)·윤인(尹訥) 등을 사주하여 폐모론이 제기되자 이를 극력 반대하다가 거제(巨濟)에 유배,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통진현감(通津縣監)·창녕현감(昌寧縣監)을 지내고, 지평(持平)·수찬(修撰)을 거쳐 인조 10년(1632) 김제군수(金堤郡守)를

지내고, 인조 15년(1637) 공주목사(公州牧使)·장령(掌令) 등을 역임했다.

이 때 낙당(洛黨)의 영수인 김자점(金自點)의 횡포를 탄핵했다가 한 때 삭직(削職)되고, 사간(司諫)·우승지(右承旨)·병조참판을 거쳐 인조 21년(1643) 대사헌, 이듬해 판결사(判決事)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갔다가 배청파(排淸派)라 하여 정사(正使) 이경여(李敬輿)와 척화파(斥和派)의 대신 김상헌(金尙憲) 등과 함께 억류되었다.

인조 23년(1645)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석방되어 귀국, 대사헌이 되고 이듬해 강빈(姜嬪 : 昭顯世子妃)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강빈을 죽이려면 신을 먼저 죽여 달라.”고 극간하다가 제주에 유배되고, 이듬해 소현세자의 세 아들이 제주도에 유배되자 이들과 격리시키기 위하여 남해로 이배되고, 다시 갑산에 이배되었다. 인조 27년(1649) 전리(田里)로 풀려났다.

이듬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에 기용, 대사헌, 공조·병조·형조판서를 거쳐 효종 3년(1652)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문헌 : <仁祖實錄>, <孝宗實錄>,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通津縣先生案>

홍 선 함 (洪善涵) 숙종 23년 (1697)~영조 34년 (1758)

자는는 경보(慶甫)이다.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통덕랑(通德郎)은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이다. 문관정 5품 상계로 통덕랑 이하는 낭품계로서 사라고도 불렀다. 통덕랑은 향리들의 한품으로서도 중요하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에 자좌(子坐)로 있다.

홍 용 은 (洪龍殷) 영조 9년 (1733)~순조 10년 (1810)

자는 철(撤卿)이고, 초휘(初諱)는 철운(徹運)이다.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을 지냈으며,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증직(贈職)되었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에 있다.

홍 옥 호 (洪旭浩)

조선 유의(儒醫). 홍낙성(洪樂性)의 추천으로 내의원(內醫院)에 들어가 입진(入診)과 의약(議藥)에 참여하고, 정조 18년(1794) 양지현감(陽智縣監)이 되어서는 어사 정동관(鄭東觀)이 흉년에 조세를 감하는 일이 고르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1800년 왕의 병이 위급할 때에 의약하였고, 순조 15년(1815)에도 의약(議藥)에 노고가 있었다 하여 호조참판에 승진되었다.

▶ 문헌 : <正祖實錄>, <純祖實錄>

홍 이 주 (洪以周) 인조 24년 (1655)~영조 8년 (1732)

자는 자구(子九)이다.

숙종 16년(1690)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관지(宣傳官官止) 무장현감(茂長縣監) 등을 지냈으며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무장현감(行茂長縣監) 겸 나주진

영(羅州鎭管) 병마동첨절제도위(兵馬同僉節制都尉)를 지냈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에 미좌(未坐)로 있다.

홍 익 영조 36년(1760)~순조 22년(1822)

자는 사서(士曙)이다. 통정대부규장각직제학(通政大夫奎章閣副提學)에 증직(贈職)되었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 마금포리에 묘좌(卯坐)로 있다.

홍 채(洪 埰) 현종 1년(1835)~1910

자는 호오(好吾)이다.

고종 25년(1888)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 구례현감(求禮縣監)을 지냈다. 가선대부(嘉善大夫) 행(行) 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를 지냈다. 묘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다.

홍 태 후(洪澤厚)

하동군수와 병조참판을 지내다 배일심(排日心)과 독립심(獨立心)이 강해 단발령(斷髮令)에 항의하다 김포시 후평리 당고개 자택으로 낙향(落鄉)하여 후학

에 힘썼다. 묘는 하성면 후평리 당고개에 있다.

▶ 문헌 : <南陽洪氏世譜>

황씨 (黃氏)

열녀.

※ 신씨(愼氏) · 황씨(黃氏) 참조.